

4~6세기 영남 동해안 지역의 문화와 사회

이한상 외 지음 35



• 발간사

동북아역사재단은 독도 문제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8년 8월 재단 산하에 독도연구소를 부설하였습니다. 독도연구소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독도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독도를 우리의 소중한 땅으로 계속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방안이 강구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재단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양한 방안을 통해 독도 문제에 대처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방안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학술적인 연구와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책 제안과 홍보 등 여러 방안의 뿌리가 바로 학술 연구를 통해 산출된 지식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독도를 올바르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독도만을 연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도의 주도인 울릉도, 나아가 울릉도와 독도를 중심으로 한 동해안 지역의 각종 인간 활동과 역사를 심도있게 연구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독도가 주변의 인간 활동과 고립되어 존재하는 단순한 점상의 도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갖고 2008년부터 독도의 모험이자, 독도와 그 근해의 자원을 고대부터 활용하여 왔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던 울릉도의 고대 유적을 고고학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여 왔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는 울릉도·독도와 관련된 동해안 지역의 역사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 의식과 장기적이면서도 넓은 시각에서 기획된 것입니다. 울릉도·독도는 고대부터 우리의 소중한 땅이었는데, 이 땅을 우리의 땅이자 역사문화적 공간으로 만드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동해안에 거주하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 한반도 동해안 지역의 고대 역사문화에 대해서는 생각만큼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이번의 영남 동해안 지역의 고대 문화와 사회에 대한 연구를 필두로 하여 장차 영동과 함경도 동해안 지역의 해양 활동을 포함한 고대 역사문화를 시리즈로 조사 연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책은 동북아역사재단이 역사·고고학적인 측면에서 독도와 관련한 학술적인 원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으로 기획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중한 기획연구서를 기획하고 집필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특별히 치하하고자 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정재정

책머리에 9

● **영남 동해안 지역의 신라 토기문화** 이한상

I. 머리말	25
II. 연구의 대상 및 방법	27
III. 울산권역의 신라 토기문화	31
1_ 고분군의 분포	31
2_ 신라 토기문화의 수용 양상	34
IV. 포항권역의 신라 토기문화	51
1_ 고분군의 분포	51
2_ 신라 토기문화의 수용 양상	55
V. 영덕·울진권역의 신라 토기문화	68
1_ 고분군의 분포	68
2_ 신라 토기문화의 수용 양상	70
VI. 맺음말	76

● **영남 동해안 지역의 삼국시대 고분문화** 홍보식

I. 머리말	87
II. 지역별 고분군의 분포와 특징	88
1_ 분포	88
2_ 지역별 고분의 특징	94
III. 영남 동해안 지역 묘제의 특징	113
1_ 목곽묘	113
2_ 유사적석목곽묘	118
3_ 수혈식석곽	122

4_ 횡혈식석실	124
IV. 맺음말	128
• 영남 동해안 지역의 농경 및 어로 문화 <small>김재홍</small>	
I. 머리말	137
II. 농기구와 어구의 자료 분석	140
1_ 농기구	140
2_ 어구	152
III. 농기구와 어구의 부장 양상	164
1_ 무기류+농구류+어구류	164
2_ 무구류+농구류+어구류	170
3_ 무기류+농구류	171
4_ 무기류+어구류	171
5_ 농구류	172
6_ 어구류	172
IV. 생업경제사적 의의	173
V. 포구를 장악한 수장, 해적	178
VI. 맺음말	183
• 신라 철제 무기로 본 동해안 고분 축조 집단의 군사적 성격 <small>우병철</small>	
I. 머리말	191
II. 신라의 무기체계 검토	192
1_ 영남지방 철제 무기류의 출현과 변천	192
2_ 신라의 철제 무기체계 성립과 확산	211

Ⅲ. 동해안 지역의 무기체계와 군사적 성격	220
1_ 동해안 지역별 무기체계와 군사적 기능	221
2_ 동해안 지역의 군사적 성격과 역할	240
Ⅳ. 맺음말	243

• 4~6세기 신라의 동해안 지역 진출과 지방 지배방식 홍승우

I. 머리말	251
II. 신라의 동해안 지역 진출 시기와 과정	253
1_ 포항 방면으로의 진출	253
2_ 울진 방면으로의 진출	270
III. 6세기 신라 지방 지배방식의 변화	281
IV. 맺음말	298

찾아보기	305
------	-----

• 책머리에

이 책을 기획하면서 우리는 한국사에서 동해(東海)와 울릉도(鬱陵島)가 어떤 의미를 지녔고 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왔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조건이 우리 역사의 진전에 큰 영향을 미쳐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반도에서 가장 긴 해안을 가진 동해, 그 속에 절해고도로 자리 잡은 울릉도 역시 한국문화의 형성과 전개 과정에서 중핵으로 기능해왔다.¹⁾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길쭉한 반도이며 반도의 동쪽에는 남북으로 태백산맥이 우뚝 솟아 있다. 이러한 지형 조건은 국내 각 지역 사이의 교류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동해와 울릉도는 그러한 제약 가운데 많은 부분을 해소해주었다. 원격지에 거주하던 사람과 사람을 소통시키고 물류를 증진시켜 동서와 남북을 하나로 묶어줌으로써 우리 문화의 원형이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평가는 다분히 원론적이고 피상적인 느낌을 준다. 이유는 이 지역에 대한 학계의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그것은 당연히 자료의 부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고대사회에 한정하여 보면, 이 지역에 관한 사서(史書)의 기록은 동해안 지

1) 전근대 시기 동해안지역사의 전개와 지역민의 동향은 다음의 책에 잘 정리되어 있다.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2005), 『전근대 동해안 지역사회의 운용과 양상』, 경인문화사.

역의 특산물, 고구려와 신라의 전쟁, 왜인의 약탈에 관한 내용을 전할 뿐이다. 그렇지만 울진봉평신라비(蔚珍鳳坪新羅碑), 영일냉수리신라비(迎日冷水里新羅碑)에 이어 최근 포항중성리신라비(浦項中城里新羅碑)가 발견되면서 동해안 지역의 고대사회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다시 제고되고 있으며,²⁾ 더불어 동해와 울릉도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와 발굴 조사가 진행되어 중요한 자료를 다수 확보하였다.³⁾ 우리는 이러한 자료들을 잘 정리하고 분석하면 이 지역 역사와 문화의 한 단면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힘입어 이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책에서 동해와 울릉도의 역사와 문화를 통시대적으로 다룰 수는 없었다. 이러한 연구는 단기간에 완료할 수 없고, 더 많은 인력이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 성과를 축적한 이후에야 그것을 종합하는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책에서 다루는 공간 및 시간적인 범위를 제한하였다. 공간적으로는 영남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그것은 강원 동해안 지역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비해 영남 동해안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함에 기인하며, 더욱 세밀한 검토를 위하여 대상 범위를 좁혀보고자 함이다. 또한 울릉도의 경우 최근 다양한 관점을 지닌 연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았

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2009), 『포항 중성리신라비 발견기념학술심포지엄 자료집』; 포항정신문화연구원·한국고대사학회(2009), 『신발견 포항 중성리 신라비에 대한 역사적 고찰』, 포항시.

3) 최근 동해안 곳곳에도 개발의 바람이 불어 도로의 건설, 아파트단지의 신축과 관련한 발굴 조사가 다수 이루어진 바 있다. 울릉도의 경우 지난 몇 년 사이에 수차례에 걸친 정밀 지표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가 울릉도의 지역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오강원(2009), 「고고학을 통해 본 삼국-통일신라시대 울릉도의 취락경관과 역내의 교통망 및 생업경제」, 『독도문제의 학제적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다. 시간적으로는 삼국시대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이유는 근래의 발굴 자료 대부분이 이 시기에 집중되고 있고 그간 출토된 금석문 자료 역시 6세기의 사회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우리는 삼국시대 동해안 지역 주민에 대하여 특히 관심을 기울여 보려 하였다. 고고학 자료나 금석문 자료에는 그 자료를 남기고 또 그 자료에 연관된 지역 사람들의 모습이 잘 남아 있다. 그런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다만 동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이 지역 사람들의 입장에 대한 배려가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역민의 입장을 고려하면 더욱 새로운 연구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 책은 다섯 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각 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소재에는 차이가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4~6세기 영남 동해안 지역 사람들의 삶을 해명하려는 연구의 목적은 동일하다. 더하여 그러한 자료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이 지역사회와 국가의 관계도 살펴보았다. 이하 각 논문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고, 공동연구를 통하여 인지할 수 있었던 삼국시대 영남 동해안지역사의 큰 흐름을 정리해 보려 한다.

「영남 동해안 지역의 신라 토기문화」(이한상)는 영남 동해안 지역의 고고자료 가운데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토기에 대하여 분석한 글이다. 최근 한반도 동해안 지역에서 많은 수의 고분군이 연이어 발굴되면서 이 지역 고분군에서 출토되는 삼국시대 토기가 경주지역의 신라 토기와 매우 흡사하며 상호 간에 양식변화(樣式變化)를 함께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⁴⁾ 이 글에서는 최근

4) 이상수(2002), 「영동지방 고분의 분포양상과 그 성격」, 『삼국의 접점을 찾아서』, 제28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요지, 한국상고사학회; 권용대 외(2005), 「울산 지역의 고분문화」, 『발굴사례연구논문집』 2, 한국문화재조사연구전문기관협회; 이성주·강선욱(2009), 「초당동유적에서 본 강릉지역의 신라화 과정」, 『주요 유적 종합보고

의 발굴성과를 집성하여 봄으로써 영남 동해안 지역의 신라 토기문화가 어떠한 특색을 지녔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각 고분군에서 출토된 신라양식 토기를 편년하고 그 편년안에 기준하여 각 지역에 언제쯤 신라 토기가 등장하는지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울산과 포항 지역에 신라 토기가 등장하는 것은 5세기를 전후한 시기이고, 더 북쪽에 위치한 영덕과 울진 지역의 경우 5세기 중엽 이후임을 알 수 있었다. 5세기는 신라의 중심지인 경주에서도 이제 막 신라양식 토기문화가 발현되던 시점이다. 이 무렵에 신라양식의 토기문화가 바로 울산과 포항권역에 파급되었으며 차츰 공간적 범위를 넓혀 간 것으로 이해된다.

이 중 울산과 포항 지역의 토기는 정조(精粗)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마치 동일한 토기 생산체제에 편입된 것처럼 경주지역 토기와 유사하다. 경주의 양식 변화가 바로 울산과 포항 지역으로 전해진 것이다. 이에 비하여 영덕·울진 지역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영덕 괴시리 16호분이나 덕신리고분군 출토 토기는 경주지역 토기를 모방한 것이 다수이나 각 토기 사이에 제작기술의 제일성(齊一性)이 현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5세기를 전후한 시기의 신라 토기가 어느 지역에 분포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을 확인하였다. 즉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조영된 고분군은 포항이나 울산항으로 가는 교통의 요지나 바닷가에 분포하며, 이곳에서 출토되는 토기 가운데는 경주산 토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경주지역 토기와 유사한 것이 일정한 비율을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5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신라가 왕도의 방비를 강화하고 왕도 인접지역에 대한 지배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 이 지역의 여러 세력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서 I 강릉 초당동유적』,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을 진행한 결과인 것으로 추정해 보았다. 이러한 결론은 제VI장의 검토 결과에서도 도출되고 있다.

「영남 동해안 지역의 삼국시대 고분문화」(홍보식)에서는 영남 동해안 지역의 삼국시대 고분이 지역적으로 어떻게 분포하는지, 그리고 단위 고분군마다 묘제(墓制)와 장제(葬制)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영남 동해안 지역에서 고분이 밀집한 곳은 포항시 흥해읍의 초곡천변과 영일만으로 흘러드는 냉천의 북안, 울산의 회야강 하류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목곽묘, 유사적석목곽묘, 수혈식석곽묘, 횡구식석실묘, 횡혈식석실묘 등의 묘제가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신라 왕도 경주의 전형적인 묘제인 적석목곽묘를 모방한 무덤, 즉 유사적석목곽묘가 존재하는 점이 눈에 띈다. 이러한 묘제는 이 지역과 신라 중앙의 관계가 매우 밀접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 아울러 무덤의 길이가 매우 길쭉한 목곽묘(세장방형 목곽묘)에서는 투구와 갑옷 등 철기가 다량 출토되었는데 이 자료 또한 같은 시기 경주지역의 사례와 유사도가 높으므로 이 역시 신라 중앙의 문화가 주변지역으로 넓게 확산되면서 생겨난 것으로 이해하였다.

목곽묘에 후속하는 묘제는 수혈식석곽묘이다. 5세기 후반쯤부터 동해안 각지의 유력자들은 목곽묘 대신 수혈식석곽묘를 묘제로 채용하였다. 영남 남해안이나 영남 내륙지역에 비하여 시기적으로 늦고 무덤의 규모 역시 훨씬 작아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것은 5세기 후반 이후 동해안 지역에 존재했던 여러 세력의 위상이 이전 시기에 비하여 낮아졌음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파악하였다.

이처럼 수혈식석곽묘가 등장하였지만 무덤의 상부에 다량의 흙을 다져 올려 거대한 봉분을 만든 고총(高塚)은 동해안 지역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영

덕 괴시리고분군 정도가 확인되었을 뿐이다. 이는 같은 시기 경산, 대구, 양산, 창녕, 의성 등 영남 내륙지역의 경우와 큰 대조를 보이는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영남 동해안 지역의 농경 및 어로 문화」(김재홍)는 영남 동해안 지역의 삼국 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철제 농기구와 어구를 분석한 다음 이를 토대로 당시의 생업경제를 복원해본 글이다.

고분 출토 자료로 보면 영남 동해안 지역의 주요한 농기구로는 따비, U자형 쇠날, 쇠스랑, 살포, 호미, 팽이, 낫이 있고, 아직 우경(牛耕)의 도구인 쟁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계단식 논이 발굴된 바 있으므로 쟁기 농사의 가능성이 높음을 언급하였다. 이 지역 철제 농기구는 종류와 형태로 보아 신라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며, 이 점은 이 지역이 신라의 영역에 편입되어 있었음을 기술한 역사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 현상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 지역의 농기구가 기경구(起耕具), 마전구(摩田具), 제초구(除草具), 수확구(收穫具)로 구성되어 있고 논에 물을 댈 때 사용하는 살포의 출토 사례도 있는 것에 비추어 이 지역에서는 같이(起耩)-삶기(摩田)-김매기(除草)-걷기(收穫) 작업이 일관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이 지역에서 출토된 어구는 낚싯바늘, 이지창(二枝槍), 작살, 낫대, 조세, 어망추 등이다. 이들 어구는 기능에 따라 어망추의 어망구(漁網具), 낚싯바늘의 조어구(釣魚具), 작살과 이지창의 자돌구(刺突具), 낫대의 채조구(採藻具), 조세의 채패구(採貝具)로 나눌 수 있다. 비록 어구의 출토 수량은 적으나 다양한 기능을 가진 어구가 출토되었음을 주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어구들이 발견된 고분은 항구 주변에 위치하며 고분에서는 대체적으로 무기와 농구, 어구가 함께 출토되고 있다. 이는 항구를 장악하고 있던 해안가의 수장(首長)들이 농경과 어업을 장악하고 주변지역과 폭넓은 상호교류를

지향하였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 세력은 문헌 기록의 해척(海尺)이며 이들은 신라에 편입되면서 신라의 관인으로 전신한 것으로 추론하였다.

「신라 철제 무기로 본 동해안 고분 축조 집단의 군사적 성격」(우병철)은 영남 동해안 지역의 삼국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철제 무기를 분석해 봄으로써 이 시기 동해안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과 이들을 지배하려 하였던 신라 중앙 사이의 관계가 어떠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한 글이다.

논의의 전제로 신라의 무기체계 전반에 대하여 먼저 검토하였다. 그것은 당시 무기의 제작과 소유의 중심이 신라의 왕도 경주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신라가 고대국가로 성장하면서 철기의 생산을 독점하고 주변 세력에게 필요에 따라 사여한 것으로 보았다.

이 시기의 영남 동해안 지역에서 발굴된 고분군의 철기 부장 양상을 검토하면서 무기에 기준하여 본 결과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첫째, 무기가 거의 출토되지 않고 일상생활용 철기만을 부장한 고분군이 있다. 둘째, 무기의 부장은 이루어지지만 고분군의 규모가 경주나 그 인접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이다. 셋째, 신라의 왕도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무덤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무기가 많이 부장되어 있는 예이다. 이러한 세 유형 가운데 두 번째 유형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즉 신라의 왕도인 경주지역은 동해안에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왕도를 방위하려면 해안가의 여러 지역에 방어체계를 수립해야 했을 것이고 아울러 각지에 현지 세력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둘째 유형의 고분군이 축조되고 경주에서 제작된 무기의 부장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동해안 지역의 고분군은 기본적으로 축조의 연속성을 지니지만 무

기의 부장 양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그것은 때에 따라 신라 중앙에서 중요시하는 지역이 변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하였다.

「4~6세기 신라의 동해안 지역 진출과 지방 지배방식」(홍승우)은 역사기록을 중심으로 4~6세기의 신라가 영남 동해안 각지로 진출하면서 영역화하는 과정과 그 지역을 어떻게 지배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 글이다.

신라는 3세기 중엽 이후 영남 동해안 방면으로 진출하였는데 울산 → 포항 → 울진으로 세력을 넓혀간 것 같다. 당시 신라는 이들 지역을 직접적으로 지배하지는 않았고 소국 수장층을 매개로 하는 간접 지배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지배방식은 5세기까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5세기 무렵 고구려가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신라의 지배력은 급격히 약화되었으며 5세기 말에는 이 지역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여건을 타개하기 위하여 신라는 백제, 가야와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고구려와 대결하였으며 6세기 초에 다시 울진·삼척 지역까지 회복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동해안 지역의 패권을 둘러싸고 고구려와 쟁패를 벌인 것이 신라의 지방 지배방식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6세기 초의 여러 금석문에 의하면 신라는 고구려와의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차지한 영역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하여 기존의 간접 지배, 즉 거점 지배방식에서 벗어나 지방관을 파견하여 직접 지배, 즉 영역지배를 관철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지방에 대한 지배체제가 확립되면서 신라는 울령을 반포하여 전 영토와 영토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제도를 적용하여 다스리는 중앙집권적이며 영역적인 고대국가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영남 동해안 지역에 대한 신라의 지배방식에서 신라의 성장 과정이 잘 드러나는데, 그것은 이 지역이 신라 국가발전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기 때문으로 추정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연구 성과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삼국시대 영남 동해안 지역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었던 것 같다. 영남 동해안 지역에 소국이 형성된 것은 2세기 무렵이었다.⁵⁾ 『삼국지』나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여러 소국 가운데 우유국(優由國), 음즙벌국(音汁伐國), 우시산국(于尸山國)이 영남 동해안 지역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음즙벌국과 우시산국의 경우 지배층의 고분군이 발굴된 바 있으니 바로 포항 옥성리고분군과 울산의 하대고분군이 그것이다. 두 고분군의 상한 연대는 2세기 중엽쯤이다. 이 두 고분군은 같은 시기의 여타 고분군에 비하여 탁월한 규모의 고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고분에는 다량의 철기가 많이 부장되어 있다. 또한 하대고분군에서는 한(漢)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동정(銅鼎)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이 지역에 소국이 형성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동해바다를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당시 바다는 풍부한 수산자원의 보고였을 뿐만 아니라 원격지의 사람들이 소통하고 서로의 특산물을 교환하고자 할 때 중요한 교통로도 되었다. 이 시기의 각 소국은 자신들의 강역(疆域)을 확보한 채 독립적인 세력을 유지하였던 것 같다.⁶⁾ 인접한 강원 동해안 지역의 경우 강릉 강문동유적에서 야요이토기[彌生土器]가, 초당동유적에서는 오수전(五銖錢)이, 안인리유적이나 송정동유적에서는 낙랑계토기(樂浪系土器)가 각각 출토되었다. 이는 이 무렵 동해안 소국들이 폭넓은 대외교류활동을 전개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활동의

-
- 5) 울릉도의 경우 언제쯤 철기문화가 시작되어 청동기문화를 대체하였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사서에 于山國이라는 국명이 전하고 있으므로 시기적으로는 동해안 지역의 소국에 비하여 늦을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인 과정을 유사했으리라 짐작된다.
 - 6) 『삼국사기』, 「신라본기」 파사이사금 23년조(102년)에 따르면 음즙벌국과 실직곡국이 강역을 둘러싸고 다투다 신라왕에게 해결을 요청하니 金官國의 수로왕에게 부탁하여 중재하였다고 한다. 이 기록의 기년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이 시기에 강역을 두고 다툰 이유는 그곳에서 산출되는 물산 또는 교역권 때문이었을 것이다.

기저에는 바다와 바닷길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강원 동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영남 동해안 지역의 소국 역시 영역 국가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 인접해 있던 고구려와 신라 등 상대적으로 우월한 소국이 고대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동해안 지역을 우선적으로 복속하였기 때문인 것 같다. 그것은 고구려와 신라가 이 지역을 장악함으로써 풍부한 해산물을 수취하고 제해권(制海權)을 확보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영역국가로 발돋움하려면 철광산(鐵鑛山)을 개발하여 안정적으로 철기를 생산하고 상비군을 편제하여 운영하며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막대한 수취원(收取源)을 확보해야 하지만, 동해안 소국의 경우 그렇지 못하였던 것 같다.

고고학 자료를 통해 볼 때 3세기~4세기, 4세기~5세기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보인다. 4세기가 되면서 하대고분군이나 옥성리고분군 등 앞 시기 지역 중심고분군의 위상에 큰 변화가 생긴다. 즉 더 이상의 대형 무덤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아마도 신라는 이 시기 이후 기존의 소국적 기반을 완전히 해체하고 이 지역사회를 재편하여 적극적으로 통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5세기가 되면 앞 시기와 달리 신라 토기를 부장한 고분군이 급격히 늘어난다. 물론 울산과 포항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동해안을 따라가면서 일정한 거리마다 고분군이 축조된다. 이것은 동해안 각지에 다양한 세력이 스스로 성장한 때문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당시의 여러 정황으로 본다면 신라 중앙의 지원이 중요한 성장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한편으로 지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지배하여 국가경영에 활용하려는 신라의 정책적 고려가 고고학 자료에 드러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그러한 지원은 영남 내륙지역의 경우처럼 고층이 조영될 정도로 특정 세력에게 집중적으로 하는 양상이 아니었다. 이 시기 신라는 지방을 지배하면서 지역의 자율성

을 최대한 인정하고 지방사회를 유지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⁷⁾ 그러나 영남 동해안 지역 가운데 울산과 포항 일원의 경우 이러한 지배방식의 예외지로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6세기의 고고자료는 5세기 후반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추가장을 전제로 한 횡구·횡혈식석실묘가 축조되고 무덤 속에 유물을 매우 적게 넣는 박장(薄葬)풍습이 유행한 점은 다르다. 이 시기의 고고학적 양상은 영남 동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신라 전역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제일성은 곧 신라의 지방 지배력이 급격히 강화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사정은 영남 동해안 지역에서 발견된 금석문에도 잘 드러나 있다. 울진봉평신라비의 내용처럼 중앙의 지배에 반기를 들었다가 집단적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고, 영일냉수리신라비와 포항중성리신라비의 기록처럼 재물을 둘러싸고 주민들끼리 다툼을 벌이자 국가가 관여하여 판결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처럼 삼국시대 영남 동해안 지역의 경우 철기문화를 기반으로 곳곳에서 소국이 형성되었으나 곧 신라에 복속되었고, 초기에는 자율성을 지녔지만 차츰 신라에 의하여 자율성이 규제되어 나가다가 끝내 직접적인 지배를 받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의 입장에서 보면 영남 동해안 지역은 국가의 경영에 매우 중요한 수취원이자 국경지대이고, 또 대외로 진출하려 할 때 주요한 교통로이므로 신라는 영남 내륙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강고한 지배를 실시하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고총을 축조하는 지방세력의 존재를 용인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

고분문화에 드러난 양상을 통해 보면 영남 동해안 주민들은 비록 강력한

7) 주보돈(2007), 「신라 상고기의 지방통치체제」, 『한국고대사연구의 새동향』, 서경문화사 ; 이희준(2007), 『신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구심점이 될 만한 세력으로 성장하는 데 제약을 받았지만 포구 주변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바다를 기반으로 일정한 부를 축적한 것 같다. 6세기 무렵에는 ‘재(財)’를 둘러싸고 쟁송을 벌일 정도로 사회분화가 진전되었다. 그들 가운데 해척(海尺)처럼 관인으로 변신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현지에서 기왕의 기반을 이용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세기 전반까지 왕경인들이 동해안 주민을 ‘노인(奴人)’, 즉 집단예민(集團隸民)으로 인식⁸⁾하였다는 금석문 기록을 통해 주민들이 처해 있었던 사회적 위상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끝으로, 이 책은 다섯 편의 글을 편집한 것이므로 일부 내용은 중복될 수도 있고 연구자마다 도출한 결론에서 다소 상치되는 부분이 발견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각 연구마다 중점적인 검토 대상으로 삼은 자료가 달라서 생겨난 차이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은 이 책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개별적인 연구를 모아 보았을 때 드러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인식하고, 왜 그러한 차이가 생겼는지에 대해 앞으로 검토하여 보는 것도 향후 연구의 진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책을 준비하는 동안 줄곧 동해안 지역의 고분문화나 신라의 지방 지배 방식에 관한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생각을 하였다. 향후 이 책과 같은 기초적인 연구 성과가 하나 둘씩 축적되어 나간다면 머지않아 고대사회의 동해안 지역문화는 어떠한 특징을 지녔고,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낸 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는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삼국시대 영남 동해안 지역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싶다. 이 작은 책이

8) 노태돈(1989), 「울진봉평신라비와 신라의 관등제」, 『한국고대사연구』 2, 한국고대사학회.

출간되기까지 함께 토론하고 또 힘이 되어준 공동연구자들과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북아역사재단의 오강원 선생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2009년 10월 12일

필자를 대표하여 이 한 상



영남 동해안 지역의 신라 토기문화

대전대학교 이한상

- I. 머리말
- II. 연구의 대상 및 방법
- III. 울산권역의 신라 토기문화
- IV. 포항권역의 신라 토기문화
- V. 영덕·울진권역의 신라 토기문화
- VI. 맺음말

영남 동해안 지역의 신라 토기문화

대전대학교 이한상

I. 머리말

한반도 동해안 지역은 태백산맥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고 이 산맥과 해안선 사이의 공간이 좁아 농경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 때문인지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로 전환되면서 이루어진 이 지역 정치체의 형성 과정이 고고학 자료를 통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동해안 지역에서 발굴되는 원삼국시대의 고고자료는 강릉 일원에 집중되어 있다. 즉 강릉과 그 주변에서 중도유형문화(中島類型文化)¹⁾ 또는 중도문화(中島文化)²⁾의 특징을 보여주는 취락이 다수 발굴되었고³⁾ 출토 유물 가운데 서북한 지역에서 전해진 토기와 철기, 오수전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를 남긴 정치체를 예(濊), 혹은 동예(東濊)로 지칭할 수 있겠

1) 박순발(1994), 「한성백제 기층문화의 성격」, 『백제연구』 26,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 최종규(2008), 「고고학문화의 실천」, 『고고학탐구』 4, 고고학탐구회.

3) 지현병(2000), 「영동지역의 철기시대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심재연(2006), 「강원 영동지역 철기시대 상한과 하한」, 『강원지역의 철기문화』, 2006년 강원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강원고고학회.

지만⁴⁾ 그 중심지가 어디이고 어느 정도의 공간적 범위를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다. 향후의 조사에서 이 문화의 범위가 고성 이북지역으로 확대되거나 진한지역 와질토기문화의 분포권과 접경을 이룰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은 분명하지 않다.⁵⁾

동해안 지역 가운데 넓은 범위를 차지하는 영남 동해안의 경우 강릉 일원과는 달리 경주와 유사한 문화적 특징을 지녔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역시 원삼국시대의 유적이 발굴된 사례가 매우 적어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 울진·영덕의 경우 이 시기의 유적이 전무하며, 상대적으로 들이 넓고 경주의 외항(外港)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포항과 울산 지역에만 유례가 있을 뿐이다. 발굴 조사의 사례가 가장 풍부한 것은 삼국시대 신라 고분이다. 조사 결과 5세기 이후 북으로는 양양·강릉, 남으로는 부산에 이르는 지역의 고분에 신라 토기가 부장되는 게 확인되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현재까지의 자료를 보더라도 전환기의 양상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즉 강릉 일원에서는 중도식 토기와 신라 토기의 접점이 분명하지 않으며,⁶⁾ 영남 동해안의 경우도 어느 시기에 신라 토기가 파급되었고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근래 강릉 일원의 고분 및 생활유적에서 출토되는 토기를 중심으로 신라의 이 지역 진출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⁷⁾

4) 박순발(1994), 앞의 글, 172쪽.

5) 최종규(2008), 앞의 글, 102쪽.

6) 최근 주겨지와 유물 포함층에서 신라 토기와 재래의 연질토기류가 공반하는 사례가 있다. 연대는 신라의 강릉지역 진출에 선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왕의 검토처럼 신라의 영역 확장과 토기 등 문물의 확산을 등치시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한다. 이성주·강선옥(2009), 「초당동유적에서 본 강릉지역의 신라화 과정」, 『주요 유적 종합보고서 I 강릉 초당동유적』,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그런데 강릉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하면 영남 동해안의 고고자료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적은 편이다. 그것은 이미 하대와 중산리고분군, 옥성리고분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새로운 검토의 여지가 적다고 여겼음에 기인하거나 근래 폭증하는 고고자료에 대한 기초적인 정리에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이 글은 이러한 연구의 현상에서 벗어나고자 상대적으로 자료가 많은 고분 출토 신라 토기를 소재로 삼국시대 동해안 지역의 문화적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다.

II.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먼저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영남 동해안 지역은 동해안 가운데 현 강원 영동지역의 남쪽에 해당하며 울진을 북계(北界)로, 부산을 남계(南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제목처럼 영남 동해안 지역의 신라 토기문화라고 하면 당연히 부산의 일부까지 포함시켜 논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연구 여건상 울산을 남계로 설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울산과 포항 지역의 경우 해

- 이상수(2002), 「영동지방 고분의 분포양상과 그 성격」, 『삼국의 접점을 찾아서』, 제28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요지, 한국상고사학회; 이한상(2003), 「동해안지역의 5~6세기대 신라분묘 확산양상」, 『영남고고학』 32, 영남고고학회; 이창현(2005), 「강릉 지역 신라고분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손정미(2006), 「동해안지역 신라고분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보식(2007), 「강원지역의 신라고분 전개양상」, 『강원지역의 철기문화』, 2007년 강원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강원고고학회; 최종래(2007), 「강릉 초당동고분군의 조영집단에 대해서」, 『영남고고학』 42, 영남고고학회; 심현용(2008), 「고고자료로 본 신라의 강릉지역 진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성주(2008), 「물질문화를 통해 본 고대 영동의 문화적 정체성과 그 변천」, 『인문학보』 34, 강릉대학교 인문학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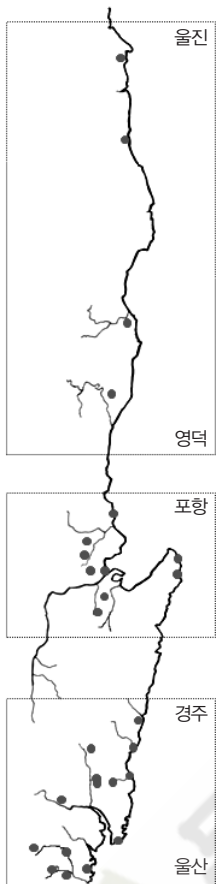


그림 1 검토 대상 고분군의 분포

안에 위치한 고분군에 더하여 해안에서는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하천수계(河川水系)로 이어져 있거나 구래의 지역 중심 고분군인 경우 포함시켜 검토하고자 한다.

동해안 지역의 신라 토기 출토 고분군 가운데 발굴 조사를 통하여 대략적인 연대의 추정이 가능한 곳은 30곳 이상이다. 이 가운데 다수가 포항과 울산에 편재되어 있다.⁸⁾ 물론 신라 토기가 출토된 고분군의 수는 이보다 많고 또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고분군 역시 여러 곳 있으며 이곳에서 새로운 지견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현재 필자가 가진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망라하여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발굴 조사보고서가 발간되어 토기의 기종 구성이나 유구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자료에 한정하여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둘째는 연구 대상의 시간적 범위이다. 논제에 삼국시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간 학계에서는 어떤 고고자료까지를 삼국시대의 범주에 넣어 설명할 수 있을지 논란이 있어 왔다.⁹⁾ 논란의 중심이 된 시기

8) 연구 대상지역 가운데 경주의 경우 동해안에 분포하는 고분군에 한정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울산이나 포항의 경우 해안은 당연히 포함하지만 해안에서 다소 떨어져 있더라도 해안을 기반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세력의 고분군은 논의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9) 최중규(1995), 『삼한고고학연구』, 서경문화사, 11~13쪽; 이희준(2004),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 재론」, 『한국고고학보』 52, 한국고고학회, 82~87쪽; 최성락(2008), 「한국고고학 선·원사 시대구분 재론」, 『한국고고학보』 67, 한국고고학회, 80~83쪽.

는 3세기 무렵까지이며,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초기 기록을 얼마나 믿을 것인가 하는 점¹⁰⁾과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논의는 이 글에서 다루는 영남 동해안 지역에도 해당된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이 지역은 1~2세기 무렵부터 신라에 복속되었으며 그 범위는 삼척 일원까지다.¹¹⁾ 그렇지만 현재까지의 조사 성과를 통하여 그러한 모습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즉 신라 토기 또는 신라양식 토기문화라는 용어를 동해안 지역 고고자료에 적용하는 것은 4세기 후반 혹은 5세기 전반이 되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5~6세기에 중점을 두고자 하며 그 이전과 이후 시기의 자료는 논지 전개에 따라 부분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셋째는 이 글에서 다루는 신라 토기의 절대연대(絕對年代)에 대한 문제이다. 신라 토기와 신라 고분에 대한 연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¹²⁾ 연구성과 역시 많이 축적되어 상대연대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인식이 도출되었다.¹³⁾ 근래의 연구성과를 검토해 보면 경주의 주요 고분 출토 토기는 대체로 다음의 순서로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황남동 109호분 3·4곽¹⁴⁾ → 황남동 110

-
- 10) 노중국(2007), 「삼국사기 초기기록과 삼국지 동이전」, 한국고대사학회 편, 『한국고대사 연구의 새 동향』, 서경문화사.
 - 11) 이형우(2000), 『신라 초기국가 성장사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선석열(2001), 『신라 국가성립과정 연구』, 해안.
 - 12) 최병현(1988), 「신라·가야의 고고학」, 『한국고고학보』 21, 한국고고학회; 김용성(2007), 「제6장 3절. 신라」, 한국고고학회 편, 『한국고고학강의』, 사회평론.
 - 13) 최병현(1992), 『신라고분연구』, 일지사; 이희준(1997), 「토기에 의한 신라고분의 분기와 편년」, 『한국고고학보』 36, 한국고고학회; 김용성(2009), 『신라왕도의 고총과 그 주변』, 학연문화사.
 - 14) 齋藤忠(1937), 「慶州皇南里第九號墳皇吾里第十四號墳調査報告」, 『昭和七年度古蹟調査報告』 1, 朝鮮總督府. 신라 토기 발생기의 자료인 월성로 가-13호분을 황남동 109호분 3·4곽보다 한 단계 이른 것으로 보아 고식도질토기의 마지막 단계로 편년하기도 한다. 安在皓(2000), 「慶州地域の初期新羅土器の検討」, 『福岡大學總合研究所報』 240,

호분¹⁵⁾(사라리 7호 적석목곽묘)¹⁶⁾ → 황남대총 남분¹⁷⁾(월성로 나-9호묘)¹⁸⁾ → 황남대총 북분¹⁹⁾(월성로 가-11-1호묘) → 금관총²⁰⁾(월성로 다-6호묘) → 천마총²¹⁾(월성로 가-15호묘) → 호우총²²⁾ 순이다.²³⁾ 그렇지만 절대연대에는 아직도 편차가 있으므로 특정의 절대연대관을 수용하여 논지를 전개하기에는 애로가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동해안 지역 신라 토기가 과연 어느 시기의 것인지를 설명할 때 ‘○○호분 단계’라 지칭하거나 각 고분에 대한 필자의 연대관²⁴⁾을 활용하여 보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며, 경주지역 신라 토기의 편년에 대한 상세한 검토와 설명은 후고(後稿)에서 다루고자 한다.

福岡大學總合研究所, 10쪽.

- 15) 이은창(1975), 「미추왕릉지구 제10구역 황남동 제110호고분 발굴조사보고」, 『경주지구고분발굴조사보고서』 I, 경주사적관리사무소.
- 16) 영남문화재연구원(1999), 「적석목곽묘·석곽묘」, 『경주 사라리유적』 I.
- 17) 문화재연구소(1994), 『황남대총 남분 발굴조사보고서』.
- 18) 국립경주박물관 외(1990), 『경주시 월성로고분군-하수도공사에 따른 수습발굴조사보고』.
- 19) 문화재연구소(1985), 『황남대총(북분)』.
- 20) 濱田耕作·梅原末治(1922·1924), 『慶州金冠塚とその遺宝 本文-上, 圖版-上, 下』, 朝鮮總督府.
- 21) 문화재관리국(1974), 『천마총발굴조사보고서』.
- 22) 김재원(1948), 『경주 노서리 호우총과 은령총』, 국립박물관.
- 23) 신라 토기의 세부적인 변화 양상은 다음의 글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白井克也(2003), 「新羅土器の型式分布變化と年代觀-日韓古墳編年の竝行關契と曆年代」, 『朝鮮古代研究』 4, 朝鮮古代研究刊行會.
- 24) 이한상(2001), 「6~7세기대 창녕지역 토기의 변화」, 『창녕 계성 신라고총군』, 경남고고학연구소·창녕군; 이한상(2004), 『황금의 나라 신라』, 김영사.

III. 울산권역의 신라 토기문화

1. 고분군의 분포

울산과 그에 인접한 경주 동해안 지역에 분포한 고분군 가운데 신라양식 토기가 출토된 곳으로는 중산리고분군, 효문동 울동고분군, 화봉동고분군, 다운동고분군, 신현동고분, 정자동고분군, 일산동고분군, 양동고분군, 대대리 중대고분군, 대안리고분군, 운화리고분군, 삼광리고분군,²⁵⁾ 화산리고분군, 하삼정고분군, 교동고분군, 조일리고분군, 하서리고분군, 봉길리고분군 등을 들 수 있다. 현 울산 시가지를 기준으로 보면 동서남북 전역을 망라하는 양상이다.²⁶⁾ 그림 2에 제시한 고분군의 분포도처럼 울산지역 고분군은 수계나 교통로를 따라 일정한 정형을 보이며 분포한다. 그간 지표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유적은 매우 많은 편이지만, 그 가운데 발굴한 고분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I군 A : 중산리고분군, 화봉동고분군, 효문동 울동고분군

B : 일산동고분군, 신현동고분, 정자동고분군, 하서리고분군(경주),

25) 보고서 미간. 정리 중인 유물을 실견한 적이 있는데 5세기 토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26) 울산지역 고분군의 분포는 다음의 문헌에 정리되어 있다. 창원대학교박물관(1995), 『울산군 문화유적 원부-매장문화재』; 창원대학교박물관(1997), 『울산시 문화유적 원부-매장문화재』; 이성주(1996), 「신라·가야고분문화 시기구분 시안」, 『석오윤용진 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2004), 『문화유적분포지도-중·남·동·북구』, 울산시; 울산문화재연구원·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울산대학교박물관(2003), 『문화유적분포지도 : 울주군』, 울산시. 이 글의 검토 대상 고분군과 관련한 出典은 후술.

봉길리고분군(경주)

C : 다운동고분군(운곡고분군 포함)

II군 A : 대대리 중대고분군, 양동고분군

B : 대안리고분군, 운화리고분군, 삼광리고분군

C : 화산리고분군

III군 : 하삼정고분군,²⁷⁾ 교동고분군,²⁸⁾ 조일리고분군²⁹⁾

이 가운데 III군은 동해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경주에서 양산으로 이어지는 교통로 상의 주요 거점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글의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IA군은 경주와 울산만 사이의 주요 교통로 상에 위치한다. 동천(東川)의 동쪽에 위치한 중산리와 화봉동·효문동 일대에 대규모의 고분군이 선상으로 분포한다. 중산리고분군에서는 2세기부터 7세기까지의 무덤이 확인되었으며 4세기 무덤에서는 다량의 갑주, 마구류 등 철기가 출토되었다. 따라서 이 고분군은 4세기 무렵 울산지역의 중심고분군으로서 기능한 것 같다. 화봉동고분군은 6~7세기, 효문동 울동고분군은 5~6세기대가 중심연대이다.³⁰⁾

IB군은 해안선에 인접하여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분포하는 고분군이다. 아래부터 위쪽으로 일산동고분군, 정자 바닷가의 울산 강동 산하지구 도시개발부지 내 고분군, 하서리고분군, 봉길리고분군이 자리하고 있다. 신현동고분의 경우 정자 해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며 정자 해변에서 효문동으로 연결

27)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03), 『울산권 광역상수도(대곡댐) 편입부지내 5차발굴조사 약보고서』.

28) 한국도로공사·동아대학교박물관(2000), 『언양교동리유적』.

29)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2000), 『울산조일리고분군』; 울산대학교박물관(2001), 『울산조일리고분군I-목록표』.

30) 각 고분군의 편년에 대해서는 ‘고분군별 신라토기 문화’절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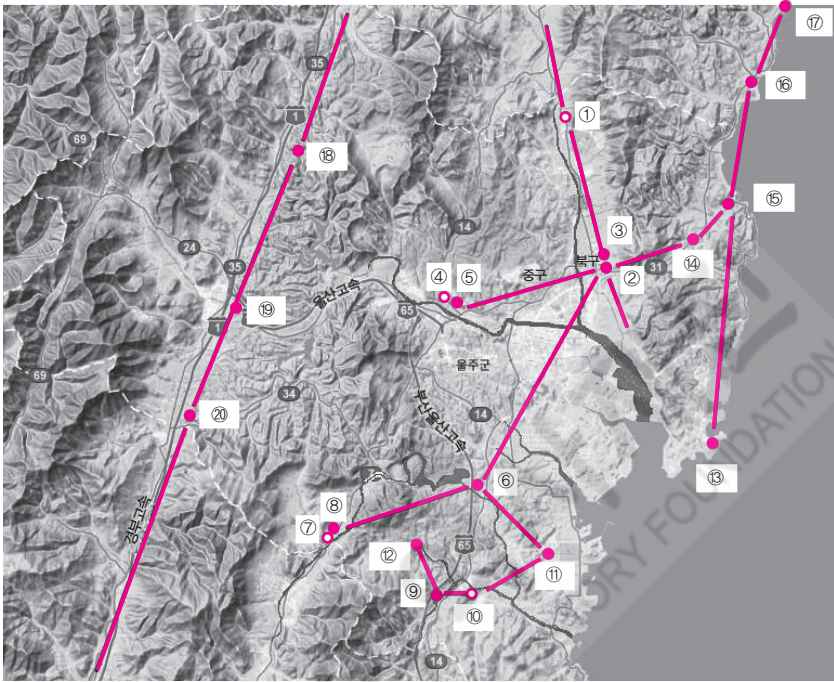


그림 2_ 울산권역 주요 고분군의 분포

- (① 중산리, ② 효문동, ③ 화봉동, ④ 다운동, ⑤ 다운동 운곡, ⑥ 양동, ⑦ 하대, ⑧ 대대리, ⑨ 운화리, ⑩ 대안리, ⑪ 화산리, ⑫ 삼광리, ⑬ 일산동, ⑭ 신현동, ⑮ 정자동, ⑯ 하서리, ⑰ 봉길리, ⑱ 하삼정, ⑳ 교동, ㉑ 조일리
 *①, ④, ⑦, ⑩ 와질토기 출토)

되는 교통로 상에 있다. 신현동고분은 5세기 초, 정자동고분군은 5~6세기, 봉길리고분군은 5~7세기, 하서리고분군은 4~6세기, 일산동고분군은 6~7세기가 중심연대이다.

IC는 태화강변의 다운동고분군이다. 중산리고분군과 마찬가지로 2세기 무렵부터 무덤의 축조가 이루어졌으며 인접한 운곡고분까지 포함하면 7세기까지 무덤의 축조가 이루어진 셈이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I군은 동해의 해안선과 태화강변, 동천에 인접하

여 분포한다. 봉길리-하서리-정자동-일산동-효문동-다운동을 연결하면 대체로 태화강과 동해를 따라 가며 대상(帶狀)으로 분포함을 알 수 있다.

II군은 회야강과 그 지류변에 위치한다. IIA군은 중대고분군을 비롯한 웅천면 대대리 일대의 고분군이 중심을 이룬다. 이곳은 원삼국시대 울산지역의 중심묘역이 위치한 하대고분군에 인접한 곳이다. 하대고분군까지 포함하면 2세기 무렵 무덤의 축조가 시작되어 7세기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회야강 북안에 위치한 양동고분군은 4~5세기가 중심시기이다.

IIB군에는 대안리고분군, 운화리고분군, 삼광리고분군이 해당한다. 회야강의 지류인 남창천과 대운천에 인접하여 분포한다. 대안리고분군은 2세기 무렵부터 축조되었고 원삼국시대의 무덤이 중심을 이루며 7세기대 석곽묘도 1기가 발굴되었다. 운화리고분군은 5~6세기, 삼광리고분군은 유물이 제대로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5~6세기가 중심연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화산리고분군은 온산항에 인접해 있는데 위치나 연대로 보아 IIC로 구분하였다.

2. 신라 토기문화의 수용 양상

1) 신라양식 발현 이전의 토기문화

경주 토기에 신라양식의 발현이 시작되는 것은 황남동 205번지 고분³¹⁾이나 월성로 가-13호분³²⁾ 단계로, 시기는 5세기 전후로 볼 수 있다. 울산권역 역시 이와 비슷한 시점에 신라양식 토기문화에 편입된다. 울산권역의 신라 토

31) 최종규(1989), 「황남동205번지 출토품」, 『고고학지』 1, 한국고고미술연구소.

32) 국립경주박물관 외(1990), 앞의 책; 송의정(1991), 「경주 월성로 출토유물의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병현(1993), 「신라고분 편년의 제문제-경주 월성로, 복천동, 대성동고분의 상대편년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30, 한국고고학회.

기문화권 편입기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전 시기의 이 지역 토기문화에 대하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영남지역의 경우 기원을 전후한 시기부터 3세기 무렵까지 와질토기문화(瓦質土器文化)가 존재했고 4세기에 접어들어 고식(古式)의 도질토기(陶質土器)가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³³⁾ 와질토기와 고식 도질토기의 분포는 신라 토기에 비해 제한적이었던 것처럼 보인다. 울산지역의 와질토기, 고식 도질토기문화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울산지역에서 출토된 가장 이른 시기의 와질토기는 달천유적(1차 발굴) 1호와 6호 주거지 출토 주머니호이다. 삼각구연을 가진 점토대토기와 함께 출토되었으며 주머니호 역시 구연의 제작기법은 점토대토기의 전통을 그대로 갖고 있다. 더불어 평저의 얇은 굽을 갖추고 있어 창원 다호리 34호분이나 경주 조양동 5호분 출토품과 평행기의 자료로 볼 수 있다.³⁴⁾ 이 글에서 검토의 대상으로 삼은 공간 범위에서는 벗어나는 예이지만 언양읍 서쪽 상북면 향산리 청룡유적에서 발굴된 1기의 목관묘 내부에서 주머니호, 단경호, 완 등 와질토기와 철모, 철검, 철사(鐵錘)가 출토되었다.³⁵⁾ 주머니호는 저부가 환저를 이루며 동중위(胴中位)의 각이 현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양동 60호묘³⁶⁾보다 이른 1

33) 최중규(1982), 「도질토기 성립전야와 전개」, 『한국고고학보』 12, 한국고고학회; 申敬澈(1983), 「伽耶地域における4世紀代の陶質土器と墓制」, 『古代を考える』 34, 古代を考える; 안재호·송계현(1985), 「고식도질토기에 대한 약간의 고찰」, 『영남고고학』 1, 영남고고학회.

34) 이경인(2008), 『울산 달천유적 1차발굴조사』, 울산문화재연구원, 56쪽. 다호리 34호분과 조양동 5호분 가운데 전자를 한 단계 이른 시기로 편년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 김현희(2009), 「다호리유적의 편년과 변진한의 토기문화」, 『창원 다호리유적 발굴 20주년 기념 고고학지 특집호』, 국립중앙박물관, 46쪽의 도면 3.

35) 김도헌·권지영(2005), 『울산 향산리 청룡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

36) 국립경주박물관(2003), 『경주 조양동유적 II』.

세기 후반으로 편년할 수 있을 것 같다.

와질토기가 출토된 무덤으로는 중산리고분군, 다운동고분군, 하대고분군, 대안리고분군이 있다. 이 가운데 중심고분군은 응촌면 하대고분군³⁷⁾이다. 이 고분군에서도 약간의 목곽묘와 다수의 목곽묘가 발굴되었다. 대체로 후기 와질토기가 등장하는 2세기 후반 이후 3세기까지의 자료가 다수를 이룬다. 사서(史書)에 등장하는 우시산국(于尸山國)³⁸⁾의 지배층 묘역으로 추정된다. 원삼국 시대에 한정하여 언급한다면 중산리고분군은 하대고분군보다 조금 낮은 위계(位階)를 지녔을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는 하대고분군과 비슷한 시기의 와질토기가 출토되었다. 그런데 하대고분군에서는 아직 4세기 이후의 대형묘가 발굴되지 않았으며 특히 5세기 대형 고층이 발굴되지 않았다. 인접한 저리에 비교적 큰 봉토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발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양산의 북정리³⁹⁾나 경산의 임당고분군⁴⁰⁾처럼 대형묘가 연속성을 지니면서 집중적으로 축조된 것 같지는 않다. 이는 이 지역의 지배층이 재지적인 기반을 가지고 울산지역을 통치하지 못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에 비하여 중산리고분군에서는 4세기대의 목곽묘가 다수 발굴되었다. IA 23호묘는 4세기 초 정도로 편년할 수 있는 자료이고 IA 26호분처럼 그에 후속하는 무덤도 보고된 바 있다.⁴¹⁾ 다운동고분군과 대안리고분군은 중산리고분군보다 위계가 낮았을 것 같다. 두 유적 모두 전기 와질토기에서 후기 와질토기로 전환하는

37) 안재호(1994), 「삼한시대 후기 와질토기의 편년-하대유적을 중심으로」, 『영남고고학』 14, 영남고고학회; 부산대학교박물관(1997), 『울산하대유적-고분 I』; 서영남·김도현(1998), 『울산하대유적-고분 II』, 부산대학교박물관.

38) 『三國史記』卷44, 列傳 第4, 「居道傳」.

39) 심봉근(1991), 『양산 금조총·부부총』, 동아대학교박물관.

40) 김용성(1998), 『신라의 고층과 지역집단-대구·경산의 예』, 춘추각.

41) 창원대학교박물관(2006), 『울산 중산리유적 I-현대자동차 근로자주택 부지내 유적』.

2세기 무렵이 중심연대이며 다운동고분군에서는 3세기 후반 이후의 자료도 검출되었다.

이처럼 울산지역의 경우 신리양식의 토기문화가 파급되기 이전에는 와질토기 및 고식 도질토기문화권에 속해 있었다. 와질토기가 제작된 원삼국시대에는 주로 2세기 후반 이후 3세기까지의 유적이 다수를 이루어 하대, 다운동, 대안리, 중산리에 분포하며 위계는 하대 > 중산리 > 다운동, 대안리 순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여러 집단 가운데 4세기 이후에는 경주에서 가까운 중산리 일대의 집단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후 5세기쯤에는 여러 곳에 고분군이 만들어졌고, 신라는 이들 고분 축조 집단을 매개로 울산지역을 지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 보기 위하여 각 고분군별 토기문화의 양상을 간략히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2) 고분군별 토기문화

(1) 중산리고분군

창원대학교박물관이 조사한 I-VII지구에서는 수백기의 무덤이 발굴되었다. 무덤의 구조는 목관묘부터 목곽묘, 적석목곽묘, 수혈식석곽묘, 횡혈식석실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가운데 보고서가 발간된 현대자동차 근로자 주택부지내 유적의 일부 무덤에서 출토된 토기를 살펴보면 IA-51호묘의 고배(그림 3의 왼쪽)는 대각이 3단으로 구획되었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나팔상으로 벌어진다. 이러한 특징은 경주 황남동 109호분 3·4곽 단계의 토기와 유사하다. 이 무덤에서는 유개고배와 무개고배가 공반(共伴)되었다. 함께 출토된 고배 가운데 대각을 4단에 가깝게 구획한 것도 있다. IB-2호묘 고배(그림 3의 가운데)는 황남대총 남분 단계의 토기와 여러 특징을 공유한다. IA-1호묘 고배(그림 3의 오른쪽)는 개와 배의 표면에 사격자문(斜格子紋), 집선문(集線紋)이 시문된 것이다.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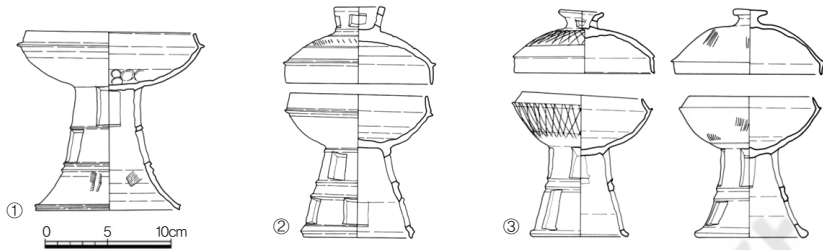


그림 3 중산리고분군 고배의 변화(① : IA-51호묘, ② : IB-2호묘, ③ : IA-1호묘)

주뿐만 아니라 신라 전역에 걸쳐 5세기 말~6세기 초에 유행한 토기다.

울산문화재연구원이 조사한 중산동 547-1번지 유적에서는 주머니호를 반출하는 2세기 목관묘 1기와 이보다 뒤시기의 목곽묘 1기, 5~6세기의 적석목곽묘 3기가 발굴되었다.⁴²⁾

(2) 화봉동고분군⁴³⁾

중산리고분군과 효문동 울동고분군 사이에 위치하며 울동고분군에 더 가깝다. 토기의 구성은 단각고배, 부기구연장경호, 병을 표지로 하는데 문양을 보면 압인의 삼각집선문(三角集線紋)과 이중원문이 조합을 이룬 것, 수적형문(水滴形紋)이 베풀어진 것이 있으므로 중심연대는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중엽쯤으로 볼 수 있다.

42) 권용대·오광섭(2008), 『울산 중산동547-1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

43) 이현석·김종호·이현주·전은영(2008), 『울산화봉동유적 울산 화봉2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발굴조사보고』,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울산문화재연구원 문화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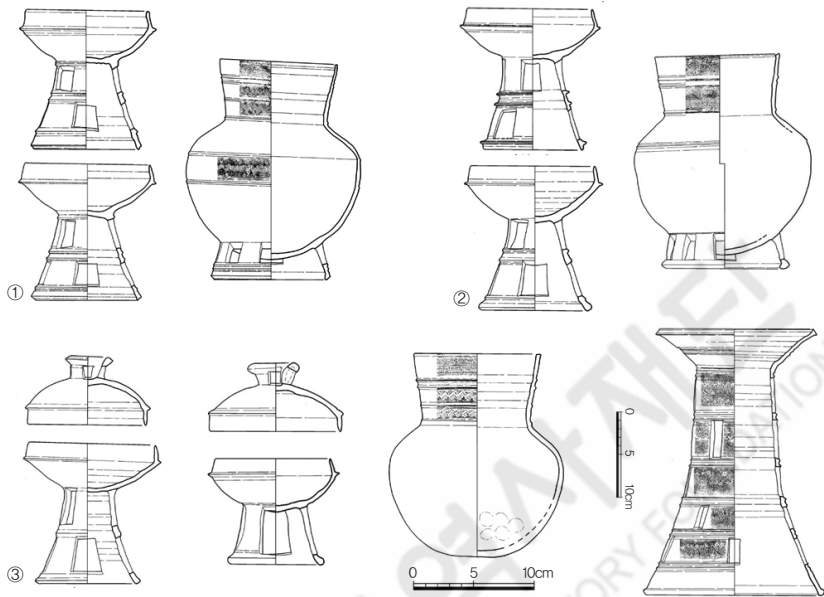


그림 4_ 효문동 울동고분군 토기의 비교(① : 19호묘, ② : 14호묘, ③ : 25호묘)

(3) 효문동 울동고분군

효문동 일대에는 넓은 범위에 걸쳐 고분군이 분포한다. 이 가운데 울산문화재연구원이 조사한 곳에서는 목곽묘 76기, 수혈식석곽묘 26기, 옹관묘 13기, 횡혈식석실묘 1기가 발굴되었다.⁴⁴⁾ 목곽묘는 5세기가 중심연대이며 이른 것은 4세기 말, 늦은 것은 6세기 전반으로 편년할 수 있는 무덤도 포함되어 있다. 석곽묘는 30호 석곽묘처럼 7세기 자료도 있지만 대부분 목곽묘의 연대와 중복된다. 상한은 목곽묘보다 늦지만 황남대총 남분 단계까지는 소급되는 것 같다. 횡혈식석실묘의 경우 토기로 보면 30호 석곽묘보다 이른 6세기 후반에

44) 김도현·권지영·최수형·박세진·권용대(2006), 『울산효문동울동유적』 I~III, 울산문화재연구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이 고분군 발굴성과는 보고서로 완간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 신라양식 토기의 변화 과정을 파악하는 데 유효한 자료를 제공한다. 그림 4는 19호묘, 14호묘, 25호묘 토기를 비교해본 것이다. 19호묘 고배 가운데는 대각을 3단으로 구획하던 전통이 일부 남아 있는 것도 있다. 경주 출토품과 비교하면 사라리 7호 적석목곽묘 고배와 같은 단계, 또는 그 이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14호묘 고배는 대각이 2단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대각 단부가 뾰족하게 각진 것과 둥근 기미를 보이는 것이 공존한다. 25호묘 고배는 대각이 길다. 5세기 후반의 신라 토기는 월성로 가-11-1호분 고배처럼 돌연히 대각이 길어지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 고배 역시 유사하다. 25호묘에서 출토된 통형 기대는 5세기 후반대의 특징을 보이며, 운화리 30호묘나 괴시리 16호분처럼 동해안 각지의 5세기 후반 무렵 고분에서 많이 나온다.

그림 5는 효문동 57호묘, 56호묘, 33호묘, 54호묘 출토 토기를 다른 지역 토기와 비교해본 것이다. 효문동 57호묘 출토 고배(그림 5-①)는 무개식이며 대각이 4단으로 구획되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나팔상으로 벌어진다. 고식 도질 토기 후기단계의 자료로 볼 수 있다. 기형으로 보면 효문동 56호묘 고배(그림 5-②)와 유사하다. 효문동 56호묘 고배는 대각에 화염형의 투공이 뚫려 있어 월성로 가-5호묘 고배(그림 5-③)와 유사하다. 화염형 투공이라는 요소만을 주목하면 함안양식에 귀속시킬 수도 있겠으나, 경주 화산리 3·4호 요지 회구부(灰丘部)에서도 출토된 바 있어⁴⁵⁾ 고식 도질토기 후기의 토기에는 다양한 양식의 전조(前兆)가 공존하므로 공통양식기의 유물로 파악해두고자 한다. 효문동 27호묘 고배는 다음 단계가 되면 황남동 205번지 고분의 무개고배(그림 5-⑥)

45) 중앙문화재연구원(2008), 『경주 화산리유적』, 4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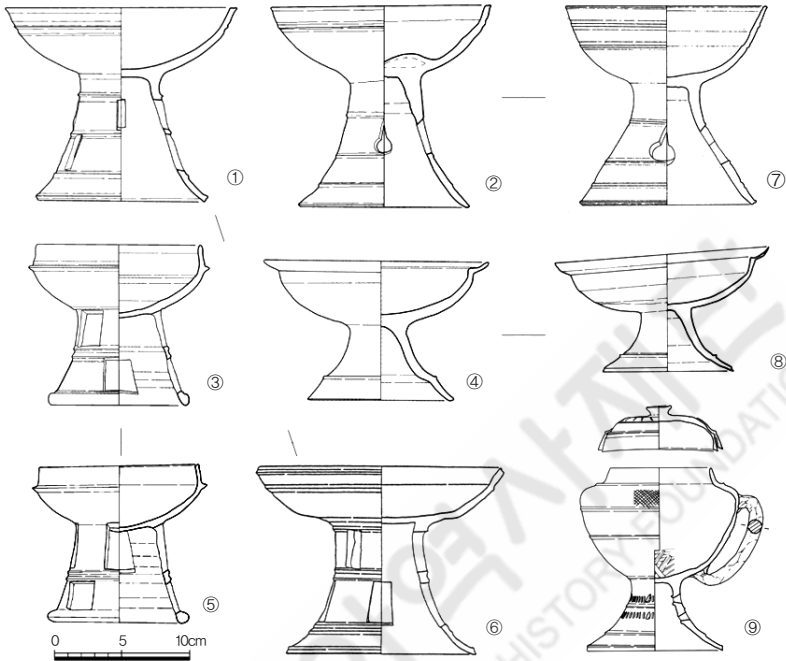


그림 5_ 효문동 목각묘 출토 토기와 비교자료

(① 효문동 57호묘, ② 효문동 56호묘, ③ 효문동 33호묘, ④ 효문동 54호묘, ⑤ 복천동 39호묘, ⑥ 황남동 205번지 고분, ⑦ 월성로 가-5호묘, ⑧ 복천동 70호묘, ⑨ 옥성리 가-35호묘)

처럼 기형이 변할 것으로 추정된다.

효문동 33호묘 고배는 배부가 깊고 기고에 비하여 대각이 길지 않으며 대각 단부가 둥글게 처리된 점이 특징이다. 복천동 39호묘(그림 5-⑤), 복천동 10·11호묘,⁴⁶⁾ 울주 양동고분, 옥성리 가-38호묘, 옥성리 가-52호묘 등의 유구에서 간간이 출토되는 형식이다. 경주 토기에서는 드문 형식이며 현재까지의 자료로 본다면 복천동 10·11호묘 단계의 부산지역 토기일 가능성이 있다.

46) 정정원·신경철(1983), 『동래 복천동고분군』 I, 부산대학교박물관.

효문동 54호묘에서는 외절구연(外折口緣)의 고배(그림 5-④) 1점이 출토되었다. 이 고배는 부산·김해 지역에서 유행한 형식인데 아마도 지리적으로 인접한 부산에서 수입된 것 같다. 대각이 나팔상으로 벌어지다가 재차 꺾이는 점이 특징이다. 부산 복천동 70호묘 출토품과 비교해볼 수 있다. 복천동 70호묘의 연대를 보고자는 4세기 말로 편년하였다.⁴⁷⁾ 그림 5-⑨에 제시한 포항 옥성리가-35호 목곽묘 출토 유개대부파수부완(有蓋臺附把手附盥)의 경우도 부산·김해 지역의 특징적인 토기 가운데 하나이다. 부산 복천동 39호묘⁴⁸⁾ 출토품과 유사하며 이 역시 부산·김해 지역에서 포항으로 전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4) 다운동고분군

태화강과 척과천이 합류하는 곳에 위치하며 강의 북쪽 구릉과 사면에 입지한다. 조사는 여러 기관이 나누어 담당하였다. 창원대학교박물관이 조사한 한라주택 부지에서는 목관 및 목곽묘 110기, 수혈식석곽묘 14기, 횡혈식석실묘 3기, 옹관묘 14기가 발굴되었으며⁴⁹⁾ 전모가 알려져 있지 않지만 5세기의 유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역시 창원대학교박물관이 조사한 다운골프장 부지에서는 1기의 목곽묘, 9기의 수혈식석곽묘(1기의 석곽옹관 포함), 1기의 옹관묘가 발굴되었다.⁵⁰⁾ 1호와 2호 석곽묘에서 출토된 고배는 개와 배신에 사

47) 이재현(1996), 「IV. 고찰-4세기 복천동목곽묘의 제양상」, 『동래복천동고분군』 III, 부산대학교박물관, 87~88쪽.

48) 전옥년·이상율·이현주(1989), 「동래 복천동고분군 제2차조사개보」, 『영남고고학』 6, 영남고고학회, 189쪽. 이 무덤의 연대에 대하여 보고자는 복천동 10·11호보다 늦은 5세기 3/4분기로 편년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편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공반된 고배 1점이 황남동 110호분과 동형인 것에 주목하여 복천동 10·11호묘보다 이른 단계로 조정된 연구가 있다. 최병현(2000), 「영남지방 고고학자료의 편년-4세기대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한국고대사논총』 10,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49) 김형근·고은영·김영숙·김주용(2006), 『울산다운동유적』 II, 창원대학교박물관.

격자문이 조밀하게 시문되어 있고 장경호의 경우 구연이 곡선적으로 외경한다. 이는 경주에서 5세기 후반 이후 유행하는 형식이다. 이에 비하여 3호묘 출토 토기는 조금 더 이른 시기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 고분군의 중심연대는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로 볼 수 있다. 창원대학교박물관이 조사한 다운주 유소 부지에서는 수혈식석곽묘 5기가 발굴되었다.⁵¹⁾ 4호 석곽묘에서는 황남대총 남분 단계의 고배가 출토되었고 23호 석곽묘에서는 이보다 늦은 시기의 자료가 출토되었다. 1호 석곽묘의 경우 이단투창고배는 없지만 여타 토기로 보면 황남대총 남분 단계이거나 조금 늦은 단계인 것 같다. 이 무덤에서는 반부철모(盤附鐵鉢) 1점과 철제 삼엽환두대도 1점이 출토되었다.

울산발전연구원이 조사를 담당한 마구역과 라구역에서는 원삼국시대 목곽묘 19기, 삼국시대 목곽묘 2기, 수혈식석곽묘 35기, 횡구 및 횡혈식석실묘 5기가 발굴되었다.⁵²⁾ 마구역 1호묘에서는 경주 황남동 110호분 단계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석곽묘는 5세기 후반 이후로 편년할 수 있고 석실묘 가운데는 종장연속(縱長連續)의 마제형문(馬蹄形紋)이 배풀어진 삼국통일 후의 토기가 출토되기도 한다. 다운동고분군은 2세기 중엽부터 7세기 후반⁵³⁾까지 조성된 것이

50) 김형곤·김현희·고은영(2004), 『울산다운동유적 I(다운골프장부지 유적)』, 창원대학교박물관.

51) 김형곤·고은영·김영숙·김주용(2004), 『울산다운동유적 I-다운주유소부지 유적』, 창원대학교박물관.

52) 유병일·김성미·배순희·권석호·김성식(2003), 『울산 다운동 마구역유적』,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유병일·김성식·배순희(2005), 『울산 다운동 바구역유적』,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53) 조사단에서는 7세기 중엽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마구역 6호 석실분에서 출토된 인화문토기는 삼국통일 이후로 편년할 수 있는 자료이다. 최병현(1987), 「신라후기양식토기의 성립시론」, 『삼불김원룡교수정년기념논총』 I, 일지사; 宮川禎二(1988), 「新羅印花文陶器變遷劃期」, 『古文化談叢』 30(中), 九州古文化研究會; 이희준(1994), 「부여 정림사지 연지유적 출토의 신라인화문토기」, 『한국고고학보』 31, 한국고고학회.

지만 4세기 토기의 양상이 분명하지 않다.

다운동 운곡고분군은 다운동고분군에서 동쪽으로 약 7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수혈식석곽묘 1기, 횡구식석실묘 3기, 구조를 알 수 없는 무덤 3기 등 모두 7기의 고분이 발굴되었다. 모두 소형의 무덤이며 내부에서는 단각오배, 병, 완 등이 출토되었다.⁵⁴⁾ 토기는 표면에 수적형문(水漸形紋)과 중원문(重圓紋), 반원점문이 베풀어져 있어 7세기 중엽 이후로 편년할 수 있는 자료이다.

(5) 양동고분군

회야강 북안에 위치한다. 목곽묘 9기, 적석목곽묘 23기, 수혈식석곽묘 1기, 횡구식석실묘 1기, 옹관묘 1기가 발굴되었다.⁵⁵⁾ 이 가운데 목곽묘인 24호묘에서는 4세기의 고식 도질토기 단경호가 출토되었고, 적석목곽묘인 2호묘에서는 황남대총 남분 단계의 고배가 출토되었다. 적석목곽묘인 14호묘는 이보다 늦은 시기의 무덤이며 황남대총 북분 단계의 장경호가 출토되었다.

(6) 대대리 중대고분군

회야강 수계에 연해 있으며 울산대학교박물관과 울산문화재연구원이 발굴 조사한 바 있다. 울산대학교박물관이 조사한 중대고분군에서는 9기의 수혈식석곽묘가 발굴되었다.⁵⁶⁾ 9호묘 출토 고배처럼 사격자문이 조밀하게 새겨진 것과 대각이 장신화된 것이 출토되었고 그 전후 시기의 자료도 있어 고분군의 축조는 5세기 중후반에서 6세기 전반 무렵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54) 이성주·김형곤·유병일·박문수·김현희(1998), 『울산 다운동 운곡유적』, 창원대학교 박물관.

55) 부산대학교박물관(1995), 『울주 양동유적 조사개보』.

56) 전호태·김영민(1997), 『울산 중대고분군』, 울산대학교박물관.

울산문화재연구원 담당 구간에서는 목곽묘 5기, 수혈식석곽묘 31기, 횡구식석실묘 4기가 발굴되었다. 토기 가운데는 대각을 3단으로 구획한 것도 있지만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의 토기가 중심을 이룬다. 이 고분군은 인접한 상대, 중대, 하대, 저리 고분군과 크게 보면 같은 집단이 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삼국시대 이래 7세기까지 고분이 연속적으로 축조되었다.⁵⁷⁾

(7) 운화리고분군

회야강의 지류인 대운천 북안의 능선에 분포한다. 울산대학교박물관이 지표조사를 통하여 유물을 수습한 바 있고⁵⁸⁾ 울산문화재연구원과 울산발전연구원이 구역을 나누어 발굴 조사하였다.

울산문화재연구원 조사 구역에서는 목곽묘 15기, 수혈식석곽묘 54기, 횡구식석실묘 1기가 발굴되었다.⁵⁹⁾ 30호묘의 경우 주구에서 다량의 토기가 출토되었다(그림 6). 이 무덤에서는 경주 이외의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인물토우, 동물토우가 함께 출토되었다. 토기의 구성은 고배, 장경호, 연질옹 등이며 2-2호묘 주구 출토 고배 개나 장경호처럼 황남대총 남분 단계에 근접하는 것도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10-7호묘 고배처럼 고배의 대각이 길어지는 것도 있고 26-2호묘 고배(그림 7)처럼 다치구로 연속의 V자, 파상문을 베낀 예도 있다. 경주지역 토기와 비교한다면 황남동 109호분 1곽이나 월성로 가-11-1호묘 토기와 유사하다. 발굴 자료의 상한은 5세기 중엽, 하한은 6세기 전반쯤이다.

57) 권용대·이수홍·최득준·김광수(2006), 『울산 대대리 중대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

58) 전호태·김영민·선석열(1998),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운화리고분군)』, 울산대학교 박물관.

59) 황창한·정현석·이현지(2008), 『울산운화리고분군』, 울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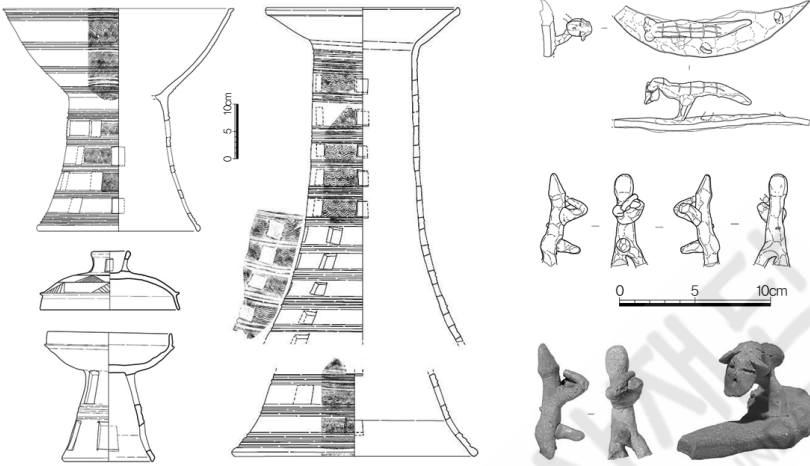


그림 6_ 운화리 30호묘 토기(개 : 석실, 기타 : 주구) (울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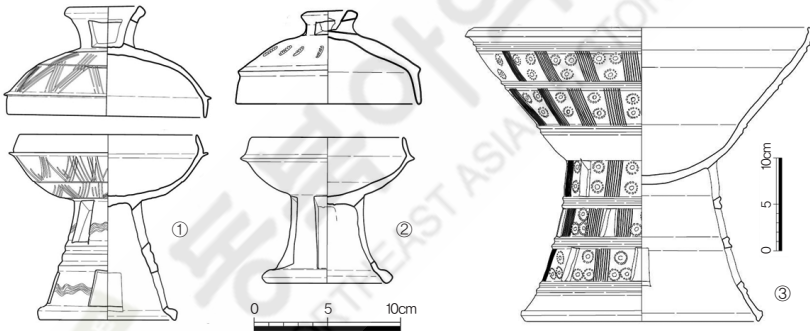


그림 7_ 운화리 26-2호묘(①·②)와 25호묘 주구 토기(③) (울산문화재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조사 구역에서는 수혈식석곽묘 5기, 횡구식석실묘 1기가 발굴되었다.⁶⁰⁾ 2호 석곽묘 출토 고배는 소형화된 것이 주류를 이루며, 개에 반원점문과 삼각집선문이 표현되어 있는데, 무늬는 그어 표현한 것이다. 이와

60) 김성식·한선영(2008), 『부산~울산 고속도로 건설구간 발굴조사보고서 울주 운화리 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 문화재센터·한국도로공사.

함께 다치구를 이용하여 집선문을 베풀 고배도 있다. 횡구식석실묘에서는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유행한 형식의 장경호가 출토되었다.

(8) 대안리고분군

온양 남창천의 남안, 용곡산의 북서쪽 사면에 입지한다. 원삼국시대 목관묘 65기, 옹관묘 9기와 함께 7세기 수혈식석곽묘 1기가 발굴되었다.⁶¹⁾ 원삼국시대 무덤은 출토된 주머니호의 형태로 보면 전기 와질토기의 마지막 단계로 볼 수 있으며, 2세기 전반 또는 중엽쯤으로 편년할 수 있다. 석곽묘에서는 2점의 완과 1점의 파수부옹이 출토되었다. 완의 표면에는 눌러 찍어 표현한 화문(花紋)이 있다.

(9) 화산리고분군

온산항에 인접한 아산의 사면에 위치한다. 부산대학교박물관 조사 구역의 경우 포함층에서는 5세기 토기가 많이 나왔지만 유구에서는 6~7세기 토기가 주로 출토되었다. 수혈식석곽묘 8기, 횡구식과 횡혈식석실묘 27기가 조사되었으며 단각고배(短脚高杯)와 반구상 구연의 장경호를 지표로 한다.⁶²⁾

동아대학교박물관이 조사한 고분군은 부산대학교박물관 조사 구역에서 200여 m 떨어져 있으며 수혈식석곽묘 7기, 옹관묘 3기, 횡구식 및 횡혈식석실묘 30기가 발굴되었다.⁶³⁾ 반구상 구연의 장경호와 단각고배를 지표로 하며 기형이나 문양으로 보면 6세기 후반이 중심연대인 것 같다.

61) 울산대학교박물관·울산광역시 강남교육청(2002), 『울산 대안리유적』.

62) 부산대학교박물관(1983), 『울주화산리고분군』.

63) 심봉근(1991), 「울주 온산고분군」, 『고고역사학지』 7, 동아대학교박물관.

(10) 일산동고분군⁶⁴⁾

방어진 동쪽 일산만 해안에 위치한다. 수혈식석곽묘 13기, 횡구식석실묘 9기가 발굴되었다. 1호묘에서 출토된 단각고배에는 중원문과 삼각집선문이 배풀어져 있다. 삼각집선문의 경우 짙은 것과 그은 것이 모두 있다. 대체로 6세기 후반쯤으로 편년할 수 있는 자료이다. 무덤 가운데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로 편년할 수 있는 것은 5호묘와 2호묘이다. 5호묘에서 수직형문이 시문된 합, 2호묘에서 마제형문이 배풀어진 토기가 출토된 점으로 미루어 삼국통일을 전후한 시기로 편년할 수 있다.

(11) 신현동고분

정자 바닷가에서 서남쪽으로 5km가량 떨어진 곳에 있다. 파괴된 목곽묘 1기가 발굴되었는데 바닥에는 잔자갈이 깔려 있었다.⁶⁵⁾ 내부에서는 고배, 단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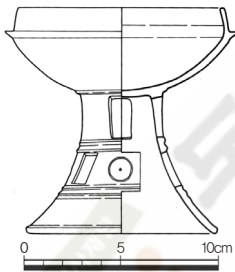


그림 8_ 신현동 목곽묘 고배

호, 장경호, 광구소호 등이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그림 8의 고배는 대각이 3단으로 구획되고 투창이 엇갈리게 뚫려 있으며 아래로 내려오면서 나팔상으로 벌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황남동 109호분 3·4곽 단계 혹은 그 직후까지 소급시켜볼 수 있는 토기이다.

64) 이성주·김형곤·박문수·김현희(1998), 『울산 일산동고분군』, 창원대학교박물관.

65) 중앙문화재연구원·부산지방국토관리청(2003), 『울산~강동간 도로 확포장공사구간 내 울산 신현동유적』. 정자 바닷가에서 발굴 조사 중인 울산 강동 산하지구 도시개발부지 내 유적에서는 5세기대 무덤이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신현동 목곽묘와 동일한 단계의 토기가 여러 점 포함되어 있다(실견).

(12) 경주 하서리고분군

양남면 소재지의 북쪽을 흐르는 서천의 남쪽에 인접해 있다. 2회에 걸쳐 발굴 조사되었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박물관이 조사한 구역에서는 목곽묘 9기와 수혈식석곽묘 1기가 발굴되었다.⁶⁶⁾ 하서리 4호 목곽묘에서 출토된 토기 가운데는 그림 9의 고배처럼 대각을 3단으로 구획한 것이 포함되어 있어 5세기의 이른 단계까지 소급할 수 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조사한 구역에서는 목곽묘 6기와 석실묘 1기가 발굴되었다.⁶⁷⁾ 출토유물은 적은 편이지만 목곽묘인 1호와 6호묘의 경우 4세기대 자료일 가능성이 있고, 5호묘는 고배형 기대나 광구소호(廣口小壺)로 보면 4세기 말까지 소급될 수 있는 자료로 보인다. 석실묘는 6세기대 자료이나 훼손이 심하여 세부적으로 편년하기는 어렵다.

(13) 경주 봉길리고분군

양남면의 문무왕 수증릉에 인접해 있다. 울산대학교박물관과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이 발굴하였는데, 울산대학교박물관 조사 구역은 대종천의 하구에 위치하고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조사 구역은 이보다 남쪽의 월성원전 확장부지이다.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조사 구역에서는 수혈식석곽묘 113기, 목곽묘 26기, 옹관묘 3기, 석곽옹관묘 1기가 발굴되었다.⁶⁸⁾ 56호 석곽에서 출토된 토기처럼 고배 대각을 3단으로 구획하고 2단에 걸쳐 투창을 엇갈리게 뚫은 토기

66) 김길웅·김호상·조재영·황보은숙·손호성·유지현(2004), 『양남 하서리유적-양남 우회도로 하서구간내』,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박물관.

67) 국립경주박물관·경주시(2006), 『양남 하서리고분군-557-4번지 주택신축부지』.

68)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5a), 『경주 봉길리 신규 원전부지내 경주 봉길리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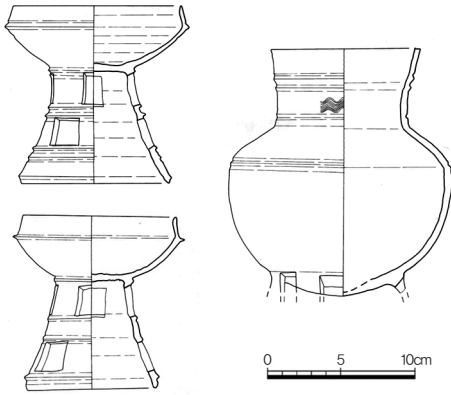


그림 9_ 하서리 4호 목곽묘 토기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박물관)

는 소형화되고 대각이 나팔상으로 변하고 배부의 아래쪽이 수평을 이루는 등 천마총, 호우총 단계의 고배와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조사된 자료는 5세기 전반에서 6세기 전반쯤으로 편년할 수 있다.

울산대학교박물관 조사 구역에서는 수혈식석곽묘 36기, 황구식석실묘 1기, 황혈식석실묘 7기가 발굴되었다. 연대는 5세기에서 7세기에 걸치는데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조사 구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의 유구가 포함되어 있다.⁶⁹⁾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울산권역의 토기문화는 5세기를 전후한 시기 이후 경주지역 토기와 제작기법이나 기종 구성이 매우 비슷하다. 이러한 양상은 6~7세기까지 이어진다. 이는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영남 내륙의 여러 지역과 사뭇 다른 모습이며, 울산권역에 경산이나 창녕과 같은 지역중심 고분군이 존재하지 않는 점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 경주의 새로운 토기문화가 가장 빨

가 존재한다. 따라서 경주 토기와 비교하면 황남동 110호분 단계로 편년할 수 있다. 9·10·22·26호분에서 출토된 토기는 황남대총 남분보다 고식으로 보인다. 대각을 3단으로 구획한 고배 가운데는 대각단부를 정밀기공하지 않고 수평으로 잘라내고 마무리한 것이 많다. 석곽 23호분 고배

69) 울산대학교박물관(2000), 『경주봉길고분군』 I.

리 이입된 곳은 중산리고분군과 효문동 율동고분군이다. 곧이어 율동고분군에서 해안 쪽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신현동고분, 해안변의 정지동고분군, 하서리고분군과 봉길리고분군에 경주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토기가 일정량 부장된다. 이는 왕도의 방어체제 강화와 관련하여 나타난 현상이라 추정할 수 있다.

IV. 포항권역의 신라 토기문화

1. 고분군의 분포

포항권역에도 원삼국~삼국시대의 고분군이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으며⁷⁰⁾ 이 가운데 일부가 발굴되었다.⁷¹⁾ 초기에는 옥성리고분군과 학천리고분군이 위치한 흥해 일대가 중심지였던 것으로 보이며, 고분군의 수가 많지 않았다가 5세기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특히 금동관과 금동제 삼엽 환두대도가 출토된 용흥동 목곽묘가 주목된다. 발굴 조사결과 토기문화의 양상이 드러난 고분군은 옥성리고분군, 학천리고분군, 대련리고분군, 용흥동고분, 인덕동고분군, 호동고분군, 대각리고분군, 강사리고분군, 대보리고분군, 오도리고분군, 냉수리고분⁷²⁾이다. 포항권역 고분군을 몇 개의 군(群)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70)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2002), 『포항 문화유적 분포지도』.

71) 포항권역 목곽묘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 김은진(2005), 「포항 목곽묘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2) 국립경주박물관(1995), 『냉수리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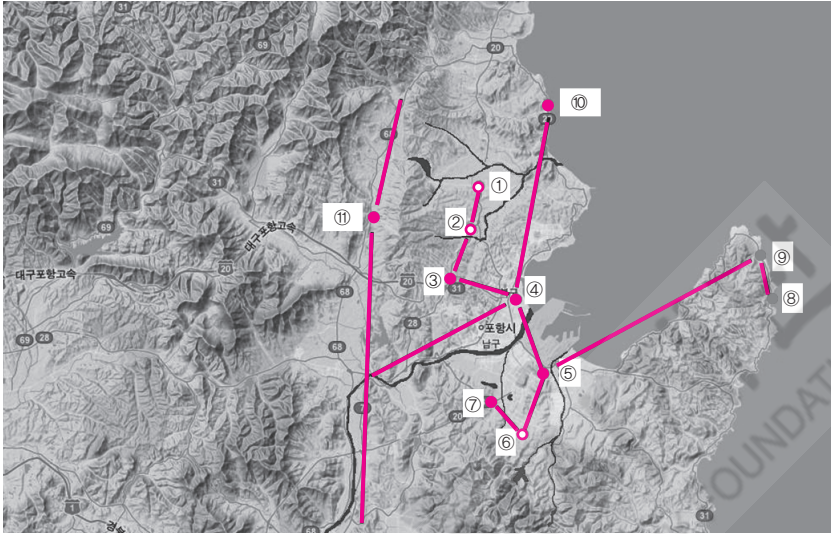


그림 10_ 포항권역 주요 고분군의 분포

- (① 옥성리, ② 학천리, ③ 대련리, ④ 용흥동, ⑤ 인덕동, ⑥ 대각리, ⑦ 우복리,
⑧ 강사리, ⑨ 대보리, ⑩ 오도리, ⑪ 냉수리 *①, ⑥ 외질토기 출토)

I군 A : 옥성리고분군, 학천리고분군

B : 대련리고분군

II군 : 인덕동고분군, 호동고분군, 대각리고분군

III군 A : 용흥동고분

B : 강사리고분군, 대보리고분군, 오도리고분군

IV군 : 냉수리고분

I군은 흥해 일원에 분포하는 고분군이다. 이 일대의 중심 하천인 곡강천에 학림천, 초곡천이 합류하여 칠포로 흘러든다. 곡강천 본류 남쪽에 옥성리고분군, 학림천변에 학천리고분군, 초곡천의 상류에 대련리고분군이 위치한다. 옥성리고분군은 원삼국시대 이래 4세기의 어느 시점까지 포항권역의 중심고분

군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5세기 이후의 대형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학천리고분군은 5세기대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가 300기 이상 발굴되는 등 옥성리고분군과 대조를 보인다. 두 고분군 모두 4세기대 유구가 존재하고 목곽묘, 적석목곽묘, 수혈식석곽묘 등의 묘제를 공유하는데 초기에는 옥성리 > 학천리 순의 위계가 존재했던 것 같다.⁷³⁾ 대련리고분군은 현재 흥해읍에 속해 있고 읍 소재지와 교통로로 연결되어 있지만 골짜기 쪽에 위치하므로 옥성리·학천리고분군을 조영한 세력이 만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간의 발굴 조사 성과에 따르면 학천리고분군과 시기적으로 겹치지만 더 늦은 시기의 유구가 많은 편이다. 이 때문에 IB군으로 구분하였다.

II군은 인덕동고분군, 호동고분군, 대각리고분군이다. 인덕동 및 호동고분군은 형산강의 지류인 냉천 하류 서안에 위치한다. 해안에서 멀지 않은 편이지만 주변에서 원삼국시대의 대규모 취락이 발굴되는 등 신라양식 토기가 등장하기 이전, 원삼국시대 이래의 집단이 존재하므로 III군에 넣지 않고 II군으로 설정해 보았다. 인접한 호동유적에는 3~4세기대 주거지가 많았으나 이 시기의 무덤은 발굴되지 않았다. 대신 6~7세기 석곽묘와 석실묘 30여 기가 발굴되었다.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조사 구역의 1호 수혈에서는 황남대총 남분 단계의 토기가 출토되어 주변에 이 시기의 고분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대각리고분군은 냉천의 지류에 속하는 신광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다. 3세기까지 소급되는 무덤도 있지만 4~5세기의 유구가 중심을 이룬다. 향후의 조사에서 대각리 나-78호묘 단계의 유구가 더 조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흥해 일대에 옥성리고분군과 학천리고분군이 만들어질 때 형산강 남쪽에서는 대각리고분군이 축조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물론 보다 더 하위

73) 김은진(2005), 앞의 글, 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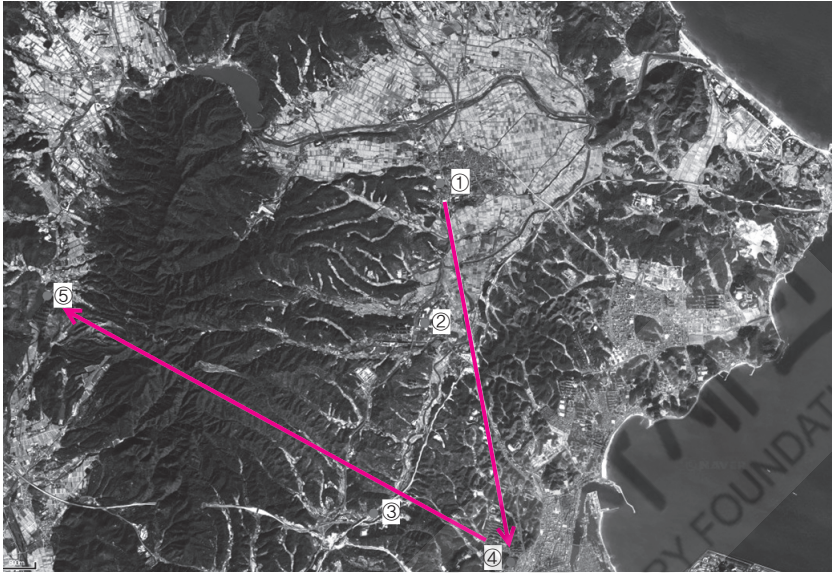


그림 11_ 포항권역의 중심세력 변화 모식
 (① 옥성리고분군, ② 학천리고분군, ③ 대련리고분군, ④ 용흥동고분, ⑤ 냉수리고분)

집단의 묘역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III군은 해안에 인접한 고분군이다. 1기만 수습된 용흥동고분에서는 포항 권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금동관, 삼엽대도 등이 출토되었다. 따라서 이 고분은 5세기 후반쯤 이 지역에서 활약한 유력자의 무덤으로 보인다. 경주로부터 흘러온 형산강이 동해에 합류하는 영일만의 북안에 위치한다. 해안에 면해 있는 강사리고분군, 대보리고분군, 오도리고분군과 같이 바다 가까이에 있지만 형산강 분류에 인접해 있으며 우월한 금공품이 출토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IIIA군으로 분류하였다.

IV군은 냉수리고분이다. 신광면 냉수리와 흥덕리 일대에는 석실분이 다수 분포한다.⁷⁴⁾ 발굴 자료는 적지만 6세기 전반에 속하는 고분군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냉수리 석실묘의 경우 내부에서 은반지, 삼루환도자(三累環刀子) 등

금공품이 출토되어 높은 격을 보여주었고 연도에 이실(耳室)을 갖추고 있다. 이 고분군은 안강에서 청하, 월포로 향할 때 통과하는 교통로 상에 입지하고 있어 해안에 인접하거나 수계를 통하여 바다에 다다를 수 있는 여타 고분군과 성격을 달리하는 고분군으로 파악되어, 이 글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그림 11은 원삼국시대 이래 6세기까지 포항지역의 중심고분군 혹은 유력한 세력의 변화를 추정해본 것이다. 고분군의 규모나 출토유물로 보면 3~4세기에는 옥성리고분군이, 5세기 후반에는 용흥동고분이, 6세기 전반에는 냉수리고분이 우월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2. 신라 토기문화의 수용 양상

1) 신라양식 발현 이전의 토기문화

역사시대로 접어들면서 포항지역에도 여러 세력이 차례로 성장하였을 것이나, 아직 초기 철기에서 원삼국시대 전기에 이르는 시기의 양상이 뚜렷하지 않다.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이 발굴한 옥성리 15호묘처럼 주머니호가 출토되는 유구도 있지만 후기 와질토기가 출토되는 3세기 이후의 무덤이 주로 조사되었다. 포항지역의 와질토기는 같은 시기 경주나 울산 지역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으며 변화의 흐름을 공유한다. 특히 유개대부광구호(有蓋臺附廣口壺), 유개대부직구호(有蓋臺附直口壺), 와질고배(瓦質高杯)로 보면 그러하다.

74) 久貝健 외(1989), 「한국 각지의 고분답사 기록」, 『고대연구』 2, 고대연구회; 정계옥 (1990), 「냉수리석실분 일례」, 『창산 김정기박사 화갑기념논총』;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1992), 「영일군 냉수리·홍덕리 일대 지표조사」, 『연보』 2.

와질토기가 출토된 포항지역 고분군은 옥성리고분군, 학천리고분군, 대각리고분군 등이다. 취락유적인 호동유적에서도 와질토기가 조사된 바 있다. 옥성리고분군은 나-18호묘, 나-78호묘, 나-58호묘의 규모와 유물이 탁월한 면모를 보이므로 원삼국시대 포항권역의 중심고분군일 가능성이 높다. 이 고분군을 조영한 세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이 중 하나는 옥성리고분군이 발굴되기 이전부터 포항권역에 삼한 소국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삼국지(三國志)』 「위서동이전(魏書東夷傳)」 변진조(弁辰條)에 기록된 근기국(勤耆國)의 위치를 영일지역으로 본 것이다. 이 견해는 영일의 신라 때 이름인 근오지(斤烏支)와 근기(勤耆)의 음이 서로 비슷하다는 점에 근거한다.⁷⁵⁾ 이와 달리 옥성리고분군을 비롯한 원삼국시대 유적 조사의 성과를 토대로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新羅本紀)」에 등장하는 음즙벌국(音汁伐國)⁷⁶⁾의 위치를 흥해 일대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 음즙벌국의 위치에 대하여 안강으로 보는 견해⁷⁷⁾가 있지만 흥해 등 동해안 지역으로 보거나⁷⁸⁾ 안강 일부를 포함하여 흥해와 그 일대의 해안지역으로 넓혀 보는 견해도 제기되었다.⁷⁹⁾ 아직 논의 중이긴 하지만 흥해 일원에 삼한 소국이 있었을 가능성은 높다 하겠다.

그런데 옥성리고분군이 4세기 이후에도 포항권역의 중심 고분군이었는지는 아직 고고자료로 증명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 시기의 대형묘가 발굴되

75) 이병도(1985), 『수정판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274쪽.

76)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 婆娑尼師今 23年, “秋八月 音汁伐國與悉直谷國爭疆 詣王請決 王難之 謂金官國首露王 年老多智識 召問之 首露立議 以所爭之地 屬音汁伐國.”

77) 『三國史記』 卷34, 「雜誌」, 地理1, 新羅, “義昌郡 本退火郡 景德王改名 今興海郡 領縣六 安康縣 本比火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鬐立縣 本只杏縣 景德王改名 今長鬐縣 神光縣 本東仍音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臨汀縣 本斤烏支縣 景德王改名 今迎日縣 杞溪縣 本芑兮縣 一云化雞 景德王改名 今因之 音汁火縣 婆娑王時 取音汁伐國置縣 今合屬安康縣.”

78) 이종욱(1982), 『신라국가형성사연구』, 일조각, 86쪽.

79) 이희준(2007), 앞의 책, 192~194쪽.

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5세기까지 무덤 축조가 면면히 이어졌다. 신라 왕경의 주요한 묘제인 적석목곽묘도 13기나 발굴되었다. 따라서 앞 시기와 같은 양상은 아니었겠으나 여전히 유력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포항권역의 4세기 토기문화는 부산, 김해, 함안 등지에 비하면 아직 그 실체가 덜 밝혀졌다. 그것은 경주를 비롯한 경북지역의 일반적인 양상이다. 다행히 근래 4세기의 생활유적이나 무덤의 발굴 조사 사례가 늘어나면서 경북지역 역시 경남 부산지역의 토기문화와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공통양식기의 도질토기가 어떻게 신라양식 토기로 전환하는지,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존재했는지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⁸⁰⁾

2) 고분군별 토기문화

(1) 옥성리고분군

포항시 북쪽 흥해읍에 위치한다. 원삼국시대 후기 이래 포항 일원의 중심 고분군이다. 원삼국시대 이래 6세기까지의 무덤이 군집을 이룬다. 중심연대는 3~4세기이며 5세기 중엽 이후의 유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국립경주박물관이 발굴을 담당한 가지구에서는 목관묘 1기, 목곽묘 71기, 적석목곽묘 12기, 석곽묘 16기가 발굴되었다. 내부에서 출토되는 토기는 경주 토기와 양식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가지구에서는 고식 도질토기에서 신라양식 토기로 분화되는 단계의 유구가 여러 기 조사되었다.⁸¹⁾

80) 경주의 경우 월성로고분군에서 출토된 4세기 무덤을 통하여 편년의 큰 틀이 잡혔다. 다만 발굴 조사가 하수도공사와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모로 애매한 점이 많다. 각 유구 출토 토기의 특징 및 선후관계에 대한 검토는 다음의 연구가 상세히 다루고 있다. 최병현(2000), 앞의 글, 74~83쪽.

81) 국립경주박물관·포항시(2000), 『옥성리고분군 I~III-가지구 발굴조사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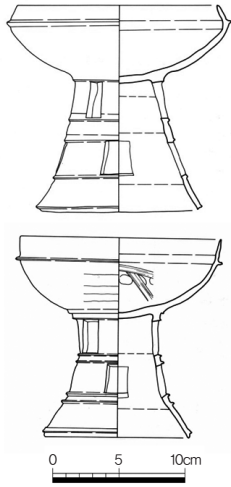


그림 12. 옥성리 가-63호
목곽묘 토기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현 영남문화재연구원)이 담당
한 나지구에서는 목관묘 2기, 목곽묘 128기, 옹관
묘가 발굴되었다. 적석목곽묘와 석곽묘는 확인되
지 않았다.⁸²⁾ 3세기대 무덤 가운데는 18호묘, 78
호묘, 58호묘와 같은 장방형의 목곽묘가 포함되어
있다. 이 3기를 비롯하여 나지구에서는 주로 3~4
세기대 무덤이 발굴되었다.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이 발굴한 구역에서는 목
관묘 1기, 목곽묘 42기, 옹관묘 7기, 적석목곽묘 1
기, 수혈식석곽묘 4기가 발굴되었다.⁸³⁾ 15호분
에서는 주머니호가 출토되었는데 경주 조양동 60호
분 출토품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므로 2세기 중엽

이전으로 볼 수 있겠다. 유구의 수가 많지는 않으나 가지구와 나지구 고분군
에 후속하는 단계의 자료가 출토되었다.

그림 12~14는 옥성리고분군 출토 토기 가운데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것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12에 제시한 가-63호 목곽묘 고배 가운데 아래의 토기는
황남동 109호분 3·4곽 토기와 유사하다. 위쪽 토기와 공반되었는데 이 토기
는 색조나 기형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조합은 경주 황남동 205번지 고분에서
도 확인된다. 복수의 공방 제작품이 공존하는 현상이라 추정된다. 그림 13은
가-4호 적석목곽묘 토기다. 개배, 연질옹, 장경호 등의 기종이 함께 출토되었
다. 고배의 경우 대각이 3단으로 구획되었으나 최하단의 구획이 좁고 전체적

82)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포항시(1998), 『포항옥성리고분군 I·II-나지구』.

83)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경상북도 포항시(2003), 『포항 국도7호선 확장공사구간내 포
항옥성리고분군발굴조사보고서』.

인 윤곽선이 조금 직선적이며
끝이 뾰족하게 처리되었다.

그림 14는 옥성리고분군 가
지구 출토 고배의 변화상을 경주
출토 신라 고배와 비교한 것이
다. 옥성리 가-15호 목곽묘 출
토 고배는 황남동 109호분 3·4
곽 출토품에 대응하는 것이다.
옥성리고분군 가-30호 목곽묘,
가-63호 목곽묘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 옥성리 가-4호 적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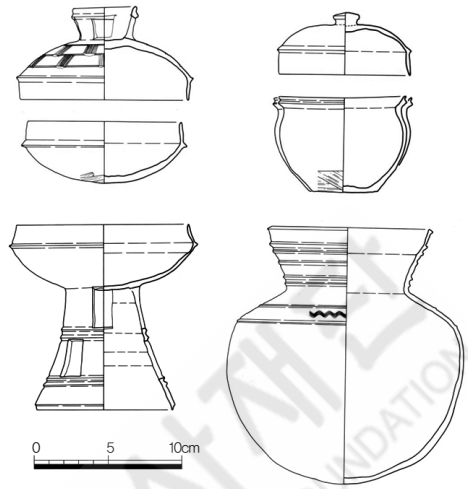


그림 13_ 옥성리 가-4호 적석목곽묘 토기

목곽묘 고배의 경우 경주의 사라리 7호 적석목곽묘 출토품에 비견된다. 아마
도 이러한 형태의 고배는 옥성리 가-63호 목곽묘 고배 2점의 특징이 서로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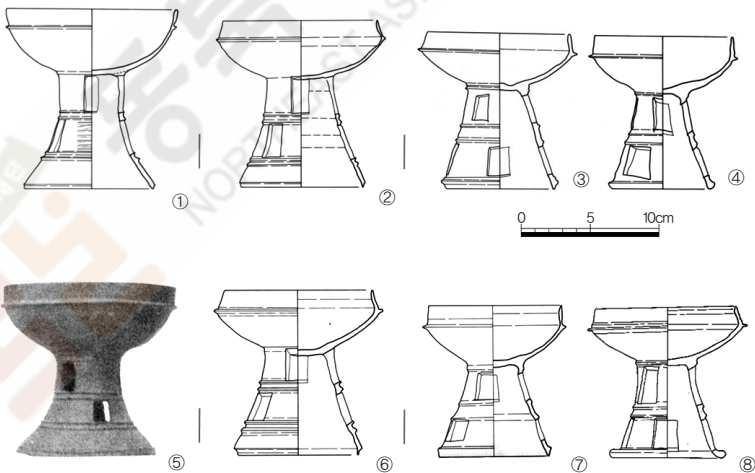


그림 14_ 옥성리고분군(상)과 경주지역(하) 출토 고배의 비교

(① 옥성리 가-15호 목곽묘, ② 옥성리 가-4호 적석목곽묘, ③·④ 옥성리 가-119호 적석
목곽묘, ⑤ 황남동 109호분 3·4곽, ⑥ 사라리 7호 적석목곽묘, ⑦·⑧ 황남대총 남분)

함되어 생겨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옥성리 가-119호 적석목곽묘 고배는 대각의 형태로 보면 단부를 뾰족하게 처리한 것과 둥글게 처리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황남대총 남분을 비롯한 같은 시기 경주 출토 고배에도 적용할 수 있다. 황남대총 남분보다 늦은 시기가 되면 뾰족한 단부를 갖춘 고배는 적어지며 둥글게 처리하는 기법이 일반화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옥성리 가지구의 고배에서 상정할 수 있는 변화는 경주의 그것과 유사하다. 즉 이 무렵 포항지역의 신라 토기는 울산권역과 마찬가지로 경주의 토기와 동일한 변화 템포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외에 옥성리고분군 주변 흥해중학교의 북쪽 담장 밖에 있는 마산리에서도 목곽묘 10기, 옹관묘 3기가 발굴되었다.⁸⁴⁾ 토기는 주로 단경호가 출토되었고, 토기와 함께 출토된 철기로 보면 4세기대로 편년할 수 있다.

(2) 학천리고분군

곡강천의 지류인 학림천 북안의 구릉에 입지한다. 목곽묘 136기, 적석목곽묘 8기, 수혈식석곽묘 235기, 횡구식석곽묘 41기가 발굴되었다.⁸⁵⁾ 목곽묘, 적석목곽묘, 수혈식석곽묘가 동시에 공존하기도 하는데 수혈식석곽묘가 더 늦은 시기까지 묘제로 사용되었다. 보고서는 무덤의 상한 연대를 원삼국시대라고 하였지만, 와질토기의 편년에 관한 여러 견해를 참고할 때 이 고분군에서는 3세기까지 소급되는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 유적에서 가장 이른 단계의 유구는 33-2호 목곽묘와 95호 목곽묘 등인데, 이들 묘에서는 고식 도질토기 가운데 이른 단계로 편년할 수 있는 노형기

84)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5b), 『흥해 소망교회 신축부지내 포항 마산리고분군』.

85) 포항시·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2), 『포항 학천리유적 발굴조사보고서』 I~III.

대와 단경호가 출토되었다. 36호 목곽묘에서는 전형적인 4세기 고배가 출토되기도 하였다. 115호 목곽묘 토기 가운데는 대각이 3단으로 구획된 것과 2단으로 구획된 것이 있다. 6호 적석목곽묘의 경우 유물이 많은 편인데 토기는 황남대총 북분 단계인 것 같다. 218호묘나 214호 수혈식석곽묘에서는 5세기 말~6세기 초의 일괄유물이 다량 출토되었는데 특히 주구 출토품이 많다. 이외에 횡구식석실묘에서는 6~7세기 토기가 출토되었다.

(3) 대련리고분군

흥해 평야를 관통하여 흐르는 곡강천 지류인 초곡천의 상류에 위치한다.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이 발굴 조사하였는데 대련리 산176-1번지 유적에서는 횡혈식석실묘 1기, 산24번지 유적에서는 횡혈(구)식석실묘 9기와 옹관묘 등 29기의 무덤이 발굴되었다. 내부에서 단각고배, 개, 단경호, 연질용 등이 출토되었는데, 토기 가운데 다수는 6~7세기대로 편년할 수 있는 자료이다.⁸⁶⁾

(4) 인덕동고분군

형산강의 지류인 냉천 하류에 위치한다. 도로 개설 구간에서는 수혈식석곽묘 9기, 횡구식석실묘 3기, 횡혈식석실묘 1기가 조사되었다. 출토유물은 단각고배와 부가구연장경호를 표지로 하며 연대는 6세기 후반~7세기 전반쯤으로 볼 수 있다.⁸⁷⁾

86)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0), 『포항 대련리고분군 수습조사보고서』; 이청규·김용성·황종현·박지연(2001), 『포항 대련리유적』, 영남대학교박물관;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8a), 『대구~포항고속도로 연일JCT 건설공사구간 내 문화유적발굴조사 약보고서』;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8b), 『포항 국도대체우회도로(유강-대련)건설구간 내 포항 대련리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87) 한국문화재보호재단·포항시(2006), 『포항 인덕동유적 포항철강공단-냉천간 도로개

인덕산 절취공사 부지에서는 수혈식석곽묘 6기, 적석목곽묘 6기, 황혈식 석실묘 3기가 발굴되었다.⁸⁸⁾ 토기는 반구상(盤口狀) 구연을 갖춘 장경호, 단각 고배가 출토되었다. 단각고배는 1단투창이거나 대각이 굽상으로 축약된 것이 보인다. 2단투창 고배 역시 대각이 매우 짧다.

(5) 호동고분군

인덕동고분군에 인접해 있다. I지구에서는 13기의 수혈식석곽묘와 1기의 황구식석실묘, 1기의 옹관묘, 5기의 황혈식석실묘가 발굴되었다.⁸⁹⁾ 출토유물로 보면 단각고배가 유행하는 6세기 후반~7세기 초반으로 편년할 수 있다. II지구에서는 후기 와질토기와 삼국시대 신라 토기가 출토되는 취락이 발굴되었다. 1호 수혈에서는 황남대총 남분 단계의 고배가 출토되었다.⁹⁰⁾

(6) 대각리고분군

포항시 남쪽을 관통하는 우회도로 건설구간에서 발굴된 유적이다. 목곽묘와 옹관묘 39기, 수혈식석곽묘 57기, 석실묘 1기가 발굴되었다. 나-78호분은 3세기까지 올라가지만 대부분은 4세기에서 7세기까지 축조된 것이다. 목곽묘가 7세기 무렵까지 조영되었다.⁹¹⁾

설예정구간 발굴조사보고서」; 임재형·남효정(2008), 「포항 인덕동유적 삼국시대 고분에 대하여」, 『포항 인덕동유적 포항철강공단-냉천간 도로개설예정구간 발굴조사보고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포항시, 310~317쪽.

88) 한국문화재보호재단·포항시(2007), 『포항 인덕산유적-포항 인덕산 절취공사 제1공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89)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5c), 『포항시 호동 쓰레기매립장 확장부지 내 포항 호동유적 I(I지구)』.

90)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8b), 『포항 호동유적 VII(II지구 원삼국~삼국시대 수혈유구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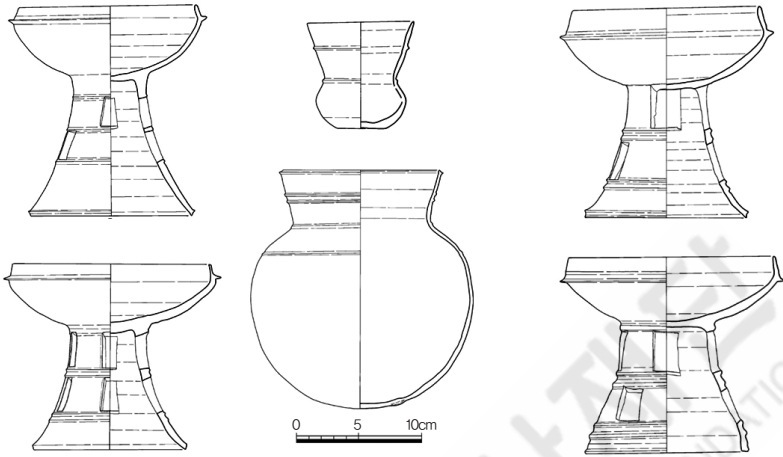


그림 15_ 대각리고분군 출토 토기(왼쪽 : II-30호 목곽묘, 오른쪽 : II-28호 목곽묘)

그림 15는 대각리고분군에서 출토된 신라양식 발현기의 토기다. 대각리 II-30호 목곽묘에서 출토된 고배 가운데는 대각을 4단으로 구획하고 대각이 매우 길쭉한 것과 3단으로 구획되고 투창이 일렬로 배치된 것이 있다. 이러한 토기는 그림 15의 우측 토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식으로 보이지만 큰 시차는 없는 것 같다.

대각리고분군 서북쪽에 인접한 우복리에서 석곽묘 1기가 발굴되었는데 압인(押印)의 삼각집선문과 반원점문(半圓點紋)이 배풀어진 토기가 출토되었다.⁹²⁾ 특히 반원점문은 반원문을 압인한 후 점을 찍은 것인데 무질서하다. 7세기 무렵으로 편년할 수 있는 자료이다.

91) 박광렬·최상태·박경례(2007), 『포항 대각리유적-주거지·목곽묘·토광묘』, 성림문화재단연구원.

92) 영남문화재단연구원(2005), 『포항 우복리 66-15번지 유적』.

(7) 용흥동고분

공사시 파괴된 것을 국립경주박물관이 수습해 조사하였다. 형산강 하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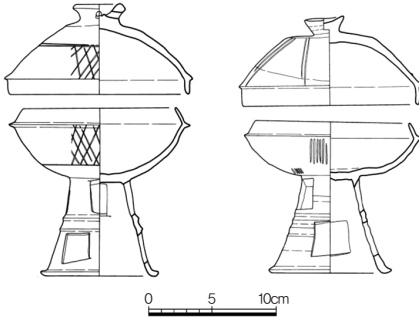


그림 16. 용흥동 목곽묘 토기

서 북쪽으로 멀지 않은 능선 단애 부 아래에 위치한다. 금동관편, 금동제 대금구편과 함께 금동제 삼엽환두대도가 출토되었다. 토기는 고배, 대부완, 장경호가 중심을 이룬다. 고배의 경우 개(蓋)와 배신(杯身) 표면에 사격자문이 시문되거나 다치구를 이용한 집선문이 베풀어

져 있다(그림 16). 장경호 가운데 경부를 곡선적으로 외경한 경우 원점문이 시문되었고 반구상 구연의 장경호도 출토되었다. 이러한 토기는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로 편년할 수 있는 자료이다.⁹³⁾

(8) 강사리고분군

남구 대보면 해안의 야트막한 구릉 사면에 입지한다. 발굴 조사시 목곽묘 16기, 수혈식석곽묘 55기, 옹관묘 2기, 횡혈식석실묘 1기가 드러났다.⁹⁴⁾ 고배로 보아 5세기를 전후한 시기까지 소급되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7세기 전반까지 내려가는 것도 있다.

그림 17에 제시한 3기의 무덤 출토 토기는 10호 목곽묘 → 6호 석곽묘 → 12-2호 석곽묘 순서로 변화했을 것으로 보인다. 10호 목곽묘 고배 2점은 대

93) 국립경주박물관(2007), 『포항 용흥동 신라묘』.

94)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7), 『포항 강사리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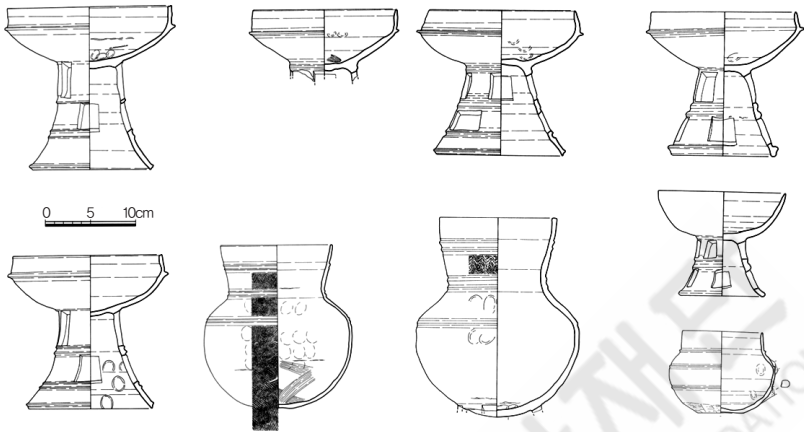


그림 17. 강사리고분군 토기(왼쪽 : 10호 목곽묘, 가운데 : 6호 석곽묘, 오른쪽 : 12-2호 석곽묘)

각이 3단으로 구획되어 있고 하부로 내려오면서 나팔상으로 벌어지며 단부가 뾰족하다. 황남동 109호분 3·4곽 고배보다는 낮고 황남동 110호분 고배보다는 이른 시기의 토기로 추정된다. 12-2호 석곽묘 고배는 황남대총 남분 단계의 특징을 갖추고 있고, 6호 석곽묘 고배는 이보다 이른 시기의 특징을 보이므로 10호 목곽묘와 12-2호 석곽묘 사이에 6호 석곽묘를 배치하였다. 이 고분군의 중심연대는 5세기이며 무덤이 지속적으로 축조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무덤의 규모나 유물 구성 등으로 보면 대보리고분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계가 높은 고분군으로 보인다.

(9) 대보리고분군

호미곶에서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대보리고분군과 강사리고분군이 연이어 나온다. 대보리고분군에서는 토광묘 22기, 목곽묘 5기, 수혈식석곽묘 102기, 옹관묘 2기, 석실묘 1기가 발굴되었다.⁹⁵⁾ 토광묘 가운데는 직장(直葬)일 가능성이 있는 것과 목관이나 석개(石蓋)를 사용한 예가 있다. 일부 유

구의 경우 중복관계로 보면 석곽묘보다 선행하지만 같은 시기의 자료도 있다. 유물은 고배가 적고 컵형토기와 장경호, 단경호의 비중이 높다. 19호 석곽묘 출토 장경호처럼 황남대총 남분 단계까지 소급시킬 수 있는 것도 있고⁹⁶⁾ 76호 묘 출토 고배나 장경호처럼 6세기 초로 편년할 수 있는 자료도 있다. 이 무렵이 이 고분군의 중심연대인 것 같다. 물론 58호나 82호 석곽묘처럼 6세기 후반에 가까운 것, 64호 석곽묘나 석실묘처럼 7세기 중엽쯤에 축조된 무덤도 포함되어 있다.

(10) 오도리고분군

흥해읍 오도리 해변의 야트막한 능선 사면에 입지한다. 수혈식석곽묘 11기, 횡구식·횡혈식석실묘 12기가 발굴되었는데 석곽묘 가운데 8기는 석실묘의 배장묘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림 18의 오도리 1호 석곽묘 토기처럼 2단투창을 갖추고 집선문이 시문된 것은 5세기 후반까지 소급되고, 사격자문이 베풀어져 있는 4호 석실묘 토기는 6세기 전후로 편년할 수 있다. 그리고 수적형문이나 압인의 삼각집선문이 베풀어진 토기가 출토된 7호 석실묘와 8호 석실묘는 7세기 무렵으로 편년할 수 있다.⁹⁷⁾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포항권역의 토기문화 역시 울산권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4세기 후반 이후 경주지역 토기와 제작기법이나 기종 구성이 매우 유사하다. 이 무렵은 경주에서도 이제 막 새로운 토기문화가 발현하던 시점이

95)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9), 『포항 대보리유적(I)(II)』, 발굴 조사를 담당하 김광명 선생이 최근 간행된 보고서를 보내 주어서 상세한 검토가 가능했다.

96) 보고자는 14호와 66호 석곽묘의 연대를 5세기 전반까지 올려 보았다. 이 글에서 필자가 활용하고 있는 편년관에 따라 5세기 중엽에 가까운 연대를 부여하고 싶다.

97) 박광렬·김정만·최대용·이언애(2008), 『포항 오도리 신라묘군』, 성립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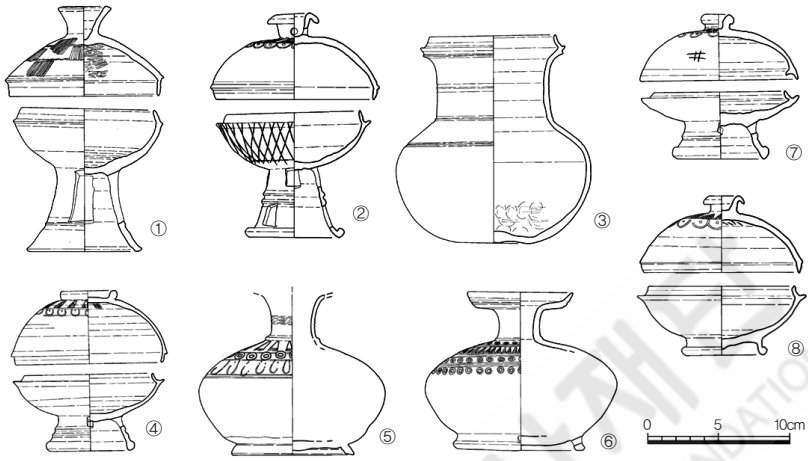


그림 18. 오도리 1호 석곽(①), 4호 석실(②·③), 7호 석실(⑥~⑧), 8호 석실(④·⑤)

다. 그 시기의 토기문화가 바로 포항지역에도 파급된 것이다. 이 역시 울산권 역과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원삼국시대와 달리 지역의 중심고분군이 소멸된 점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용흥동고분과 냉수리고분이 있지만 규모로 보면 창녕 교동고분군이나 의성 탑리고분군에 비견할 수는 없다. 포항권역의 토기문화는 6~7세기에 도경주지역 토기의 양식 변화 양상을 충실히 구현하였다.

V. 영덕·울진권역의 신라 토기문화

1. 고분군의 분포

포항 북쪽 지역의 신라 토기문화는 아직 실체가 분명하지 않다. 전형적인 신라 토기가 다량으로 출토된 고분은 영덕 괴시리 16호분, 울진 덕신리고분군 정도이다. 앞에서 살펴본 울산이나 포항처럼 단위 지역 내에 다수의 고분군이 분포하고 그 가운데 일정한 위계가 존재하는 모습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고분의 축조 시기 역시 5세기 중엽이 상한이며, 그 이전 시기의 신라 토기가 출토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울진·영덕권역의 이러한 사정에 비하면 강릉 일원의 경우 조사 예가 더욱 많고 더 이른 시기의 신라 토기가 출토된 바 있다.⁹⁸⁾

울진·영덕권역에서 아직 원삼국시대 무덤은 발굴되지 않았다. 다만 영덕군청 소재지 동북쪽의 덕곡리(그림 19-①)에서 목곽묘 6기가 발굴되었다.⁹⁹⁾ 발굴 이전에 이미 훼손되었기 때문에 전모를 알기는 어려웠다. 4호 목곽묘에서 출토된 단경호와 대부직구호, 5호 목곽묘에서 출토된 개의 경우 포항·경주지역의 전형적인 고식 도질토기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특징을 지닌 4세

98) 강원문화재연구소·강릉시(2008), 『강릉 초당동유적IV 강릉 유화아파트-강릉고등학교 간 도로개설부지 내 유적』, 131쪽, 그림 58-석곽묘 80. 이 보고서에 수록된 7호 석곽묘 출토 고배 1점은 황남동 109호분 3·4곽 단계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그렇지만 상세히 살펴보면 소성에 차이가 있고 기형 상으로 보아 황남동 110호묘 단계의 토기인 옥성리 가-4호 적석목곽묘 고배와 유사한 면모도 지닌다. 이 글에서는 이 토기가 109호분 3·4곽과 110호묘 토기의 중간 단계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 정도를 지적하는 선에서 그치고자 한다.

99)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5), 『영덕 덕곡리고차로 건설부지내 영덕 덕곡리유적』.

기 토기임은 분명한 것 같다. 이 고분군에서는 구정동을 비롯한 경주 일원에서 나온 것과 유사한 장신(長身)의 철모가 다수 출토되었다.

영덕 괴시리고분군(그림 19-②)은 영해(寧海) 해안에서 가까운 산 능선에 일정한 열을 이루며 조영되어 있다.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작은 무덤 1기를 조사했는데 그것이 괴시리 16호분이다. 이 무덤은 출토 토기로 보아 5세기 중후반으로 편년할 수 있으며 열을 이룬 고분군의 중간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발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이른 시기의 대형묘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영해면 일원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 괴시리고분군에 인접하여 성내리고분군과 별영리고분군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¹⁰⁰⁾ 괴시리고분군을 정점으로 그 하위에 편재된 고분군으로 볼 수도 있다.

덕신리고분군(그림 19-③)은 울진군 원남면 덕신리 해안의 능선 사면과 골짜기에 위치한다. 83기의 무덤이 발굴되었는데 호석과 봉토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된 무덤의 중심연대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이다. 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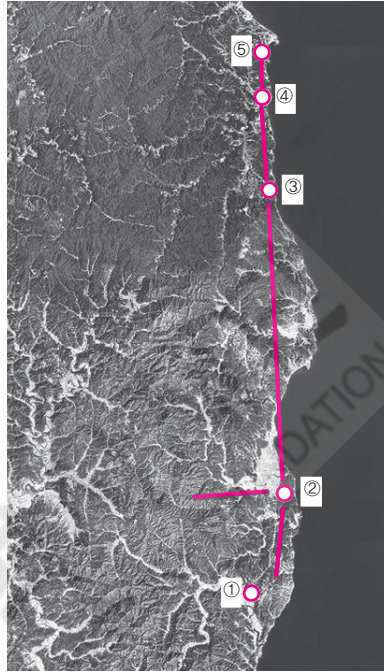


그림 19_ 영덕·울진권역의 주요 고분 분포
(① 덕곡리, ② 괴시리, ③ 덕신리,
④ 읍남리, ⑤ 봉평리)

100) 윤용진(1981), 「영덕군」, 『경상북도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II, 경상북도 ; 박방룡(1999), 「II. 유적의 위치 및 역사적 환경」, 『영덕 괴시리16호분』, 국립경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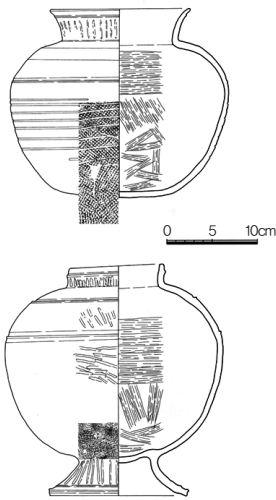


그림 20_ 덕곡리 4호묘 출토 토기

리보다 북쪽에 위치한 울진읍에 이 지역의 중심 고분군인 읍남리고분군이 있다(그림 19-④). 영남 문화재연구원이 3기의 봉토묘와 12기의 석곽묘를 시굴하는 과정에서 토기가 출토되었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울진읍에서 해변을 끼고 북진하다보면 다다른 죽변항에 인접하여 고신라 비석이 발견된 봉평리가 있다. 1988년 이 부근에서 석곽묘 1기가 수습 조사된 바 있다.¹⁰¹⁾

이처럼 영덕·울진권역의 경우 아직 조사의 진전도가 낮아 고분 분포의 특징을 이야기하기 어렵다. 다만 울산 및 포항권역과 달리 주요 고분군이 동해 해변에 연하여 선상으로 분포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2. 신라 토기문화의 수용 양상

이 글에서 영덕·울진권역이라고 설정하였지만 그것은 울산이나 포항처럼 하나의 지역집단 또는 세력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울산이나 포항에는 원삼국 시대에 하나씩 소국이 있었고, 그 후예들이 분화되어 여러 세력을 이루었다. 영덕과 울진지역에서는 이러한 소국적(小國的) 전통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동

101) 송의정·채규돈(1992), 「울진군 봉평리 석곽묘 수습조사 보고」, 『고대연구』 3, 고대 연구회. 이 무덤의 경우 대부분 파괴되어 원형을 추정하기 어렵다. 내부에서 반구상 구연의 장경호, 단경호, 고배, 완 등이 출토되었는데 6세기 중엽을 전후한 시기로 편년할 수 있다. 경주지역 토기와 큰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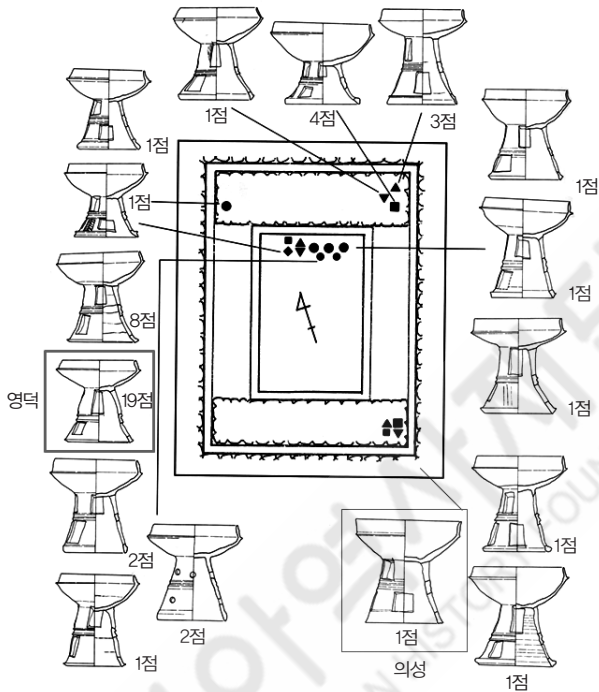


그림 21_ 괴시리 16호분 고배의 부장 위치

해안 지역 전체의 고분 분포 양상을 볼 때 포항과 삼척 사이에 위치하고 서로 비교적 인접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함께 묶어 살펴본다. 이 권역에서 발굴된 고분군 가운데 토기가 많이 출토된 영덕 괴시리 16호분과 울진 덕신리고분군을 중심으로 이 지역 토기문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괴시리 16호분

무덤의 구조는 적석목곽묘로 볼 수 있지만 상부 적석은 확인되지 않았다. 묘곽은 길이 6.2m, 너비 5.15m, 깊이 2m 정도이다. 목곽은 2중곽이고 주곽과 순장곽이 T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주곽의 유물은 머리와 발치 쪽에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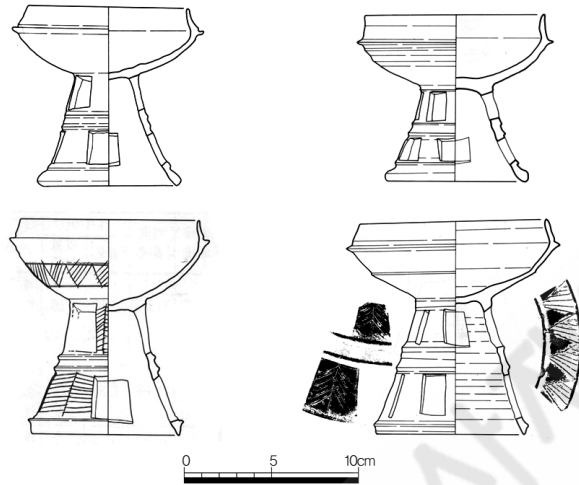


그림 22_ 괴시리 16호분(왼쪽)과 황남대총 남분(오른쪽) 토기 비교

두 매납되었는데 고배, 개배, 장경호, 기대, 연질옹 등이 출토되었다. 경식으로 보이는 유리구슬과 함께 금 구슬편도 나왔다. 순장곽에서도 여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¹⁰²⁾

필자는 1999년 이 무덤의 발굴조사보고서를 집필하면서 무덤의 연대를 5세기 후반으로 편년한 바 있다.¹⁰³⁾ 그림 22의 좌측 고배처럼 황남대총 남분 출토품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늦은 속성을 보이는 예가 있기 때문에 늦은 요소에 기준하여 그렇게 본 것이다. 이번에 이 고분 출토 토기를 새롭게 살펴본 결과, 지역색 강한 토기가 많아 정밀한 편년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다만 남쪽 호석 주위에서 출토된 고배의 연대는 황남대총 남분 단계의 토기보다 많이 늦추어 보기 어려울 것 같다. 주변에서 함께 출토된 고배의 개(蓋)에 사격

102) 최중규 외(1999), 『영덕 괴시리16호분』, 국립경주박물관.

103) 이한상(1999), 「V. 토기에 대한 검토」, 『영덕 괴시리16호분』, 국립경주박물관.

자문이 시문된 예가 있는데 이것은 무덤 주인공의 후손들이 이 무덤을 관리하던 시절 반입한 토기로 볼 수도 있다.

이 무덤에서는 59점이 고배가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성형 및 소성이 매우 좋은 정품(精品)도 있고 성형 기술이 미숙하여 기벽의 두께가 고르지 않거나 소성 시 찌그러진 것도 많다. 조품(粗品)의 비중은 4분의 3 정도이다. 고배의 대각 내면에 점토대(粘土帶)를 권상(卷上)한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는 것도 있다. 보고서 작성 시 59점의 고배를 19가지로 나눴는데 지금 보면 지나치게 세분하였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당시에는 고배가 지닌 색조나 형태의 차이에 따라 최대한 구분하여 장차의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셈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그 가운데 II군 1식으로 분류한 19점, II군 4식으로 분류한 1점¹⁰⁴⁾ 등 20점은 영해 일원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 지역 토기문화를 잘 보여주는 예로 추정된다(그림 22). 고배 가운데 1점은 의성토기¹⁰⁵⁾가 분명하다. 향후 연구의 진전에 따라 괴시리 16호분에 묻힌 다양한 고배의 산지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장경호도 지역에서 제작된 것과 외부에서 반입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 공존한다. 정품의 경우 고배와 마찬가지로 경주 혹은 포항 등 외지에서 반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 무덤에서 적갈색 연질옹이 다수 출토된 점 또한 주목할 만하

104) 다른 19점에 비하여 소성도가 높으며 기벽이 얇다. 기형으로 보면 11호묘 호석 주변에서 출토된 고배(A지점)와도 비슷하다.

105) 의성지역 토기는 신라 토기의 지역양식을 발현한 것인데, 그간 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다. 定森秀夫(1988), 「韓國慶尙北道義城地域出土陶質土器について」, 『日本民族・文化の生成1-永井昌文教授退官記念論文集』; 木村光一(1992), 「義城長林洞古墳群の研究-古新羅邊境の古墳群の性格」, 『古文化談叢』 28, 九州古文化研究會; 김옥순(2007), 「의성지역의 토기양식과 사회집단의 성격」, 『다시 찾아야 할 조문국』, 의성군 외; 이희준(2007), 앞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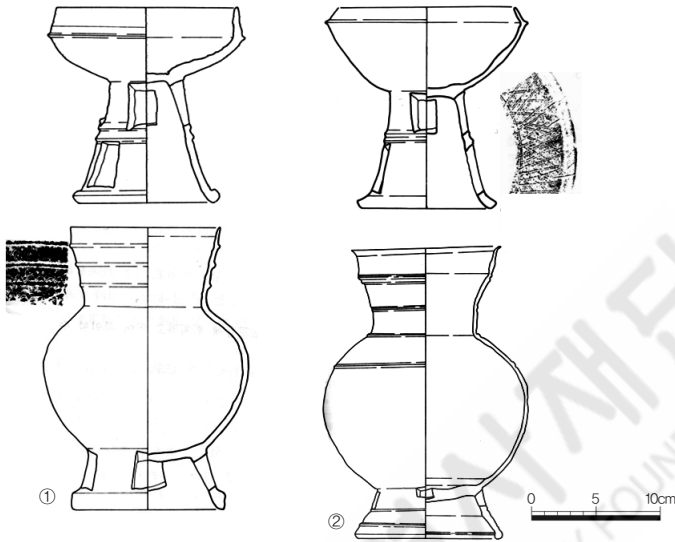


그림 23_ 덕신리고분군 토기의 변화(① : 74호묘, ② : 36호묘)

다. 대개 경주에서는 황남동 110호분 단계 이후 적갈색 연질용의 부장이 늘어나고 황남대총 남분 단계에 형태가 정형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괴시리 16호분의 연질용은 정형화된 단계의 모습을 보여준다. 내부에서 통형 기대가 출토되었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울산의 운화리고분군이나 효문동고분군에서 출토된 자료와 유사한 편이고 후술하는 덕신리고분군 출토품과도 맥이 이어진다. 이 토기에 대해서는 향후 제의의식(祭儀儀式)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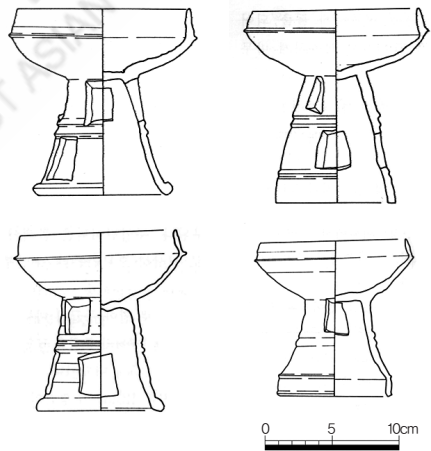
(2) 덕신리고분군

울진군 원남면 덕신리에 위치한다. 해발 60m 내외의 해안 능선과 그에 인접한 골짜기에 입지하며, 안동대학교박물관이 조사하여 83기의 무덤을 발굴하였다. 이 가운데 수혈식석곽묘가 다수인 75기다. 여기에는 소형 석곽 11기,

용관묘 1기가 포함된다. 중심 유구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해당하며 일부 황남대총 남분 단계까지 소급되는 자료도 있다.¹⁰⁶⁾

그림 23은 덕신리고분군이 조영된 중심시기의 토기 가운데 일부를 비교해 본 것이다. 좌측의 토기는 74호묘 출토품이고 우측의 토기는 36호묘 출토품이다. 74호묘 토기는 36호묘 토기에 비하여 고식으로 파악되며, 제작기술에 차이가 많지만 황남대총 남분 단계의 토기를 모방한 것 같다. 이에 비하여 36호묘 토기는 고배 배신 표면에 사격자문이 시문되어 있고 장경호의 구연이 비스듬한 사선을 이루며 상승하고 있다. 이는 6세기 전후 토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그림 24는 덕신리 74호묘 출토 고배 가운데 4점을 모아본 것이다. 좌측의 2점은 경주 토기의 기형을 띠고 있지만 우측 2점은 그렇지 않다. 우측 상단의 토기는 마치 창녕지역 토기와, 우측 하단 토기는 양산지역 토기와 각각 유사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덕신리고분군 토기는 포항권역의 토기처럼 경주 토기의 양식 변화를 충실히 구현하고 있지는 못하며 영덕 괴시리 16호분 토기보다 조약한 것이 많다. 그림에도 그림 23에서 볼 수 있듯이 경주 토기의 큰 양식 변화 흐름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울진지역에서 발굴된 무덤 가 **그림 24** 덕신리 74호묘 고배

106) 안동대학교박물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2004), 『울진 덕신리유적』.

운데 덕신리 이외에도 1988년 수습 발굴된 봉평리 석곽묘에서 토기가 출토되었다. 무덤은 대부분 파괴되어 원형을 알기 어려우며 내부에서 장경호, 단경호, 고배, 완 등이 출토되었다.¹⁰⁷⁾ 이들은 6세기 중엽 전후로 편년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덕·울진권역의 토기문화 역시 울산이나 포항권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주지역 토기와 여러 특징을 공유한다. 그렇지만 단위 고분군 혹은 고분별로 출토되는 토기 사이의 제일성(齊一性)이 현저하지 않으며 제작기술이 현격히 떨어지는 토기가 많이 출토되기도 한다. 지리적으로 경주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지역색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것은 의성·성주·창녕 등 내륙지방에 비하여 토기 생산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했기 때문일 것이다.

VI. 맺음말

이상에서 영남 동해안 지역의 신라 토기문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서 이 지역의 신라 토기문화가 어떠한 특색을 지녔는지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영남 동해안 지역은 남북으로 길쭉하며 여러 지역을 포괄하므로 전체를 망라하여 일관된 틀로 분석하기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지역권별로 신라 토기가 출토된 고분군의 시·공간적 분포를 살핀 다음 각 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의 특징을 주목하였다.

107) 송의정·채규돈(1992), 앞의 글.



그림 25_ 울산, 포항권역 원삼국시대 고분군의 분포

그림 26_ 울산, 포항권역 5~6세기대 주요 고분군의 분포

먼저 각 고분군에서 출토된 신라양식 토기의 연대를 살펴보았다. 울산과 포항권역에 신라 토기가 등장하는 것은 5세기 전후이고, 더 북쪽에 위치한 영덕과 울진권역의 경우 5세기 중엽 이후임을 알 수 있었다. 5세기는 신라양식 토기문화의 중심지인 경주에서도 이제 막 신라양식 토기문화가 발현하던 시점이다. 이 무렵에 신라양식의 토기문화가 울산과 포항권역에 파급된 것이며 차츰 공간적 범위를 넓혀간 것이다. 이 중 울산과 포항권역의 토기는 정조(精粗)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마치 동일한 토기 생산체제에 편입된 것처럼 경주지역 토기와 유사하며, 경주의 양식 변화는 바로 울산과 포항권역으로 전해진다. 이에 비하여 영덕·울진권역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영덕 괴시리 16호분이나 덕신리고분군 출토 토기는 경주지역 토기를 모방한 것이 다수이나

각 토기 사이에 제작기술의 제일성(齊一性)은 현저하지 않다.

다음으로 신라양식 토기의 분포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림 25, 26에서 알 수 있듯이 원삼국시대 토기가 출토되는 고분군은 몇 개에 불과하지만 5세기 이후의 고분군은 많아졌다. 시기에 따른 고분군의 분포 양상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5세기 초반에 포항이나 울산항으로 가는 교통의 요지나 바닷가에 고분군이 많이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5세기 전후에 신라가 왕도의 방비를 강화하고 왕도 인접 지역에 대한 지배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 이 지역의 여러 세력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지배를 병행한 결과인 것으로 추정한다.

• 참고문헌

〈보고서〉

○ 울산권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5), 『경주봉길리 신규원전부지내 경주봉길리고분군』.
국립경주박물관·경주시(2006), 『양남 하서리고분군-557-4번지 주택신축부지』.
권용대·오광섭(2008), 『울산 중산동547-1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
권용대·이수홍·최득준·김광수(2006), 『울산 대대리 중대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
김길웅·김호상·조재영·황보은숙·손호성·유지현(2004), 『양남 하서리유적-양남
우회도로 하서리간내』,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박물관.
김도현·권지영(2005), 『울산 향산리 청룡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
김도현·권지영·최수형·박세진·권용대(2006), 『울산효문동울동유적 I~III』, 울산
문화재연구원.
김성식·한선영(2008), 『부산-울산 고속도로 건설구간 발굴조사보고서 울주 문화리
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 문화재센터·한국도로공사.
김형곤·고은영·김영숙·김주용(2004), 『울산다운동유적 I』, 창원대학교박물관.
김형곤·고은영·김영숙·김주용(2006), 『울산다운동유적 II』, 창원대학교박물관.
김형곤·김현희·고은영(2004), 『울산다운동유적 I(다운골프장부지 유적)』, 창원대학
교박물관.
부산대학교박물관(1983), 『울주화산리고분군』.
부산대학교박물관(1995), 『울주 양동유적 조사개보』.
울산대학교박물관(2000), 『경주봉길고분군 I』.
울산대학교박물관(2002), 『울산 대안리유적』.
유병일·김성미·배순희·권석호·김성식(2003), 『울산 다운동 마구역유적』, 울산발
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유병일·김성식·배순희(2005), 『울산 다운동 바구역유적』,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
센터.
이경인(2008), 『울산 달천유적 1차발굴조사』, 울산문화재연구원.

이현석·김종호·이현주·전은영(2008), 『울산화봉동유적 울산 화봉2지구 택지개발 사업부지 발굴조사보고』,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울산문화재연구원 문화재센터.

전호태·김영민(1997), 『울산 중대고분군』, 울산대학교박물관.

전호태·김영민·선석열(1998),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문화리고분군)』, 울산대학교박물관.

중앙문화재연구원·부산지방국토관리청(2003), 『울산-강동간 도로 확포장공사구간 내 울산 신현동유적』.

창원대학교박물관(1998), 『울산 일산동고분군』.

창원대학교박물관(2006), 『울산 중산리유적 I-현대자동차 근로자주택 부지내 유적』.

황창한·정현석·이현지(2008), 『울산문화리고분군』, 울산문화재연구원.

○포항권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경상북도 포항시(2003), 『포항 국도7호선 확장공사구간내 포항옥성리고분군발굴조사보고서』.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7), 『포항 강사리유적』.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9), 『포항 대보리유적 I·II』.

국립경주박물관(2007), 『포항 용흥동 신라묘』.

국립경주박물관·포항시(2000), 『옥성리고분군 I~III-가지구 발굴조사보고』.

박광렬·김정만·최대용·이언애(2008), 『포항 오도리 신라묘군』, 성림문화재연구원.

박광렬·최상태·박경례(2007), 『포항 대각리유적-주거지·목곽묘·토광묘』, 성림문화재연구원.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포항시(1998), 『포항옥성리고분군 I·II-나지구』.

포항시·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2), 『포항 학천리유적 발굴조사보고서 I~III』.

한국문화재보호재단·포항시(2006), 『포항 인덕동유적 포항철강공단-냉천간 도로 개설예정구간 발굴조사보고서』.

○울진·영덕권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5), 『영덕 덕곡리교차로 건설부지내 영덕 덕곡리유적』.

송의정·채규돈(1992), 「울진군 봉평리 석곽묘 수습조사 보고」, 『고대연구』 3, 고대

연구회.

안동대학교박물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2004), 『울진 덕신리유적』.

최종규 외(1999), 『영덕 괴시리16호분』, 국립경주박물관.

〈저서·논문〉

김현희(2009), 「다호리유적의 편년과 변진한의 토기문화」, 『창원 다호리유적 발굴 20주년 기념 고고학지 특집호』, 국립중앙박물관.

박순발(1994), 「한성백제 기층문화의 성격」, 『백제연구』 26,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白井克也(2003), 「新羅土器の型式分布變化と年代觀-日韓古墳編年の並行關契と曆年代」, 『朝鮮古代研究』 4, 朝鮮古代研究刊行會.

손정미(2006), 「동해안지역 신라고분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심재연(2006), 「강원 영동지역 철기시대 상한과 하한」, 『강원지역의 철기문화』, 2006년 강원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강원고고학회.

심현용(2008), 「고고자료로 본 신라의 강릉지역 진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상수(2002), 「영동지방 고분의 분포양상과 그 성격」, 『삼국의 접점을 찾아서』, 제 28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요지, 한국상고사학회.

이성주(2008), 「물질문화를 통해 본 고대 영동의 문화적 정체성과 그 변천」, 『인문학보』 34, 강릉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이성주·강선욱(2009), 「초당동유적에서 본 강릉지역의 신라화 과정」, 『주요 유적 종합보고 I 강릉 초당동유적』,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이창현(2005), 「강릉지역 신라고분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한상(2003), 「동해안지역의 5~6세기대 신라분묘 확산양상」, 『영남고고학』 32, 영남고고학회.

이한상(2004), 『황금의 나라 신라』, 김영사.

이희준(1997), 「토기에 의한 신라고분의 분기와 편년」, 『한국고고학보』 36, 한국고고학회.

지현병(2000), 「영동지역의 철기시대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병현(1992), 『신라고분연구』, 일지사.

최종규(1995), 『삼한고고학연구』, 서경문화사.

최종규(2008), 「고고학문화의 실천」, 『고고학탐구』 4, 고고학탐구회.

최종래(2007), 「강릉 초당동고분군의 조영집단에 대해서」, 『영남고고학』 42, 영남고고학회.

홍보식(2007), 「강원지역의 신라고분 전개양상」, 『강원지역의 철기문화』, 2007년 강원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강원고고학회.



영남 동해안 지역의 삼국시대 고분문화

부산박물관 **홍보식**

- I. 머리말
- II. 지역별 고분군의 분포와 특징
- III. 영남 동해안 지역 묘제의 특징
- IV. 맺음말

영남 동해안 지역의 삼국시대 고분문화

부산박물관 홍보식

이 글은 영남 동해안 지역의 삼국시대 고분군의 분포 및 묘제의 구성과 특징 등을 검토한 것이다. 영남 동해안 지역에서 고분군이 밀집한 곳은 흥해읍의 초곡천변과 냉천 북안의 포항과 울주 회야강 하류지역이다. 영남 동해안 지역 고분의 매장 주체시설로는 목곽·유사적석목곽·수혈식석곽·횡구식석실·횡혈식석실 등이 확인되었다.

목곽은 포항·감포~정자·회야강 하류 등 각 지역마다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포항지역에는 3세기대부터 5세기 후반까지 목곽묘가 보편적인 묘제로 조성되었다. 묘광과 목곽 사이의 충전공간을 돌로 채운 목곽묘가 많으며 바닥에 돌을 깔아 주곽과 부곽을 구분하거나 격벽을 만들어 주곽과 부곽을 구분한 세장방형의 신라식목곽묘도 10기 이상 확인되었다. 감포~정자지역에는 장방형 목곽묘가 5세기 후반까지 조성되었지만, 세장방형의 신라식목곽묘는 확인되지 않았다. 회야강 하류지역에는 목곽묘가 5세기 중엽까지 조성되었는데, 충전공간을 흙으로 충전하였고, 바닥은 생토면으로 포항·정자지역의 목곽과 양상이 다르다. 포항지역의 신라식목곽묘는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에 조성되었고, 투구·경갑 등 무구류와 재갈·행엽 등 마구류가 부장되어 다른 목

곽 보다 위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 세장방형 목곽과 더불어 장신형 꺾수문 철모가 부장되었는데, 이는 신라 중앙집단과의 관계가 강하였음을 보여준다. 다른 지역은 목곽이 조사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등장 시기도 늦다. 영남 동해안 지역에는 경주의 적석목곽묘를 모방하여 유사적석목곽을 조영하였는데, 이는 신라 중앙과의 관계가 밀접하였음을 나타낸다.

수혈식석곽은 영남의 남해안 지역과 내륙지역에 비해 늦은 5세기 후반부터 조영되었고, 규모도 중·소형이다. 회야강 하류, 감포~정자지역, 포항지역에 분포하는 수혈식석곽은 경주의 중·소형 적석목곽을 모방하여 석곽 내에 격벽을 설치하여 주·부곽을 구분하거나 장벽 일부를 튀어나오게 하여 부곽을 설치하였다. 한쪽 단벽의 너비를 넓게 하고 둥글게 쌓아 부곽을 마련한 예도 있다.

횡혈식석실은 평면 형태가 방형·장방형·횡장방형 등 다양하고, 연도는 좌편재와 중앙식이 있다. 포항 대련리고분군의 횡혈식석실은 다른 지역과 달리 현실 평면이 횡장방형이고, 중앙연도로서 길고 좁다. 또한 문주석이 설치되고, 벽면이 활상으로 휘고, 연도에 유물을 부장하고, 주검을 목관에 안치한 점 등도 다른 요소이다. 이러한 점들은 향후 다른 지역의 자료와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남 동해안 지역에서는 영덕 괴시리고분군을 제외하고 고총이 확인되지 않았다. 매장주체시설도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의 짧은 기간에 조영된 규모가 큰 세장방형의 신라식목곽묘를 제외하면, 중·소형이다. 특히 5세기 중엽 이후부터는 영남의 다른 지역에 비해 고분 규모와 부장품의 내용 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I. 머리말

삼한·삼국시대에 영덕에서 울산에 이르는 영남 동해안 지역은 사료국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신라의 직접 지배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빨리 관철된 지역이다. 그래서인지 6세기 전반대의 것이지만, 영일 냉수리비를 비롯하여 포항 중성리 신라비와 울진 봉평비 등 신라 중앙과 동해안 지역 집단의 관계를 보여주는 비문들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이후 고대사학계는 이 지역을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비석의 발견과 더불어 삼한·삼국시대의 물질자료 조사가 진행되고 그 성과가 공표되어 문헌사 연구에 부분적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물질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영동 해안지역을 대상으로 한 고고학적 연구 성과가 어느 정도 진척된 것과 비교하면, 영남 동해안 지역의 고고학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신라 중심(중앙)과 주변부의 중심지역이 경주와 북쪽으로는 건천-경산-대구지역, 남쪽으로는 모화-중산-하대지역으로 연결되는 지역의 물질자료의 그늘에 가려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고, 이 지역에 비해 물질자료의 조사 성과도 미미하였기 때문이다. 조사 및 연구 성과가 미미하지만, 이 지역은 신라가 삼척-강릉-원산과 울산-부산으로 진출하여 영역을 확장하는 전초기지였다. 따라서 영남 동해안 지역의 물질자료 연구는 현 시점에서 매우 필요한 작업이다. 이 글에서는 기원후 3세기대부터 삼국통일 이전인 7세기 전반까지의 고분을 대상으로 이 지역 매장시설의 양상(입지·분포·변천)을 검토하여 영남 동해안 지역의 삼국시대 고분문화의 특징을 추출하고자 한다.

II. 지역별 고분군의 분포와 특징

1. 분포

영남 동해안 지역의 고분군 가운데 1986년 감포 나원리고분군이 발굴되었고, 이어 영덕 괴시리 16호분이 조사되었다. 영덕 괴시리 16호분에서 경주와 그 주변지역에서만 확인되었던 신라 중앙의 특징적 묘제인 적석목곽묘가 확인되어 영덕지역 집단과 신라 중앙 집단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주요한 정보가 제공되었다. 그리고 울산 회야강 하류지역에서도 삼광리고분군과 화산리고분군이 조사되었고, 뒤이어 양동리고분군이 발굴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포항을 중심으로 감포·울산·기장·울진 등지에서 활발한 조사가 이루어져 각 거점지역을 단위로 한 검토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울진지역에서는 덕신리고분군을 포함해 모두 15개 고분군이 알려져 있는데,¹⁾ 이 중 몇 개는 고분군인지 불확실하다. 고분군은 바다에서 10km 이내의 해안변에 위치하고, 내륙에는 분포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점재하며, 지역의 중심고분군으로 추정할 만한 봉토분이 있는 고분군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영덕·포항 일대에 비해 다소 큰 하천과 평지가 없는 자연지리적 환경 때문으로 보인다. 원남면 덕신리고분군과 매화리고분군 일부만 조사되어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1기만 조사된 매화리고분군과 달리 덕신리고분군은 수십여 기의 고분이 조사

1) 울진군의 고분군 분포현황은 蔚珍郡·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2004), 『文化遺蹟分布地圖-울진군』에 근거하였다.

되어 고분군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덕신리고분군은 해안에 인접한 해발 38m의 얇은 구릉 정상부와 사면 일대에 고분이 분포하는데, 봉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조사에서 모두 83기의 수혈식석곽이 확인되었다.²⁾

영덕지역의 경우 영덕의 중앙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송천의 좌우로 비교적 넓은 평야지가 형성된 영해면 일대와 남대천이 흐르는 영덕읍 일대에 고분군이 분포한다. 남대천변에서 확인된 고분군은 남대천 북쪽에 위치한 덕곡리고분군과 구미리고분군인데, 덕곡리고분군은 일부가 조사되어 내용을 알 수 있다. 덕곡리고분군에서는 해발 50여m의 낮은 구릉 정상부를 중심으로 목곽 6기와 옹관 1기가 확인되었다.

영덕지역의 중심고분군은 괴시리고분군이다. 괴시리고분군은 영해면을 동서로 관통하는 송천의 하류에 위치하며, 고분군의 앞쪽에는 동해안 지역에서는 드물게 넓은 들이 형성되어 있다. 송천 하류의 남쪽에는 괴시리고분군과 벌영리고분군, 성내리고분군 등이 있다. 괴시리고분군에는 구릉 능선부에 모두 26기의 원형봉토분이 분포하는데, 16호분 1기만 조사되었다. 벌영리고분군에서는 직경 20~30m, 높이 3m 내외의 봉분이 있는 고분 16여 기가 확인되었는데 매장주체시설이 횡구식(횡혈식)석실로 추정되어 괴시리고분군에 후속하는 이 지역의 중심고분군일 가능성이 크다.

이 글의 검토 대상 지역 중 가장 많은 고분군이 조사된 포항지역에서는 3세기대부터 7세기대까지의 고분군이 모두 확인되었다. 단위 고분군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조영된 고분 수도 많고, 고분군의 수도 많다. 현재까지 확인된 고분군은 흥해읍의 남쪽에 치우쳐 서쪽에서 동해안으로 유입하는 초곡천변에 분포하는 옥성리고분군·학천리고분군·성곡리고분군·마산리고분군·남성리

2) 안동대학교박물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2004), 『울진 덕신리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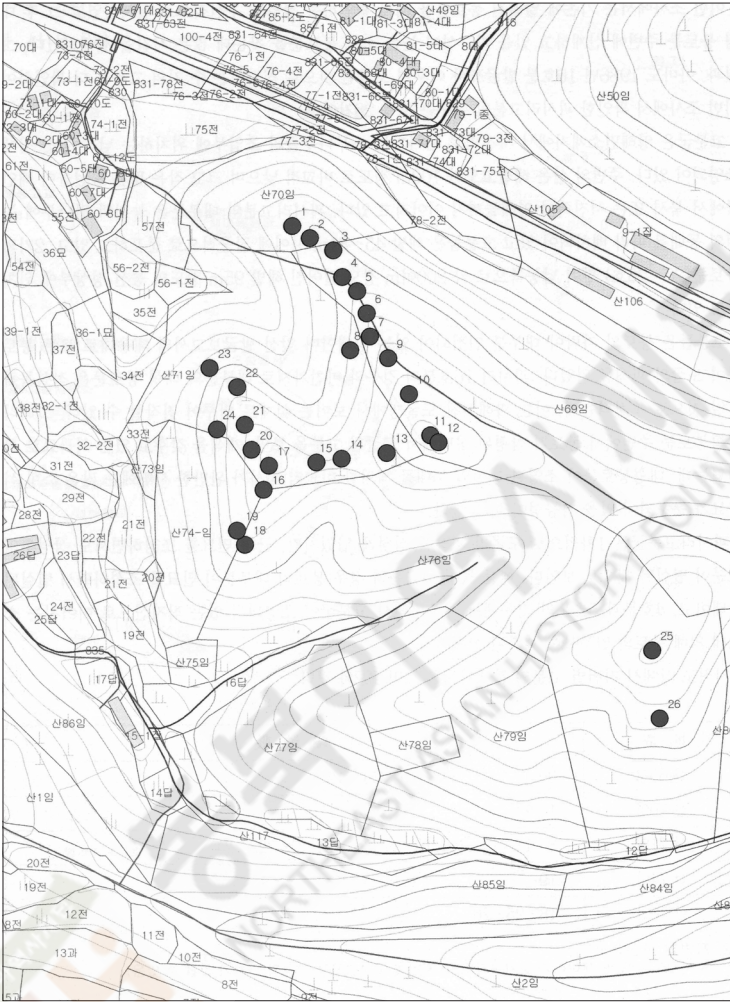


그림 1 영덕 괴서리고분군 분포도(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8)

고분군·대련리고분군 등과 포항 냉천 북안지역에 있는 호동고분군·인덕동고분군·원동고분군 등이다. 고분군이 많고 장기간 조영된 지역은 초곡천 주변이다. 초곡천 주변의 대규모 고분군은 옥성리고분군과 학천리고분군이다.

옥성리고분군³⁾은 전기 와질토기가 부장된 기원 전후부터 6세기 전반까지

조영된 대규모 고분군으로 수백여 기의 고분이 밀집 되어 있다. 조사 결과 목관·목곽·유사적석목곽·수혈식석곽·옹관·토광 등 다양한 매장주체시설이 확인되었고, 황구식석실과 횡혈식석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학천리고분군⁴⁾은 해발 34~55m의 구릉 경사면에 중·소형의 목곽·유사적석목곽·수혈식석곽·황구식석실·옹관묘 등이 밀집해서 조영되었다.⁵⁾ 전체적으로 볼 때 조영 순서는 크게 목곽묘 → 목곽묘·유사적석목곽묘 → 수혈식석곽묘 → 황구식석실묘이지만, 선후의 묘제가 상당 기간 공존하며 묘제 간의 조성구역 경계가 확인되지 않고 중복이 심하다. 모두 430여 기의 매장시설이 확인되었는데, 수혈식석곽묘가 200여 기로 가장 많고, 이어 목곽묘 150여 기, 황구식석실묘 70여 기, 유사적석목곽묘 8기, 옹관묘 8기, 횡혈식석실묘 1기이다. 유사적석목곽묘는 비교적 규모가 크고, 다른 묘제는 규모가 비슷한 중·소형이다.

감포~정자지역은 대포리고분군·강사리고분군 등이 있는 장기곶의 대포항~구룡포항 지역과 경주 봉길리고분군이 있는 감포지역, 구남고분군·위주령고분군·정자리 강나마고분군·산하동고분군·신현동유적 등이 있는 정자지역으로 구분된다.

강사리고분군⁶⁾은 구룡포항과 대포항 중간에 위치하며, 해안으로부터 200m 남짓 떨어진 해발 11~26m의 구릉에 고분들이 조영되어 있다. 고분군은 남북 2개군으로 구분되지만 규모나 구조 등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확

3) 嶺南文化財研究院(1998), 『浦項玉城里古墳群-I 地區』; 國立慶州博物館(2000), 『玉城里 古墳群-가地區 發掘報告書』;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2003), 『浦項玉城里古墳群 發掘調查報告書』.

4) 韓國文化財保護財團(2006), 『浦項 仁德洞 遺蹟』.

5)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2002), 『浦項 鶴川里遺蹟 發掘調查報告書 I·II·III』.

6)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2007), 『浦港 江沙里 遺蹟』.



그림 2. 포항 학천리고분군 유구 배치도(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2)

인된 고분은 토광 12기, 목곽 4기, 수혈식석곽 51기, 횡혈식석실 1기 등 모두 67기이며 조사되지 않은 구릉에도 다수의 고분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목곽묘로 보고된 일부 고분 중 1·3·10·11호 등 4기를 제외한 고분은 유물이 묘광선 가까이에 위치하므로 토광일 가능성도 있다.

경주 봉길리고분군⁷⁾은 감은사 앞을 지나 대왕암 방향으로 흘러드는 대중천의 남쪽 구릉의 두 곳에 위치하는데, 북쪽의 고분군을 I, 남쪽의 고분군을 II라고 부른다. 봉길리고분군 I에서는 1997년과 2005년에 실시된 조사에서 수혈식석곽·횡구식석실·횡혈식석실·옹관 등이 확인되었다.

정자지역은 대규모 고분군인 산하동고분군이 조사 중이어서 전모를 알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 목곽·수혈식석곽·횡혈식석실 등의 매장주체시설이 확인되었다.

회야강 하류지역에는 양동리고분군,⁸⁾ 화산리고분군,⁹⁾ 온산고분군, 삼광리고분군, 운화리고분군¹⁰⁾ 등이 알려져 있다. 삼광리고분군은 1961년 국립중앙박물관이 2500평 정도 조사했으나 보고서는 간행되지 않았다. 수혈식석곽 99기, 목곽 49기, 석관묘 1기 등 149기의 유구가 조사되었으나 대부분 도굴된 것으로 드러났다.¹¹⁾ 유구의 대체적인 규모가 길이 300cm 내외, 너비 150cm, 깊이 100cm라고 한 것으로 보아, 고분군은 중·소형의 목곽묘와 석곽묘로 구성된 집단묘역으로 추정된다. 이 고분군에서는 유개식이단투창고배·대부완·장경호·대부장경호·단경호와 유자이기·주조철부가 출토되었다.

양동리고분군은 굽마을의 동단에 남향하는 해발 38.9m의 구릉과 이 구릉의 서쪽으로 회야강과의 사이에 굽마을을 관통하는 해발 30~40m의 구릉에 위치한다. 1983년 회야댐 정수시설 설치 공사 때문에 조사된 고분군의 일부

7) 울산대학교박물관(2000), 『경주 봉길리고분군 I』;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2005a), 『慶州 奉吉里古墳群-경주 봉길리 신규 원진부지내』.

8) 釜山大學校博物館(1985), 『蔚州良東里遺蹟調查概報』.

9) 釜山大學校博物館(1983), 『蔚州華山里古墳群』.

10) 蔚山文化財研究院(2008), 『蔚山雲化里古墳群』.

11) 삼광리유적을 소개한 글에 의하면, 石·土折衷槨 9기가 있었다고 한다. 이는 아마 묘광과 목곽 사이를 충전한 충전석을 지칭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에서 삼국시대 목곽묘 33기, 수혈식석곽묘 1기, 옹관묘 1기, 횡구식석실묘 1기가 확인되었다.

화산리고분군과 온산고분군은 해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얇은 구릉에 위치하며, 6세기 후반에서 8세기대까지 조영되었다. 매장주체시설은 횡구식석실·횡혈식석실·석곽·토광 등이며 횡구식석실이 대부분이다. 운하리고분군은 울산시와 기장군의 경계지역에 있는 해발 70~102m의 구릉 정상부와 사면에 조영되었다. 매장주체시설은 수혈식석곽과 횡구식석실이다. 일부 고분은 분구 뒤쪽에 주구를 설치하였는데, 이곳에 많은 유물이 매납되었다. 그리고 한 분구 내에 2~4기의 매장주체시설을 만든 다곽식도 확인되었고, 한쪽 단벽 부분의 석곽 폭을 넓게 하여 부장공간으로 사용한 석곽도 다수 확인되었다.

영남 동해안 지역의 고분군은 동해안으로 만입하면서 어느 정도 규모의 평야가 펼쳐지는 소규모 하천 일대에 밀집해 있으며, 해당 지역의 중심고분군도 존재한다. 영남 동해안 지역의 삼국시대 고분군에서 확인된 매장주체시설은 목곽·유사적석목곽·수혈식석곽·횡구식석실·횡혈식석실 등이다. 이하에서는 각 지역의 고분군에서 확인된 매장주체시설의 특징과 조영 시기를 검토한다.

2. 지역별 고분의 특징

1) 울진지역

울진 덕신리고분군의 매장주체시설인 수혈식석곽은 장축 방향이 등고선 방향과 나란하게 배치되었다. 석곽은 중복되지 않은 채 인접해서 나란하게 배

치되었고, 수기 또는 수십기가 모여 있거나 규모가 큰 석곽 주위에 소형 석곽이 배치된 양상은 보이지 않는다. 석곽은 길이 346cm, 너비 117cm, 깊이 77cm 정도의 것도 있지만, 대부분 길이 250cm, 너비 70cm, 깊이 60cm 정도의 소형이다.

석곽은 막돌 또는 깬 돌로 한쪽 단벽의 양 모서리를 둥글게 쌓았는데, 이는 한쪽 모서리에서 시작하여 시계 반대방향으로 석곽을 쌓았음을 나타낸다. 석곽의 평면 형태는 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3 : 1 이상인 세장방형과 3 : 1 이하의 장방형으로 구분되는데, 세장방형이 대다수이다. 세장방형과 장방형 석곽의 시기적 차이는 거의 없지만, 장방형 석곽이 약간 늦다. 꺾쇠 또는 관정 등 목관(목곽)을 사용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관 없이 매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바닥은 크기가 작은 강돌 또는 산돌을 깬 것과 생토면 그대로인 것으로 구분되지만, 생땅 그대로인 예는 수기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바닥에 돌을 깔았다. 시상석은 바닥 전면에 깬 것, 양쪽 단벽 일부를 제외한 바닥에 깬 것, 한쪽 단벽 일부를 제외한 바닥에 깬 것 등으로 구분된다. 전면에 깬 것이 대다수이지만, 규모와 위치, 입지 등에 따라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석곽이 교란되어 유물 부장의 원상은 알 수 없다. 교란이 심하지 않은 석곽은 대부분 양 단벽에 유물을 부장하였다. 부장 유물은 대부분 토기이고, 철부·철점·도자 등 소량의 철기도 출토되었다. 마구와 갑주는 전혀 부장되지 않았다. 어로와 관련한 유물도 부장되지 않았다. 조사된 석곽은 5세기 말부터 6세기 전반(2/4분기)의 아주 짧은 시기로 편년되고, 횡구식석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횡구식석실이 수용되기 이전에 조영되었거나 횡구식석실을 수용하지 않은 집단이 만든 것일 가능성이 높다.

울진 덕신리고분군은 조사된 80여 기 중 바닥이 생토면 그대로인 것은 10기 내외이고, 모두 바닥에 자갈을 깔았다. 강릉 초당동고분군과 병산동고분군

의 경우 석곽 바닥에 자갈을 깔 예는 수기에 불과하고, 대부분 생토면 그대로이다. 이 점이 부장 유물의 구성과 함께 영남 동해안 지역과 강원 동해안 지역 수혈석석곽의 구체적인 차이다.

2) 영덕지역

영덕 덕곡리고분군의 목곽은 심하게 파괴되어 규모와 구조를 제대로 알 수 없다. 하지만 잔존 부분을 통해 볼 때, 목곽 중앙부 바닥에 넷돌을 깔 뒤 주검을 안치하고, 목곽 단변 각각에 철기와 토기를 부장한 구조로 추정된다. 고분 구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4세기대 이 지역의 문화 일부를 알 수 있는 와질·도질의 단경호·대부직구호뚜껑·발형기대 등의 토기와 다량의 꺾수문 철모가 부장되었다. 보고서는 유구 내부 출토품과 주변 채집품 모두를 경질토기로 보고하였다.¹²⁾ 하지만 구연 외면과 대각 외면에 마연이 되었고, 동체부에도 마연 흔적이 있으며, 표면에 대부분 격자타날이 되었고, 표면색이 회색 또는 회흑색이므로 이 고분군의 유구에서 나온 토기는 와질토기이다. 덕곡리고분군 출토 와질토기와 꺾수문 철모의 양식적 특징은 더 남쪽에 위치한 흥해 옥성리고분군 출토품과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덕곡리고분군은 경주를 중심으로 울산·포항·경산 등지에서만 사용되던 꺾수문 철모의 분포 범위가 영덕의 남대천까지 이르렀음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고분군이다. 신단부가 뽕족하게 끝나는 스포일 모양의 꺾수문 철모가 3~4세기대 사로양식임을 고려하면, 이는 4세기대에 사로문화가 이미 이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영덕 괴시리고분군은 3개의 구릉에 모두 20여 기의 고분이 분포하며, 구릉 능선부를 따라 대형 고분이 열을 이루고 있다. 분구 직경이 20m 이상인 고총

12)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2005b), 『盈德 德谷里交叉路 建設敷地內 盈德 德谷里遺蹟』.

고분이 26기 확인되었고, 대형 고분 주위에는 소형 고분이 있다. 고분의 대부분은 능선 말단부에 능선 등대를 따라 배치되어 있는데, 해발 45~81m 사이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25·26호 2기는 남동쪽으로 200m 정도 떨어진 해발 95m 정도의 능선 정상부에 위치한다. 고총 고분 26기는 매우 심하게 도굴되었다. 도굴갱에서 나온 많은 양의 냇돌이 있는데, 이 석재와 매장주체시설 등으로 볼 때, 대형 고분 26기 대부분은 내부 주체시설이 적석목곽으로 추정된다. 26기 중 능선부 사면에 위치한 16호분만 조사되었다. 16호분은 위쪽에 있는 11호분의 호석에 덧대어 만들어졌다. 이는 16호분이 11호분보다 후에 축조되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분구 직경은 615×515cm, 높이 200cm이고, 호석은 정연하게 쌓이지 않고 마치 즈석하듯 분구 표면에 놓여 있었다.

16호분만 조사되어 괴시리고분군의 전체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1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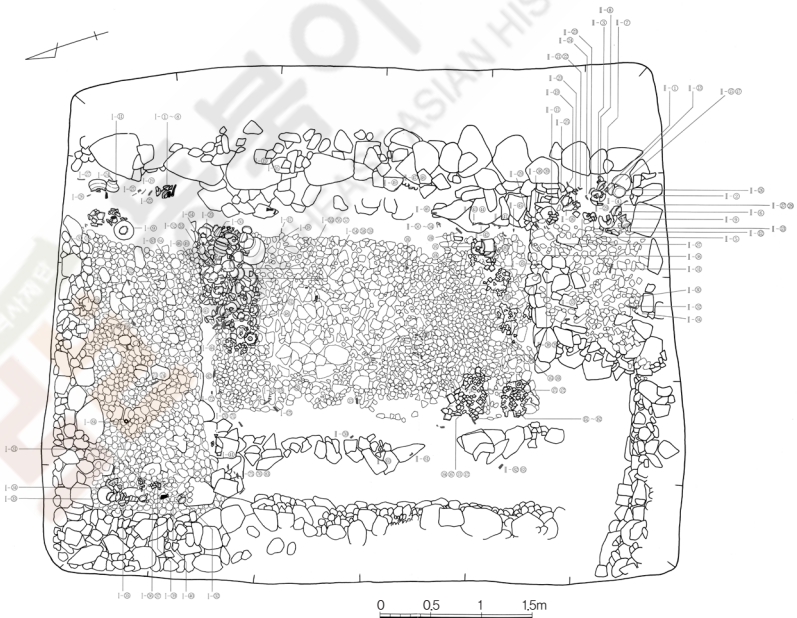


그림 3_ 영덕 괴시리 16호분 매장주체부(국립경주박물관,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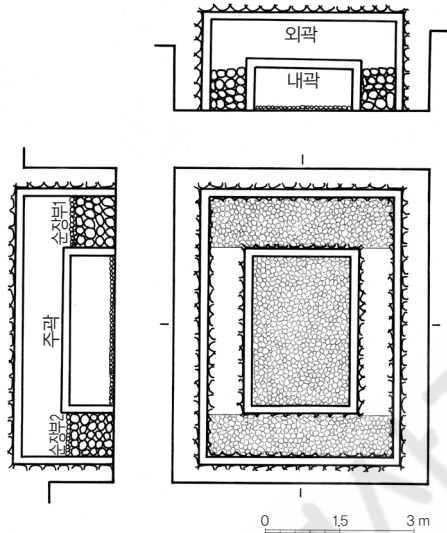


그림 4. 영덕 과시리 16호분 목곽 복원 모식도
(국립경주박물관, 1999)

분의 규모와 구조로 미루어 볼 때, 마구·무기·무구·착장형 장신구 등의 부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 점은 이 시기 신라의 지방 또는 주변부에 있는 대형 고분의 부장품과 매우 뚜렷하게 구분될 뿐만 아니라 동해안의 강릉·양양 지역 신라 고분의 부장 양상과도 구별된다. 강릉 병산동고분군과 초당동고분군의 경우 석곽 규모가 300cm 이상인 중형에서는 대부분 재갈·행엽·교구 등 마구류와 유자이기, 주조쟁이와 철촉·철모 등이 출토되었다. 또 초당동 A-1호 석곽에서는 호접형 금동관식·과대금구 등 착장형 장신구는 물론 심엽형 행엽·안교·재갈·등자 등 마구 1식과 반부철모·대도·철촉·성시구·유자이기 등 무기도 출토되었다.

이와 같이 울진·영덕지역의 고분 매장주체시설이 강릉지역의 매장주체시설과 규모에서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장신구·마구·무기 부장이 상당히 적은 점은 특기할 만하다. 규모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지만, 부장품에서 울진·영덕

지역이 강릉지역보다 열세인 점은 신라 중앙이 인식하는 지역적 중요성에 차이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신라 중앙은 이미 완전히 복속되어 신라의 한 지방이 된 영덕과 울진지역의 집단에게는 착장형 장신구와 마구 및 유자이기 등을 분여하지 않거나 부장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하지만 고구려의 국경에서 그리 멀지 않아 서로 대치하고 있는 강릉과 양양지역의 집단에게는 신라 중앙인들의 전유물인 위세품을 분여하여 이 지역 집단을 통제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이 점에서 경북 동해안 지역 집단은 신라 중앙이 보는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했음을 알 수 있다.

3) 포항지역

포항 옥성리고분군의 목곽묘는 평면 형태가 방형·장방형·세장방형 등 다양하고, 기원후 2세기 후반부터 6세기까지 조영되었다. 이 글의 대상은 장방형·세장방형이다. 평면 형태가 장방형인 목곽은 기원후 2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반까지 옥성리고분군에서 가장 오랜 기간 조영된 매장주체시설이고, 그 수도 가장 많다. 하지만 이 글에서 다루는 3세기 후반 이후의 사례는 많지 않고, 대부분은 2세기 후반부터 3세기 전반에 조영되었다. 따라서 장방형 목곽은 3세기대의 주 묘제이다. 장방형 목곽묘는 대개 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2.5 : 1 이하이며, 바닥 시설과 충전재 등의 차이에 의해 두 가지로 구분된다. 마구·갑주·철촉 등은 부장되지 않았다.

첫째, 생토면을 바닥으로 이용하고 충전공간을 흙으로 채운 목곽(土冢)이다. 이는 다시 유물의 부장 양상에 따라 IA식과 IB식으로 구분된다. IA식은 피장자의 머리맡에 토기가, 상체 좌우 측면에 창신이 하체 쪽으로 향해 철모가, 발치에 토기와 철기류가 각각 부장되었다. 이에 해당하는 목곽은 (嶺南)56·65호이다. 이 형식의 유구에는 장신형 께수문 철모와 함께 와질원저단경호와 유

자이기·궐수문곡도자 등이 부장되었다. IB식은 두향을 추정할 수 있는 유물이 나오지 않아 정확하지 않지만, 주축 방향이 동서향인 경우, IA식의 예로 보았을 때, 서쪽이 두향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머리말과 발치에 부장하고, 중간에는 하지 않았다. 머리말에는 주로 토기를, 발치에는 토기와 철기를 각각 부장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목곽은 (嶺文院)50, (慶州博)53·5242, (慶北研)49호이다. 이 형식의 유구에는 단경호·원저장경호·대부장경호·상하엿갈림이단투창고배·대부파수부완·컵형토기 등 토기류와 유자이기·철부·철검·단신형 철모 등 철기류가 부장되었다. 부장된 철기의 수량은 많지 않다.

둘째, 바닥 전면에 자갈을 깔 목곽(Ⅱ류)으로 I류에 비해 너비가 좁고 길이가 길다. 예는 많지 않으며, (慶州博)45·30·18호가 이에 해당한다. 유물은 주축 방향이 동서향인 경우, 동쪽 단변 가까이에 부장하였고, 서쪽 단변 가까이에는 부장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하는 유구에는 원저장경호·상하엿갈림투창고배·광구소호 등 토기류와 유자이기·철촉 등 소량의 철기류가 부장되었다. IA식의 유구에 비하면, 부장된 유물의 질과 양이 떨어진다.

다음은 충전공간을 돌로 채운 목곽묘로, 충전석의 구성과 충전방식, 바닥 시설 등에 따라 A·B·C·D식으로 구분된다. A식은 바닥면에서 목곽 높이까지 흙으로 충전하고, 충전토 위에 돌을 채웠으며 바닥은 생토면이다. 이에 해당하는 목곽은 (慶北研)12·11호이다. 12호에서는 견부에 사격자 압문이 시문된 노형토기와 무문의 노형토기, 단면 마름모꼴 광신의 직기형 철모가 공반되었고, 11호에서는 격자타날의 와질원저단경호가 출토되었다. 와질토기 및 철모의 편년에 의하면, 12·11호는 3세기 후반으로 편년된다.

B식은 목곽 바깥쪽을 할석으로 채우고, 그 뒤쪽을 흙으로 채웠으며 바닥은 생토면이다. 이에 해당하는 목곽은 (慶州博)63·38·66호 등이다. 서쪽 단변 가까이에는 규모가 큰 호류를 중심으로 고배 등 소형 토기류를, 반대편인 동쪽

단면에는 소형 토기류와 철기를, 중앙부에는 철축·철모 등 철기류를 각각 부장하였다. 63호 목곽에서 출토된 무개고배는 배신이 반구형이고, 상하엿갈림투창이 있는 대각은 나팔상으로 뾰는다. 이런 형식의 신라 고배는 5세기 2/4분기로 편년된다. 66호 목곽 출토 고배는 구연이 심하게 내경하고, 배신이 사방향으로 뾰는다. 이런 형식의 고배는 5세기 3/4분기로 편년된다. 따라서 B식의 목곽은 5세기 2/4분기에서 3/4분기로 편년할 수 있다.

C식은 바닥에 잔자갈을 깔고, 충전공간을 흙과 깎 돌로 메운 구조의 목곽으로 (慶州博)55·8호, (嶺文院)32호가 이에 해당한다.¹³⁾ 동쪽에서 토기류와 유자이기·철모·철부 등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55호 목곽에서 출토된 원저단경호는 격자문을 시문한 후 횡침선을 돌린 와질소성이고, 발형기대도 출토되었다. 8호 목곽에서는 기벽이 얇은 반구형 배신에 대각이 나팔상으로 뾰은 상하엿갈림투창고배가 출토되었다. 이 고배는 5세기 3/4분기 신라 고배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C식 목곽은 5세기 2/4분기에서 3/4분기로 편년된다.

D식은 충전공간을 다량의 작은 깎 돌로 채우고 바닥은 생토면인 목곽으로 (慶北研)47호, (慶州博)17호가 이에 해당한다. 17호 목곽은 충전공간에 다량의 깎 돌이 있고, 단면 일부의 충전석이 마치 돌을 쌓은 것처럼 정연한 부분도 있어 석곽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¹⁴⁾ 장변의 충전석이 위로 향하면서 모두 바깥쪽으로 밀려 있어 석곽으로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므로 목곽으로 보아야 한다. (慶州博)10호 수혈식석곽과 비교하면, 10호는 네 벽이 정연하고 수직으로 구축

13) 경주박물관은 보고서에서 이 형식의 목곽을 적석목곽으로 분류하였는데,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의 보고서에는 상부에 적석이 되지 않았고, 충전공간을 돌로 채운 구조임을 들어 목곽으로 보고하였다.

14) 국립경주박물관은 보고서에서 수혈식석곽으로 보고하였으나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은 목곽으로 보고하였다.

되어 17호와 현저하게 다르다. 17호는 서쪽 단변 가까이 격벽이 있고, 격벽 서쪽에 토기류가 부장된 동혈주부곽식 구조이다. 동쪽 단변 가까이 유물을 부장하였고, 중앙부의 좌우에는 철기류가 부장되었다. 47호에서 출토된 상하 엇갈림투창고배는 배신이 절두방추에 가깝고, 대각 길이가 짧고 사방향으로 뺀 형식이다. 이런 형식의 신라 고배는 5세기 2/4분기로 편년된다. 17호 목곽에서는 5세기 2/4분기로 편년되는 격자타날원저단경호와 대부파수부완 등이 출토되었다. 따라서 D식은 5세기 전반으로 편년된다.

세장방형 목곽묘는 바닥 시설과 충전재에 따라 I·II·III류로 구분된다. I류는 바닥이 생토면이고, 충전공간을 흙으로 채웠다. I류는 유물 부장 양상에 의해 다시 IA·IB·IC·ID식으로 구분된다. IA식은 서쪽 단변 가까이 수점의 토기를 매납하고, 동쪽 단변에는 유물을 부장하지 않았다. 철기는 중앙부의 장변 가까이에서 출토되는데, 소량이다. (嶺文院)11·39·45호가 이에 해당한다. 11호에서 출토된 토기는 모두 와질로 노형토기와 양뉴부옹 등이다. 노형토기는 견부에 사격자 암문이 시문되었는데, 와질토기의 편년에 의하면 3세기 말에 해당한다. 39호에서는 유개대부직구호·격자타날원저단경호·무문의 와질 노형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45호묘에서는 동체가 구형에 가까운 와질원저단경호, 무문의 와질 노형토기, 대부호 등이 출토되었다. 39호와 45호에서 출토된 무문의 노형토기는 같은 형식이다. 무문의 노형토기는 4세기 전반으로 편년된다.

IB식은 목곽 내의 특정 부위에 관계없이 중앙부와 양쪽 단변 가까이 유물이 부장되었다. (嶺文院)21·34호묘가 이에 해당한다. 21호에서는 와질과 도질 단경호가, 34호에서는 환두대도·유경식철촉·철검 등이 각각 출토되었다. 단경호는 동체가 구형이고, 환두대도의 형식은 4세기 후반으로 편년된다.

IC식은 서쪽 단변 가까이 호류를, 동쪽 단변에 고배·컵형토기 등의 소형

품과 호 등을, 중앙부에 유자이기·철모·철부 등 철기류를 각각 부장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목곽은 (慶州博)24·123·39·30호묘와 (嶺文院)29호묘이다. 이 형식의 목곽에서 가장 이른 유구는 24호이다. 24호에서는 원저장경호와 대각이 없는 파수부완·상하일렬 장방형투창 유개고배가 공반되었는데, 유개고배는 5세기 전반으로 편년된다. 가장 늦은 것은 (慶州博)29호이다. 29호에서는 유개고배·유개파수부완·편원어미형행엽 등이 출토되었는데, 뚜껑과 고배 배신에 밀집종집선문이 시문되었다. 밀집종집선문은 5세기 4/4분기부터 6세기 1/4분기까지만 신라 토기에 시문되었다. 29호묘의 밀집종집선문은 선을 하나씩 그은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여러 줄을 그은 것이다. 이 기법은 6세기 1/4분기의 특징이므로 29호묘의 조영 시기는 6세기 전반으로 편년된다.¹⁵⁾

동혈 주부곽식목곽은 격벽을 흙으로 만든 I류와 갠 돌로 만든 II류로 구분된다. 주곽은 남쪽에, 부곽은 북쪽에 배치하였으며, 주곽과 부곽의 비율은 3:1로 주곽이 크고, 바닥 높이는 동일하다. I류는 바닥 시설의 차이에 의해 A·B식으로 세분된다. A식은 바닥이 생토면이다. (嶺文院)17호묘가 이에 해당한다. 17호는 주곽 남쪽 단면 가까이에 호 등 규모가 큰 토기를, 반대쪽에 철촉·유자이기·철모 등 철기류를, 부곽에 소형 토기류와 투구를 각각 부장하였다. 17호에서는 원저단경호와 노형토기를 계승한 발형기대가 출토되었는데, 이는 4세기 후반의 것으로 추정된다. 부곽에서 나온 투구는 만곡종장판주로 철제복발이 확인되지 않았다.

B식은 주곽 바닥에 돌을 깔아 관대를 만들었는데, 피장자가 안치된 중앙부가 낮고, 양쪽 가장자리가 높은 단면 U자형을 이룬다. 이러한 관대 형태는 동래 복천동고분군의 목곽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된다. 양 지역 간의 교류에 의한

15) 홍보식(2003), 『新羅 後期 古墳文化 研究』, 춘추각.

정보 교환의 결과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두 지역 모두 피장자가 안치되는 공간은 낮게 만들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음이 틀림없다. 부곽은 생토면 그대로이다. (嶺文院)30, (慶州博)16호묘가 이에 해당한다. 30호 부곽에는 소형 연질옹·원단경호 등 토기류와 경갑, 재갈·철부·철검 등 철기류가 부장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5세기 1/4분기의 특징을 지닌다.

II류는 주곽 바닥 시설 차이에 의해 A·B식으로 세분된다. A식은 목곽의 2/3 지점에 격벽을 설치하였는데, 아래는 흙이고 위에 할석을 쌓았다. 바닥은 생토면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慶州博)35호묘 1기뿐이다. 35호는 주곽 동쪽 단변 가까이에 토기와 철기 등을 집중 부장하고, 격벽 가까이에 철기를 부장하였다. 부곽에는 토기와 철기가 부장되었는데, 만곡종장관주와 재갈을 포함한 마구류도 나왔다. 이외에도 철촉·유자이기·철모·대도 등 무기류가 부장되었다. 지금까지 조사된 유구 중 유물이 가장 많이 출토되었다. 출토 토기 중 반구형 배신에 나팔상으로 뿔는 상하엇갈림투창고배와 유개대부파수부호 등은 5세기 1/4분기 토기의 특징이다.

B식은 주곽 바닥에 자갈을 깔 구조로, 이에 해당하는 것은 (慶州博)133호묘 뿐이다. 시기는 5세기 2/4분기로 편년된다.

주부곽식목곽묘는 옥성리고분군에서 조사된 고분 중 규모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투구·경갑 등 무구류와 마구류 등 유물도 가장 많이 출토되었다. 이로 미루어 옥성리고분군에서 가장 위계가 높은 이 고분의 피장자는 옥성리고분군 조영집단의 최상위자로 추정된다.

유사적석목곽묘는 경주박물관과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한 구역에서만 확인되었는데, 모두 6기이다. 등고선 방향과 나란하게 장방형 묘광을 파고, 그 안에 목곽을 설치한 후 목곽 바닥에 자갈을 깔았으며, 목곽과 묘광 사이를 자갈로 충전하고 목곽 상부에도 적석을 하였으나 적석량은 많지 않

다. 적석 위에는 봉토가 있다. 앞서 검토한 충전공간을 돌로 채운 목곽과 달리 목곽 상부에 적석하였다는 점이 확실히 다르다. 상부에 적석을 한 점은 경주의 적석목곽의 요소가 가미된 것이다. 서쪽 단변 가까이에는 호류를 포함해 용량이 큰 토기를 부장하고, 동쪽 단변에는 소형 토기류를 부장하였다. (慶北 硯31·50호묘, (慶州博)1·4·2·5호묘가 이에 해당한다. 1호에서 출토된 상하엿갈림투창고배는 배신이 반구형이지만, 대각단이 뾰족하게 처리되었다. 이런 형식의 고배는 5세기 3/4분기로 편년된다. 2호에서 출토된 상하엿갈림투창고배는 대부분 뚜껑이 조합된 유개고배이고, 대각 기부폭이 좁고, 각단이 삼각형을 이룬다. 이러한 특징은 5세기 4/4분기에 나타난다. 따라서 옥성리고분군의 유사적석목곽묘는 5세기 후반에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목곽묘가 대부분인 옥성리고분군은 2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반까지 대략 350년간 지속적으로 조영되었다. 이 시기 동안의 목곽은 평면 형태가 장방형인 것과 세장방형인 것으로 크게 구분되고, 각각은 바닥 시설과 충전재료, 유물의 부장 위치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뉘는 것을 알았다. 또 묘제 형식과 시기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서쪽 단변 가까이에는 용량이 큰 호류를 부장하고, 동쪽 단변에는 용량이 작은 소형 토기류를 부장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천리고분군에서는 136기의 목곽묘가 확인되었다. 모두 주구가 확인되지 않고, 봉토도 묘광 내부로 함몰되어 있으나 어느 정도의 봉분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봉분이 묘광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수혈 식석곽에 비해 유구 밀집도가 낮다. 7·9호, 16-1·2호와 33-1·2호 등 일부 목곽은 2기가 장축을 나란하게 인접하여 배치되었는데, 이는 양 고분의 피장자가 친연관계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주곽과 부곽이 각각 별도의 묘광을 지닌 독립주부곽식도 2기 확인되었다. 68·89호묘가 이에 해당한

다. 89호묘는 주곽과 부곽 바닥 깊이가 같지만, 68호는 부곽 바닥이 주곽 바닥보다 100cm나 더 깊다. 지금까지 조사된 주·부곽식 목곽묘는 주곽 바닥이 부곽 바닥보다 깊거나 높이가 동일하다는 점에 비춰보면 특이한 점이다.

목곽묘는 묘광의 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3 : 1 이하이고 평면 형태가 장방형인 것과 비율이 3.5 : 1 이상이고 세장방형인 것으로 구분된다. 장방형보다 세장방형 목곽묘가 규모도 크고, 부장품도 많다. 세장방형 목곽묘는 주·부곽의 구분이 없는 I류와 주·부곽이 구분되는 II류로 세분된다.

I류는 충전재와 바닥시설에 의해 A·B·C식으로 구분된다. A식은 충전공간을 흙으로 채우고 바닥이 생토면인 것(7·9·13호, 16-1·2호, 59·85호), B식은 묘광과 목곽을 흙으로 충전하고 바닥에 냇돌 또는 잔자갈을 깔 것(22·94호), C식은 묘광과 목곽 사이에 냇돌로 충전하고 바닥에 잔자갈을 깔 것(8·11호)이다. C식은 등장 시기가 5세기 전반이고, A·B식의 중심시기는 4세기 후반이다. B식은 묘광 평면 형태가 가장 세장하고, 일부는 격벽을 설치하여 주곽과 부곽을 구분하였다. B식은 대부분에서 길이 30cm 이상인 장신의 판상철모·궤수문철모와 유자이기가 공반하는 등 세 형식 중 무기 부장 비율이 가장 높다.

주부곽식인 II류는 목곽 내에 흙 또는 돌로 된 격벽시설이 분명하지 않으나 피장자를 안치하는 부분의 바닥에는 납작한 돌을 깔고, 유물을 부장한 공간은 생토면 그대로이다. 피장자 안치 공간과 유물 부장 공간의 비율은 3 : 1 내외이다. 이러한 특징은 옥성리고분군의 부주곽식 목곽과 양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혈주부곽식목곽으로 파악할 수 있다. 묘광과 목곽 사이의 충전공간을 흙으로 채운 A식 목곽과 돌로 채운 B식 목곽으로 구분된다. A식에는 95·5호 목곽이 해당한다. 95호 목곽에서는 토기·궤수문철모·직기와 연미형 철모가 출토되었다. 토기는 원저단경호와 도질 노형토기가 출토되었는데, 이 노형토기는 4세기 후반으로 편년된다. B식에는 20호묘가 해당한다. 20호에서 이 고

분군에서 유일하게 방어구인 만곡종장관복발주 1점이 나왔다.

평면 형태가 장방형인 목곽묘는 충전재가 흙인 I류와 돌인 II류로 구분된다. I류는 3세기부터 6세기 전반까지 조영된 목곽이다. 3~4세기대 목곽 중에는 중형도 있으나 5세기 이후의 목곽은 소형이 대부분이다. II류는 목곽 바닥이 생토인 A식과 돌을 깔 B식으로 구분된다. A식에는 33-1·2호와 32·31·45·72·75호묘가 해당한다. 이 A식의 목곽묘에는 다른 형식의 목곽보다 장신형철모·궤수문철모·유자이기 등 철기가 많이 부장되었다. 토기는 원저단경호가 다수 부장되었고, 구연이 외반한 노형토기 및 양이부과수부호 등이 출토되었다. 이 토기들은 4세기 후반으로 편년된다. B식은 목곽 내의 바닥에 돌을 깔았다. 43·90·82호 목곽이 이에 해당한다. 43호는 바닥에 돌을 깔고 충전공간을 다량의 돌을 충전하였는데, 바닥 가까이의 충전석이 정연하여 마치 수혈식석곽처럼 보인다. 이 B식 목곽은 4세기 말에서 5세기 후반까지 장기간 조영되었다.

유사적석목곽묘는 모두 8기가 조사되었는데, 구릉의 능선부에 입지한다. 유사적석목곽은 목곽보다 규모도 크고, 부장품도 많으며, 평면 형태가 장방형이다. 묘광을 파고, 충전공간을 냇돌과 깎 돌로 채웠으며, 목곽 상부에 냇돌과 깎돌을 쌓고, 그 위에 흙을 쌓았다. 적석의 양은 소량이다. 목곽 바닥 전면에 자갈을 얇게 깔았다. 상부보다 사방에 채운 돌의 양이 훨씬 많다. 매장주체시설의 일부가 지하에 있는 점, 상부보다 충전공간의 적석량이 많은 점 등은 충전공간을 돌로 채운 목곽과 유사하지만, 목곽 상부에 적석을 하고, 바닥에 자갈을 깔 점은 다른 목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점이다. 이 점은 경주 적석목곽의 요소이다. 지면이 삭평되었지만, 4·7호는 경사가 높은 북쪽에 반원형의 주구가 있는데, 이 주구로 볼 때, 분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묘광과 주구의 거리가 150cm밖에 되지 않아 규모가 작은 분구로 추정된다. 많은 수

량의 토기가 매납된 7호 주구에서는 2점의 통형기대가 출토되었다. 매장주체 시설 내부에 통형기대가 부장된 예는 없었다. 주구에 통형기대를 매납한 것은 이를 이용한 제의행위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특히 통형기대는 유사적석목곽에서만 확인된다. 유사적석목곽에는 또 다른 형식의 매장시설보다 비교적 많은 양의 유물이 부장되었다. 5호에는 마구도 부장되었다.

출토된 토기의 구성과 형식적 특징으로 볼 때, 유사적석목곽은 5세기 후반에 많이 조영되었다. 포항 학천리고분군의 430여 분묘에서 방어구인 투구는 20호묘에서만 1점 출토되었고, 마구류와 이식·과대금구 등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에 포항시 용흥동에서 독립주부곽식목곽묘 1기가 조사되었다. 이 목곽묘는 주곽 길이 360cm, 너비 150cm의 세장방형이며, 금동제 삼엽환 두대도·금동제 허리띠고리 등 금속기류와 337점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지금까지 포항지역에서 조사된 고분 중 규모가 가장 크고,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 점에 비추어볼 때 이 지역 일대에 삼국시대 포항지역 수장층 집단의 고분군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흥해 옥성리고분군의 동북쪽 구릉에 있는 마산리고분군에서는 10기의 목곽이 조사되었다. 목곽은 바닥이 생토면인 것과 자갈을 깔 것으로 구분되고, 충전공간은 흙으로 충전한 것과 돌로 충전한 것 등으로 구별된다. 그 양상은 옥성리고분군과 학천리고분군에서 조사된 목곽과 동일하다.

4) 감포~정자지역

강사리고분군의 목곽은 묘광 길이가 400cm 이하로 대부분 소형이다. 바닥은 생토면을 이용하고, 충전공간은 흙으로 충전하였다. 평면 형태는 모두 장방형이고, 세장방형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양쪽 단변 가까이 부장되었다. 10호 목곽에서 출토된 상하엿갈림투창고배는 배신이 반타원형으로 구연

이 직립하고, 대각이 나팔상으로 뻗는다. 이러한 고배는 5세기 3/4분기로 편년된다. 11호 목곽에서는 대각 기부 폭이 좁은 고배편이 출토되었는데, 그 시기는 5세기 4/4분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강사리고분군에서 목곽묘가 조성된 중심시기는 5세기 후반이다.

수혈식석곽은 모두 중·소형으로 바닥에는 자갈을 깔지 않고, 생토면을 이용하였다. 일부 석곽은 1기씩 아래위로 나란하게 설치되었다. 이런 예는 많지 않다. 그리고 목곽묘를 파괴하고 설치한 예도 있다. 이를 통해 목곽이 수혈식석곽보다 먼저 조성된 묘제임을 알 수 있다. 상태가 양호한 석곽은 네 모서리의 각을 없애 둥글게 처리하였고, 크기가 같은 깎은 돌을 사용하였다. 바닷돌을 사용하지 않고 깎은 돌을 사용한 점, 잔자갈을 깔지 않은 점 등은 강사리고분군 수혈식석곽의 특징이다.

석곽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토기이다. 조사된 석곽 중 가장 이른 6호에서는 꺾쇠·도자·철정과 10여 점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출토된 토기 중 상하엇갈림투창고배는 5세기 3/4분기로 편년된다. 이외 대부분의 수혈식석곽에서 출토된 토기는 후기인 I·II 양식으로 그 중심시기는 6세기 전반이다. 그리고 길이가 100cm 내외인 소형 석곽 또는 수혈이 확인되었는데, 이 소형 유구에는 수점의 토기가 매납되었다. 토기의 형식은 대부분 후기인 IV 양식이다. 소아묘이거나 유물 부장곽으로 추정된다.

봉길리고분군의 수혈식석곽은 길이가 400cm 이하인 중소형이다. 400cm 가까운 중형은 수기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300cm 이하의 소형이다. 수혈식석곽은 2기 또는 4~5기가 아래위로 나란하게 배치되어 있고, 일부는 묘광을 파괴하고 설치되었다. 석곽은 호석이 돌아가는 예도 있지만, 규모는 작다. 뚜껑돌이 남아 있는 예도 있는데, 깊이는 100cm 내외이다. 석곽의 양쪽 장벽은 깎은 돌을 얹혀 쌓고, 양쪽 단벽은 판석으로 세웠다. 19·20·21·22·23·26·

37·39·42호는 석곽의 2/3 되는 지점에 판석으로 격벽을 만들어 주곽과 부곽을 구분하고, 부곽의 벽은 둥글게 구축하였다. 석곽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토기인데, 23호에서는 4각 운주와 심엽형행엽 등 마구류가 출토되었다. 석곽에서 출토된 것 중 가장 이른 형식의 토기는 5세기 4/4분기이고, 대부분은 신라 후기인 I·II 양식기에 해당하는 6세기 전반대로 편년된다.

횡혈식석실은 모두 4기가 확인되었다. 일부는 경사가 높은 구릉 위쪽에 반원형의 주구가 돌려져 있어 어느 정도 규모의 분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모두 우편재 연도이다. 현실 평면 형태는 장방형과 방형으로 구분된다. 바닥에는 잔자갈을 깔았고, 일부에 약간 큰 바닷돌을 깔았다. 시상은 대부분 자갈을 깔아 만들었고, 높이는 10cm 이하로 낮다. 추가 매장은 1회 이루어졌고, 새로운 시상은 만들지 않았다. 연도는 길이가 100cm 이내로 짧다. 상부가 파괴되어 천장은 알 수 없다.

1997년도의 조사지역인 북쪽 구릉에서는 70여 기의 고분이 조사되었는데, 목곽·수혈식석곽·토광 등이 확인되었다. 목곽으로 보고된 대부분의 고분은 길이가 300cm 이하의 소형이며 깊이가 매우 얇다. 보고서의 도면에 충전공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유물이 묘광 벽면 가까이 치우쳐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목곽이라기보다 토광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특징이 있는 고분의 바닥은 돌이 깔리지 않는 생토바닥이다. 이 토광에서 출토된 토기는 5세기 3/4분기에서 6세기 1/4분기로 편년된다. 이 시기의 토광은 석곽보다 규모가 작다. 이는 피장자가 석곽묘 피장자에 비해 사회적인 서열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목곽은 3·6·21·19호묘가 해당한다. 바닥에 잔자갈이 깔렸고, 바닥 가장자리와 묘광 사이에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매장주체시설은 목곽일 가능성이 높다. 목곽에서 출토된 토기는 후기인 II 양식이다.

수혈식석곽은 봉길리고분군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었고, 밀집도가 높다. 석곽이 2기 또는 3~4기씩 나란하게 인접하거나 묘광이 서로 겹치도록 조영된 예가 많고, 일부 석곽은 수기씩 한 곳에 밀집되어 있다. 석곽 주위를 돌아가는 봉분이 확인된 예도 있는데, 규모가 작다. 석곽은 바닥면이 생토인 A식과 직경 5cm 이하의 작은 바닷자갈을 깔 B식이 있다. 이 시상 시설은 봉길리고분군과 울산 정자지역의 목곽과 수혈식석곽의 특징이다. A식은 양쪽 장벽의 하단에 규모가 큰 깎 돌을 세우거나 눕혀 쌓고, 2단부터 크기가 작은 깎 돌을 눕혀 쌓았다. 단벽은 크기가 큰 깎 돌 1장을 세우거나 눕혀 쌓고, 2단은 눕혀 쌓았다. 74-2호 석곽에서 출토된 상하엿갈림투창고배는 5세기 3/4분기로 편년되고, 가장 늦은 토기는 후기인 II 양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A식 석곽은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B식은 봉길리고분군II의 고분에서 가장 많이 조영된 것으로, 이 고분군의 주체적인 석곽 형식이다. B식은 한쪽 단벽 가까이 공간 일부를 생토바닥으로 하고 이외의 바닥은 직경 5cm 이하의 작은 바닷자갈을 깔 것, 바닥 전면이 직경 5cm 이하의 작은 바닷자갈을 깔 것으로 세분된다. 전자는 자갈이 깔린 곳에 피장자를 안치하고, 생토바닥에 유물을 부장하였다. 이런 특징을 지닌 석곽은 많지 않고, 시기는 5세기 3/4분기에서 6세기 1/4분기로 편년된다. 후자는 석곽의 대부분을 점하는데, 규모에서 전자와 구분되지 않는다. 석곽의 대부분은 6세기 전반에 조영되었다.

일부 석곽에는 부곽이 설치되었다. 석곽의 2/3 지점에 편평한 깎 돌 1장을 세워 주곽과 부곽을 구분한 것과 석곽의 장벽 중앙의 일부 또는 끝부분을 돌출시켜 부곽을 만든 것도 있다. 격벽을 설치하여 주·부곽을 구분한 석곽은 4-3·16·29-4호 등 3기이다. 4-3호는 바닥이 생토면이고, 나머지 2기는 바닥에 잔자갈을 깔았다. 장벽 일부를 돌출시켜 부곽을 만든 석곽은

31-1·53-1·29-2호 등 3기인데, 부곽을 가운데에 설치하여 평면 형태가 ‘卜’자형인 것과 끝부분에 만들어 ‘L’자형인 것이 있다. 모두 바닥에 자갈을 깔았다.

정자지역 산하동고분군의 목곽은 장방형이고, 바닥에 직경 5cm 이하의 작은 바닷자갈을 깔았다. 이 고분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혈식석곽은 깎은 돌과 바닷돌을 이용하여 정연하게 쌓은 것과 깎은 돌로 대충 쌓은 것이 있다. 바닥에는 모두 직경 5cm 이하의 작은 바닷자갈을 깔았다. 자갈을 바닥 전면에만 깔고 한쪽 단벽 가까이의 생토면에 유물을 집중 부장한 것으로 구분된다. 횡혈식석실은 연도가 좌측에 있고, 길이가 짧고, 평면형태가 장방형이다. 현실에는 시상이 설치되었는데, 시상 높이는 20cm 이하이다. 대부분의 석실에 2~3회의 추가 매장이 이루어졌고, 일부에는 옹관의 배묘가 있다. 산하동고분군의 목곽 및 수혈식석곽은 봉길리고분군의 목곽 및 수혈식석곽과 유사하다.

5) 회야강 하류지역

양동리고분군에서 구릉 정상부에 입지한 목곽묘는 묘광이 좁고, 묘광과 목곽 사이의 충전공간을 흙으로 채웠다. 목곽 바닥에 돌을 깔지 않은 형식은 7기, 바닥에 넓은 냇돌을 깔은 것은 2기이다. 9기 중 24·25호는 목곽 일부가 파괴되었음에도 길이가 390cm이고, 너비가 각각 75cm·85cm이며 묘광 평면 형태가 아주 세장한 신라식목곽이다. 목곽묘 중 4세기대로 편년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5세기 전반에 만들어진 것이다. 양동리고분군의 목곽묘는 바닥이 생토인 것에서 냇돌을 까는 형식으로 변화하였다.

구릉 사면에 조성된 유사적석목곽묘는 묘광과 목곽 사이의 공간을 큼직한 냇돌로 채워 네 벽을 충전하고 적석이 묘광 내부에서만 확인되는 것을 말한다. 묘광 길이 400cm 이하, 너비 115cm 이하로 평면 형태가 장방형으로 조

사된 구역의 중심 묘제이다. 대부분 유구는 반지하식이고, 바닥 전면에는 납작한 냇돌 또는 자갈을 얇게 깔았다. 조영 시기는 5세기 중엽에서 6세기 전반까지다. 유적은 극히 제한된 범위만 조사되었으나 목곽·유사적석목곽·황구식석실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5~7세기대 울산지역의 묘제 변화를 엿볼 수 있다.

III. 영남 동해안 지역 묘제의 특징

1. 목곽묘

지금까지 영남 동해안 지역에서 목곽묘는 영덕 덕곡리고분군, 포항 옥성리고분군·학천리고분군, 경주 봉길리고분군, 울산 산하동 산음고분군, 울주 양동리고분군·삼광리고분군 등에서 조사되었다. 울진군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지역에서 목곽묘는 3세기대부터 6세기대까지 400년간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봉분과 주구가 확인된 예는 없다. 이 지역 목곽묘에는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크게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충전공간을 채운 재료가 흙과 돌로 구분된다. 특히 충전공간을 돌로 채운 목곽이 많은데, 그 중심지역은 포항이다. 포항 옥성리고분군과 학천리고분군에서 충전공간을 돌로 채운 목곽이 다수 확인되었다. 영남 동해안의 다른 지역에서는 포항지역과 달리 목곽이 상대적으로 조사되지 않았다. 갑포~정자지구에서 기장지역까지 조사된 목곽들 중에도 충전공간을 돌로 채운 예는 얼마 되지 않는다. 따라서 충전공간을 돌로 채운 목곽은 포항지역의 특징일 가능성이 높다.

포항 학천리고분군과 옥성리고분군에서 충전석이 있는 목곽은 3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반까지 지속적으로 조영되었다. 이러한 목곽은 3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까지 이 지역에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비교적 많은 유물을 부장하였다. 그러나 5세기 후반 이후에는 규모가 작아지고, 그 수도 줄어든다.

둘째, 세장방형 목곽의 존재이다. 세장방형 목곽은 이른바 신라식목곽으로 잘 알려져 있고, 그 중심은 경주지역이다. 세장방형 목곽은 부곽이 없는 것과 부곽이 있는 것으로 구분된다. 부곽이 없는 세장방형은 옥성리고분군·학천리고분군 등 포항지역과 울주 양동리고분군이 있는 회야강 하류지역에서 확인되었다. 포항지역의 세장방형 목곽에서는 바닥이 생토면인 것과 자갈을 깔 것이 확인되지만 회야강 하류지역에서는 바닥에 돌을 깔 예가 확인되지 않았다. 동혈주부곽식목곽은 포항 옥성리고분군과 학천리고분군에서만 확인되었고, 두 고분군 중 옥성리고분군에 많다.

이 지역의 동혈주부곽식목곽은 경주지역의 그것보다 규모가 훨씬 작고, 부장품도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궤수문철모가 다수 부장되고, 투구와 경갑 등 무구류가 매납되었다. 이는 어느 정도의 세력을 가진 집단이 일찍부터 흥해 초곡천변과 포항 냉천변의 평야지를 무대로 삼아 성장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지역의 집단은 3세기 후반에서 4세기대에 가장 활발하게 묘를 만들었고 5세기 이후에도 앞 시기의 묘제인 목곽묘를 고수하였다. 5세기 후반에는 경주 중앙인의 독특한 묘제인 적석목곽의 요소를 일부 수용한 유사적석목곽묘를 조영하였다.

영남 내륙지역의 집단들은 5세기 중엽에 수혈식석곽을 수용하고, 교통의 결절지에 위치한 집단은 고층 고분을 조영하는 등 세력을 신장하였다. 하지만 영남 동해안 지역 집단들은 5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수혈식석곽을 수용하였고, 고층 고분은 조영하지 못하였다. 이는 늦어도 5세기에 접어들어 신라의 직접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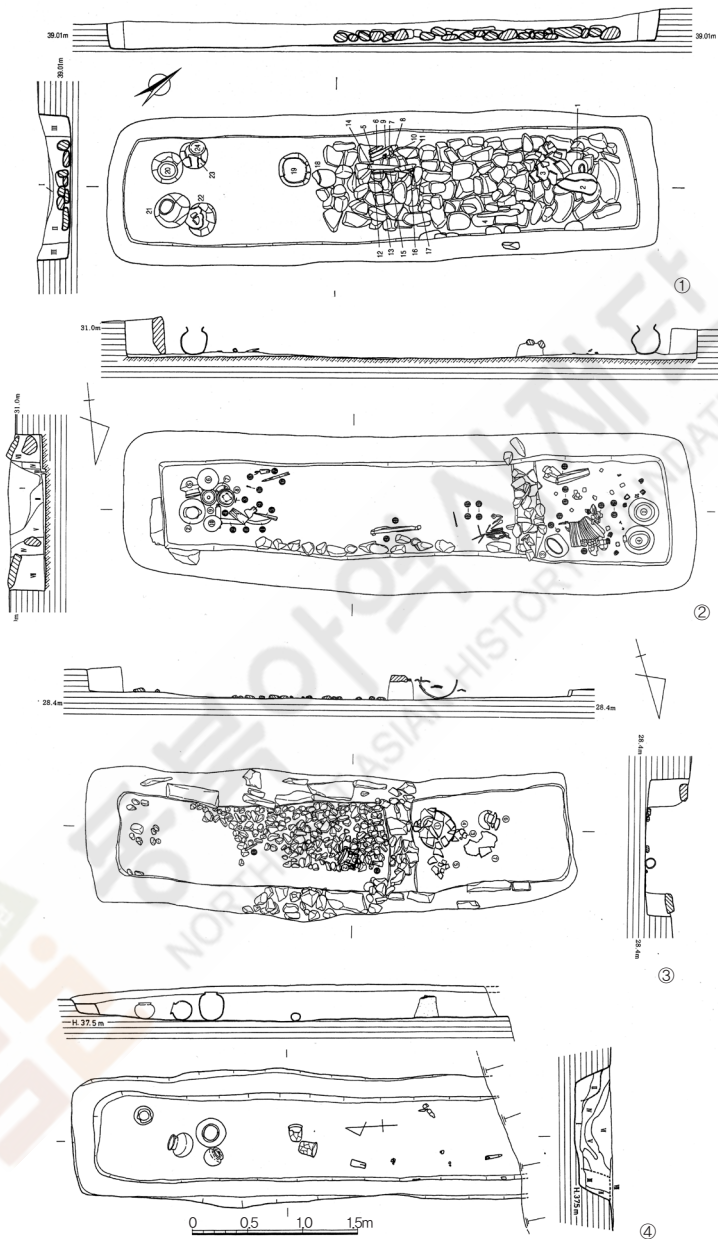


그림 5_ 영남 동해안 지역의 세장방형과 주부곽식목곽묘

(① 학천리 95호묘, ② 옥성리 35호묘(경주박), ③ 옥성리 133호묘(경주박), ④ 양동리 24호묘)

배를 받으면서 이 지역 집단들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었음을 나타낸다. 특히 포항지역은 강원도 동해안 지역보다 늦은 5세기 후반 이후에야 수혈식석곽을 수용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장기곶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남쪽인 감포-정자-울산-기장으로 이어지는 해안변에 조영된 목곽은 충전공간을 흙으로 채우고, 돌을 깔지 않은 생토면을 바닥으로 이용하였다. 이 지역에서 목곽은 3세기 전반부터 6세기 전반까지 조영되었는데, 그 중심시기는 3세기에서 5세기 전반까지다. 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3:1 이상이고 평면 형태가 세장방형인 신라식목곽이 확인되는데, 바닥에 돌을 깔지 않았고, 격벽이 확인되지 않는다. 동혈주부곽식도 확인되지 않는다. 아직 이 지역에서 3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목곽묘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후 새로운 자료가 기대된다. 그런데 회야강 수계의 중심고분군인 하대고분군의 발굴조사에서 동혈주부곽식의 목곽이 확인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울산만과 회야강 이남에서는 동혈주부곽식의 신라식목곽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감포~정자 일대는 6세기 전반까지 목곽묘가 조영되었는데, 생토면을 바닥으로 이용하고, 흙을 충전하였다. 대부분 규모가 소형이고, 조영 시기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까지다. 이 지역에서는 4세기 이전 시기의 고분군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는 이 시기의 고분군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포항에서 울진까지의 지역에는 많지 않지만 몇 곳에서 목곽묘군이 확인되었다. 포항 옥성리고분군에서는 1세기대의 목관묘를 시작으로 3세기에서 5세기까지의 목곽이 많이 조사되었고, 다양한 형식이 확인되었다. 특히 충전공간을 돌로 채운 목곽이 다수 확인되었는데, 자갈층이 아님에도 돌로 채운 목곽이 많은 점이 특이하다. 그리고 4세기에서 5세기 전반에 만들어진, 길이

가 긴 세장한 평면 형태의 신라식목곽이 여러 기 확인되었다. 신라식목곽은 격벽을 설치하여 주곽과 부곽을 구분한 동혈주부곽식, 명확한 격벽 없이 피장자를 안치하는 바닥에 돌을 깔고 유물을 매납하는 바닥을 생토면으로 하여 공간을 분리한 형식이 확인되었다. 이 신라식목곽은 다른 형식의 목곽보다 규모가 크고, 부장품도 풍부하다. 특히 투구와 목가리개 등 무구류와 마구류가 부장된 점으로 미루어볼 때 포항지역 일대에 존재한 집단의 지배층 고분으로 추정된다.

학천리고분군에서도 옥성리고분군보다 규모는 작지만, 다양한 형식의 목곽이 다수 확인되었다. 충전공간을 돌로 채운 목곽이 많이 조영되었는데, 조영 시기와 특징들은 옥성리고분군과 유사하다. 이곳에서도 신라식목곽이 확인되었는데, 일부는 바닥에 자갈을 깔았다. 옥성리고분군보다 목곽묘의 밀집도가 높지 않고, 무구류와 마구류 부장이 적은 점 등으로 볼 때, 학천리고분군은 옥성리고분군보다 하위 집단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영남 동해안 지역에서 목곽묘의 조영 시기가 이르고, 많은 수가 확인된 곳이 포항지역임을 알 수 있다.

영덕지역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덕곡리에서 4세기대의 목곽묘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향후 송천과 남대천 일대에서도 목곽묘로 이루어진 고분군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이 지역에서 목곽묘로 된 고분군이 조사된다면, 와질토기의 존부 및 와질토기에서 도질토기로의 전환 양상은 물론 지금까지 3~4세기대의 양상이 불분명한 강원 동해안 지역의 고분 양상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라가 동해안으로 진출해 가는 시기와 양상에 대한 이해도 가능할 것이다.

2. 유사적석목곽묘

유사적석목곽묘는 묘광과 목곽 사이의 충전공간을 흙이 아닌 돌로 채우고, 목곽 상부에도 적석을 하였으나 그 양이 적어 봉분을 구성하지 않는 구조의 목곽묘를 지칭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사방식적석목곽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유사적석목곽은 영덕 괴시리 16호분, 포항 학천리고분군·옥성리고분군, 울주 양동리고분군에서 각각 확인되었다. 각 고분군에서 확인된 유사적석목곽묘는 규모와 평면 형태 등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묘광 길이가 600cm이며 평면 형태가 방형에 가깝고, 목곽 뒷채움공간이 넓고, 묘광 윗부분에도 적석을 하고, 상부에도 부분적으로 적석한 구조이다. 현재까지는 영덕 괴시리 16호분이 이에 해당한다. 괴시리 16호분의 매장 주체부는 길이 620cm, 너비 515cm, 깊이 200cm가량의 묘광을 파고, 그 안에 곱을 설치하였다. 곱은 주피장자와 부장 유물을 안치한 내곽, 내곽 및 주위에 순장 및 부장 유물을 감싸는 외곽의 이중곽 구조이다. 내곽과 외곽 바닥 모두 돌을 깔았는데, 아래에는 깎 돌을 깔고 그 위에는 냇돌을 깔았다. 내곽과 외곽 사이에는 바닷돌을 내곽 높이 가까이까지 쌓았다. 외곽과 묘광 벽 사이는 깎 돌로 채웠는데, 묘광 벽 위쪽까지 깎 돌을 쌓았고 목곽 상부에는 적석을 하지 않았다.¹⁶⁾ 묘광 평면 형태가 방형에 가깝고, 외곽과 내곽의 이중곽 구조로 내곽과 외곽 사이 공간을 돌로 채워 단을 만든 구조 등은 경주분지와 건천 금척리고분군의 적석목곽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조사된 경주분지 이외 지역에 분포하는 것 중에서 가장 경주지역의 적석목곽에 가까운 형식이다.

적석은 묘광 벽과 외곽 사이 및 묘광 위쪽에만 하였고, 상부에는 하지 않아

16) 國立慶州博物館(1999), 『盈德 槐市里 16號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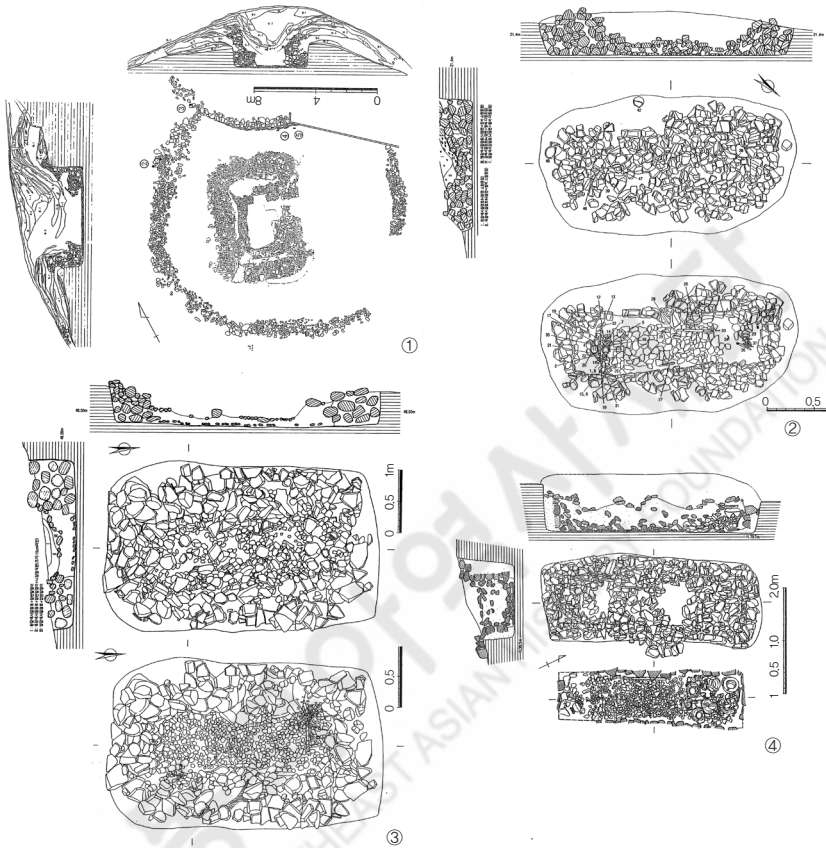


그림 6_ 유사적석목곽묘

(① 영덕 괴시리 16호분, ② 흥해 옥성리 50호묘(경북연), ③ 포항 학천리 1호묘, ④ 울주 양동리 14호묘)

황남대총 남분·북분과 금관총 등 경주 시내의 전형적 적석목곽과는 구조가 다르다. 적석부가 봉분의 하부를 이루지 않은 유사적석목곽으로 적석목곽을 모방한 구조로 추정된다.

내곽과 외곽, 적석부·호석부 등에서 많은 양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토기가 대부분이고, 금속품은 광재를 고정한 꺾쇠와 수점의 철모와 철부, 낚싯바

늘 1점 등이다. 철촉·환두대도 등 무기와 마구·갑주 등은 출토되지 않았다. 관·이식·과대·식리 등 착장형 금속제 장신구도 전혀 나오지 않았다. 분구 및 매장 주체부의 규모에 비해 부장품의 질이 현저하게 낮은 점이 특징이다.

둘째는 묘곽의 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2.0 이하인 장방형이다. 이에 해당하는 유사적석목곽은 포항 학천리고분군 1~6·8호와 옥성리고분군(慶北研)50호이다. 이 유형의 유사적석목곽묘는 포항지역에서만 확인된다. 영덕 괴시리 16호분의 매장주체시설보다 길이가 길고, 너비가 좁을 뿐만 아니라 규모도 훨씬 작다. 그리고 일부 고분은 뒤쪽에 주구가 있어 분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이외의 고분에서는 분구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목곽 상부에 적석이 되었지만, 적석량은 많지 않고, 이중곽 구조인 괴시리 16호분과 달리 단일곽 구조이다. 일부 고분에서 마구와 환두대도 등이 출토되었다. 하지만 50호묘에서 출토된 은제 조익형 관식 1점을 제외하면, 금속제 착장형 장신구는 출토되지 않았다. 그리고 부장된 토기 수량은 목곽묘보다 많지 않고, 많아야 20여 점에 불과해 괴시리 16호분보다 훨씬 적다.

포항지역에 유사적석목곽이 출현한 시기는 5세기 중엽이고, 많이 사용된 시기는 5세기 말이다. 현재 가장 이른(慶州博)1호에서 출토된 상하엿갈림투창 고배는 반구형 배신에 3단 구성의 대각인데, 이와 유사한 고배는 동래 복천동 53호묘에서 다수 출토되었다. 복천동 53호묘는 5세기 중엽으로 편년된다. 옥성리 4호묘는 1호묘보다 늦지만 역시 5세기 중엽에 해당한다. 이외에 학천리고분군에서 확인된 유사적석목곽은 모두 5세기 말에 해당하고, 6세기 전반 이후로 내려오는 예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포항지역에 유사적석목곽묘가 등장한 시기는 5세기 중엽이며, 옥성리고분군에 먼저 조영되고 5세기 말에 학천리고분군에 집중 조영되었으며, 6세기에는 조영되지 않았다. 포항지역에 유사적석목곽묘가 조영된 시기는 영덕 괴시리고분군보다 다소 이를 가

능성이 있지만, 영덕 괴시리고분군보다 신라 중앙의 적석목곽묘 요소를 많이 모방하지는 않았다. 이는 포항지역의 집단보다 영덕 괴시리고분군의 조영 집단이 상위 계층이고, 동시에 신라 중앙과의 유대관계가 더욱 강하였음을 보여 준다.

셋째는 묘곽의 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2.0 이상의 장방형이다. 대부분 2.2 이상이다. 여기에는 포항 옥성리 (慶州博)1·4호, 학천리 7호와 울주 양동리 2·7·14·19호가 해당된다. 옥성리 1·4호와 학천리 7호는 비율이 2.3 : 1 이하이고, 울주 양동리고분군의 유사적석목곽은 2.5 : 1 이상으로 길이가 길다. 울주 양동리고분군에서는 이외에도 아직 보고되지 않은 10여 기의 유사적석 목곽묘가 조사되었는데, 대부분 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2.5 : 1 이상이다.

울주 양동리고분군의 유사적석목곽묘는 상부가 대부분 파괴되거나 유실되어 깊이 및 상부 구조를 알 수 없다. 조사 당시 분구·호석·주구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 분구가 있었다면 목곽묘와 유사한 규모와 높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목곽 상부의 적석량이 아주 적는데, 이는 상부를 부분적으로만 덮었기 때문이다.

양동리고분군은 규모가 영덕 괴시리 16호분의 1/4 이하로 소형이다. 포항 옥성리고분군과 학천리고분군의 유사적석목곽보다 규모가 작다. 토기와 철기는 10여 점 부장되었고, 금속제 장신구는 전혀 부장되지 않았다. 매장주체 시설의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부장품의 구성도 빈약하여, 영남 동해안 지역의 유사적석목곽 중에서 가장 등급이 낮다. 적석목곽의 요소도 가장 빈약하다. 양동리고분군의 유사적석목곽은 5세기 후반에 조영되었다. 포항지역보다 약간 늦게 등장한 것이다.

영덕·포항·울주에서 확인된 유사적석목곽은 영덕보다 북쪽, 울주 양동리고분군보다 남쪽에서는 확인 또는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유사적석목곽은

북으로는 영덕까지, 남으로는 회야강 하류까지 조영된 것으로 보인다.

3. 수혈식석곽

영남 동해안 지역의 수혈식석곽은 고층 분구를 지닌 고분과 같은 대형분묘는 중·소형분으로 조영되었다. 기장에서 감포지역까지는 주로 5세기 중엽에 등장하여 6세기 말까지 보편적인 매장주체시설로 사용되었다. 회야강 하류지역의 수혈식석곽은 모두 소형이고, 바닥이 생토면인 것과 깎 돌을 깎 것으로 구분된다. 정자·감포·구룡포지역의 수혈식석곽은 바닥이 생토면인 것과 직경 5cm 이하의 작은 바닷자갈을 깎 것으로 구분되는데, 후자의 경우는 이 지역 외의 수혈식석곽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회야강 하류지역과 포항·영덕·울진 등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삼척 갈야산고분군과 강릉 하시동·초당동·병산동고분군 등에서도 직경 5cm 이하의 작은 바닷자갈을 석곽 바닥에 깎 예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석곽 바닥에 직경 5cm 이하의 작은 바닷자갈을 깎 것은 정자에서 구룡포에 이르는 영남 동해안 지역만의 특징이다.

감포의 봉길리고분군의 수혈식석곽 중에는 석곽 내에 격벽을 만들어 주곽과 부곽을 구분하거나 장벽에 돌출된 부곽을 만든 예도 있다. 곱에 격벽을 하거나 돌출된 부곽을 만든 예는 경주의 중·소형 적석목곽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형식의 봉길리고분군 석곽은 경주 적석목곽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다.

이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횡구식석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6세기 이후 영남 내륙의 대부분 지역에서 횡구식석실이 보편적 묘제로 사용되었던 것과 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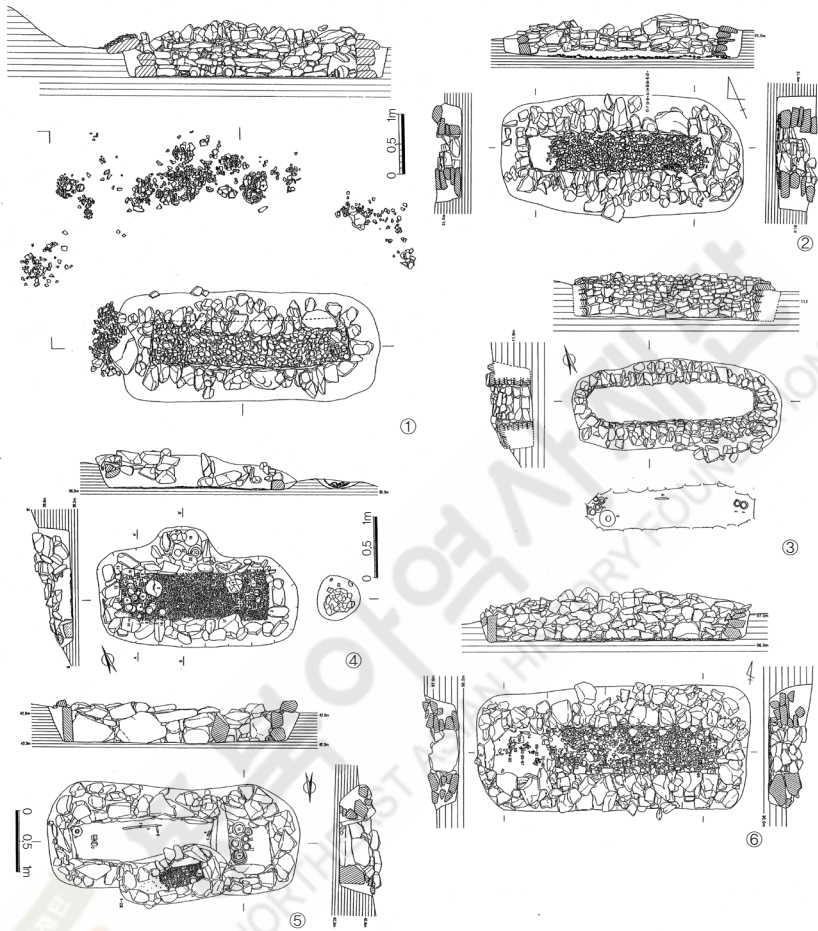


그림 7. 수혈식석곽

(① 울진 덕신리 16호묘, ② 흥해 옥성리 10호묘(경주박), ③ 포항 인덕동 석곽 2호, ④ 경주 봉길 53-1호묘(경북연), ⑤ 경주 봉길 4-3호묘(경북연), ⑥ 울산 운화리 3-1호묘)

양상이다. 앞으로 황구식석실이 나온다 하더라도 6세기 전반대의 것은 없고, 대부분 6세기 후반 이후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이 지역에서 확인된 수혈식석곽의 대부분이 6세기 전반대의 것이기 때문이다.

흥해와 포항 등 현 포항지역의 수혈식석곽은 감포와 정자지역보다 늦은 5

세기 말에서 6세기 전반에 수용된 것이다. 이 지역은 영남지역에서 가장 늦게 수혈식석곽을 받아들였다. 이 지역에 수혈식석곽이 늦게 수용된 것은 경주지역 묘제의 영향이 강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5세기 후반까지는 목곽과 유사적석목곽이, 6세기 전반에는 황구식석실묘가 각각 조영되었기 때문에 수혈식석곽은 수용되었어도 유행하지 않았다.

영덕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수혈식석곽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괴시리고분군에 수혈식석곽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26기의 고총 중 일부는 내부 주체시설이 수혈식석곽일 가능성이 있고, 고총 주변에 분포하는 소형묘의 일부도 수혈식석곽일 가능성이 있다. 향후 이 지역의 고분군 조사를 기대한다.

울진지역에서는 덕신리고분군과 매화동고분군에서 수혈식석곽이 확인되었다. 특히 덕신리고분군은 소형의 수혈식석곽들로 이루어졌다. 이 고분군의 석곽은 길이가 400cm 이하의 소형이고, 석곽 바닥은 모두 생토면을 이용하고, 돌을 깔지 않았다. 이 점은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수혈식석곽과 유사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영남 동해안 지역은 수혈식석곽의 조영이 다른 지역보다 늦고, 또 대형의 고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점은 같은 동해안 지역인 강원도 지역과 다르다. 고총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동일 묘제의 다양성은 영남 내륙지역보다 약하다.

4. 횡혈식석실

횡혈식석실은 인덕동고분군·대련리고분군·학천리고분군 등 포항지역과 감포 봉길리고분군, 정자 산하동고분군, 온산고분군·화산리고분군 등이 있는 회야강 하류지역에서 확인되었다. 이 중 포항 학천리고분군, 온산고분군,

화산리고분군은 수기 또는 수십기의 고분 중에서 횡혈식석실은 각각 1기뿐이다. 이들 고분군에서 횡혈식석실은 고분군의 중심에 위치하였다. 이로 보아 석실의 피장자가 고분군 조영 집단의 리더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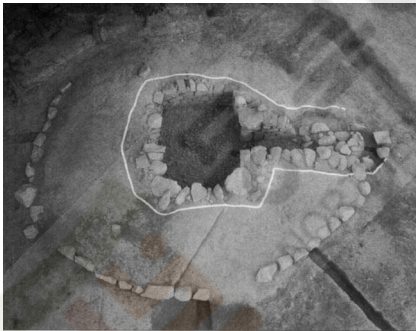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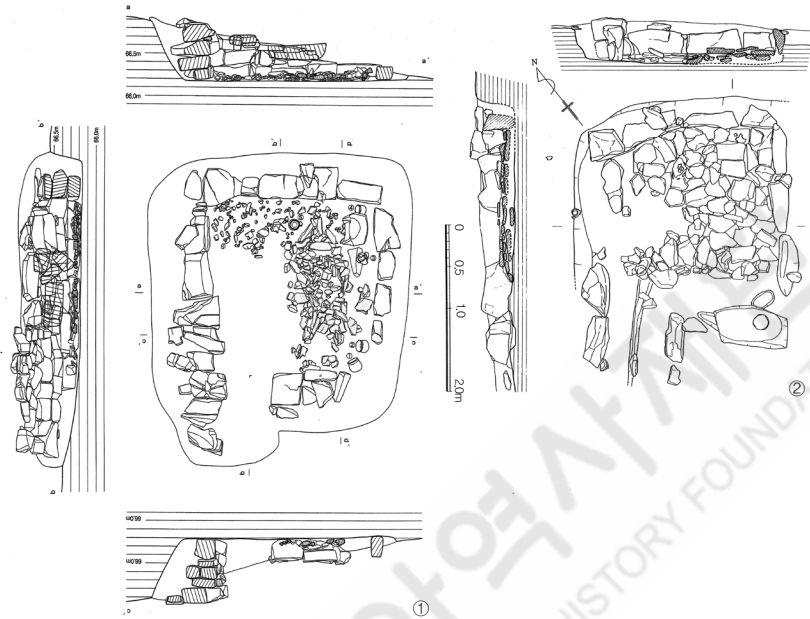
인덕동고분군에서는 횡혈식석실이 5기 확인되었는데, 1기는 파괴가 심하여 구조를 알 수 없고, 4기는 평면 형태와 구조를 알 수 있다. 이 중 3기는 현실 평면 형태가 방형이고, 연도가 좌측에 마련되었다. 시상대는 현실 전면 또는 일부에 설치하였다. 일부에 설치한 경우 연도 반대쪽인 우측에 길이 방향으로 시상대를 설치하고, 추가 매장할 때 1차 시상대의 좌측에 새로운 시상대를 설치하였다. 시상대는 강돌 또는 바닷돌을 깔거나 아래에 사람 손바닥만한 냇돌을 깔고 그 위에 자갈을 깔아 만들었다. 시상 높이는 20cm 이하로 낮다. 추가 매장은 1회 정도 이루어진 부부장이다. 연도는 길이가 100~150cm이고, 연도 전 부분을 깎아 돌로 채워 폐쇄하였다.

5호는 현실 평면 형태가 장방형이고, 연도가 중앙에 마련되었다. 시상은 우측에 먼저 설치하고, 추가 매장 시에 1차 시상 좌측에 새로운 시상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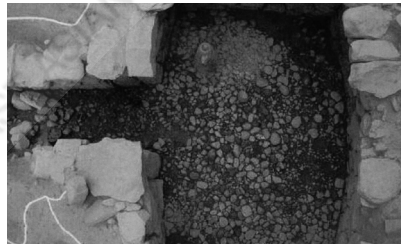
인덕동고분군 횡혈식석실의 특징은 시상을 우측에 먼저 설치하고 추가 매장 시 좌측에 설치하였으며 높이가 낮고 자갈을 깎아 점, 1인 내외가 추가 매장된 점, 연도가 좌측에 설치되고 전면을 깎아 돌로 채워 폐쇄한 점 등이다.

포항 대련리고분군은 횡혈식석실이 중심을 이루는 고분군이다.¹⁷⁾ 이곳의 횡혈식석실은 길이가 너비보다 좁아 현실 평면 형태가 횡장방형이다. 일부 석실에서 후벽과 전벽이 활상으로 곡률을 이루는 점, 바닥 전 부분에 잔자갈을

17) 포항 대련리유적에 대한 정보 및 자료는 (재단법인)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의 김광명 선생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이에 감사드린다.



④



③



⑤

그림 8_ 횡혈식석실

(① 포항 인덕동 석실묘 2호, ② 울주 화산리 1호분, ③·④ 포항 대련리 10호분, ⑤ 포항 대련리 23호분 연도)

간 점, 연도가 중앙에 마련되고 너비가 좁고 길이가 긴 점 등은 영남 동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영남 내륙지역의 횡혈식석실과도 다른 이 지역의 특징이다.

포항 국도대체우회도로(유강~대련) 건설구간 내 대련리유적 1호 횡혈식석실에는 시상 위에서 관고리·관정·꺾쇠 등 관 관련 금구가 출토된 것으로 미루어 목관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암키와가 출토되었는데, 주검 밑에 놓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실 내에 기와를 사용한 예는 서악동·충효동·용강동·황성동고분군, 건천 휴식소고분군 등 경주와 주변 지역의 7세기대 횡혈식석실에서만 확인되었다. 이는 왕경의 귀족이 매장된 고분의 특징이다. 따라서 대련리고분군은 왕경과의 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바닥에는 Y자상의 배수로를 설치하였다. 벽면에는 회를 발랐다. 신라 횡혈식석실에 회미장을 한 예는 현재 남원 두락리 2호 석실을 제외하면, 모두 왕경의 횡혈식석실에서만 확인된다. 기와 사용 및 회미장 등으로 볼 때, 대련리유적 1호분 피장자는 왕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을 것이다.

대구~포항고속도로 연일JCT 건설공사구간 내의 대련리고분군에서 확인된 횡혈식석실은 모두 6기다. 3·10·16·23호 석실은 평면 형태가 횡장방형이고, 연도가 중앙에 마련되었다. 벽은 깬 돌을 세로 또는 가로로 눕혀쌓기하고, 벽석의 틈새는 작은 자갈로 메웠다. 3·16호 석실은 현실 벽면에 회칠을 하였다. 바닥 전 부분에 자갈을 깔았고, 시상은 구분되지 않는다. 현실과 연도에서 관정·관고리 등이 출토되었다. 이를 통해 목관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연도는 길이가 길고, 바닥 전 부분에 현실 바닥 높이와 같게 자갈을 깔았고, 끝 부분은 깬 돌로 막았다. 3·23호 석실은 현실 입구에 문주석을 세웠다. 연도에서 유물이 다수 출토되었는데, 현실이 교란되면서 일부 유물이 연도로 유입된 것도 있지만, 당초부터 연도에 유물을 매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대련리고분군의 횡혈식석실은 평면 형태가 횡장방형이고, 중앙에 마련된

연도는 너비가 좁고 길이가 길다. 이런 연도가 설치된 횡혈식석실은 서악리 석침총형이다. 서악리석침총형 석실은 경주 서악리석침총 석실을 조형으로 한 왕경 귀족의 전용 횡혈식석실로 알려져 있다. 서악리석침총형의 지방형으로는 경기도 여주 매룡리 2·8호 석실이 있다. 대련리고분군의 횡혈식석실도 서악리석침총형의 지방형일 가능성이 있다. 서악리석침총형 석실과 다른 점은 벽면이 활상으로 흰 것, 목관을 사용한 것, 연도에 유물을 매납한 것 등이다. 이런 점들은 향후 자료가 증가된 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영남 동해안 지역의 삼국시대 고분 분포와 각 고분군의 묘제 구성 및 특징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영남 동해안 지역의 목곽묘·수혈식석곽묘·횡혈식석실묘의 특징을 추출하였다. 영남 동해안 지역에서 고분이 가장 밀집한 지역은 옥성리고분군·학천리고분군·성곡리고분군·마산리고분군·남성리고분군·대련리고분군 등이 있는 흥해읍의 초곡천변, 호동고분군·인덕동고분군·원동고분군 등이 있는 냉천 북안 지역의 포항, 양동리고분군·운화리고분군·온산고분군·화산리고분군·운회리고분군 등이 있는 울주 회야강 하류지역이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영남 동해안 지역의 삼국시대 고분문화가 전개되었다.

영남 동해안 지역의 고분의 묘제는 목곽·유사적석목곽·수혈식석곽·횡구식석실·횡혈식석실 등이 확인되는 등 영남 내륙지역과 동일하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는 유사적석목곽이 영덕 괴시리고분군, 포항 학천리고분군·옥성리고분군, 울주 양동리고분군에서 확인되었다. 이 유사적석

목곽은 대부분 5세기 중엽에서 말쯤의 짧은 기간 내에 조영되었다. 이 지역에서 확인된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에 비해 묘광의 길이가 짧고, 너비가 넓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들로 경주 적석목곽묘의 평면 형태를 모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라 중앙인의 묘제인 적석목곽묘의 요소가 반영됐다는 것은 신라 중앙과의 관계가 밀접하였음을 말해준다. 특히 경주로부터 멀리 떨어진 영덕 괴시리에 유사적석목곽이 고총의 군(群)을 이루고 경주의 적석목곽과 유사성이 높은 점 등으로 볼 때, 신라의 동해안 지역 진출에 영덕지역이 요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목곽은 포항지역, 감포~정자지역, 회야강 하류지역 등 각 지역마다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포항지역에는 3세기대부터 5세기 후반까지 목곽묘가 보편적인 묘제로 조영되었는데, 묘광과 목곽 사이의 충전공간을 돌로 채운 목곽묘의 예가 많이 확인되었다. 앞에서 검토한 유사적석목곽묘는 충전공간을 냇돌과 깎돌로 채웠지만, 목곽묘는 깎 돌로 채워 각각의 묘제 조영에 명확한 인식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목곽묘의 목곽 바닥은 생토면인 것, 자갈을 깔 것 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바닥에 돌을 깔아 주곽과 부곽을 구분하거나 격벽을 만들어 주곽과 부곽을 구분한 세장방형의 신라식목곽묘도 10기 이상 확인되었다. 신라식목곽은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에 조영되었고, 투구·경갑 등 무구류와 재갈·행엽 등 마구류가 부장되어 다른 형태의 목곽과 규모·부장품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장방형 목곽과 더불어 장신형 꺾수문철모가 부장되어 신라 중앙집단과의 관계가 강하였음을 보여주었다. 감포~정자지역에서 5세기 전반 이전의 목곽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 지역의 목곽은 대부분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 사이에 조영된 것이다. 모두 소형이고,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다. 수혈식석곽과 같은 시기에 조영되었다. 목곽 바닥에 지름 2.5cm 이하의 잔자갈을 깔 점이 이 지역 목곽의 특징이다.

회야강 하류지역의 경우 현재 양동리고분군에서만 세장방형과 장방형이 확인되었다. 세장방형은 주곽과 부곽의 구분이 없고, 바닥은 생토면을 이용하였다. 향후 이 지역에서 목곽묘의 조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영덕 덕곡리에서 목곽묘가 조사되어 적어도 영덕지역까지 4세기 후반대에 목곽묘가 조영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장신형철모가 부장된 것으로 미루어보면 신라식목곽묘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울진지역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수혈식석곽은 5세기 후반부터 조영되어 영남의 남해안 지역과 내륙지역에 비해 늦게 수용되었고, 규모도 중·소형이다. 회야강 하류지역과 감포~정자 지역에는 수혈식석곽이 5세기 후반 초에 수용되었는데, 격벽을 만들어 주곽과 부곽을 구분하거나 장벽에 돌출된 부곽을 만들었다. 특히 한쪽 단벽의 너비를 넓게 하여 부곽을 만든 예가 다수 확인되었다. 주·부곽을 구분한 점은 경주의 중·소형 적석목곽의 요소를 모방한 것이다. 회야강 하류지역의 수혈식석곽은 바닥에 넓적한 강돌을, 감포~정자지역의 수혈식석곽은 바닥에 지름 2.5cm 이하의 잔자갈을, 포항지역의 수혈식석곽은 깬 돌을 각각 깔고, 울진지역의 수혈식석곽은 생토면을 이용하는 등 각 지역마다 바닥 시설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포항지역에는 수혈식석곽이 다른 지역보다 늦은 5세기 말에서 6세기 전반에 수용되었다.

횡혈식석실은 평면 형태가 방형·장방형·횡장방형 등 다양하고, 연도는 좌편재식과 중앙식이 있다. 포항 대련리고분군의 횡혈식석실은 다른 지역과 달리 횡장방형의 현실 평면과 길고 좁은 중앙 연도가 특징적이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경주 중앙의 서약리석침총 유형 석실과의 관련성이 높다. 그런데 문주석이 설치되고 벽면이 활상으로 휘는 점, 연도에 유물을 부장하고 주검을 목관에 안치한 점 등은 다른 요소이다. 이와 관련해 향후 울릉도와 일본 노도能

島반도를 포함한 호쿠리쿠(北陸) 지역 횡혈식석실과의 관계를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외 지역의 횡혈식석실은 연도가 좌편재한 것이 많고 현실에 시상이 설치되었다. 시상 높이는 20cm 이하로 낮고, 추가 매장은 많이 되지 않았다.

영남 동해안 지역에서는 영덕 괴시리고분군을 제외하면 고층이 확인되지 않았고,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의 짧은 기간에 만들어진 규모가 큰 세장방형의 신라식목곽묘를 제외하면 매장주체시설이 중·소형이다. 특히 5세기 중엽 이후부터는 영남 다른 지역에 비해 고분 규모와 부장품의 내용 및 수준 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 참고문헌

〈논문〉

- 김영민(2002), 「목곽묘의 변화로 본 고대 울산」, 『울산연구』 4, 울산대학교박물관.
- 이상수(1995), 「영동지방 신라고분에 대한 일고찰-북평지역 고분군을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 18, 한국상고사학회.
- 이상수(2002), 「嶺東地方 古墳의 分布樣相과 그 性格」, 『삼국의 접점을 찾아서』, 제 28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회 요지.
- 李漢祥(2002), 「분묘(墳墓)를 통해 본 5세기대 울산사회」, 『울산연구』 4, 울산대학교 박물관.
- 李漢祥(2003), 「동해안지역의 5~6세기대 신라분묘 확산양상」, 『嶺南考古學』 32, 영남고고학회.
- 早乙女雅博(1997), 「三國時代·江原道の古墳土器-關野貞資料土器とその歴史的意義」, 『朝鮮文化研究』 4, 東京大學文學部 朝鮮文化研究室.
- 洪潛植(2002), 「묘제로 본 6~7세기대 울산」, 『울산연구』 4, 울산대학교박물관.
- 洪潛植(2003), 『新羅 後期 古墳文化 研究』, 춘추각.
- 洪潛植(2007), 「강원지역의 신라고분 전개양상」, 『2007 추계학술대회논문집』, 江原考古學會.

〈보고서〉

-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2002), 『浦項 鶴川里遺蹟 發掘調査報告書 I·II·III』.
-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2003), 『浦項玉城里古墳群發掘調査報告書』.
-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2005), 『慶州 奉吉里古墳群-경주 봉길리 신규 원전부지내』.
-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2005), 『盈德 德谷里遺蹟』.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5), 『홍해 소망교회 신축부지 내 浦項 馬山里古墳群』.
-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2006), 『盈德 槐市里古墳群-精密地表面調査報告書』.
-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2007), 『浦港 江沙里 遺蹟』.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8), 『대구~포항고속도로 연일JCT 건설공사구간 내 문화

-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8), 『포항 국도대체 우회도로(유강~대련) 건설구간 내 大蓮里遺蹟發掘調査 略報告書』.
- 國立慶州博物館(1999), 『盈德 槐市里 16號墳』.
- 國立慶州博物館(2000), 『玉城里 古墳群-가地區 發掘報告書』.
- 釜山大學校博物館(1983), 『蔚州華山里古墳群』.
- 釜山大學校博物館(1985), 『蔚州良東里遺蹟調査概報』.
- 안동대학교박물관(2003), 『울진 매화리 고분 발굴조사보고서』.
- 안동대학교박물관(2004), 『울진 덕신리유적』.
- 嶺南文化財研究院(1998), 『浦項玉城里古墳群-나 地區』.
- 울산대학교박물관(2000), 『경주 봉길리고분군 I』.
- 蔚山文化財研究院(2008), 『蔚山雲化里古墳群』.
- 昌原大學校博物館(1998), 『蔚山 日山洞古墳群』.
- 韓國文化財保護財團(2006), 『浦項 仁德洞 遺蹟』.

영남 동해안 지역의 농경 및 어로 문화

국립중앙박물관 김재홍

- I. 머리말
- II. 농기구와 어구의 자료 분석
- III. 농기구와 어구의 부장 양상
- IV. 생업경제사적 의의
- V. 포구를 장악한 수장, 해적
- VI. 맺음말

영남 동해안 지역의 농경 및 어로 문화

국립중앙박물관 김재홍

I. 머리말

영남 동해안 지역은 산맥과 해안 사이의 공간이 비좁지만 서쪽의 산악지대에서 내려오는 조그만 하천을 이용하여 농경(農耕)을 영위하였다. 비록 넓은 평야는 적지만 작은 소하천을 끼고서 농경에 종사하였다. 들판의 앞에는 드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어 어로(漁撈)에 적합한 조건도 갖추고 있었다. 또한 산맥과 해안 사이의 좁은 공간을 따라 육지와 해로를 통하여 남북으로 이동하기가 편리한 교통의 요충지였는데, 후대의 통일신라시대 5통(五通)¹⁾ 중 하나인 북해통(北海通)이 지나가고 있다. 따라서 영남 동해안 지역은 농경과 어로에 적합한 지역이며, 남북으로 이동하기에 편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신라가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진출한 지역이다.

영남 동해안 지역은 울진 나곡과 삼척 궁촌 사이의 험난한 산악으로 인해

1) 『三國史記』卷37, 志6, 地理4, 三國有名未詳地分條, “北海通, 鹽池通, 東海通, 海南通, 北徯通.”

북쪽의 강원도 동해안 지역과 구별된다. 신라가 진출한 시기에도 얼마간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며, 그 이전의 문화적인 기반도 강원도 동해안은 예(濊)나 동예(東濊),²⁾ 영남 동해안은 진한(辰韓)³⁾으로 달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삼국 시대에도 신라의 중앙인 경주와 문화적인 양상을 거의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문헌 자료나 고고학적 자료를 통하여 그 종족적·문화적인 차이를 확정하기에는 이른 단계이다.

신라가 이 지역에 진출한 시기가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는 기원 1~2세기 까지 소급되어 있으나 고고학 자료로서 증명하기 곤란하므로 자료가 안정적인 4~6세기를 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그리고 대상이 되는 자료는 주로 해안가에 위치한 고분이지만 해안에서 떨어진 지역이라도 하천 수계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용하였다. 당시 해안으로 흘러드는 하천의 주요 지점은 제2의 항구로 인식할 정도⁴⁾로 바다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삼국시대 해안가 고분이나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농기구를 분석한 연구는 일반적인 농기구를 다룬 연구⁵⁾에 비해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이다. 해

-
- 2) 박순발(1994), 「한성백제 기층문화의 성격」, 『백제연구』 26,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3) 노중국은 울진에 있던 진한의 소국을 優由國으로 비정하고 진한연맹체의 북쪽 한계로 보았다. 노중국(1999), 「고대 울진의 역사 개관」, 『韓國古代社會와 蔚珍地方』, 蔚珍郡·韓國古代史學會, 216쪽.
 - 4) 平川南(2008), 『日本の原像』, 日本の歴史 2(新視點古代史), 小學館, 154~161쪽.
 - 5) 東潮(1979), 「朝鮮三國時代の農耕」, 『檀原考古學研究所 考古學論集』 4; 李賢惠(1991), 「三國時代の 農業技術과 社會發展」, 『韓國上古史學報』 8; 郭鍾喆(1992), 「韓國과 日本의 古代農業技術」, 『韓國古代史論叢』 4; 千末仙(1994), 「鐵製農具에 대한 考察」, 『嶺南考古學』 15; 李南珪(1997), 「前期加耶의 鐵製 農工具」, 『國史館論叢』 74; 金在弘(1997), 「살포와 鐵鋤을 통하여 본 4~6세기 농업기술의 변화」, 『科技考古研究』 2; 安在皓(1997), 「鐵鎌의 變化와 劃期」, 『伽耶考古學論叢』 2; 金在弘(2001), 「신라 중고기 촌제의 성립과 지방사회구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洪潛植(2001), 「농기구와 부장유형-영남지역 2세기후반~4세기대 분묘부장품을 대상으로」, 『韓國考古學報』 44, 韓國考古學會; 金度憲(2008), 「선사·고대의 농구 조합과 생산력의 변화-영남지역을 중심

안가 유적에서 나온 어구(漁具)를 분석한 연구도 거의 없으며,⁶⁾ 하천변(河川邊)에 있는 고분에서 출토된 어구를 분석한 연구⁷⁾가 있을 뿐이다. 이는 삼국시대 해안가에서 농업과 어업을 병행하는 어촌의 전모를 밝히지 못해 이 지역의 생업경제(生業經濟)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연구 성과와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고고학적 발굴 조사 성과와 문헌 자료에 보이는 농경과 어업을 적극적으로 분석·해석하고 영남 동해안 지역 유적에서 출토된 농기구와 어구를 분석하여 이 지역의 생업경제를 해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철제 농기구와 어구를 기능별로 분류하고 그것의 생업경제사인 의의를 밝히려고 한다.

으로, 『嶺南考古學』 47, 嶺南考古學會.

- 6) 서해안과 남해안의 선사·고대 어로문화를 연구한 성과로는 金建洙(1999), 『한국 원시·고대의 어로문화』, 학연문화사가 있으나, 주로 선사시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 신석기시대의 어망추에 대한 金京奎(2003), 『韓半島 新石器時代 漁撈活動研究』,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과 낚싯바늘에 대한 金忠培(2002), 『신석기시대 낚싯바늘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이 있으나, 삼국시대와 바로 연결하기는 곤란하다.
- 7) 門田誠一(2006), 『朝鮮三國時代における漁具出土の墳墓』, 『古代東アジア地域相の考古學的研究』, 學生社, 220~236쪽. 初出은 門田誠一(1999), 『朝鮮三國時代における漁具出土の墳墓』, 『文化學年報』 48, 同志社大學文化學會.

II. 농기구와 어구의 자료 분석

1. 농기구

1) 따비날

따비날은 울산 조일리 I지구 30호(울산대박물관)와 포항 학천리 210호에서 출토되었다. 조일리 I지구 30호 목곽묘의 것은 전체 길이 21.8cm, 신부(身部) 너비 2.9cm이다. 학천리 210호 수혈식석곽묘의 것은 전체 길이 14.8cm, 신부 너비 1.9cm, 투겁 지름 2.3×2.9cm, 무게 38.0g이다. 원삼국시대 목관묘와 목곽묘에서 출토된 전형적인 따비날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모두 5세기 대의 퇴화된 형식의 따비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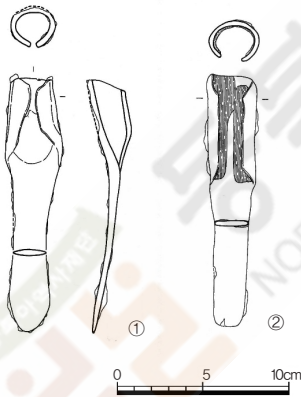


그림 1. 따비
(① 조일리 I지구 30호, ② 학천리 210호)

외날따비는 신부의 길이에 비해 폭이 좁게 생긴 형태로 신부와 투겁의 각도가 120~170°인 것을 이른다.⁸⁾ 이것은 흙을 깊이 파서 뒤집어 얹기는 곤란하지만 파종구를 만들고 땅을 가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따비는 경상도 지역에서 주로 출토되므로⁹⁾ 이 지역의 특성을 보여주는 농기구일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형태의 변화가 거의 없으나 목관묘

8) 千末仙(1994), 앞의 글, 16쪽.

9) 李南珪(1997), 앞의 글, 10쪽.

(기원전 1세기~기원후 2세기)에서 출토된 것은 몸통이 약간 가늘며 단면이 마름모꼴 이고, 목곽묘(3~4세기)에서 나온 것은 날의 폭이 넓으며 마름모꼴이 점차 약해진다.¹⁰⁾ 외날따비는 3~4세기쯤에도 계속 사용되지만 주로 1~2세기에 중요한 농구로서 기능하였고 5세기 이후에는 크기가 작아져 퇴화한다.¹¹⁾ 조일리 I지구 30호와 학천리 210호에서 출토된 따비는 5세기대의 희귀한 사례에 속한다.

2) U자형 쇠날

울산 서하리 서하유적 I·II구간 삼국시대 1호 유로, 영덕 괴시리 16호 순장 2곽, 울진 덕신리 61호에서 출토되었다. 서하유적 I·II구간 삼국시대 1호 유로의 것은 단면 Y자형으로 나무에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상단부에서 하단부로 내려올수록 양날이 얇아진다. 완전한 형태로 출토되었으며, 길이 14.9cm, 두께 0.9~1.1cm, 너비 12.5cm이다. 형식상 필자의 I-b2식에 해당한다. 괴시리 16호 순장 2곽의 것은 신부의 가장자리만 남아 있으며, 단면 Y자형으로 나무에 끼울 수 있다. 잔존 길이 6.6cm, 날 너비 2.45cm, 두께 0.55cm, 무게 27.45g이다. 잔존 상태로 보아 구체적인 형태를 알기는 곤란하지만 일반적인 U자형 쇠날과 같은 제작기법을 보이고 있다. 괴시리 16호는 경주 이외 지역에 있는 적석목곽묘로 묘제상 경주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덕신리 61호 수혈식석곽묘의 것은 잔존 길이가 14.6cm, 너비 3.5cm이다. 보고서의 도면에 의하면, 전체 너비가 길이보다 긴 것으로 보이지만 사진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는 듯하며, 상단의 일부가 결실되었다면 역시 I-b2식일

10) 孫明助(1998), 「弁·辰韓 鐵器의 出現과 展開」, 『弁·辰韓의 世界』, 68~69쪽.

11) 千末仙(1994), 앞의 글, 30쪽. 그러나 5세기 중엽에 해당하는 마산 縣洞 64호묘에서 출토된 사실을 들어 그 이후에도 형태를 달리하면서 계속 사용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李南珪(1997), 앞의 글, 1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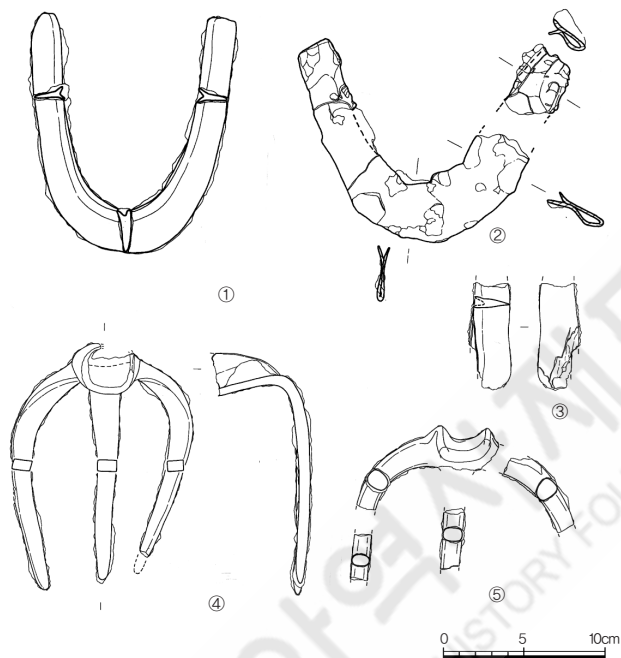


그림 2 U자형 쇠날(① 서하유적, ② 덕신리 61호, ③ 과시리 16호 순장2곽) 쇠스랑(④ 울동 50호, ⑤ 호동 23호 그리드)

가능성이 있다. 덕신리 61호의 것은 형태가 일반적인 U자형 쇠날과 유사하나 제작기법은 다른 U자형 쇠날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인 U자형 쇠날은 철판을 접어 나무자루가 들어가는 부분만 두 갈래로 남기고 경지면에 닿는 날 부분은 두드려 하나의 철판으로 만든다. 하지만 덕신리 61호의 것은 경지면에 닿는 부분을 두드리지 않고 그대로 접합한 상태로 마무리하고 있다. 일반적인 U자형 쇠날의 모양을 모방하여 만들어 무덤에 부장한 것인지, 실제 바닷가의 모래땅을 경작하던 U자형 쇠날인지 알기 위해서는 좀 더 관찰이 필요하다.

U자형 쇠날이 출토된 고분은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의 중형분 이상이다. 영

덕 괴시리고분군은 영덕지역 수장층의 고분군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괴시리 16호분에서는 주곽이 아니라 순장곽에서 출토되었다. 따라서 실용구로서의 의미가 크다. 또한 울진 덕신리고분군은 울진지역 수장층의 고분군이 아니라 그보다 하위의 고분군으로 판단된다. 덕신리 61호의 U자형 쇠날은 작은 수혈식석곽묘에서 출토되었으며, 제작기법도 타 지역과 달리 조잡하다고 할 수 있다.

U자형 쇠날은 평면 형태가 U·요자형(凹字形)의 쇠날을 가진 농기구로 나무 자루의 부착방법에 따라 따비, 삽, 가래, 화가래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날과 자루가 평행하게 연결되어 요즈음의 삽날, 따비날, 가래날처럼 사용되기도 하고, 날과 자루가 직각으로 연결되어 화가래와 같이 땅을 파는 데도 쓰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화가래의 기능보다 따비나 가래의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형태의 U자형 쇠날은 형태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날이 벌어지는 각도에 따라 U자형의 I식과 끝이 둥근 V자형의 II식으로 나눌 수 있다. I식은 다시 쇠날의 길이와 너비의 비율에 따라 너비보다 길이가 짧은 I-a식과 너비보다 길이가 긴 I-b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날 앞부분의 모양이 각이 지는 1식과 둥근 2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¹²⁾

3) 쇠스랑

쇠스랑은 울산 효문동 울동 50호, 포항 호동 23호 그리드에서 출토되었다. 울동 50호 목곽묘의 것은 부분적으로 결실되었지만 발끝은 비교적 무디

12) 김재홍(2005a), 「樂浪地域の 鳳山 養洞里 5호 塼室墓 출토 U자형 쇠날」, 『考古學誌』 14, 韓國考古美術研究所.

며 단면은 장방형이다. 투겁(鋤部)은 날에 대하여 70도 정도 꺾여 있으며 단면은 장타원형이다. 길이 15.6cm, 발 너비 0.8~1.8cm, 투겁 지름 4.0cm이다. 형태는 황남대총 남분의 것과는 유사하다. 울동 50호에서는 동장벽 가운데의 동일한 위치에서 쇠스랑뿐만 아니라 단조철부, 쇠낫도 출토되었다. 이 고분은 무기류나 토기류와 구별하여 농기구를 한 곳에 부장하고 있다. 해안가의 고분이지만 농기구를 무덤 내 특별한 공간에 부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 호동 23호 그리드의 것은 경지면에 닿는 발 부분이 파손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발끝과 투겁이 결실되어 자세한 형상을 알기는 곤란하나 발은 3개이고 발의 단면은 말각장방형이다. 현존 길이 10.5cm, 발 너비 1.1~1.4cm, 무게 118.9g이다. 삼국시대 쇠스랑은 대부분 무덤에서 출토되므로, 호동 23호 그리드에서 발견된 것도 주변의 무덤에서 유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변의 주거지나 생활유적에서 유실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쇠스랑은 2~3세기 목곽묘 단계에서는 U자형 쇠날과 함께 대형분에 묻혔으나 5세기 이후에는 U자형 쇠날과 분리되어 단독으로 무덤에 부장되었다. 또한 이전 시기보다 한 단계 하위의 무덤, 즉 대형분보다 중형분에 부장되었다. 쇠스랑은 3개의 발이 하나의 투겁에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철치파(鐵齒擺), 철탑(鐵塔)이라고도 한다. 현재는 농가에서 거름을 칠 때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삼국시대 제주도에서는 땅을 일구는 도구로 사용하였다.¹³⁾ 이로 보아 쇠스랑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으며¹⁴⁾ 주로 논과 밭을 막론하고 땅을 정지하는 작

13) 삼국시대의 제주도에서는 牛耕 대신에 鐵齒로 땅을 일구었다고 한다. 이로 보아 起耕 작업에도 쇠스랑이 이용된 것을 알 수 있다. 『新唐書』, 僂羅傳, “龍朔初有僂羅者其王儒李都羅遣使入朝……地生五穀耕不知用牛以鐵齒耙土.”

14) 朝鮮 初期의 農書인 『農事直說』에 따르면 鐵齒擺(쇠스랑)는 水田과 埴田을 막론하고 熟治와 覆種 등의 마전 농구로 사용되었으며, 특히 개간지·산림지·경사지 등에 요긴하게 쓰였다. 이호철(1986), 「農具 및 水利施設」, 『朝鮮前期農業史』, 한길사, 335쪽.

업구나 쇠토(碎土)하는 농기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쇠스랑은 두 가지의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I식은 발이 짧고 발끝이 뾰족하며, 투겅이 길게 뻗어 자루와 연결된 것이고, II식은 발이 길고 발끝이 무디며 투겅이 짧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¹⁵⁾ I식은 주로 단단한 흙덩이를 부수고 땅을 파는 데 유리한 형태를 하고 있으며 고구려 지역에서 많이 출토된다. II식은 발이 길어 진흙땅에 사용하기가 적당하여 주로 남부지역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다.¹⁶⁾

4) 살포

살포는 울산 양동리 32호와 울산 운화리 6-1호에서 출토되었다. 양동 32호 황구식석실묘의 것은 길이 15.3cm, 날 길이 6.0cm, 날 너비 6.2cm이다.

날의 길이와 너비가 비슷한, 필자 구분의 I식에 해당한다. 운화리 6-1호 수혈식석곽묘에서는 2점이 출토되었다. 그런데 2점의 출토 위치가 다르다. ① 날의 평면 형태가 말각방형이고 투겅의 단면은 원형이다. 투겅에 나무자루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전체 길이 19.3cm, 날 길이 7.0cm, 날 너비 7.0cm, 무게 197.2g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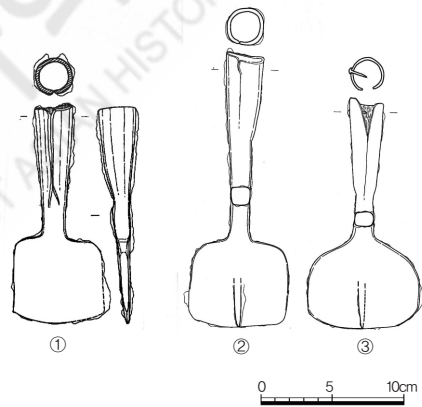


그림 3_ 살포
(① 양동리 32호, ②·③ 운화리 6-1호)

15) 은화수(2003), 「쇠스랑 小考」, 『國立公主博物館研究紀要』 3, 국립공주박물관, 111~113쪽.

16) 김재홍(2005b), 「고구려의 철제 농기구와 농업기술의 발전」, 『北方史論叢』 8, 고구려연구재단, 67~6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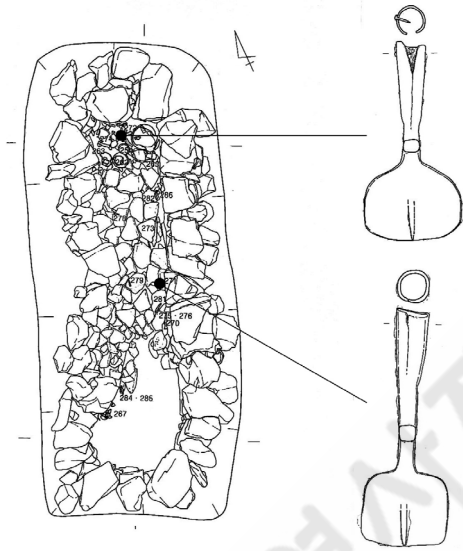


그림 4_ 운화리 6-1호 살포 출토 위치

날의 길이와 너비가 비슷한 필자 구분의 I식에 해당한다. ② 날의 평면 형태가 말각방형이고 투겅의 단면은 원형이다. 투겅에 나무자루의 흔적이 보이며, 나무자루를 고정한 구멍과 못이 남아 있다. 전체 길이 16.2cm, 날 길이 6.2cm, 날 너비 7.9cm, 무게 126.7g이다. 날의 길이보다 너비가 넓은 필자 구분의 III식에 해당한다.

영남 동해안 지역에서는 I식과 III식 살포가 출토되었다. 현재까지 살포의 세 가지 형식은 지역차나 시기차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논을 짓는 과정에 따라 물꼬를 트는 과정의 차이를 반영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살포는 일반적으로 중형분 이상에서 출토되는 수장층의 농기구로 알려져 있다. 이로 보아 살포가 출토된 두 고분도 이 지역 수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양동리 32호와 운화리 6-1호는 다른 지역의 살포 부장 고분에 비해 규모와 공반 유물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살포는 논이 물꼬를 트거나 막을 때에 사용하는 농기구로 네모 형태의 신부에 가늘고 긴 투겅이 평행하게 연결되어 있는 농기구이다. 이것은 중국과 일본¹⁷⁾에는 잘 보이지 않으므로 한국 특유의 농기구라 할 만하다. 이것의 사용 방법은 옥전 M3호에서 출토된 쇠자루살포와 민속례에 보이는 형태로 짐작할 수 있다. 살포가 출토되는 무덤은 약 10m² 면적을 가진 중대형묘이다. 살포는 4세기에 출현한 것으로 보이지만 수량이 부족하여 자세한 양상을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5세기 이후에는 수량이 증가하고 있다. 살포가 6세기 중엽쯤의 횡혈식석실묘인 창원 가음정동 3호, 김해 구산동 석실묘에서 작은 미니어처 형태로 출토된 것에 비추어보면 이후에는 의례용 도구로 변화했을 수 있다.

살포는 자루의 재질에 따라 쇠자루살포^[鐵柄附鐵鏟]와 나무자루살포^[木柄附鐵鏟]로 나눌 수 있다. 쇠자루살포는 합천 옥전 M3호, 의성 대리고분, 창원 가음정동 3호, 공주 수춘리 1·4호, 함안 도항리 27호 등에서 출토되어 자세한 형태를 알 수 있다. 나무자루살포는 나무자루가 썩어 없어져 자루를 끼우는 굽통만 출토되고 있어 자세한 형상을 알 수 없다. 대부분의 살포는 나무자루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발굴되는 것은 자루 없이 굽통이 달린 네모난 인부(刃部)의 형태이다. 이러한 살포를 형식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I식 : 날 길이와 날 너비가 비슷한 경우이다.

II식 : 날 길이보다 날 너비가 짧은 경우로 종장방향의 세장한 신부를 가진

17) 일본에서는 大谷 1호, 野野井南 12호, 西尾山 1호, 珠金塚古墳, 岩清水スゲ谷古墳 등 살포의 몇 예가 알려져 있다. 이것은 일본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농기구로, 우리나라와의 관련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岩清水スゲ谷古墳은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도래인의 무덤일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살포가 출토되었다. 奈良縣立橿原考古學研究所 (2003), 『岩清水スゲ谷古墳』.

형태이다.

III식 : 날 길이보다 날 너비가 긴 경우로, 신부는 크고 넓적하고 굽통 단면은 타원형이다.¹⁸⁾

5) 철서

(1) (나무자루)철서

철서(鐵鋤)는 울산 조일리 2호(울산대박물관, 포항 학천리 33-1호, 울산 학천리 90호에서 출토되었다. 울산 조일리 2호 목곽묘에서 출토된 철서 2점은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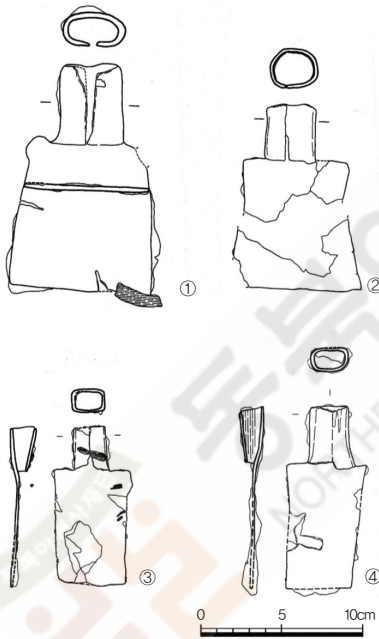


그림 5_ 철서
(① 학천리 33-1호, ② 학천리 90호,
③·④ 조일리 2호)

가 유사하다. 하나는 길이 11.8cm, 날 길이 8.2cm, 날 너비 4.1cm이다. 날의 길이가 너비보다 긴 필자 구분의 II식이다. 다른 하나는 길이 10.1cm, 날 길이 7.2cm, 날 너비 4.4cm이다. 날의 길이가 너비보다 긴 필자 구분의 II식이다. 이 두 점의 철서는 곽내에서 함께 출토된 것이 아니라 서로 떨어져 있었다. 이와 같이 철서 2점이 함께 출토된 예로는 미추왕릉 7지구 3호 적석목곽묘가 있다. 이러한 II식 철서는 경주 미추왕릉지구에서 많이 나왔고¹⁹⁾ 현재는 경주지역의 신라 고분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다.

18) 金在弘(1997), 앞의 글, 9~12쪽.

19) 金在弘(1997), 앞의 글, 29~31쪽.

학천리 33-1호 목곽묘의 것은 전체 길이 14.1cm, 날 길이 9.0cm, 날 너비 9.1cm, 무게 160g이다. 날의 길이와 너비가 비슷한 필자 구분의 I식이다. 학천리 90호 목곽묘의 것은 복원 길이 11.5cm, 복원 날 길이 8.2cm, 복원 날 너비 8.2cm, 무게 66g이다. 날 너비와 길이는 다른 철서의 예를 참고하여 추정해 복원하였다. 날의 길이와 너비가 비슷한 필자 구분의 I식이다.

학천리 목곽묘에서 출토된 철서들은 형태와 규격이 유사하다. 부산 북천동 67호 목곽묘에서 출토된 철서와도 비슷하다. 북천동 67호 목곽묘는 4세기 중엽쯤에 해당하는데, 학천리 목곽묘도 4세기대의 것이다. 4세기 영남 동남부 지역에서는 비슷한 철서가 만들어졌으며, 4세기 목곽묘에서 출토된 철서와 계통이 동일하였을 것이다. 철서가 발달한 지역이 고구려의 한전지역(旱田地域)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 지역에 보이는 이른 시기의 철서는 고구려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지역에 보이는 무기의 계통이 고구려의 북방계와 관련이 있다는 견해²⁰⁾와 연결시키면, 동일한 고구려의 철기문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철서는 신부의 길이에 비해 짧은 투겁을 가진 것으로 ㄱ자형의 자루를 끼워 사용하였는데, 호미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철서의 기능은 호미와 달리 '중경제초(中耕除草)'하는 것보다는 흙을 돌외 주거나 묘간(苗間)을 긁어 간단히 제초를 하는 것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남부지방에서는 무덤유적에서 대부분 출토되었으나 고구려 지역에서는 생활유적(生活遺蹟)에서 주로 출토된다.²¹⁾

20) 李在賢(1996), 「IV. 考察-4세기대 북천동 목곽묘의 제양상」, 『東萊福泉洞古墳群』 III, 부산대학교 박물관, 45~47쪽; 禹炳喆(2008), 「鐵鏃과 鐵鉞로 본 新羅, 加耶 그리고 倭」, 『嶺南考古學』 47, 嶺南考古學會, 121~122쪽.

21) 三國時代의 鐵鋤는 세 형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며, 고구려 鐵鋤는 대부분 I형식

나무자루철서는 나무자루가 썩어 대부분 자루가 출토되지 않고 자루를 끼우는 굽통만 출토되고 있어 자세한 형상을 알 수 없다. 이러한 철서를 형식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I식 : 날 길이와 날 너비가 비슷한 경우이다.

II식 : 날 길이보다 날 너비가 짧은 경우로 종장방향의 세장한 신부를 가진 형태이다.

III식 : 날 길이보다 날 너비가 긴 경우로 신부는 크고 넓적하고 굽통 단면은 타원형이다.²²⁾

(2) 쇠자루철서

쇠자루철서가 울산 조일리 3호 수혈식석곽묘에서 1점 출토되었다. 쇠자루철서는 석곽 내 남단벽 부근에서 출토되었으며 완형이다. 6.5×6.1cm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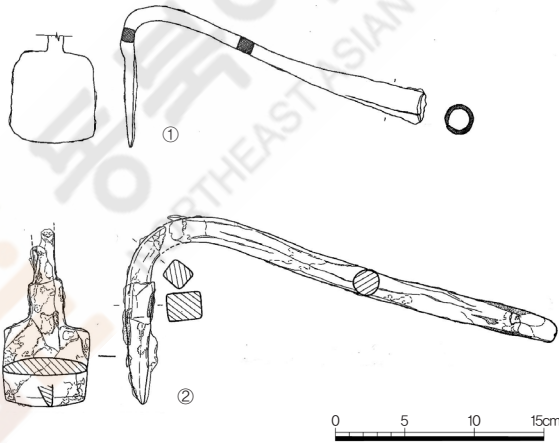


그림 6_ 쇠자루철서(① 조일리 3호, ② 교동 3호)

으로 한정되고 있다. 金在弘(1997), 앞의 글, 12쪽.

22) 金在弘(1997), 앞의 글, 12쪽.

의 날은 ㄱ자로 휘어져 있고, 넓은 어깨를 가지며, 자루는 단면 방형(方形)에서 말단으로 가면서 원형(圓形)으로 바뀐다. 원형 투겅에는 녹혹 등 이물질이 다량 붙어 있으나 투겅에 나무자루를 끼워 사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길이 22.5cm, 날 너비 6.1cm, 날 두께 0.7cm, 투겅 지름 2.1cm이다. 이와 비슷한 모양의 쇠자루철서가 창녕 교동 3호에서도 발견되었다. 창녕 교동의 것은 나무자루를 끼우는 투겅이 없으며, 날 부분이 유견철부에 쇠자루를 끼운 형태이다.²³⁾

6) 단조철부와 쇠낫

단조철부(괭이)는 종단면의 형태가 대칭의 이등변삼각형을 띠지 않기 때문에²⁴⁾ 도끼로 사용하기 불편하고, 오히려 ㄱ자형의 나무자루에 끼워 괭이, 호미, 자귀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편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크기로 보아 13cm 이상은 주로 괭이²⁵⁾의 기능, 그 이하는 자귀²⁶⁾나 호미²⁷⁾의 기능을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창녕 교동 3호분에서는 ㄱ자 형태로 구부러진 쇠자루에 고정시킨 쇠자루철서가 출토되었다.²⁸⁾ 이는 호미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작은 것은 호미와 같이 김을 매거나 자귀처럼 목기를 제작하는 공구였고, 큰 것은 괭이로 이용되어 경작지를 갈았다고 추정

23) 東亞大學校 博物館(1992), 『昌寧 校洞古墳群』, 157쪽.

24) 李南珪(1997), 앞의 글, 24쪽.

25) 김재홍(1991), 「신라 중고기 촌제와 지방사회구조」, 『한국사연구』 72, 15~22쪽.

26) 李南珪(1997), 앞의 글, 23~24쪽.

27) 陳文華 編(1991), 『中國古代農業科技史圖譜』, 農業出版社, 187쪽, 圖14~43에 나오는 西漢의 鐵鋤는 전체적인 형태가 비슷하나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 이 종류로는 드문 예이다.

28) 東亞大學校 博物館(1992), 앞의 책, 157쪽.

할 수 있다.²⁹⁾

쇠낫(鐵鎌)은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수확구이다. 이전에는 반달모양칼을 사용해 이삭 1~2개를 한 손으로 잡고 잘랐다. 하지만 낫의 출현으로 곡물을 줄기까지 수확하게 되었고 작업의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 대체적으로 직인(直刃) → 곡인(曲刃), 날끝이 직선(直線) → 아래로 굽은 것, 날끝의 폭이 넓은 것 → 좁고 뾰족한 것, 날폭이 넓은 것 → 좁은 것으로 변화한다고 한다.³⁰⁾ 이것은 기원전 1세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이후 중요한 수확용구로 자리잡게 되었다. 철제 농기구 중에서 가장 많은 출토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소유계층의 폭도 가장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2. 어구

1) 낫바늘

낫바늘은 경주 봉길리 I-22호와 I-23호 주변에서 채집되거나, 울산 일산리 1호, 괴시리 16호 순장 2곽에서 출토되었다. 봉길리 I-22호 수혈식석곽묘의 것은 몸체의 단면이 방형이며, 일부만 남아 있다. 잔존 길이는 3.3cm, 두께 0.5cm이며, 바늘 부분이 결실되어 미늘의 유무는 알 수 없다. 봉길리 I-23호 수혈식석곽묘 주변에서 채집한 것은 바늘의 귀 부분이 비교적 얇게 잘 남아 있다. 보고자는 녹슨 상태로 보아 23호에서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길이는 6.6cm이다. 일산리 1호 횡구식석실묘의 것은 시상대에서 교란되어 출토되었으나, 미늘의 형태가 잘 남아 있고 실이 감긴 채 발견

29) 金在弘(2001), 앞의 글, 57~58쪽.

30) 千末仙(1994), 앞의 글, 2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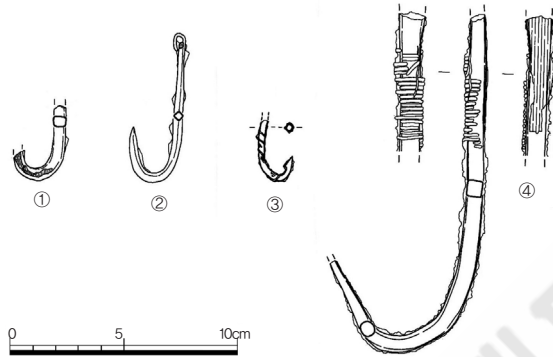


그림 7. 낚싯바늘

- (① 봉길리 I 22호, ② 봉길리 I 23호 주변, ③ 일산리 1호,
④ 괴시리 16호 순장 2곽)

되었다. 현재 길이는 2.6cm, 지름은 0.3cm이다. 경주 봉길리고분군과 울산 일산리고분군은 해안가에 위치해 있으므로 이들 소형의 3점은 모두 근해에서 물고기를 낚았던 낚싯바늘로 판단된다.

괴시리 16호 순장 2곽의 것은 낚싯바늘의 위아래가 없어졌으며, 낚시축은 직선으로 내려오다가 낚싯바늘이 밖으로 벌어져 축과 바늘이 대칭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낚시축은 단면이 방형이나 바늘은 원형이다. 낚시축 윗부분의 낚시귀는 보이지 않으며, 축의 윗부분에 끈이 옆으로 감겨 있다. 끈이 남아 있는 반대편에는 길이 방향의 목질이 부착되어 있다. 현재 길이 14.7cm, 너비 0.75cm, 두께 0.65~0.75cm, 무게 44.69g이다. 이것은 다른 것에 비해 크기가 3배 이상이나 되는 대형으로 큰 물고기를 낚는 낚싯바늘로 보인다.

이 지역에서 출토된 낚싯바늘은 우선 크기에 따라 10cm가 넘는 대형(I)과 10cm를 넘지 않는 소형(II)으로 나눌 수 있다. 또 미늘이 있는 것은 a식, 없는 것은 b식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봉길리 I-22호 출토품은 IIb식, I-23호 주변 채집품은 IIb식, 일산리 1호 출토품은 IIa식, 괴시리 16호 순장 2곽 출토품

은 Ib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형 낫바늘은 웅천패총, 군곡리패총, 대성동 고분에서도 출토되었다.³¹⁾

2) 이지창

이지창(二枝槍)은 울산 화산리 34호와 울산 조일리 49-2호(창원문화재연구소) 등에서 출토되었다. 화산리 34호의 것은 투겁의 양옆을 말아 접어 만든 것으로 자루 부분만 남고 날 부분은 소실되었다. 현재 길이 4.8cm, 투겁 지름 2.1cm이다. 남아 있는 형태로 보아 양갈래로 나뉘는 이지창임을 알 수 있다. 화산리 34호는 대부분의 유구가 파괴되었으나 형태로 보아 횡혈식석실묘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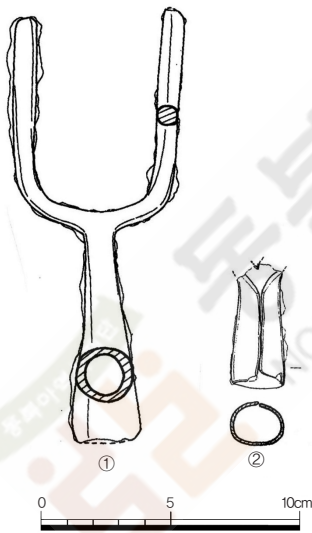


그림 8_ 이지창
(① 조일리 49-2호, ② 화산리 34호)

조일리 49-2호 수혈식석곽묘에서 출토된 이지창은 석곽 시상부의 서장벽(西長壁) 가까이에서 발견되었으며, 완형이다. 투겁은 다소 길며 내부에 목질이 남아 있다. 몸체는 단면 말각방형의 두 가닥 가지로 이루어졌으며, 투겁은 단면 원형을 띤다. 현재 길이 16.6cm, 투겁 지름 2.5cm이다. 함께 출토된 유물은 출자형 금동관(出字形金銅冠) 2식, 은 귀걸이, 금동과대편(金銅跨帶片), 금동교구(金銅鉸具), 철도자(鐵刀子), 금동삼엽문장식대도(金銅三葉文裝飾大刀) 2점이다. 이지창은 삼국시대 고분에서 그다지 많이 출토되지

31) 金建洙(1999), 앞의 책, 174쪽.

않는다. 금동관과 함께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이지창은 소유하기 힘들었던 도구로 판단된다.

일본에서도 이지창은 그다지 많이 발견되는 어구가 아니지만 후쿠오카현 [福岡縣] 문덴(門田) 2호 횡혈식석실묘에서 출토된 바 있다.³²⁾ 역시 해안가에 조성된 고분에서 출토되었으며, 그 연대는 6세기쯤으로 보고 있다.

3) 작살

작살(鋸)은 다양한 종류가 출토되었다. 고고학적 형식 분류를 하기보다는 작살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을 종합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① 포항 호동 192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작살은 신부의 단면이 삼각형이며, 윗부분에 날이 서 있다. 자루의 단면은 방형이고 자루 윗부분의 1/2은 나선상으로 꼬여 있다. 신부에 목질흔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스페를 나무자루에 끼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날과 자루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보고서에는 도자형 철촉이라고 하였으나 형태로 보아 작살로 추정된다. 현재 길이 17.7cm, 현존 날 길이 4.3cm, 날 너비 1.0cm, 날 두께 0.4cm, 현존 스페 길이 13.4cm, 스페 너비 0.4cm, 스페 두께 0.4cm, 무게 12.9g이다. 이 작살은 단면이 방형인 봉상철기(조세)와 함께 출토되었다. 이러한 봉상철기는 중앙에서 양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고 끝이 뾰족한 형태이다. 봉상철기는 울산 봉길리 12호 목곽묘에서도 낫대와 함께 출토되었는데 어구로 추정된다. 호동 192호 주거지는 삼국시대의 주거지로 말각방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② 울산 다운동 바지구 15호 수혈식석곽묘에서는 쇠낫, 도자 2점과 함께 작살이 출토되었다. 남단벽 시상석 위에서 출토되었고, 스페 일부와 날 부분

32) 山中英彦(1992), 「古墳時代の鐵製漁撈具」, 『考古學ジャーナル』 344, 2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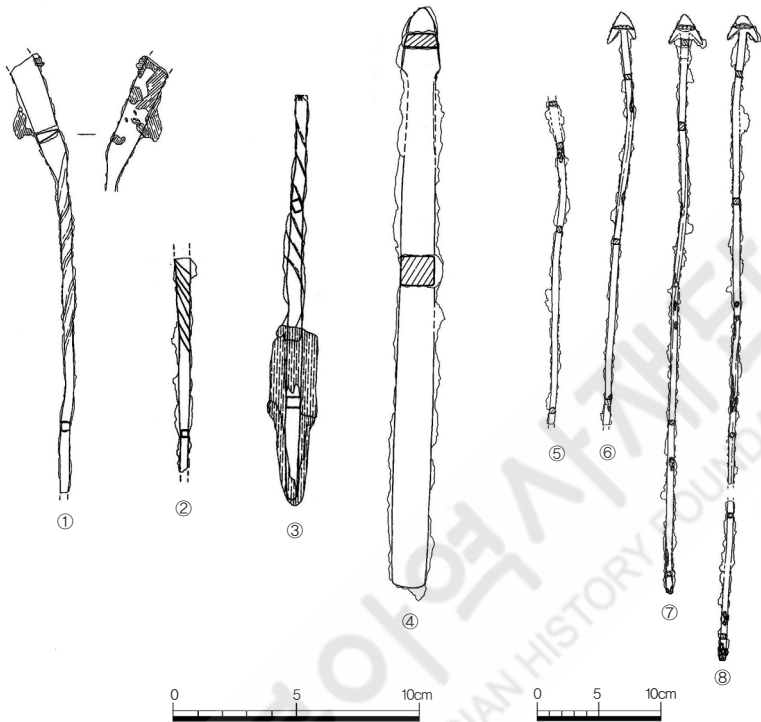


그림 9 작살

(① 호동 192호 주거지, ② 다운동 바5호, ③ 학천리 20호, ④ 옥성리 15호, ⑤~⑧ 옥성리 90호)

은 결실되었다. 스페는 단면이 원형이고 나선상으로 꼬여 있다. 보고서에는 철촉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스페가 꼬여 있는 것으로 보아 작살의 스페로 추정된다. 현재 길이 8.6cm, 스페 지름 0.6cm이다.

③ 포항 학천리 20호 목곽묘에서는 작살이 투구 2점, 대도 1점, 철모 1점, 유자이기 1점, 화살촉 7점, 도자 3점, 단조철부 대형 1점, 단조철부 소형 3점, 쇠낫 2점, 철착 1점 등 철기와 함께 발견되었다. 작살은 나선상으로 꼬여 있고 날은 일자형이며 신부의 단면은 장방형이다. 스페는 단면이 장방형이며 목질로 싸여 있다. 현재 길이 16.6cm, 신부 길이 9.4cm, 신부 너비 0.5cm, 스페

베 길이 7.2cm, 무게 44.0g이다. 목곽 내에서 다른 철기와 달리 봉상철기(조세)와 함께 같은 위치에서 출토되었다. 이것으로 보아 작살과 봉상철기는 동일한 기능을 가진 도구라고 할 수 있으며, 어구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④ 포항 옥성리 15호 목곽묘(국립경주박물관)에서 출토된 작살은 화살촉 모양이나 자루 부분이 길어 다른 곳의 작살과 구분된다. 날 부분은 뱀대가리 모양(蛇頭形)이고 스페가 지나치게 길다. 날 부분은 화살촉과 비슷하나 스페가 긴 것으로 보아 작살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에서는 불명철기로 명명하면서 흙을 파거나 돌을 쪼는 정으로 보고 있지만 날의 형태가 뾰족하므로 찌르는 용도로 사용됐을 것이다. 날의 단면은 사다리꼴이고, 스페의 단면은 방형이다. 현존 길이는 23.4cm, 스페 너비 1.5cm, 무게 154.1g이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작살은 그다지 많이 발견되지 않는데, 고치현(高知縣) 사가야마(曾我山)고분에서 출토된 예가 있다.³³⁾ 사가야마고분은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이다. 역시 해안가에 조성된 고분이며, 연대는 5세기쯤이다.

⑤ 포항 옥성리 90호 수혈식석곽묘에서 4자루의 작살이 출토되었다. 작살과 함께 화살촉 9점, 도자 2점, 단조철부 1점, 쇠낫 2점, 철착 2점 등 철기도 출토되었다. 작살 4점은 단조철부, 도자편, 화살촉과 함께 출토되었다. 4자루의 작살은 모양이 동일하고, 길이에서만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작살촉과 스페 끝이 결실되어 있으나 다른 예로 보아 작살의 스페로 추정된다. 현존 길이는 26.2cm이며, 스페에 목질 흔적이 남아 있다. ㉡ 작살촉의 형태는 삼각양익촉(三角兩翼鏃)이고 스페 끝이 결실되었다. 현존 길이는 31.7cm이고 작살촉 너비는 2.2cm이다. ㉢ 작살촉의 형태는 삼각양익촉이고 완형이다. 길이는 46.9cm이고 작살촉 너비는 2.7cm이다. ㉣ 작살촉의 형태는 삼각양익

33) 山中英彦(1992), 위의 글, 23쪽.

촉이고 스페의 중앙이 결실되었다. 현존 길이는 52.2cm이고 작살촉 너비는 2.5cm이다. 4점 모두 스페에 목질 흔적이 남아 있어 나무자루에 연결하여 더 길게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형태와 매우 유사한 작살이 현재까지도 제주도 등 해안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민속례에 따르면 해녀들이 잠수하여 이것으로 고기를 쏘아 잡았다고 한다.³⁴⁾ 이러한 형태와 유사한 작살이 일본의 고분시대에도 있었다. 아마구치현(山口縣) 조코지야마(長光寺山)고분에서 유사한 것이 출토되었으며, 스페를 나선상으로 꼰 것이 특색이다.³⁵⁾

함께 출토된 유물 중 보고서에서 화살촉이라 한 것 가운데에는 철착과 비슷한 형태가 있는데, 어구인 조세, 쏘시개일 가능성이 있다. 이 중 한 점은 완형으로 현존 길이 10.5cm, 날 너비 1.2cm이다.

4) 낫대(듬북낫)

최근까지 동해안에서 해조류를 채취할 때 사용하던 낫대라고 불리는 채조구(採藻具)와 유사한 형태의 도구가 봉길리 II-12호 목곽묘(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에서 출토되었다. 낫대는 화살촉 3점, 도자 1점, 봉상철기(조세) 2점, 단조철부 1점, 쇠낫 1점과 함께 출토되었다. 낫대는 봉상철기와 동일한 위치에서 출토되었으며, 무기·농기구와 다른 위치에서 나왔다. 낫대는 보고서에 철검(鐵劍)으로 명명되어 있으나 같은 무덤에서 나온 철검과 형태가 다르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낫대는 평면 형태가 ㄱ자형이고 날의 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며 스페의 단면은 장방형이다. 스페에는 나무자루로 장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길이는

34) 高光敏 編(2002), 『漁具』, 제주대학교 박물관, 142쪽.

35) 清野孝之(1999), 「古墳副葬漁撈具の性格」, 『國家形成期の考古學』, 大阪大學考古學研究室, 31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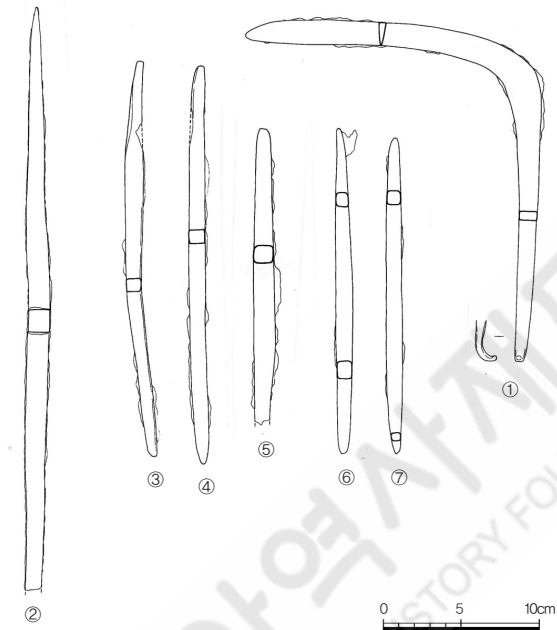


그림 10. 낫대(① 봉길리 II 12호)
 조세(② 호동 192호 주거지, ③·④ 봉길리 II 12호, ⑤ 봉길리 II 29-3호, ⑥·⑦ 봉길리 II 41-1호)

19.9cm, 날의 너비는 2.8cm, 무게는 86g이다. 함께 출토된 봉상철기(조세)는 신부의 단면이 방형이고 양단부가 뾰족한 편이다. 2개가 거의 유사하며 규격도 동일하다. 길이는 25cm, 신부 너비는 1.0cm, 중량은 각각 72g과 74g이다.

이러한 낫대와 봉상철기는 무기, 농기구와 다른 위치에 부장되었다. 따라서 무기나 농기구와는 다른 도구임을 알 수 있다. 낫대는 다른 유적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것이고 봉상철기도 일반적인 철착과 다른 형태이다. 낫대는 해안가에 많이 보이는 해조류를 채취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하다. 그 형태로 보아 미역 등과 같은 해조류를 채취하기 편리하다. 지금도 어촌에서 해조류를 채취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다.³⁶⁾ 형태가 어촌에서 사용하는 어

구와 유사하고 부장 위치가 같으므로, 이것은 해산물을 채취하는 어구로 볼 수 있다.

5) 조세

일반적으로 보고서에 봉상철기, 철착이라고 기술하면서 그 용도를 정확히 적지 않은 도구(조세, 쏘시개)가 있다. 봉상철기는 일반적인 철착과는 다른 형태이다. 일반적인 철착은 폭이 좁은 날을 가진 몸체에 자루 구멍을 가진 형태이나 이것은 단면이 장방형이고 신부 양단이 뾰족한 형태이다. 이것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가장자리가 굽기에 편한 구조이며 양쪽으로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형태의 도구는 해안에서 굴이나 조개를 캐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로 보아 후대의 조세나 쏘시개로 추정된다.³⁷⁾ 봉상철기는 단면 방형(方形)의 가운데에 나무자루를 직교시켜 장착하여 양 가장자리를 날로 사용하여 굴이나 조개를 채취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세에 해당하는 철기는 울산 봉길리 II12호에서 2점, 봉길리 II29-3호에서 1점, 봉길리 II41-1호에서 2점, 포항 호동 192호 주거지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

이외에도 폭이 좁은 날을 가진 몸체에 자루 구멍을 가진 일반적인 철착과 다른 형태의 것이 있다. 이것도 철착과 일정한 차이가 있으므로 해안가에서 조개류를 채취하는 채패구일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 그 가능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포항 학성리 20호 목곽묘, 포항 호동 192호 주거지, 울산 화산리 16호, 울산 교동 45호, 울산 운하리 1호 주변, 울산 운화리

36) 경북 울진군 평해읍 거일 2리에서 조사된 낫대는 폭이 좁은 날을 가진 낫 형태의 날을 박달나무에 매달아 사용하는데, 날의 형태가 봉길리 12호에서 출토된 낫대와 똑같다. 高光敏 編(2002), 앞의 책, 27쪽.

37) 高光敏 編(2002), 앞의 책, 37쪽.

4-1호, 울산 운화리 5호(2점), 울산 운화리 24-1호, 울산 다운동 마지구 3호 석곽묘, 울산 다운동 마지구 4호 석곽묘, 포항 대각리 II21호 목곽묘, 포항 호동 116호 주거지, 포항 옥성리 75호 석곽묘, 포항 옥성리 45호 목곽묘, 울산 조일리 5-1호 석곽묘 등에서 출토되었다.

6) 어망추

어망추(漁網錘)는 그물추라고도 하며, 그물 밑 끝에 매달아 사용한다. 이것으로 잡는 물고기와 작업의 규모에 따라 크기나 무게가 다양하다. 선사와 고대 사회에서 사용된 그물의 형태를 알기 곤란하지만 그물을 구성하였던 어망추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 형태를 알 수 있다.

어망추에 대한 형식 분류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여기서는 와다 세이고(和田晴吾)의 견해를 따라 5가지로 분류한다.³⁸⁾ 와다는 단면의 형태가 타원형이고 길이가 긴 형태를 a류, a류가 길어진 것을 b류, 단면이 장방형(長方形)인 것을 c류, 단면이 정방형(正方形)인 것을 d류, 단면이 원형에 가까운 것을 e류로 분류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영남 동해안 지역에서 출토된 어망추를 분류하면 d류를 제외한 4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 a류는 포항 호동 I지구 B구릉 3호 석실묘, 호동 I지구 B구릉 4호 석실묘, 호동 266호 주거지, 호동 2호 구상 I층, 울산 봉길리 II 옹관 2호 주변(3점) 등에서 출토되었다. a류는 석실묘, 주거지 등 다양한 유구에서 확인된다. b류는 울산 운화리 44호 수혈, 호동 22호 주거지, 호동 128호 주거지, 호동 210호 주거지, 호동 2호 구상 I층 등에서 출토되는 등 주거지에서 확인

38) 和田晴吾(1982), 「彌生·古墳時代の漁具」, 『考古學論考』, 小林行雄博士古稀記念論文集, 平凡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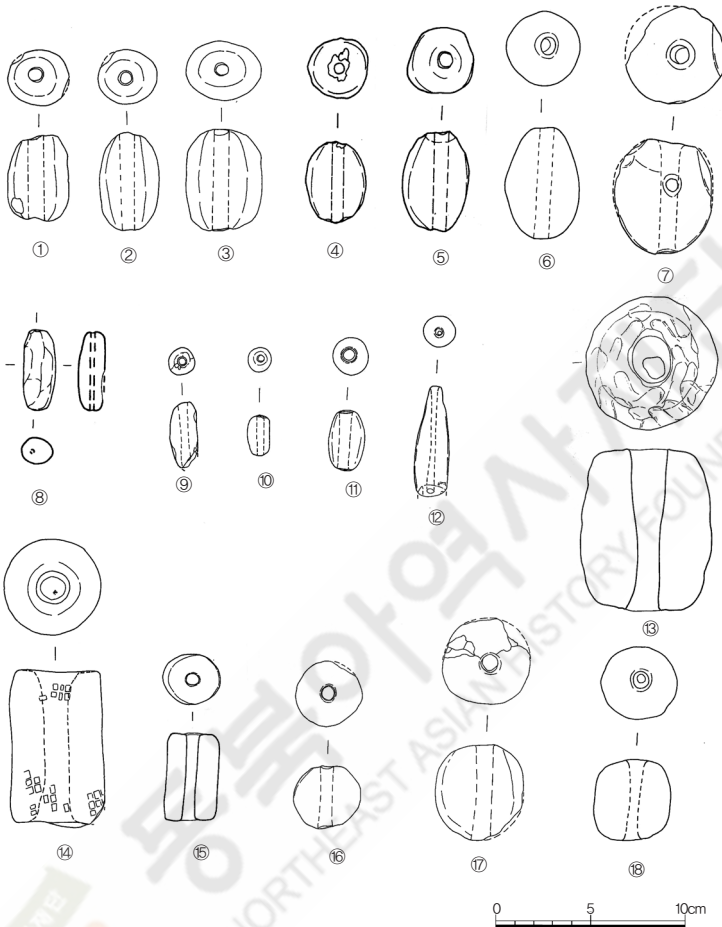


그림 11_ 어망주

- (①~③ 봉길리 II 옹관 2호 주변, ④ 호동 IB-3호, ⑤ 호동 IB-4호, ⑥ 호동 266호 주거지, ⑦ 호동 2호 구상 1층, ⑧ 문화리 44호 수혈, ⑨ 호동 22호 주거지, ⑩ 호동 128호 주거지, ⑪ 호동 210호 주거지, ⑫ 호동 2호 구상 1층, ⑬ 문화리 2-2호, ⑭ 호동 23호 수혈, ⑮ 봉길리 I 30호, ⑯ 호동 86호 주거지, ⑰ 호동 93호 주거지, ⑱ 호동 23호 그리드)

되는 비율이 높다. c류는 울산 봉길리 I-30호 수혈식석곽묘, 포항 호동 23호 수혈, 울산 문화리 2-2호 수혈식석곽묘 등에서 출토되었다. d류는 출토된 예가 없으나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e류는 포항 호동 86호 주거지, 93호 주거

지, 호동 23호 그리드 등 주로 주거지에서 많이 출토되었다. 이외에 무문토기와 함께 출토된 울산 봉길리 II지구 주변에서 채집된 어망추는 다른 예와 형태가 달라 이 글에서는 제외하였다.

어망추는 다른 어구나 농구와 달리 고분에서 출토되는 비율보다는 생활유적에서 출토되는 비율이 훨씬 높은 편이다. 그물의 끝에 매달아 사용하는 지극히 실용적인 어구이므로 특정계층이 묻히는 고분보다는 그물을 사용한 어부들의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비율이 높은 것이다.

7) 소결

이 지역에서 출토된 어구는 낚싯바늘, 이지창, 작살, 낫대, 조세, 어망추 등이다. 이것들은 용도에 따라 어망구(漁網具), 조어구(釣漁具), 자돌구(刺突具), 채조구(採藻具), 채패구(採貝具)로 나눌 수 있다. 어망구는 그물 끝에 매달아 사용하는 어망추가 대표적이다. 조어구로는 낚싯바늘이 있다. 자돌구는 어류를 찔러서 포획하는 것으로 이지창과 작살이 있다. 자돌구는 어망추와 함께 어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어구이다. 따라서 삼국시대 어구 중에서 가장 발달된 어구라 할 수 있다. 채패구로는 조세가 있고 채조구로는 낫대가 있다.

영남 동해안에 위치한 고분군과 생활유적에서 어구가 많이 출토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전체 철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다. 이는 당시 동해안 지역에서 어로가 생활화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기보다는 무덤에 부장하는 습속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III. 농기구와 어구의 부장 양상

이 장에서는 농기구와 어구를 부장한 주요 고분을 분석하여 그 부장 양상과 조합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1. 무기류+농구류+어구류

포항 옥성리 90호 수혈식석곽묘에서는 화살촉 9점, 도자 2점, 단조철부 1점, 쇠낫 2점, 작살 4점, 조세 2점 등의 철기가 출토되었다. 이들 철기는 기능에 따라 화살촉·도자 등 무기류, 단조철부·쇠낫 등 농기구류, 작살·조세 등 어구류로 분류된다. 무기류+농구류+어구류를 모두 부장하는 유형이다. 화살촉, 도자는 간단한 형태이지만 무기류이다. 작살은 다른 곳에서 출토된 것에 비해 그 형태가 전형적이며, 현대의 작살과도 연결된다. 작살 4점은 단조철부, 도자편, 화살촉과 동일한 위치에서 출토되었다. 4점이 나란히 출토되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부장하였음을 말해준다.

울산 봉길리 12호 목곽묘에서는 화살촉 3점, 낫대 1점, 조세 2점, 단조철부 1점, 도자 1점, 쇠낫 1점 등 철기뿐 아니라 토기도 출토되었다. 철기들은 기능에 따라 화살촉·도자의 무기류, 낫대·조세의 어구류, 단조철부·쇠낫의 농기구류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이 철기의 부장 위치이다. 단조철부와 쇠낫은 남장벽 서남쪽에 연하여 출토되었고, 도자와 화살촉은 남장벽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다. 그런데 북장벽 북서쪽에 연하여 낫대와 조세가 출토되었다. 이들은 부장 위치로 보아 다른 철기와 용도가 달랐을 가능성이 높다. 도자와 철촉은 간단한 무기류이지만 군사적인 성격이 강하며, 단조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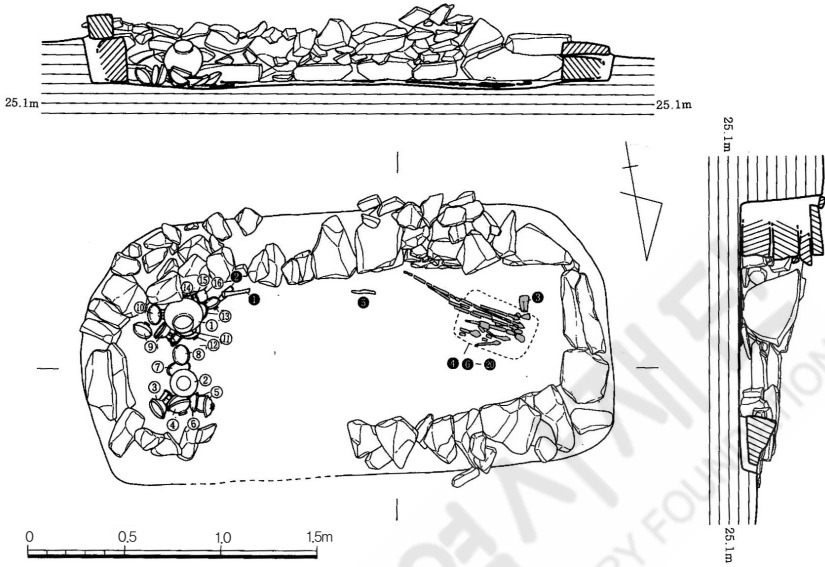


그림 12 옥성리 90호 유물 출토 상황

와 쇠낫은 5세기 이후 중소형 고분에서 일반적으로 출토되는 농기구로 팽이와 쇠낫의 용도로 사용되었다.³⁹⁾ 단조철부와 쇠낫은 당시 기본적인 농기구로서 세트르 부장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낫대와 조세는 무기나 농기구와 다른 위치에 부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무기나 농기구와 다른 도구임을 알 수 있다. 낫대는 다른 유적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것이고 조세도 일반적인 철착과 다른 형태이다. 일반적인 철착은 폭이 좁은 날을 가진 몸체에 자루 구멍을 가진 형태이나 이것은 단면이 장방형이고 양단이 뾰족하다. 이것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가장자리가 굽기에 편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양쪽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형태는

39) 김재홍(1991), 앞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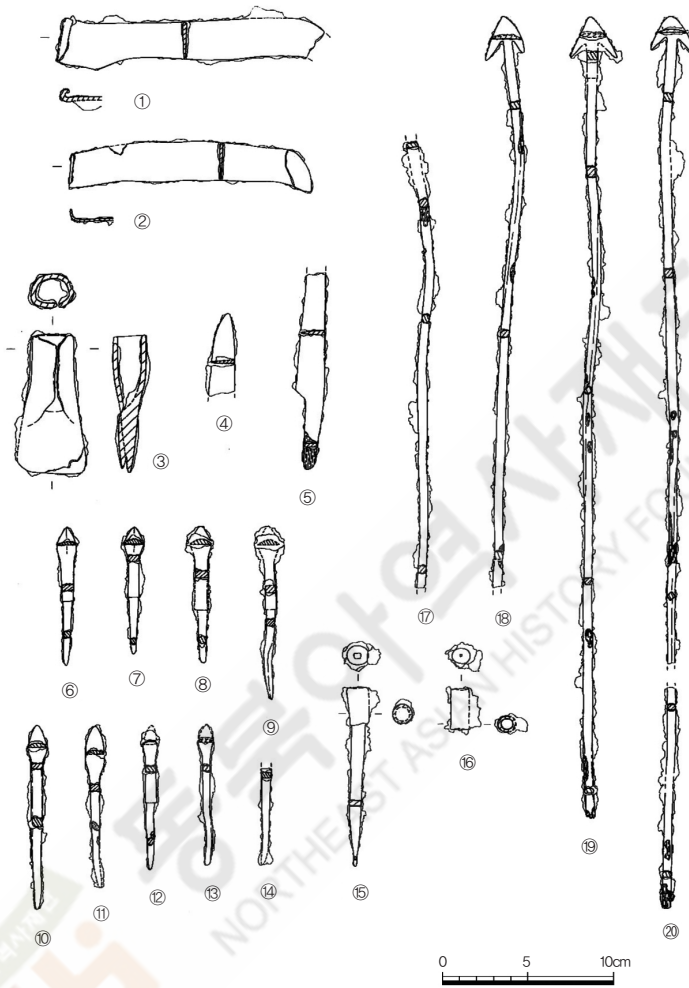


그림 13_ 옥성리 90호 출토 철기
 (①·② 쇠낫, ③ 단조철부, ④·⑤ 도자, ⑥~⑭ 화살촉, ⑮·⑯ 조세, ⑰~⑳ 작살)

해안에서 굴이나 조개를 캐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낫대와 같은 형태는 해안가에 많이 보이는 해조류를 채취하는 도구인 민속례의 낫대와 유사하다. 그 형태로 보아 미역 등과 같은 해조류를 채취하기 편리한 것이다. 지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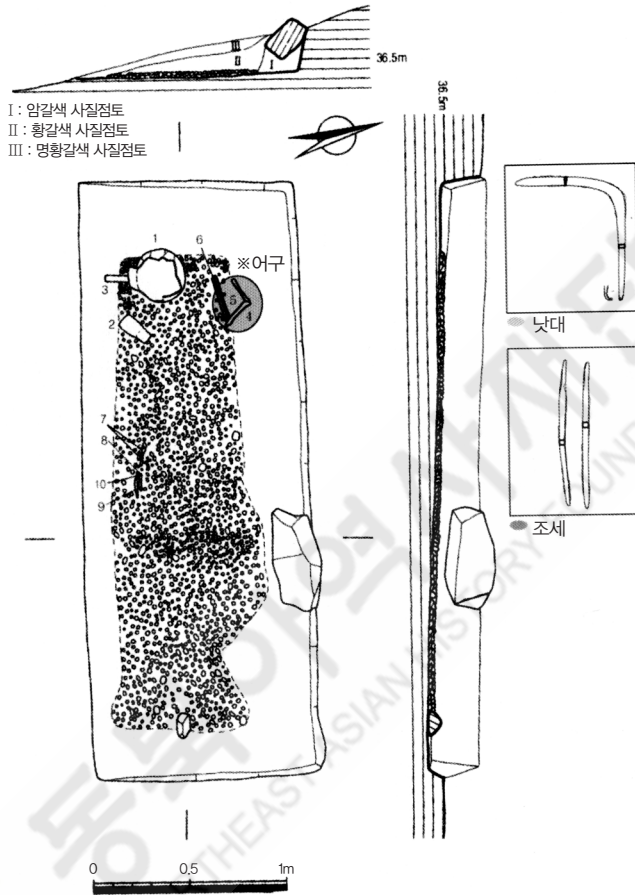


그림 14_ 봉길리 12호의 낫대, 조세 등 어구 출토 상황

어촌에서 해조류를 채취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다. 형태가 어촌에서 사용하는 어구와 유사하고 부장 위치가 같으므로, 이것은 해산물을 채취하는 어구로 볼 수 있다.

봉길리 12호 목곽묘는 무기류+농구류+어구류를 모두 부장하는 유형이다. 봉길리고분군은 토함산에서 발원하여 동해로 흘러드는 대종천 수계 남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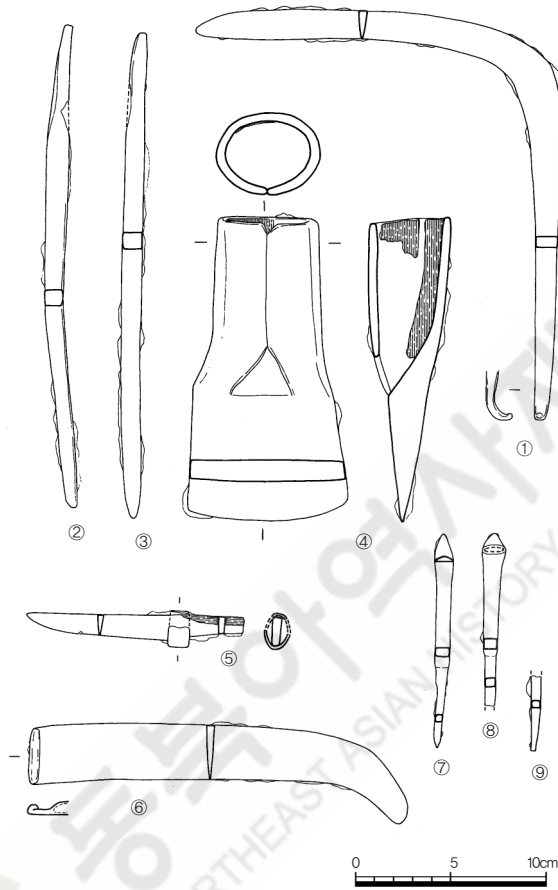


그림 15 봉길리 12호 출토 철기
 (① 낫대, ②·③ 조세, ④ 단조철부, ⑤ 도자, ⑥ 쇠낫, ⑦~⑨ 화살촉)

에 위치한다. 이 지역은 대중천을 통하여 경주와 연결된다. 일찍부터 경주의 신라 중심세력과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 지역에 위치한 봉길리고분군은 전형적인 해안가 고분군으로, 바다를 장악한 집단의 무덤으로 볼 수 있다. 봉길리 12호 목곽묘는 부장된 철기들로 미루어 볼 때 무기, 농기구, 어구를 부장한 무덤으로 해안가에서 농업과 어업을 관장하고 해안을 방

어한 집단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봉길리고분군에서는 다른 지역의 고분군과 달리 고총이 축조되지 않고 금동관 등의 위세품도 보이지 않는다.

영덕 괴시리 16호 적석목곽묘 순장 2곽에서는 토기류, 껌쇠, 화살촉, U자형 쇠날, 낚싯바늘 등이 출토되었다. 화살촉은 무기류, U자형 쇠날은 농구류, 낚싯바늘은 어구류이다. 무기류+농구류+어구류를 모두 부장하는 유형이다. 이 중 주목되는 것은 U자형 쇠날과 대형 낚싯바늘이다. 무기류+농구류+어구류를 모두 부장하는 다른 유형에서는 단조철부, 쇠날의 농기구류와 소형 낚싯바늘을 부장하는 수준이나 여기에는 농구류 중에서도 무덤에 부장하는 수량이 많지 않은 U자형 쇠날이 부장되고 있다. 또 대부분의 다른 유적에서는 소형 낚싯바늘이 출토되지만 여기에는 대형의 낚싯바늘이 부장되고 있다. 이러한 2가지 도구로 보아 이 무덤은 중요한 위치를 점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주곽도 아닌 순장곽에 농구와 어구가 부장되었다는 것은 주곽에 묻힌 계층에 예속된 계층이 실질적으로 농사와 어업에 종사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주곽에서는 토기류와 더불어 장신구류도 많이 출토되고 있어 대조적이다.

괴시리 16호는 경주의 적석목곽묘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토기도 경주에서 나온 것과 동일할 정도이다. 주곽의 피장자는 경주에서 파견되어 온 유력자이거나 경주의 중심세력과 관련되어 부장품을 받은 이 지역의 토착유력자일 가능성이 있다. 괴시리고분군은 동서로 흐르는 송천의 하류에 위치하며, 고분군의 전면에는 비교적 넓은 들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고분군에서 바다와 들판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을 정도로 주변을 아우르고 있다. 괴시리 고분군의 피장자는 고분의 위치와 출토유물로 보아 해안가의 방어에 편리한 위치에 있으면서 농업과 어업을 관장하는 수장으로, 신라 중앙과 관련을 가진 존재였을 것이다.

2. 무구류+농구류+어구류

포항 학천리 20호 목곽묘에서는 투구 2점, 대도 1점, 철모 1점, 유자이기 1점, 화살촉 7점, 도자 3점, 단조철부 대형 1점, 단조철부 소형 3점, 쇠낫 2점, 작살 1점, 철착 1점 등의 철기가 출토되었다. 철기들은 기능에 따라 투구·대도·철모·유자이기·화살촉·도자 등의 무구류, 단조철부 대형·소형과 쇠낫 등의 농기구류, 작살·조세 등의 어구류로 나눌 수 있다. 무구류+농구류+어구류를 모두 부장하는 유형이다. 이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작살이다. 이러한 형태의 작살은 다른 곳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 형태로 보아 화살촉과 유사하나 일반적인 화살촉과는 다르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날 윗부분을 꼬아 만들고 자루를 넣는 부분은 꼬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법은 주로 작살에 많이 사용되므로, 화살촉과 다른 용도로 쓰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고분에서는 어류를 찢어서 잡는 작살과 조개류를 잡는 조세가 함께 출토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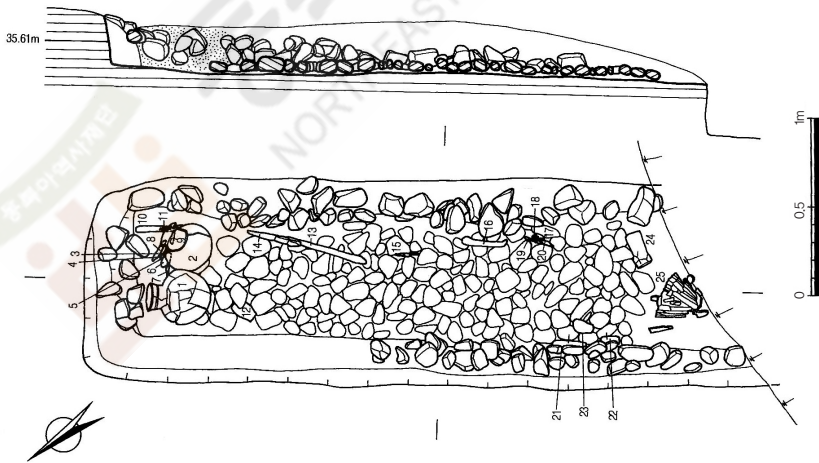


그림 16_ 학천리 20호 유물 출토 상황

있다. 비록 작살이 작아 멀리 나아가 어류를 찢러 잡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작살을 부장하였다는 점에서 이 고분은 어업과 관련이 있는 집단의 무덤으로 보인다.

3. 무기류+농구류

울산 효문동 율동 50호 목곽묘에서는 대도 1점, 철모 3점, 철촉 8점, 도자 2점, 쇠스랑 1점, 단조철부 2점, 쇠낫 2점 등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이들 철기는 대도·철모·철촉·도자 등의 무기류, 쇠스랑·단조철부·쇠낫 등의 농기구류로 나눌 수 있다. 무기류+농기구류의 조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원삼국시대 목곽묘에서는 쇠스랑이 U자형 쇠낫과 조합을 이루었으나 4세기 이후부터는 쇠스랑이 단독으로 부장된다.

4. 무기류+어구류

무기류+어구류가 조합으로 출토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는 필자가 단조철부와 쇠낫을 농기구류로 한정하여 고찰하였기 때문이다. 단조철부와 쇠낫은 기본적으로 농기구이지만, 다목적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단조철부는 팽이, 도끼, 자귀의 용도로도 사용되었고, 쇠낫은 버나 풀을 베는 수확용이지만 해안가에서는 해조류를 채취하는 데도 쓰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5. 농구류

울진 덕신리 61호 수혈식석곽묘에서는 토기류, 단조철부, 쇠낫, U자형 쇠낫이 출토되었다. 철기류는 농기구만 출토되었다. 덕신리 고분군은 중소형 고분군이다. 이 고분군에서는 개별 고분에 대도 등 무기류, 농공구류 등 철기가 개별적으로 부장되고, 무기류+농구류+어구류를 한꺼번에 모두 지니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단조철부, 쇠낫, U자형 쇠낫의 제작방법은 경주지역의 것과 달리 조잡한 수준이다. 울진지역에는 큰 하천과 들판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다른 지역에 비해 커다란 고분이 존재하지 않으나, 중심 고분군은 읍남리고분군에 비정된다.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덕신리고분군에서는 금동관 등 위세품은 보이지 않고 주로 철촉 등 무기류, 단조철부·쇠낫 등 농기구류가 출토된다. 비록 울진지역은 큰 고층이 적지만, 경주에서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주요한 지역이었다.

6. 어구류

울산 화산리 34호 횡혈식석실묘에서는 허리띠장식과 더불어 어구인 이지창이 출토되었다. 이지창은 투겁의 양옆을 말아 접어 만든 것으로, 자루 부분만 남고 날 부분은 소실되었다. 현재 길이 4.8cm, 투겁 지름 2.1cm이다. 여기에서는 철기 중에서 어구류가 출토되고 있다. 현재 유구의 잔존상태가 나빠 어구만 출토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일단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영남 동해안 지역 고분의 철기 부장 양상은 크게 무기류+농구류+어구류,

무구류+농구류+어구류, 무기류+농구류, 무기류+어구류, 농구류, 어구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해안가에 바다와 관련된 어구만이 아니라 철로 만든 무기, 농구, 어구를 함께 부장하는 고분이 있다는 사실은 이 지역 유력자의 생산 기반을 잘 설명해주는 것이다.

IV. 생업경제사적 의의

III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영남 동해안 지역에서는 신라 중앙인 경주지역과 비교하여 동일한 종류의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해안가의 특수성에 맞추어 철제 어구도 발달하였다. 이러한 농기구와 어구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4~6세기 영남 동해안 지역의 생업경제사적인 특수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남 동해안 지역은 4세기 이전부터 신라 중앙인 경주지역과 동일한 철기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이 지역의 목곽묘는 대체로 2세기 후엽에 출현한 무덤으로 묘광이 장방형을 띠고 부부합장이 거의 없어 낙랑지역의 목곽묘와 쉽게 구분될 정도로 독자성이 두드러진다.⁴⁰⁾ 이 시기에는 이전부터 쓰인 판상철부(板狀鐵斧), 주조(鑄造) 팽이, 주조철부(鑄造鐵斧), 따비, 재갈 등이 계속 사용되고 U자형 쇠날, 쇠스랑과 같은 철제 농기구와 환두대도(環頭大刀), 유경식(有莖式) 철촉(鐵鏃) 등의 무기가 새로이 출현한다.⁴¹⁾ U자형 쇠날과 쇠스랑은 울산 하대⁴²⁾·중산

40) 李在賢(1995), 「弁·辰韓 社會의 발전과정-木槨墓의 출현배경과 관련하여」, 『嶺南考古學』 17, 26~30쪽; 金榮珉(1998), 「加耶와 新羅의 墓制」, 『加耶와 新羅』, 2~9쪽.

41) 金榮珉(1996), 「嶺南地域 三韓後期文化의 特徵과 地域性」,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8쪽.

42) 울산 하대의 43·76호에서 각각 U자형 쇠날과 쇠스랑의 조합상이 확인된다. 釜山大學

리,⁴³⁾ 포항 옥성리⁴⁴⁾ 등의 대형 목곽묘에서 확인된다. 이로 보아 당시 영남 동해안 지역에서는 U자형 쇠날과 쇠스랑의 농구 조합을 가진 농경 형태와 매장 의례가 수장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소형 묘에서는 주조팽이, 단조철부, 쇠낫이 조합상을 이루고 있다.⁴⁵⁾

U자형 쇠날과 쇠스랑의 출현은 다양한 농기구의 확대뿐만 아니라 새로운 농사기술의 발전도 의미한다. 즉 논의 토양은 점성이 강하기 때문에 논농사에 적합한 갈이기구는 땅에 꽃혔을 때 생기는 진공상태의 저항도가 낮은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U자형 쇠날과 쇠스랑은 가벼우면서도 흙에 대한 저항력이 낮고 강인하기 때문에 논농사에서 작업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2~3세기 목곽묘 단계에서 U자형 쇠날과 쇠스랑이 중심을 이뤘던 농경은 4세기 이후 다양한 철제 농기구가 출현하면서 바뀌어간다. 이 시기에 가장 완결적인 농기구 조합상을 보여 주는 것이 경주 황남대총 남분의 예이다. 황남대총 남분에서는 살포가 보이지 않으나 U자형 쇠날 14점, 쇠스랑 20점 등이 묻혀 있었다.⁴⁶⁾ 여기에서 철제 농기구의 매납이 절정을 이루고 난 이후 금관이 출토된 왕릉급의 무덤에서는 철제 농기구가 거의 묻히지 않는다. 대신 다음 등급의 무덤⁴⁷⁾에 U자형 쇠날, 쇠스랑, 살포, 낫 등의 농기구가 묻혔다.⁴⁸⁾ 대표적인 유

校 博物館(1997), 『蔚山 下垜遺蹟-古墳』 I.

43) 울산 중산리 VII-4호 목곽묘에서 쇠스랑이 출토되었다. 昌原大學校 博物館(2006), 『蔚山 中山里遺蹟』 I.

44) 포항 옥성리에서는 가101·나58·74호에서 각각 U자형 쇠날과 쇠스랑의 조합상이 확인된다.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포항시(1998), 『浦項 玉城里古墳群』 I·II ; 국립경주 박물관·포항시(2000), 『玉城里古墳群』 I·II·III.

45) 김재홍(1996), 「신라의 형성과 발전」, 『역사와 현실』 21, 한국역사연구회, 107~111쪽.

46)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1993), 『皇南大塚 南墳』.

47) 이것은 박보현이 경주의 적석목곽묘를 분류한 甲·乙·丙·丁의 4등급 중 乙등급의 무덤에 해당한다. 朴普鉉(1992), 「積石木槨墳의 農具類 副葬樣相」, 『博物館年報』 2, 大

적은 경주 황오리 16호, 미추왕릉지구 34-3곽, 인왕동 20호 등 중형급 적석목곽묘(積石木槨墓)이다. 이러한 변화는 5세기 중후반쯤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 농기구의 변화에서 가장 큰 특징은 판상철부와 따비의 소멸, 살포와 철서(鐵鋤)의 등장이다. 따비는 3세기 이후에 기능상으로 U자형 쇠날로 대체되었으나 이 시기에 이르러 거의 소멸되었다.⁴⁹⁾ 판상철부도 4세기 후반 이후에는 출토되지 않는다. 이 시기에 주목되는 것은 살포와 철서의 출현이다. 살포가 나타나면서 이제 수장층은 살포(물꼬트기) U자형 쇠날·쇠스랑(갈기)-괭이·철서(김매기)-낫(걷기)이라는 완성된 농작업 도구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비해 철서는 생활유적과 중소형 고분에서 출토되었고, 흙을 부수는 작업 등에 사용되었다.

영남 동해안 지역의 농기구도 신라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U자형 쇠날·괭이 등과 같은 같이농구(起耕具), 쇠스랑과 같은 삶는 농구(摩田具), 철서와 같은 김매는 농구(除草具), 낫과 같은 걷는 농구(收穫具)로 구성되어 있으며, 논에 물꼬를 대는 살포도 존재하였다. 이로 보아 당시 이 지역에서는 같이(起耕)-삶기(摩田)-김매기(除草)-걷기(收穫) 작업이 일관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6세기 이후 영남 동해안 지역에서는 철제 농기구를 통해 농업생산력이 발전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철제 농기구 중 우경의 증거인 보습날이 출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의 농업생산력 발전을 알 수 있는 것은 농기구보다는 농경지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이 논외의 형태와 논외에 보이는 쟁기날의 흔적이다. 울산 무거동 옥현유적⁵⁰⁾은 청동기시대부터 조

邱教育大博物館, 31~32쪽.

48) 朴普鉉(1992), 위의 글, 31~32쪽.

49) 千末仙(1994), 앞의 글, 30쪽.

50) 경남대학교·밀양대학교 박물관(1999), 『蔚山 無去洞 玉峴遺蹟』, 현장설명회 자료 ;

선시대까지 논이 전개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논은 낮은 구릉의 경사를 따라 어느 정도 단을 이루면서 형성되었는데, 모양이 네모꼴, 긴 네모꼴, 불규칙꼴 등으로 다양하다. 이 중에서 청동기시대의 논은 주로 장방형의 소구획(小區劃)된 논이 독 안에 경작면의 요철(凹凸)면이 매우 불규칙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1~3평 내외의 작은 규모로 길게 단을 이룬 현재의 논과는 구별되는 소구획의 논이다. 이러한 형태의 논이 청동기시대에 출현하여 삼국시대에도 계속 조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옥현유적에서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논은 중·대 규모의 계단식 논으로 요즈음의 논과 같이 길다란 모양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계단식 논은 삼국시대 울산지역에서 많이 확인되는데, 야음동, 백천, 발리, 남천, 사연리 늪네 유적 등이 있다. 이로 보아 삼국시대에는 주로 계단식 논이 많이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은 2가지 형태는 자연지형, 경작방식 등 다양한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소구획 논에서 대규모 계단식 논으로 발전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⁵¹⁾ 장방형 계단식 논은 철제 농기구의 발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쟁기를 끄는 우경의 보급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추정된다. 그것은 반계동과 서변동의 논 유구에서 확인되는 쟁기날의 흔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반계동에서는 소밭자국도 확인되어 가능성을 더해준다.

이상과 같이 신라지역에서는 6세기 이후에 쟁기날, 계단식 논, 쟁기날의 흔적, 논면의 우족(牛足) 흔적 등을 통하여 우경의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郭鍾喆(2000), 「發掘調査를 통해 본 우리나라 古代의 水田稻作」, 『韓國 古代의 稻作文化』, 국립중앙박물관, 75쪽.

51) 郭鍾喆(2000), 위의 글, 75~76쪽.

영남 동해안 지역에서 이루어진 농경은 다른 신라지역과 동일한 발전을 보
이므로 이 지역 생업경제의 특성은 농경보다는 어업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당시 어업의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기 곤란하나 다양한 어구(漁具)를 통하
여 추측할 수 있다. 영남 동해안 지역의 고분과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어구 자
료를 한국의 민속례와 일본 고대 어구와 비교·검토하여 정리하였다.

이 지역의 어구로는 낚싯바늘, 이지창(二枝槍), 작살, 낫대, 조세, 어망추 등
이 있다. 이들 어구는 용도에 따라 어망구, 조어구, 자돌구, 채조구, 채패구로
나눌 수 있다. 그물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걷어 올리는 어망구는 그물 끝에 매
달아 사용하는 어망추가 대표적이다. 낚싯대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낚는 조어
구로는 낚싯바늘이 있다. 낚싯바늘은 대·소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가장 일반
적인 어구이다. 어류를 찔러서 포획하는 도구인 자돌구로는 이지창과 작살이
있다. 자돌구는 어망추와 함께 어업을 하는 데 중요한 어구이다. 따라서 삼국
시대 어구 중에서 가장 발달된 어구라 할 수 있다. 조개를 캐는 도구인 채패구
로는 조세가 있으며, 미역 등 해조류를 채취하는 채조구로는 낫대가 있다. 채
패구와 채조구는 일반적으로 철착이나 쇠낫과 비슷한 형태이나 민속례와 비
교하여 새로이 그 특성을 찾아 분류하였다. 이로 보아 당시 어업은 어망업(漁
網業), 조어업(釣漁業), 자돌구어업(刺突具漁業), 채조(採藻)·채패구어업(採貝具漁業)으로
나눌 수 있다. 아직 당시 어업을 복원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지만 어구를 통
하여 이러한 어업이 발전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영남 동해안 지역에서는 농업과 어업을 병행하는 오늘날의 어촌
과 비슷한 생업경제를 영위하고 있었다. 이 지역의 고분에서 어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기구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입증해준다.

V. 포구를 장악한 수장, 해척

삼국시대 영남 동해안 지역의 주요 고분에는 무기류+농구류+어구류가 함께 부장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내륙 지방의 고분군에 무기류+농구류가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과 차이를 느끼게 한다. 무기류와 농구류에 어구류가 추가된 것이다. 영남 동해안 지역의 고분에 묻힌 어구는 매장의례와 관련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 지역의 생업과 더 관련이 있을 것이다.⁵²⁾

이러한 이 지역의 특성은 자연환경적인 요인과의 관계가 있다. 삼국시대 이래 이 지역 포구와 어촌의 이름이 기록에 나온다.

- A-1. 탈해이사금 때에 …… 계림 동쪽 下西知村에 있는 阿珍浦에 닿았다. 이때에 포구 가에 한 노파가 있어 阿珍義先이라 이름하였으니, 이가 곧 혁거세왕의 海尺의 어머니이다.⁵³⁾
2. 昔于老是 …… 7년 계유년에 왜국 사신 葛那古가 客館에 와서 있었는데, 석우로가 대접을 맡았다. …… 倭王이 이 말을 듣고 노하여 장군 于道朱君을 보내 우리를 치니, 대왕이 于柚村으로 나가게 되었다. ……⁵⁴⁾
3. 제49대 현강대왕 때에 …… 이때 왕이 開雲浦(학성 서남쪽에 있으니 지금의 울주이다)에 나가서 놀다가 ……⁵⁵⁾

52) 일본에서는 해안가나 섬에 있는 고분에서 출토된 어구는 피장자의 생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한다. 門田誠一(2006), 앞의 책, 220~236쪽.

53) 『三國遺事』 卷1, 紀異2, 第四脫解王條, “脫解齒叱今 …… 至於鷄林東下西知村阿珍浦今有上西知下西知村名 時浦邊有一嫗 名阿珍義先 乃赫居王之海尺之母 ……”

54) 『三國史記』 卷45, 列傳5, 昔于老條, “昔于老 …… 七年癸酉 倭國使臣葛那古在館 于老主之 …… 倭王聞之怒 遣將軍于道朱君討我 大王出居于柚村 ……”

55) 『三國遺事』 卷1, 紀異2, 處容郎 望海寺條, “第四十九憲康大王之代 …… 於是大王游開雲浦 在鶴城西南今蔚州.”

『삼국사기(三國史記)』나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신라시대에 동해안에 있던 포구나 마을에 대한 기록이 있다. 사료 A-1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탈해왕과 포구에 대한 기록이다. 신라 제4대왕 탈해가 상륙한 포구는 아진포(阿珍浦)라고 하며, 계림 동쪽 동해안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진포는 문무대왕릉이 있는 감포 부근으로 추정되고 있다.⁵⁶⁾ 사료 A-2는 기원 3세기대의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내해이사금의 아들인 석우루에 관한 설화이다. 설화의 형식을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임 것으로 보아 일정한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나오는 우유촌(于柚村)은 일반적으로 진한의 소국인 우유국(優由國)으로, 현재의 울진지역으로 비정되고 있다.⁵⁷⁾ 당시 울진지역에는 해안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해안가에 포구가 있었을 것이다. 사료 A-3은 신라 통일기에 현강대왕이 처용랑을 만난 지역을 구름이 걷힌 포구라는 의미로 개운포(開雲浦)라 하였다는 기록이다. 이곳은 지금의 울산지역에 해당하는 당시의 포구이다.

이와 같이 신라시대에는 아진포, 개운포, 우유촌과 같이 포구나 어촌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기록이 미미하여 몇 가지 예만 들었으나, 영남 동해안의 주요 지역에는 포구가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로 보아 삼국시대부터는 주요 해안가의 포구가 바다로 진출하는 통로가 되면서 어업을 영위하는 전진기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주요 포구와 그 주변에는 무기, 농기구, 어구를 부장한 고분이 조성되었다. 대표적인 고분은 울진의 덕신리 61호, 영덕의 괴시리 16호, 포항의 옥성리 90호 목곽묘, 학성리 20호 목곽묘, 경주 봉길리 12호 등이다. 이들은

56) 千寬宇(1989), 『古朝鮮史·三韓史研究』, 일조각, 283쪽.

57) 千寬宇(1976), 「진·변한 제국의 위치시론」, 『백산학보』 20, 백산학회, 252~254쪽.

주요 포구나 그 인근에 위치하여 항구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도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울산의 해안가에는 포구가 발달해 있다. 이 지역의 고분들은 내륙지역의 고분과 달리 어구를 부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포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어업에 대한 기록도 존재하고 있다. 당시 어업의 구체적인 양상을 알기는 곤란하지만 단편적인 기록을 통하여 어구를 이용한 어업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다.

B-1. 제8대 아달라왕 4년에 동해변에 연오랑과 세오녀 부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연오랑이 바다에 나가 미역(해초)을 따는데, 갑자기 바윗돌이 나타나 연오랑을 태우고 일본으로 갔다. …… “그러나 나의 왕비가 가는 비단을 짠 것이 있으니 이것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 좋을 것이다” 하고 그 비단을 주었다. …… 58)

2. 脫解尼師今 …… 탈해는 처음에 낚시로 고기잡이를 하여 生業으로 삼아서 그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한번도 게으른 기색이 없었다. …… 59)

사료 B-1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내용으로 기원 2세기쯤의 사실에 해당하는 기록이나 그 연대를 그대로 취신하기보다는 삼국시대 초기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언급하고자 한다. 이 기록에 의하면, 연오랑은 미역 등 해초를 따다가 바위나 물고기에게 실려 일본으로 건너갔다. 내용이 비록 설화적이거나 당시 어촌의 상황을 보여 주는 사료로 인용하고자 한다. 당시 해조류를 채취하는 구체적인 어업 활동을 복원하기는 곤란하지만, 해조류를 걷어

58) 『三國遺事』卷1, 紀異2, 延鳥郎 細鳥女條, “第八代阿達羅王即位四年丁酉 東海濱有延鳥郎細鳥女夫婦而居 一日延鳥歸海採藻 忽有一巖(一云一魚) 負歸日本 …… 雖然朕之妃有所織細絹 以此祭天可矣 仍賜其絹 ……”

59) 『三國史記』卷1, 新羅本紀1, 脫解尼師今條, “脫解尼師今 …… 脫解始以漁釣爲業 供養其母 未嘗有懈色 ……”

생업을 유지하는 어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연오랑은 단순히 해조류를 걷는 어민이라기보다는 어민을 통솔하는 해안의 수장이나 유력자로 추정된다. 해초를 걷는 어구인 낫대가 경주 봉길리 12호 무덤에서 발견된 것을 통해 당시 해초를 걷는 어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연오랑의 부인인 세오녀는 베를 짜는 기술(織細絹)을 가지고 있었는데, 포항 호동 주거지에서 출토된 상당량의 방추차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로 보아 당시 영남 동해안 지역에서 남편은 어업에 종사하고 부인은 길쌈을 하는 부부 분업이 이뤄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사료 B-2는 탈해이사금이 임금에 오르기 전에 낚시로 생업을 이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탈해가 해안가에서 낚시로 물고기를 낚았다(漁釣)는 기록으로 보아 당시 해안가에서 낚시가 중요한 어로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낚시로 고기를 잡는 일은 고된 일이었으나 탈해는 한 번도 게으른 기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신라인이 낚시를 하였다는 증거는 고고학적 자료에서도 보인다. 낚시에 사용된 낚싯바늘이 경주 봉길리 I-22호, I-23호 주변, 울산 일산리 1호, 영덕 괴시리 16호 순장 2곽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보아 당시 신라인들은 낫대를 이용하여 해조류를 걷거나 낚싯대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어업 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라의 어부들은 연안에서 해초를 걷거나 낚시를 하는 어업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근해에 나가 작살로 물고기를 잡는 어업도 수행하였다. 비록 기록에는 작살로 하는 어업이 나오지 않으나 고고학 자료에서 증명이 된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동해 해안가의 고분에서 출토된 다양한 형태의 작살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또한 당시 배의 흔적은 고고학적인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나 기록은 이를 보여주고 있다. 『삼국사기』, 「석우로전(昔于老傳)」에 전함(戰艦)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 이미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삼국시대의 기록에 따르면 해안가의 중요한 곳에 포구(浦口)가 있었고 수장(海賊)들이 포구를 장악하였다.⁶⁰⁾ 수장의 무덤에서 무기, 농구, 어구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의 수장은 농업과 어업을 장악하고 해안가의 생업경제를 지켜주는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직접 어업에 종사하지는 않았으나 어부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입장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각 지역의 수장들은 4~6세기에는 신라의 지배를 받는 지역 촌주나 유력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영남 동해안 지역의 주요 포구를 장악한 유력자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A-1에 있다. 탈해를 키운 바닷가 노파의 아들이 혁거세왕의 아래에서 벼슬을 지낸 해척(海尺)이라는 것이다. 해척은 파진찬을 달리 부르는 제3위의 관위이지만, 원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마 신라 국가로 편제되기 이전에 해안의 수장을 해척이라고 불렀고, 이것이 신라 국가의 관위로 전화된 것으로 보인다. 해척은 그 용어로 보아 바다와 관련이 있다. 탈해를 발견하여 키운 할머니의 아들이 해척인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당시 해안가에서 바다를 장악하던 수장들을 해척으로 편제하였고 이것이 나중에 신라 관위인 파진찬으로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60) 일본에서도 항구를 장악한 수장의 존재가 보인다. 千田稔(2001), 『埋もれた港』, 小學館[初出은 千田稔(1974), 『埋れた港』, 學生社]; 日高慎(2002), 「水界民と港を統括する首長」, 『専修考古學』 9.

VI. 맺음말

이 글에서는 영남 동해안 지역의 삼국시대 고분 및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철제 농기구와 어구를 분석하여 생업경제를 복원하고, 나아가 생업경제를 움직이는 주체세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발굴 조사를 통해 얻은 고고학적 자료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면서 문헌 자료에 나오는 농경과 어업에 관한 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남 동해안 지역에서 출토된 삼국시대 철제 농기구와 어구를 기능별로 분석하였다. 이 지역의 철제 농기구는 U자형 쇠날·괘이 등 같이농구(起耕具), 쇠스랑과 같은 삶는 농구(摩田具), 철서(鐵鋤)와 같은 김매는 농구(除草具), 낫과 같은 걷는 농구(收穫具)로 구분할 수 있으며, 논에 물꼬를 대는 살포도 존재하였다. 이로 보아 당시 이 지역에서는 같이[起耕]-삶기[摩田]-김매기[除草]-걷기[收穫] 작업이 일관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우경(牛耕)의 도구인 쟁기는 출토되지 않았으나 계단식 논을 통하여 쟁기 농사의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이 지역에서 출토된 철제 농기구는 신라의 농기구와 유사성이 높으며, 이 지역이 신라의 영역이었다는 사실과도 잘 부합한다.

이 지역에서 출토된 어구는 낚싯바늘, 이지창(二枝槍), 작살, 낫대, 조세, 어망추(漁網繩垂) 등이다. 이들 어구는 기능에 따라 어망추 등 어망구(漁網具), 낚싯바늘 등 조어구(釣漁具), 작살과 이지창의 자들구(刺突具), 낫대의 채조구(採藻具), 조세의 채패구(採貝具)로 나눌 수 있다. 비록 수량은 적으나 다양한 기능을 가진 어구가 출토된 것이다.

이러한 철제 농기구와 어구는 무기와 함께 출토되는 경우가 많으며, 철제

생산용구를 부장한 고분은 주로 포구(浦口)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한다. 이는 해안가의 수장들이 농사와 어업을 장악하고 지역간의 상호교류를 지향한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들은 포구를 장악한 '해척(海尺)'에 해당하며, 이 지역이 신라에 편입된 뒤 신라의 지배 하에 들어갔다.

後記

필자는 2008년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이바라키현[茨城縣]과 후쿠시마현[福島縣]의 해안가에 위치한 고분을 견학하여 바다와 고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 서남부 해안에 있는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을 이해하기 위해 해안가의 고분을 견학하였으나, 양 지역을 비교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해안가 고분을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당시 필자에게 다양한 편의와 설명을 하여 주신 히로세 가즈오[廣瀬和雄, 國立歴史民俗博物館], 히다가 신[日高愼, 東京國立博物館], 가쿠 다카요[賀來孝代, 下野薬師寺歴史館]를 비롯한 해당 지역의 연구자들, 관련 자료를 보내 주신 요시이 히데오[吉井秀夫, 京都大學] 선생님에게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1년간 일본 각지의 유적을 조사할 수 있게 배려하여 주신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의 히라가와 미나미[平川南] 관장님, 스기야마 신사쿠[杉山晉作] 선생님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이 글과 관련된 영남 동해안 지역에 대한 보고서를 위주로 정리하였고, 본문에는 그 전거를 일일이 게재하지 않았다. 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우병철(영남문화재연구원)의 도움을 받았다. 또한 관련 논문은 각주의 관련 부분에 인용하였다.

1. 울산지역

1) 해안가 근접 고분

○울산 서하리 서하유적

蔚山發展研究院文化財센터(2006), 『蔚州 西河里 西河遺蹟』, 蔚山發展研究院文化財센터 學術研究叢書 第15輯.

○울산 교동리유적

朴廣春(2000), 『彦陽校洞里遺蹟』, 古蹟調查報告書 第32冊.

○울산 구영리유적

蔚山發展研究院文化財센터(2007), 『蔚州 九英里 遺蹟 : 蔚州 九英地區 宅地開發事業敷地內Ⅳ·Ⅴ地區』, 蔚山發展研究院文化財센터 學術研究叢書 第23輯.

○울산 두왕동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2004), 『울산 두왕-무거간 도로확장구간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울산 봉계리유적

영남대학교박물관(2000), 『울산 봉계리유적』.

○울산 효문동 울동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2006), 『울산효문동울동유적』 I.

울산문화재연구원(2006), 『울산효문동울동유적』 II.

울산문화재연구원(2006), 『울산효문동울동유적』 III.

○울산 화봉동유적

울산발전연구원(2008), 『울산화봉동유적』.

○울산 효문동 죽전곡유적

- 울산문화재연구원(2004), 『울산효문동죽전곡유적』.
- 울산 중산동 천소유적
울산대학교박물관(2004), 『울산천소유적』.
 - 울산 대대리 하대유적
釜山大學校博物館(1997), 『蔚山下垜遺蹟-古墳. 1』.
 - 울산 운화리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2008), 『울산운화리고분군』.
 - 울산 조일리고분군
창원문화재연구소(2000), 『울산조일리고분군』.
울산대학교박물관(2001), 『울산조일리고분군』 I.
 - 울산 중대고분군
蔚山大學校博物館(1997), 『蔚山中垜古墳群』, 蔚山大學校博物館 學術研究叢書 第1輯.
울산문화재연구원(2006), 『蔚山大垜里中垜遺蹟』, 蔚山大學校博物館 學術研究叢書 第1輯.
 - 울산 동천리 양동유적
釜山大學校博物館(1985), 『蔚州良東遺蹟調查概報』.
 - 울산 덕신리유적
蔚山發展研究院文化財센터(2004), 『울주 덕신리유적』.
- 2) 해안가 인접 고분
- 울산 대안리유적
蔚山大學校博物館(2002), 『울산대안리유적』.
 - 울산 다운동유적
昌原大學校博物館(2004), 『蔚山 茶雲洞 遺蹟』 I.
昌原大學校博物館(2006), 『蔚山 茶雲洞 遺蹟』 II.
 - 울산 다운동 운곡고분군
昌原大學校博物館(1998), 『蔚山 茶雲洞 雲谷遺蹟』, 昌原大學校博物館 學術調查報告 第19冊.
 - 울산 중산동 중산리유적

昌原大學校博物館(2006), 『울산 중산리유적』 I.
울산문화재연구원(2006) 『울산 중산동543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2006), 『울산 중산동547-1유적』.

○울산 화산리고분군

부산대학교박물관(1983), 『울주화산리고분군』.

○울산 온산고분군

심봉근(1991), 「蔚州 溫山古墳群」, 『考古歷史學志』 7.

○울산 일산동고분군

昌原大學校博物館(1998), 『蔚山 日山洞古墳群』.

2. 경주지역

1) 해안가 근접 고분

○경주 봉길리고분군

蔚山大學校博物館(2000), 『경주 봉길고분군』 I.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2005), 『慶州 奉吉里古墳群』.

3. 포항지역

1) 해안가 인접 고분

○포항 오포리고분군

聖林文化財研究院(2008), 『浦項烏浦里新羅墓群』.

○포항 학천리고분군

浦項市·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2002), 『浦項鶴川里遺蹟發掘調查報告書』 I~III.

○포항 옥성리고분군

嶺南文化財研究院(1998), 『浦項玉城里古墳群-나지구』.

國立慶州博物館(2000), 『浦項玉城里古墳群-가지구』.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2002), 『浦項玉城里古墳群』.

○포항 대각리고분군

聖林文化財研究院(2007), 『浦項大覺里遺蹟-住居址·木槨墓·土壙墓』.

○포항 호동유적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5-8), 『浦項 虎洞 遺蹟』 I~VIII.

○포항 강사리고분군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7), 『浦項 江沙里 遺蹟』.

○포항 마산리고분군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5), 『浦項 馬山里古墳群』.

○포항 인덕동고분군

韓國文化財保護財團(2006), 『浦項 仁德洞 遺蹟』.

韓國文化財保護財團(2007), 『浦項 仁德山 遺蹟』.

4. 영덕지역

1) 해안가 근접 고분

○영덕 괴시리 고분군

국립경주박물관(1999), 『盈德 槐市里 16號墳』.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6), 『盈德 槐市里古墳群』.

2) 해안가 인접 고분

○영덕 덕곡리유적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5), 『영덕 덕곡리유적』.

5. 울진지역

1) 해안가 근접 고분

○울진 덕신리고분군

안동대학교박물관(2004), 『울진 덕신리유적』.

신라 철제 무기로 본 동해안 고분 축조 집단의 군사적 성격

영남문화재연구원 우병철

- I. 머리말
- II. 신라의 무기체계 검토
- III. 동해안 지역의 무기체계와 군사적 성격
- IV. 맺음말

신라 철제 무기로 본 동해안 고분 축조 집단의 군사적 성격

영남문화재단연구원 우병철

I. 머리말

신라가 영남지방의 소국에서 출발하여 고대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체계화된 철기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고구려로부터 도입한 무기체제로 군사조직과 방어체제를 정비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했기에 가능했다. 한편 신라의 영역 확대 과정 속에 복속 혹은 합병된 영남지방 주요 지역의 소국들은 신라 중앙세력이 보유했던 무기체제를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에 먼저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라의 무기체제를 이해하고, 이후 영남지방 각 지역의 무기체제를 검토한다면 신라의 영역 확대 과정과 당시 각 지역집단의 군사적 기능 및 역할을 파악할 수 있다.

신라의 수도가 위치한 경주지역은 영남지방에서도 동해안에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이른 시기부터 동해안 지역은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경주 분지 동쪽 인근의 해안가에는 타 지역에 비해 중소형 고분군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은 해안으로 침입하는 적들로부터 수도를 방위하는 역할을 하는

군사적 요충지이며, 주요 지역으로 경주지역의 북쪽에 포항 옥성리, 남쪽에 울산 증산리가 자리 잡고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나오는 왜와 치른 수차례의 전쟁과 고구려와의 충돌 등 문헌 기록을 통해 해안가에 위치한 이 지역들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다.

이 글은 당시 신라의 영역 확장 과정을 무기체계 중심의 군사적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당시의 사회상을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신라의 해상 방어체계에 속한 동해안의 각 지역에 위치한 고분군에서 출토된 철제 무기류를 검토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각 지역집단의 군사적 기능과 역할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기왕의 연구에서는 특정 무기를 대상으로 신라의 영역 확장을 검토했기 때문에 신라 무기체제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 이에 이 글은 초기철기시대부터 원삼국시대까지 영남지방의 철제 무기류 전반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신라의 무기체제 성립을 먼저 검토하도록 하겠다. 그런 다음 신라의 무기체제를 토대로 동해안 각 지역의 고분군에서 출토된 무기를 검토하여 각 지역집단의 군사·정치적 성격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II. 신라의 무기체계 검토

1. 영남지방 철제 무기류의 출현과 변천

1) 철검과 철도

(1) 초기철기시대

영남지방의 철검(鐵劍)은 초기철기시대에 출현하며, 세형동검을 모방 제작하여 철제 단검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것은 철검이 형태적으로 세형동검의

신부와 유사하고 칼집과 자루, 병부에 부착되는 검파두식 등 검 부속구 또한 세형동검의 그것과 동일한 청동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그 기원은 중국 중원 및 동북아시아가 아니라 위만조선의 기술 수입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¹⁾

세형동검을 모방해 제작한 철제 단검은 기원전 2세기쯤에 출현하여 3세기 대 환두대도가 유행할 때까지 주요 수장급 묘에서 출토된다. 초기철기시대의 영남지방 자료를 살펴보면 대구 팔달동유적과 대구 월성동 777-2번지 유적²⁾이 대표적이다. 최근에 조사되어 공개된 대구 월성동 777-2번지 유적에서는 점토대토기를 공반한 주요 목관묘에서 철검이, 목관묘 12호에서는 청동제 검파두식을 공반한 철검이 각각 출토되었다. 이를 통해 초기철기시대에 이미 철기가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검파두식을 공반하지는 않지만 점토대토기와 공반하여 단조제 철검이 주요 목관묘에서 출토되고 있다. 대구 팔달동유적은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점토대토기와 와질토기가 목관묘에서 출토되는 등 초기철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로의 이행을 보여주는 주요 유적이다. 대구 팔달동유적에서 확인되는 철검도 일괄유물로 출토된 철제 방형의 주조 철부, 장방형 판상철부, 장신형철모로 판단하건대 대구 월성동 777-2번지 유적과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2) 원삼국시대

영남지방에서 출토되는 원삼국시대의 철검은 초기철기시대에 출현한 철검의 계통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초기철기시대에서 확인되는 청동제 검파두

1) 이청규(2007), 「石劍, 銅劍, 그리고 鐵劍」, 『石心鄭永和教授 停年退任記念 天馬考古學論叢』, 석심정영화교수 정년퇴임논총 간행위원회.

2)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2008), 『大邱 月城洞 777-2番地 遺蹟(II)』.

식을 공반한 철제 단검이 주요 수장급 목관묘에서 출토되는데, 이는 경주 사리리 130호 출토품에서 보듯이 지속적으로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청동 검파두식이 지속적으로 제작 및 사용되는 것은 주조품에서 단조품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적인 양상으로 볼 수 있겠다. 즉 주조품으로 제작되던 청동제 세형동검이 단조품의 철제 단검으로 변화하지만 장식성이 강한 검파두식의 경우 단조 제작기법으로는 그 형태를 만들기 힘들다. 이에 권위적 성격이 강한 철제 단검의 장식성을 높이기 위해, 기왕에 사용되었던 청동제 검파두식을 철제 단검의 부속구로 사용하여 전통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철제 단검과 청동제 검파두식이 공반하여 목관묘에 출토되는 경우는 제한적이며 철제 단검이 독자적으로 출토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철제 장검은 원삼국시대 후기에 일시적으로 출현하는데, 중국 한(漢)나라의 영향으로 나타나 대도와 환두대도, 철제 단검이 일정 기간 병행하다가 철제 단검이 먼저 소멸된다.

(3) 삼국시대

철검과 철도는 장식화된 환두대도³⁾가 출현하기 전까지 오랜 기간 병존하는데, 신부의 길이가 분류 기준의 주된 속성이며 전반적으로 길이가 짧은 것에서 긴 것으로 변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환두대도는 일반적으로 소환두도에서 대환두도로 바뀐다. 환두부와 신부의 제작기법 변천을 통해서도 단계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일체형에서 결합형으로 변한다. 환두대도는 목곽묘 단계 이후에 출현하며 경주 월성로 가13호에서 출토된 환두대도의 경우 환두부가 금으로 제작되어 장식성이 더욱 화려하다.⁴⁾ 경주 월성로 가13호에서 출토된 일

3) 禹在柄(1998), 「國家形成期武器の武裝」, 大阪大學校 博士學位論文.

팔유물의 고구려계 반부철모와 기왕에 잘 보이지 않았던 금은제의 장신구류, 완 등의 유물을 통해 고구려의 영향을 알 수 있다.

금제의 환두부 제작으로 장식성이 화려해진 신라의 환두대도는 4세기 이후 환두부에 삼엽문, 삼루문, 용봉문 등이 장식되는 등 위세품의 성격이 강해졌다. 이들 환두대도는 신라 중앙과 지방의 주요 수장급묘에서 출토되고 있다.

2) 철모

영남지방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철모가 확인된다. 각 시기를 대표할 만한 표지적 철모가 존재하여 그 변화 양상을 엿볼 수 있다. 즉 전국계 혹은 위만조선의 영향으로 보이는 초기철기시대부터 단신형 철모(기원전 2세기 중엽~), 전국계 철모 혹은 낙랑의 영향으로 보이는 장신형 철모(기원전 2세기 전엽~)의 출현, 이단관식 철모⁵⁾(1세기 후엽~)와 관부돌출형 철모의 출현 및 다수부장(2세기 중엽~), 꺾수형 철모⁶⁾ 등 의기성이 강한 철모의 유행(3세기 전엽~), 삼국시대의 주요 실전용 철모로 사용된 직기형 및 연미형 철모의 출현과 유행(3세기 후엽~), 위세적 성격이 강한 고구려계 반부철모의 출현(4세기 중엽~) 등 철모의 전반적인 변천 양상을 설정할 수 있다.

(1) 초기철기시대

영남지방에 철모가 출현한 것에 대해 기왕의 연구들은 원삼국시대부터로

- ④ 장식화된 환두대도는 철제 무기 중 가장 적극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이며, 여러 연구성과가 있다.
- ⑤ 흔히 이단병식 철모로 불리는 철모로, 이 용어는 이단병식 석검에서 유래되었다. 그러나 병부 없이 공부만 있으므로 이단병식 철모라는 용어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
- ⑥ 원삼국시대 낙동강 이동지역에서만 유행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지역성 구분에 유효한 자료이다.

보았다. 하지만 최근 자료 증가로 이미 초기철기시대부터 철모가 제한적인 수이지만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구체적인 증거로 대구 팔달동 45호, 57호, 67호, 90호, 99호, 100호에서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세형동검, 방형 및 제형 철부, 철착을 공반한 철모가 확인된다.

철모는 초기철기시대에서도 늦은 시기에 출현하며, 대표 기종은 신부의 길이가 짧거나 길고, 단면이 얇은 볼록렌즈형의 단신형 철모와 장신형 철모이다. 단신형 철모가 장신형 철모보다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출현하며, 장신형 철모와 같이 전국계 철모가 유입⁷⁾된 후 영남지방에서 다양한 형태의 철모가 제작·사용되었다.

(2) 원삼국시대

원삼국시대 초기의 철모는 앞 시기(초기철기시대)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특이한 점은 초기철기시대의 철모는 극히 제한적인 수량이지만 원삼국시대의 단신형 및 장신형 철모는 그 수가 증가하여 보편적인 무기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신형 및 장신형 철모는 원삼국시대 영남지방 특유의 철모인 이단관식(이단병식) 철모가 출현하면서 일정 기간 병행하다가 사라지고 그 유행은 이단관식 철모로 대체된다. 이러한 양상은 경주 조양동 60호 출토 단신형 철모와 이단관식 철모의 조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러 목관묘에서 확인된다. 이후 경주 황성동 46호 출토의 철모와 같이 이단관식 철모가 주류로서 영남지방에 유행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단관식 철모도 원삼국시대 후기에 이르면 사라지고 과도

7) 高久健二(1992), 「韓國出土 鐵銼의 傳播過程에 대한 研究」, 『考古歷史學志』 第8輯, 東亞大學校博物館.

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철모가 유행한다. 그것은 목곽묘 출현 이후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되는 관부돌출형 철모의 다수부장 현상으로 확인된다. 경주 지역에서는 판상철부의 다수부장이 관부돌출형 철모로 대체되는 현상이 뚜렷이 확인된다. 특히 경주 황성동 68호(동)까지 이단관식 철모가 일색을 이루다가 목곽묘 2호의 철모 구성을 보면 이단관식 철모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이후 유행하는 관부돌출형 철모가 2점 부장되는 과도기를 거친다.

이후 대부분의 목곽묘에서는 관부돌출형 철모가 출토된다. 특히 포항 옥성리 나78호, 경주 덕천리 19호, 울산 중산리 VII-1호, 하대 43호와 44호, 김해 양동리 162호 등 동남해안 지역 각지의 주요 대형 방형계 목곽묘에 다수의 관부돌출형 철모가 부장된 것은 정치·경제적 성격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왕에 경제적 수단으로 인지되어 온 판상철부의 다수부장 현상과 유사한데, 철모가 무기뿐만 아니라 판상철부와 함께 정치·경제적 수단으로도 사용된 듯하다.⁸⁾

(3) 삼국시대

원삼국시대 후기에 유행하였던 관부돌출형 철모가 계속 사용되는 가운데 3세기 후엽~4세기 전엽에 삼국시대의 일반적인 철모인 직기형 및 연미형 철모가 출현한다. 특히 연미형 철모가 신라의 실전용 무기로 주류를 이루게 된다. 한편 의례성과 권위성을 가진 철모도 신라의 성립과 성장에 맞추어 출현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철모는 궤수형 철모와 고구려계의 반부철모이다.

궤수형 철모는 3세기 후엽에서 4세기 중엽에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의례적

8) 申東昭(2008), 「嶺南地方 原三國時代 鐵斧와 鐵矛의 分布定型 研究」, 慶北大學校 文學碩士學位論文.

성격이 강한 철모로, 주로 중상위의 수장급묘에서 출토되고 있다. 그 중심은 경주 외곽에 위치한 경주 구어리 1호와 구정동 2·3호의 출토품으로 볼 때 경주의 중심 집단으로 판단된다. 경주 구어리와 구정동에서 많이 출토된 꺾수형 철모가 타 지역(울산 중산리, 부산 북천동, 포항 옥성리·마산리·학천리, 밀양 월산리, 경산 임당동, 영덕 덕곡리)에서는 1~2점씩만 출토되고 있다. 따라서 경주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반부철모가 고구려 계통인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경주 월성로 가13호 출토품은 반부가 공부의 중상위에 위치하여 고식으로 판단되는데, 경주 월성로 가13호가 조성되는 어느 시점에 고구려 무기체계가 신라로 이입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고구려 계통의 성격을 가진 반부철모는 이후 신라가 간접 지배의 형태를 취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주요 수장급묘에 위세적 성격을 가진 무기의 하나로 부상되고 있다. 한편 고구려계 철모의 하나로 가지형 철모(삼지형, 이지형)가 있는데, 이 역시 반부철모와 같이 중앙과 지방의 주요 수장급묘에서 확인되고 있다.

3) 철촉

대부분의 철제 무기는 대개 초기철기시대부터 사용되었으나 철촉은 원삼국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출현하였다. 원삼국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철촉은 크게 경부(莖部)가 없는 무경식(無莖式)에서 유경식(有莖式)으로, 경부의 길이가 짧은 단경식(短頸式)에서 중경식(中頸式)이나 장경식(長頸式)으로 변천한다. 무경식 철촉은 기원전 1세기부터 출현해서 목곽묘 단계인 3세기 전엽까지 장기간에 걸쳐 유행한다. 전장, 신부의 투공 위치 등 일부 속성은 시간성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민감하게 반영하는 것이 아니어서 분류의 기준으로 부적합하다.

(1) 원삼국시대

원삼국시대 철축의 주류는 무경식이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미 청동기시대부터 무경식 철축에서 유경식 철축으로 발전하여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철제 기술이 도입된 후 다시 무경식이 채택되어 유경식이 출현하는 2세기대까지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동북아 지역 전체로 볼 때도 이미 연나라의 경우 철경동축, 낙랑과 고구려의 경우 유경식 철축이 이미 제작되어 주요 실전용 무기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제작상의 어려움, 수렵용으로의 사용 등 여러 가지 사회·정치적 이유가 있겠으나 역시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철축은 다른 무기에 비해 원거리 전투에 사용되는데, 당시 이 지역의 전쟁에서는 근거리 전술이 주류를 이루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무경식 철축은 경주 사라리 130호와 김해 양동리 162호와 같이 개인 유력묘에 다수 부장되고 있다.

원삼국시대 후기, 목곽묘 출현 이후 2세기 후엽 즈음에는 무경식 철축과 공반하여 유경식 철축이 출현한다. 유경식 철축은 이른 시기에는 세형계 역자형 철축에 경부(莖部)가 형성된 것이 출현하고 이후에는 세형계 철축을 중심으로 유엽형, 유공식유엽형, 단면역V자식골축형 등이 주류를 이룬다. 2세기 후엽 이후 철축 조합관계를 살펴보면 대부분 무경식 철축 1점 또는 2~3점과 새롭게 출현한 유경식 철축이 다량 출토되고 있다.

(2) 삼국시대

3세기 중·후엽에는 한반도 이북의 선비족(鮮) 지역, 고구려와 낙랑지역 등에서 유행한 광형계 및 세형계 능형 철축이 포항·경주를 중심으로 한 남동해안 지역 전역에 출현한다. 광형계 철축의 등장으로 실전용의 세형계 철축과 달리 신분제에 따른 철축 소유의 제한성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4세기 중·후엽

〈표 1〉 분묘 출토 실전용 철촉의 변화

	시기	표지 유구	無莖式		有莖式			有頸式		비고
			無莖式	無稜式 菱形	骨鏃形	鑿頸形	蛇頭式 菱形	柳葉形	刀子形	
1단계	1c후엽	사라리 130호	6							무경식만 부장
	2c중엽	양동리 162호	5							
2단계	2c후엽	하대 44호	7	8						무경식과 유경식 비율이 비슷
	3c전엽	옥성리 78호	28	36						
3단계	3c중엽	구지로 18호	5	47						무경식 소수, 유 경식이 다수를 이 룸, 骨鏃形 출현
		하대 38호	2		15					
	3c후엽	대성동 29호 (正角式 34점)	1	194	52					무경식 1점, 유경식이 주류
4단계	4c전엽	구지로 2호			2	3	13			蛇頭式의 출현
	4c중엽	옥성리 기35호					8	10		
5단계	4c후엽	복천동 21·22호					1	34	21	蛇頭式菱形 주류, 柳葉形 출현
6단계	5c전엽	복천동 10·11호						4	49	柳葉形 주류
	5c중엽	황남대총 남분						36	395	

에 고구려 무기체계가 도입되면서 고구려에서 상위 신분만 소유했던 착두형 철촉, 삼익형 철촉 역시 신라에서 같은 양상을 보이게 된다. 더욱이 실전용 철촉으로 고구려에서 유행한, 신부의 단면이 능형인 추형 철촉도 신라에 도입돼 사용되었다.

한편 실전용 철촉은 원삼국시대 후기부터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주력 철촉의 변화가 명확히 확인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력 실전용 철촉은 무능식사두형 철촉 → 골촉형 철촉 → 사두식능형 철촉 → 유엽형 철촉 등으로 바뀌었다.

4) 철부

철부는 제작방법에 따라 주조철부와 단조철부로 나뉘며, 단조철부는 공부가 형성된 유공(有鑿) 단조철부와 공부가 형성되지 않은 판상철부로 나눌 수 있다. 주조철부와 판상철부는 초기철기시대부터 원삼국시대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내 철기의 도입과 생산, 유통체계, 계층 분화의 심화 등의 연구에서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영남지방에서 출토된 주조철부, 판상철부, 유공 단조철부로 나누어 초기철기시대부터 삼국시대 초기까지의 변천상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1) 주조철부

영남지방 주조철부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주조철부의 형식 변화, 분포정형, 부장 양상 등을 통해 철기의 생산과 유통체계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둔 듯하다.⁹⁾ 주조철부는 특히 한반도 남부지방의 철기문화 도입¹⁰⁾과 관련하여 주된 논제가 되었다. 더욱이 경주 황성동유적을 비롯한 여러 철기 생산 유적에서 다수의 주조철부 용범이 출토됨에 따라 철기 생산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과거 영남지방 주조철부의 변천에 관한 연구는 다른 철기 연구에서 부수적으로 다루어졌다. 주조철부의 종합적인 검토는 김도현과 신동조의 연구가

9) 金度憲(2002), 「三韓時期 鑄造鐵斧의 流通樣相에 對한 檢討」, 『嶺南考古學報』第31號, 1~29쪽.

10) 한반도 남부지방의 철기문화 도입 시기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당진 소소리, 부여 합송리, 장수 남양리 등의 유적에서 출토된 일괄유물로 볼 때 영남지방의 철기문화가 기원전 2세기 전반에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李健茂(1990), 「夫餘 合松里遺蹟 出土 一括遺物」, 『考古學誌』第2輯; 박진일(2007), 「점토대토기, 그리고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 『한국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 한국청동기학회.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들은 세부적으로는 견해 차이가 있겠지만¹¹⁾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공부의 형태를 주된 속성으로 설정하고 크게 장방형, 육각형, 제형(槌形)의 3가지로 분류하여 단계 설정을 하고 있다. 장방형, 육각형, 제형의 철부는 일정 기간 공존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장방형 → 제형 → 육각형으로 상대적 출현 시기가 설정되어 있다. 한편 제형의 주조철부는 원삼국시대에 출현하여 삼국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① 초기철기시대

영남지방에서 출토되는 초기철기시대의 주조철부는 현재까지의 자료로 보면 대구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대구 팔달동유적과 경산 임당동유적에서 다수 확인되기 때문에 당시의 주조철부 생산과 유통의 중심을 대구지역으로 보기도 한다.¹²⁾ 대구지역 중심설에 대해서는 현상의 자료로 볼 때 타당성이 있으나 아직 다른 지역의 초기철기시대 분묘유적 자료가 제한적이므로 앞으로 자료가 증가하면 재논의가 필요하겠다.

경산 임당동 FII-34호에서 출토된 주조철부는 단면 장방형으로 공부 외부에 이중돌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위원 용연동 출토품과 비교됨으로써 전국계 철기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대구 팔달동유적 57호, 77호, 86호의 출토품은 단면 장방형 주조철부로 점토대토기와 함께 출토되고 있다. 기왕의 연구에서

11) 김도헌과 신동조 연구의 큰 차이점은 유통체계의 중심을 어디로 보는가이다. 김도헌은 유통체계의 중심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구·경산 → 경산·경주·김해 → 경주 및 주변지역으로 바뀌고 유통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신동조는 경주를 중심으로 경주 → 경주·김해 → 경주 및 주변지역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金度憲(2002), 앞의 글; 申東昭(2008), 앞의 글.

12) 金度憲(2004), 「고대의 판상철부에 대한 검토-영남지역 분묘출토품을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 53, 韓國考古學會.

는 단면 장방형 주조철부의 경우 전국계로 인식해 왔다. 하지만 단면 장방형 주조철부는 전국시대부터 진(秦), 한(漢)으로 그 계통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계인지 낙랑계인지에 대한 논란은 시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② 원삼국시대

앞 시기의 전통이 이어지는 가운데(단면 장방형 주조철부) 단면 제형의 새로운 주조철부가 유행한다. 단면 제형 주조철부가 원삼국시대에서 지속적으로 유행하다가 후기에 단면 육각형 주조철부가 일시적으로 출현한다. 이 시기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경주 황성동유적에서 출토되는 다수의 주조철부 용범으로 볼 때, 그 중심이 경주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당시 철기 생산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특정 집단의 정치체가 생산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2) 판상철부

판상철부는 주조철부와 마찬가지로 철기의 생산 및 유통체계 연구에 중요한 유물로 두 가지 유물을 동시에 연구하는 경향이 짙다. 김도현과 신동조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판상철부는 평면 형태에 따라 장방형, 제형, 봉상, 팔자형으로 나뉘며 주조철부처럼 일부 형식이 병행하는 기간을 거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장방형 → 제형 → 팔자형·봉상철부의 상대적 출현 시기가 설정된다.

① 초기철기시대

판상철부는 앞서 설명한 주조철부와 맥을 같이한다. 현재까지의 자료로 보

면 대구지역(월성동 777-2유적, 팔달동유적, 경산 입당동유적)이 중심을 이루고, 처음에는 평면 장방형 판상철부가 출현하여 유행하다가 팔자형 판상철부가 출현하여 공유기를 거치고 있다. 평면 장방형 주조철부는 팔자형 철부보다 규격이 작고 그 수도 제한적이다. 대구 월성동 777-2유적의 토광묘 I1호, I2호, I3호, I6호, II2호 등에서 출토되었는데 이 유적에서 팔자형 철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대구 팔달동유적에서는 목관묘 45호, 67호 등에서 평면 방형의 판상철부가 출토되었으며 목관묘 90호에서는 점토대토기와 함께 팔자형 판상철부가 나왔다. 이는 대구 팔달동유적이 초기철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② 원삼국시대

팔자형 판상철부는 원삼국시대에 출현하여 삼국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¹³⁾ 판상철부의 변천이나 분포 정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3세기 전·중엽까지 지역에 관계 없이 동일한 부장 양상을 보이다가, 3세기 후엽부터 4세기 전엽까지 김해와 부산지역에는 판상철부의 부장 양상이 지속되는 반면 경주와 주변지역에는 철모 부장 중심으로 변하는 지역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4세기 중엽 이후에는 의기성이 강한 궤수형 철모가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부산지역에까지 부장되는 등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역성이 복잡하게 나타난다.

13) 목관묘 출현시기(2세기 중·후엽)에 일시적으로 일반적 형태인 장방형, 제형, 팔자형이 소멸하고 봉상철부가 유행한다. 金度憲(2004), 앞의 글.

(3) 유공 단조철부¹⁴⁾

단조철부는 주조철부보다 출현 시기가 늦지만 역시 기원전·후에 출현하여 지속적으로 제작·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단조품은 형태적인 변화가 적다는 특징 때문에 큰 관심을 끌지 못한 듯하다. 그래서 단조철부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이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최근 황성동 출토 단조철부에 대한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 조성운은 황성동유적 출토 단조철부의 주된 속성을 제작 기법이라 보고 공부 분리형과 공부 일체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이어 단조철부의 몇 가지 속성을 기준으로 형식을 설정하고, 철부 측면에 단이 형성된 유견철부에서 단이 없는 무견철부로 바뀌고 공부의 단면 형태가 방형 → 타원형 → 원형으로 변하는 것으로 보았다.¹⁵⁾

5) 철착과 철사

철착과 철사는 초기철기시대에 출현하여 원삼국시대 전기까지 짧은 기간 동안 유행한다. 초기철기시대 철착이 출토된 유구는 대구 월성동 777-2유적 I2호, 대구 팔달동 57호, 경산 임당동 FII-34호 등이며 그 수량은 극히 적다.

철사는 아직까지 용도가 불분명한 상태이나 초기철기시대부터 일부 자료가 확인되고 있다. 대구 월성동 777-2유적 I6호와 II2호, 대구 팔달동 57호와 75호 등에서 확인되는데 그 수량은 소수에 불과하다. 한편 철사의 계통과 관련해 경산 임당동 FI-42호에서 출토된 청동사가 주목된다. 이 청동사는 하위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신부의 형태를 보면 양 방향으로 날이 있으며 중앙에 중

14) 단조철부인 판상철부와 구분하기 위한 용어이나 일반적으로 단조철부로 명명하고 있다. 이에 지금부터는 단조철부라는 명칭으로 서술하겠다.

15) 조성운(2006), 「慶州 隍城洞 原三國時代 墳墓 出土 鍛造鐵斧에 대하여, 新羅形成의 秘密-慶州 隍城洞遺蹟의 最近 研究成果」, 『第5回 古墳研究會 學術세미나』, 古墳研究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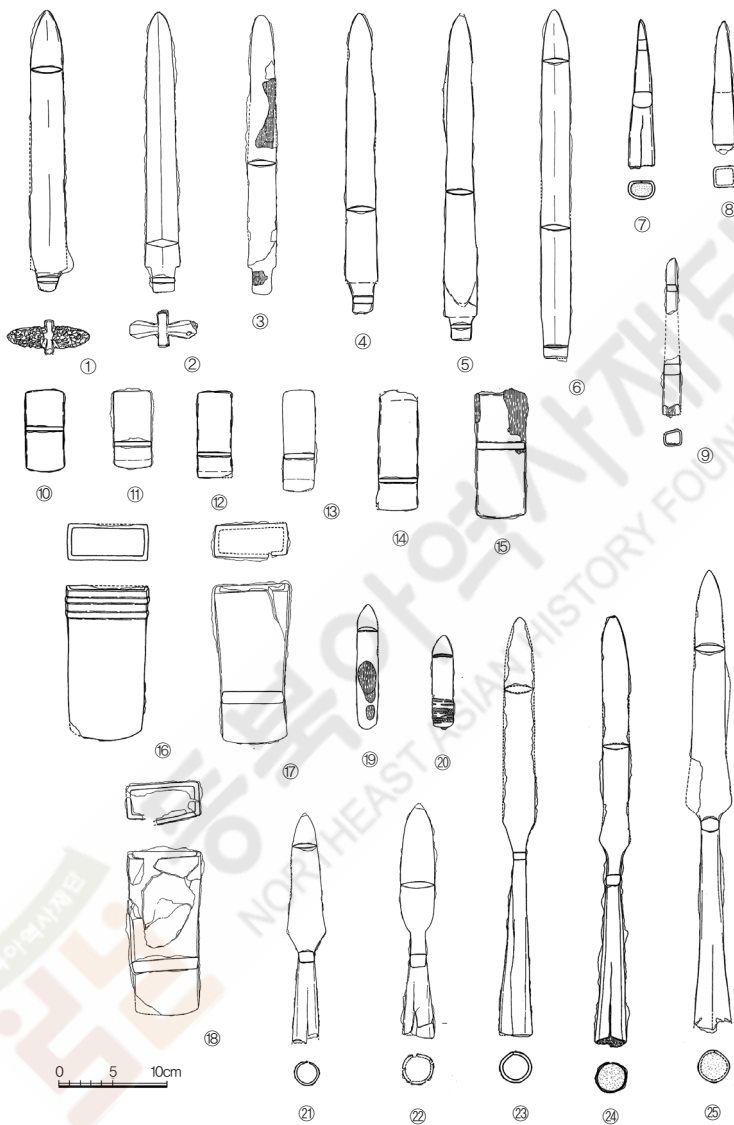


그림 1 영남지방 출토 초기철기시대 철기류

(1 대구 월성동 777-2 I-12호, 2·8·11·15·22 대구 팔달동 57호, 3·17 팔달동 77호, 4 월성동 I-13호, 5·14·19 월성동 I-6호, 6 월성동 I-2호, 7 월성동 I-2호, 9·16 경산 임당동 FII-34호, 10 월성동 I-1호, 12 월성동 I-3호, 13·21 팔달동 67호, 15·20 월성동 II-2호, 23 팔달동 90호, 24 경주 덕천리 138호, 25 성주 예산리 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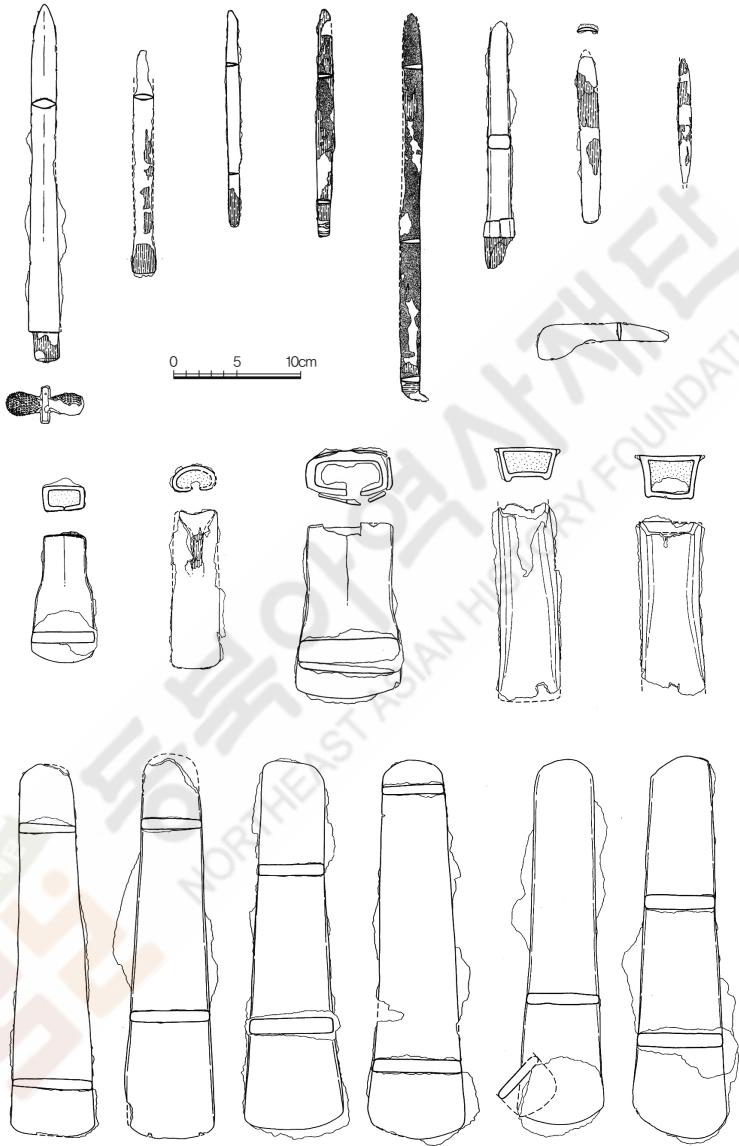


그림 2_ 원삼국시대 목관묘(기원전 1세기~기원후 1세기) 출토 철기류(경주 조양동 38호 일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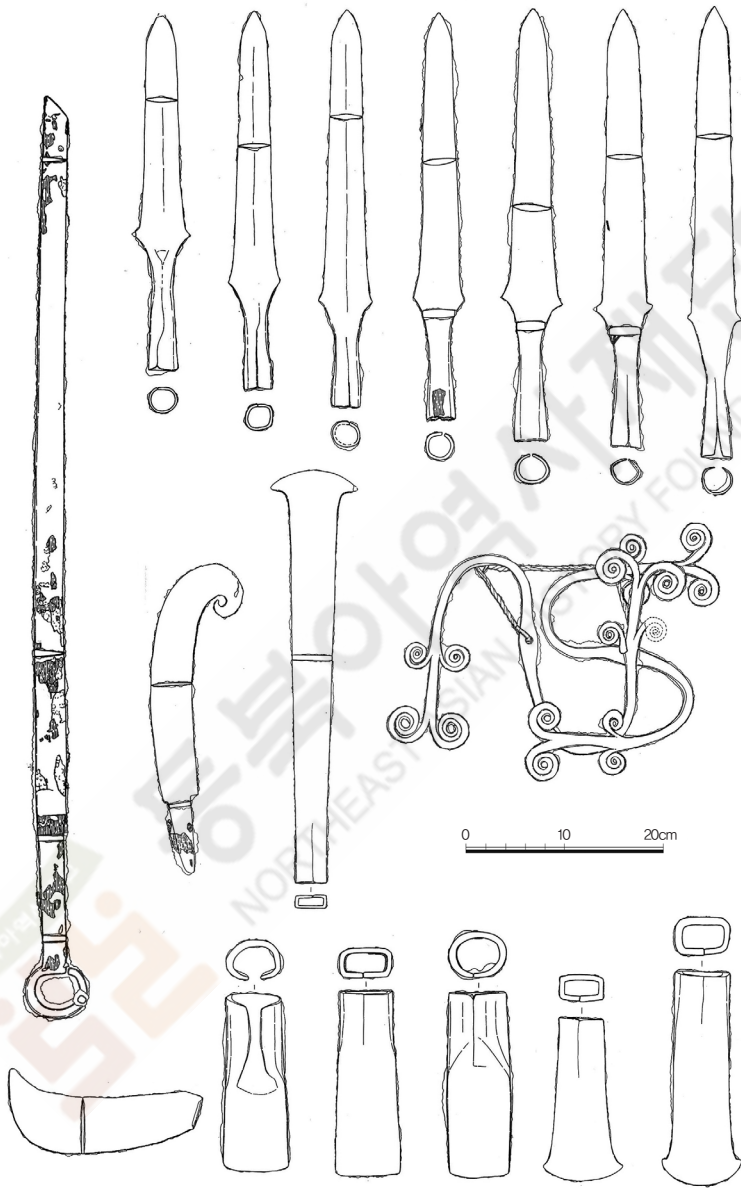


그림 3_ 영남지방 원삼국시대(3세기) 목곽묘 출토 철기류(경주 황성동 강변로 1호 일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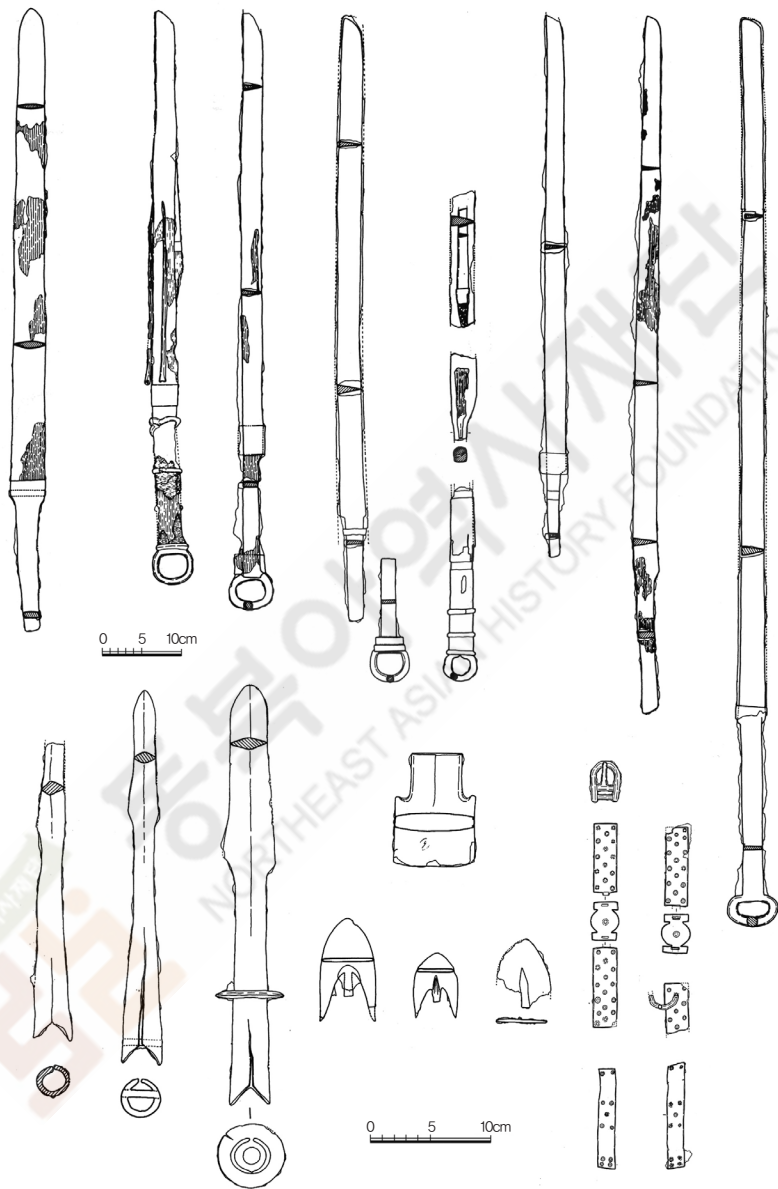


그림 4_ 삼국시대(4세기) 신라의 무기체계(경주 월성로 가13호 철기류 일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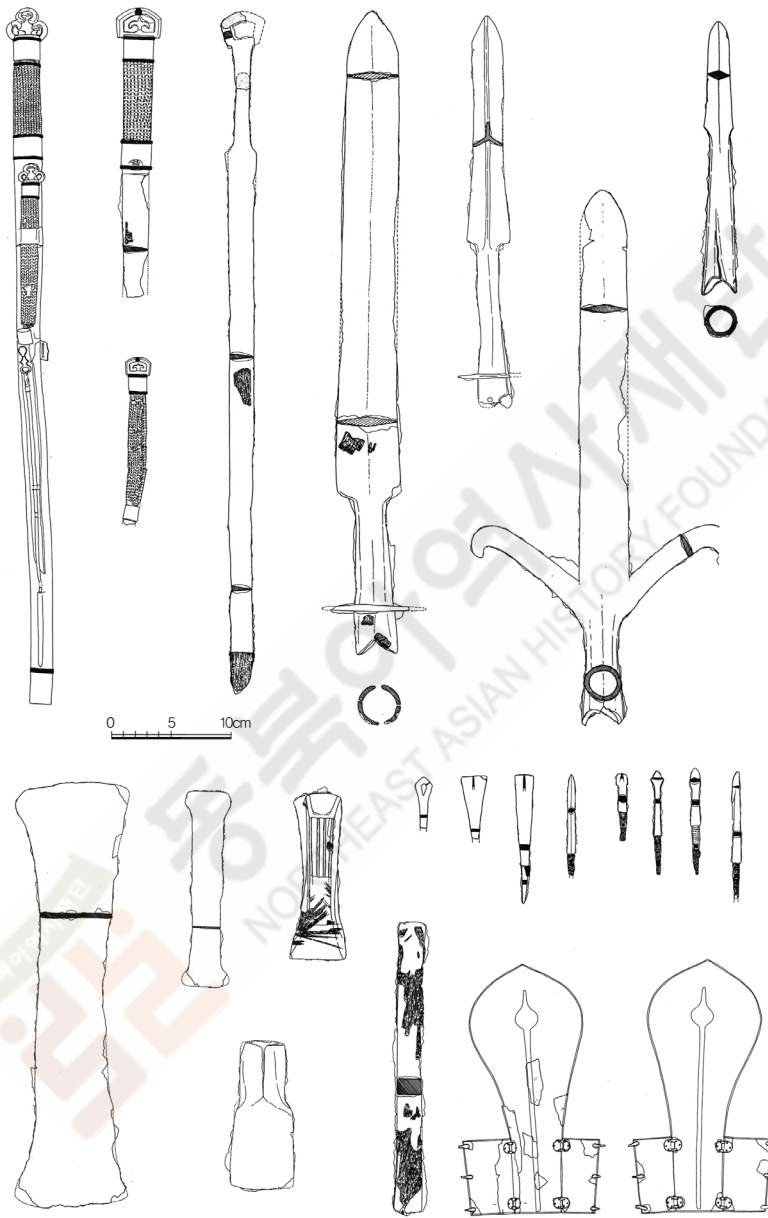


그림 5_ 삼국시대(5세기) 신라의 무기체계(경주 황남대총 남분 철기류 일괄)

방향으로 뚜렷한 능이 형성되어 있다. 중앙의 능이 형성된 점을 제외하면 이층에 출현하는 철사와 동일한 형태여서 철사의 조형으로 판단된다. 원삼국시대 목곽묘에는 앞 시기에 출현한 철착과 철사가 주요 철제 기종으로 부장된다.

2. 신라의 철제 무기체계 성립과 확산

1) 무기체계로 본 신라의 고대국가 성립 전야

필자는 공동연구로 궐수형 철기라는 의기적 성격을 지닌 철기로 신라 정치체 성립과 변천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다.¹⁶⁾ 그 주된 논의는 원삼국시대 영남지방 진·변한의 소국 정치체가 여러 문헌과 고고학적 자료로 보아 대등한(peer) 정치체(소국) 간의 상호작용으로 일정 기간 존속하다가 고대국가로 발전·성립하는 시기에 직·간접적인 종속의 관계로 이행되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원삼국시대 영남지방의 소국들은 이른바 와질토기 문화권으로 대표되는 여러 특성을 공유하면서 변천하는데, 가장 큰 획기는 목곽묘가 등장¹⁷⁾하는 단계이다. 등장기의 초기 대형 목곽묘들은 주로 경주와 김해를 비롯해 포항·울산 등지에서 확인되는데, 각 지역의 유적들을 살펴보면 유적들 간에 유구와 유물의 질과 양이 뚜렷한 위계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¹⁸⁾ 이러한 고고

16) 禹炳喆·金玟澈(2009), 「궐수형철기를 통해 본 진·변한정치체의 상호작용」, 『韓國上古史學報』第65號, 韓國上古史學會.

17) 목곽묘 단계로의 전환은 최근 여러 연구자가 영남지방 고분문화 흐름에서 큰 사회적·물질적 획기로 간주하기도 한다. 李盛周·金眩希(2000), 「蔚山 茶雲洞·中山里遺蹟의 木棺墓와 木槨墓」, 『三韓의 마을과 무덤』, 第9回 嶺南考古學會 學術發表會 要旨, 嶺南考古學會, 131~165쪽; 李在賢(2003), 「弁·辰韓社會의 考古學的 研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金榮珉(2004), 「三韓後期 辰韓勢力的 成長過程研究」, 『新羅文化』第23輯, 東國大學校 新羅文化研究所.

자료의 상황은 『삼국지(三國志)』, 「위서동이전(魏書東夷傳)」에 나오는 진·변한 제국(諸國)들이 그 규모는 다양했지만 각국에 우두머리가 있다는 기록과 함께 당시 각 지역의 정치체들의 관계가 ‘정치적인 중심지역-종속지역’이 아니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추론은 이미 기존의 연구에서 진·변한의 성격이 정치적 연맹체라기보다는 대외적인 교류나 교역과 같은 경제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교환망이었다는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¹⁹⁾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신라가 고대국가로 성립되기 전의 원삼국시대 소국 정치체들은 그들 나름의 무기 구성에 강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철검은 초기철기시대에 출현하며 세형동검의 전통을 이어 받은 것이다. 비록 주조의 세형동검 제작기법을 흉내낼 수 없는 신부의 혈구, 문양 등에 일부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인 형태와 규모 등은 세형동검과 유사하다. 또한 세형동검의 부속구였던 청동제 검과두식의 경우 철제 단검이 채택된 이후에도 당시의 단조 기술로는 제작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사용되었다. 이러한 여러 요소로 보았을 때 철제 단검은 철기 제작의 기술 도입과 더불어 세형동

18) 해당시기 각 지역의 자료들은 엄밀하게 말해 상호간의 낙차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세세한 차이는 이후 경주지역이 정치·경제적 중심지로 자리매김된 시기의 상황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이다. 즉 경주지역이라는 우월한 중심지를 中核으로 각 지역의 고고자료들은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분명한 낙차를 보이는 4~5세기의 자료 정형성과 대별된다. 李熙濬(1996), 「낙동강 以東지방 4·5세기 고분자료의 정형성과 그 해석」, 『4·5세기 한일고고학』, 제2회 영남·구주학회 합동고고학대회 발표 요지. 반면 II기의 자료들은 우세한 中核으로 상정할 만한 지역을 딱히 고르기 어렵다.

19) 李賢惠(1984), 『三韓社會形成過程研究』, 一潮閣; 權五榮(1998), 「『三國志』 弁·辰韓 기사와 고고자료의 비교검토」, 『弁·辰韓의 世界』, 제2회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 학술발표대회 요지; 主보돈(2002), 「辰·弁韓의 成立과 展開」, 『진·변한사 연구』, 경상북도·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검을 모방해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원삼국시대에도 철제 단검이 단독으로 제작되거나 철제 단검과 청동제 검파두식이 한 조를 이루어 분묘에서 출토되는데 원삼국시대 후기까지 이 전통이 이어진다. 그리고 원삼국시대 후기에 일시적으로 철제 장검이 중국 한나라의 영향으로 출현하고 대도와 환두 대도, 철제 단검이 일정 기간 병행하다가 철제 단검이 먼저 소멸한다.

철모는 초기철기시대에 출현한 후 원삼국시대에 철제의 주 무기로 자리 잡는다. 초기에는 위만조선계, 전국계 혹은 낙랑의 영향으로 여겨지는 단신형 및 장신형 철모가 유행하다가 원삼국시대 전기부터 영남지방 특유의 이단관식(이단병식) 철모가 주류를 점하게 된다. 이후 원삼국시대 후기에는 관부돌출형 철모로 대체되는데, 수장급묘를 중심으로 한 관부돌출형 철모의 다수 부장은 판상철부와 함께 정치·경제적 수단의 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철촉은 원삼국시대 초기에 출현하며 지속적으로 무경식 철촉이 유행하다가 원삼국시대 후기에 유경식 철촉이 출현하면서 다양한 철촉이 제작·사용된다. 주조철부는 초기철기시대에 단면 장방형의 철부가 출현하며, 원삼국시대에 들어와서는 단면 제형의 철부가 유행한다. 그리고 판상철부의 경우 초기철기시대에 평면 장방형 철부가 유행하다가, 초기철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평면 팔자형의 철부가 등장하여 지속적으로 유행한다. 철사와 철착의 경우 초기철기시대에 출현하여 원삼국시대 전기까지 일시적으로 유행하다가 소멸한다.

이상과 같이 초기철기시대부터 원삼국시대까지 영남지방에서 출토된 철기들은 지역 내의 차이성보다는 공통성이 많다. 철기 문화의 공통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 『삼국지』, 「위서동이전」 등과 같은 문헌 자료와 고고학적 이론의 틀 등이 없었다면 아마 이후에 형성된 신라와 가야보다 더욱 광역의 국가 정치체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물질 공유 문화의 권역이 영남지방

전체이고 신라와 가야의 물질문화보다 더욱 공통성이 견고하기 때문이다.

2) 신라의 무기체계 성립과 고대국가로의 변천

삼국시대에 들어와 신라는 고대국가로 성립하면서 나름의 무기체계를 갖 추게 된다. 고대국가의 성립에는 국가를 구성하는 여러 필요충분조건과 이를 위한 틀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서도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특정한 광역의 지역 내에서 여러 물질문화를 공유하다가, 그 틀이 깨어지고 한 지역에 물질문화가 집중되어 확산되는 현상이다. 당시 영남지방에 있던 소국들이 복속과 종속을 통해 고대국가로 발전하기까지 여러 사회·정치·경제적 요소들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 중 군사력의 증대는 잦은 전쟁으로 인한 복속과 종속 관계가 이루어졌던 당시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필수요건 중 하나였을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원삼국시대 영남지방에 있었던 소국들은 서로 무기체계를 공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원삼국시대의 무기체계로는 철검과 철모를 중심으로 한 근거리 보병체계가 지속적으로 주류를 이루다가, 원삼국시대 후기에 중거리 전술이 가능한 궁병이 활성화되면서 화살이 다량 생산된다. 이는 당시의 환령지말과 같은 동북지방의 복잡한 국제 정세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3세기 중후엽 즈음에 이러한 공유체계가 깨어지고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무기류의 지역성이 성립되기 시작한다. 무기류의 지역성은 전쟁·전술에 직접적으로 사용했던 실전용 무기류에서는 잘 확인되지 않고, 의례적 혹은 위세적 성격의 무기류에서 확인된다. 이것은 당시 집단마다 군사적 정보가 빠르게 수용됨에 따라 실전에 사용되는 것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히려 집단의 군사적 정체성은 의례적 혹은 위세적 성격을 가진 철제 무기류에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그 성격을 잘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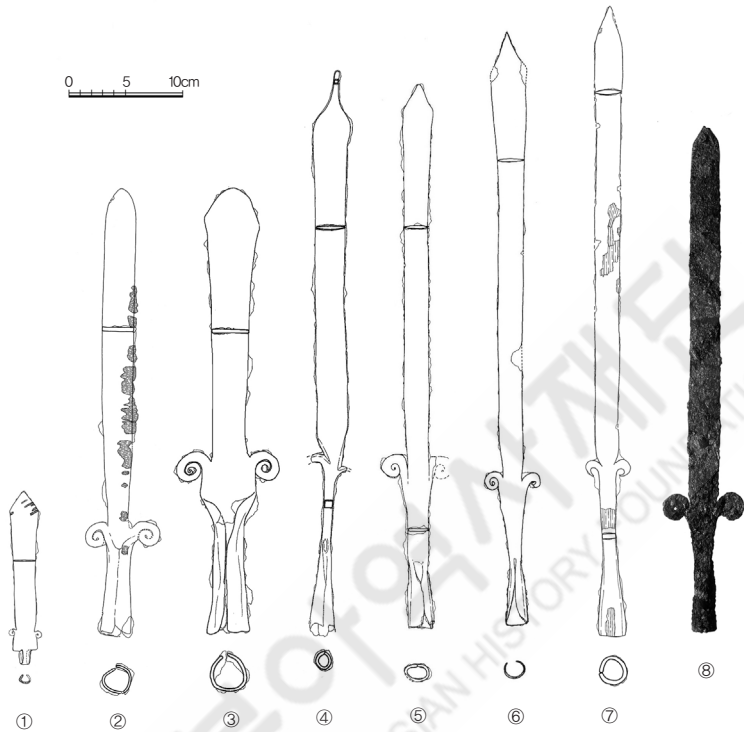


그림 6 영남지방 삼국시대 초기 목곽묘 출토 결수형 철모

- (① 밀양 월산리 1호, ② 포항 학천리 목곽묘 53호, ③ 울산 다운동 바지구 목곽묘 8호,
 ④ 영덕 덕곡리 목곽묘 5호, ⑤ 울산 중산리 ID-15호, ⑥ 포항 옥성리 내22호,
 ⑦ 경주 구정동 2호, ⑧ 경산 입당동 CI-57호)

하는 것이 삼국시대 초기에 출현하는 의례적 성격이 강한 결수형 철모이다. 3세기 후엽에서 4세기 전엽에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결수형 철모는 경주지역에서 많이 출토되고 인근 지역인 울산 중산리, 밀양 월산리, 부산 북천동, 포항 옥성리·마산리, 영덕 덕곡리, 경산 입당동 등에서는 소수가 확인된다. 하지만 결수형 철모가 지니는 의미가 크다.

신라의 무기체계가 갖춰지는 것은 4세기 중엽 이후이다. 4세기 중후엽에는 경주 월성로 가13호를 필두로 고구려 무기체계가 신라로 도입되는 양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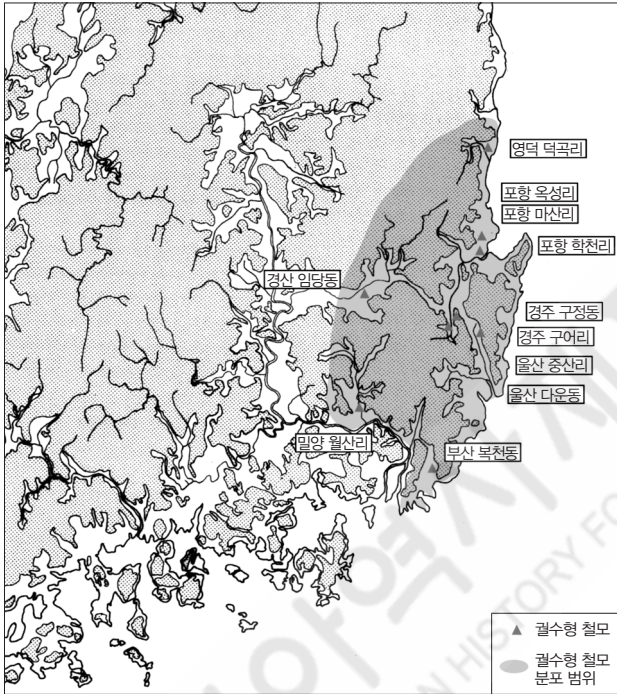


그림 7. 삼국시대(4세기 전엽) 결수형 철모의 분포 정형

확연해진다. 이때부터 신라는 환두대도·철모·철촉 등 공격용 무기류, 갑옷을 비롯한 방어구, 등자와 같은 마구류 등 고구려 무구를 수용하여 나름의 무기체계를 가지게 된다. 특히 5세기 이후 마구류의 등장은 이전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술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즉 이전 시기에는 철검, 철모, 철촉을 중심으로 한 단거리 혹은 중거리 전술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고구려 무기체계의 수용 이후에는 기마병을 이용한 장거리 전술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획기적인 무기체계의 변혁이 당시 군사조직에도 큰 변화를 일으켜 더욱 체계적인 군사조직이 구성된다. 이는 다양한 위세적 성격의 무기류가 상위 신분에만 제한적으로 분배·소유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위



그림 8_ 고구려와 신라 철촉의 비교(禹炳喆, 2008 인용)

(①·⑨ 太王陵, ②·④ 아차산4보루, ③ 五女山城, ⑤ 國內城, ⑥ 麻線 2100호, ⑦ 禹山下 41호, ⑧ 馮素弗墓, ⑩ 禹山下 2110호, ⑪ 옥성리 가35호, ⑫ 황남동 109호 4곽, ⑬ 황남대총 남분, ⑭ 황남대총 북분, ⑮ 천마총, ⑯ 황오리 16호, ⑰ 황남동 110호, ⑱ 창녕 교동 78호, ⑲ 천마총, ⑳ 양산 부부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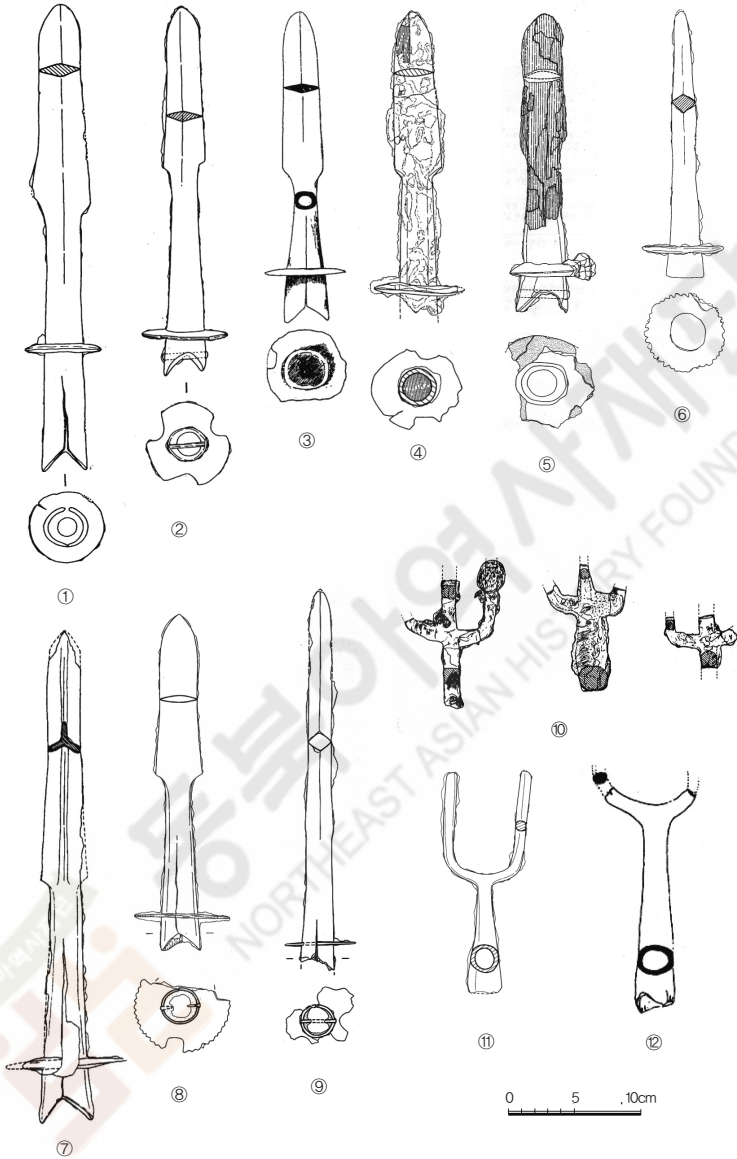


그림 9_ 신라권역 출토 반부철모 및 가지형 철모(禹炳喆, 2008 인용)

(① 경주 월성로 가3호, ② 경주 월성로 10-1호, ③ 경주 황남동 109호 1곽, ④ 창녕 교동 1호, ⑤ 강릉 초당동 A1-1호, ⑥ 경산 입당 CI-1호, ⑦ 경주 황남대총 남분, ⑧ 밀양 신안 49호, ⑨ 성주 성산동 59호, ⑩ 경주 황남대총 북분, ⑪ 울산 조일리 49-2호, ⑫ 칠곡 황상동 1-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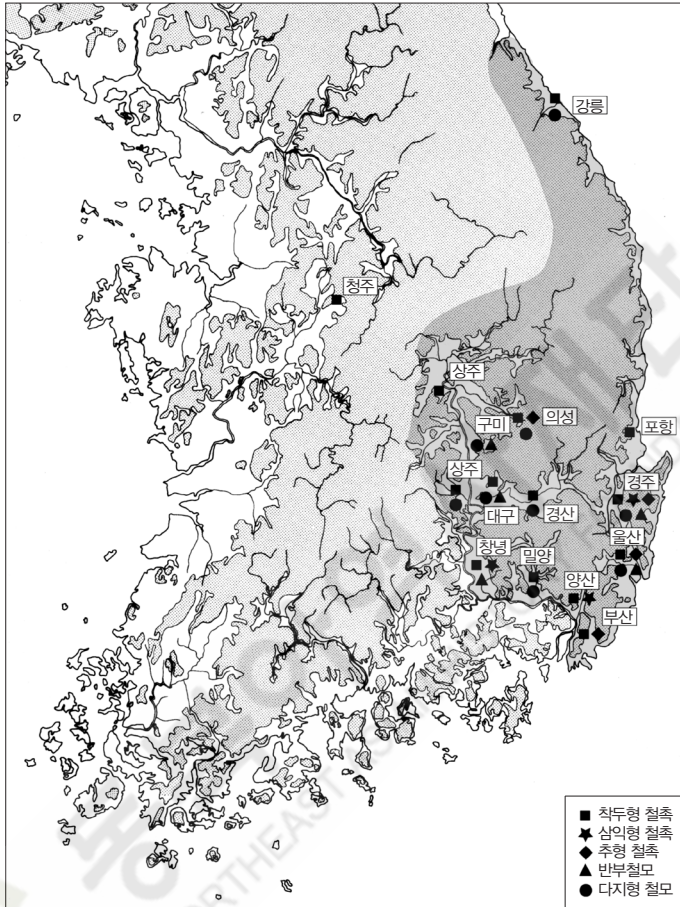


그림 10_ 4~6세기 신라계 철촉 및 철모의 분포 정형(禹炳喆, 2008 인용)

제품적 성격을 가진 금은제 환두대도(용봉문, 삼루문, 삼엽문), 철모(반부철모, 가지형 철모), 철촉(삼익형, 작두형) 등 철제 무기들은 고구려에서 그러하였듯이 신라의 중앙과 지방의 주요 수장급에게 분여된다. 이러한 양상은 4~7세기 신라가 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을 일부나마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원삼국시대부터 소국의 중심지로 잘 알려졌던 울산, 부산, 양산, 경산, 대구, 영천, 의성, 상주, 구미,

포항, 울진, 강릉 지역의 수장급묘에서만 이러한 위세품적 성격의 무기가 출토된다. 이는 신라의 간접 지배 양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II. 동해안 지역의 무기체계와 군사적 성격

이 장에서는 초점을 동해안 지역에 맞춰, 신라의 무기체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지방으로 확산되었나를 논의하려고 한다. 동해안의 주요 지역은 4~7세기 신라가 고대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주지역으로 이어지는 주요 교통망의 중심지, 왜(倭)와의 잦은 전쟁으로 인한 해안 치안의 유지,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유통 등 여러 이유에서 그 중요도를 인지할 수 있다. 특히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지역이 영남지방 가운데에서도 동해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신라 영역의 확대와 방어에 중요한 정치·군사적 요충지로서 동해안 지역의 중요성은 다시 언급할 필요성이 없을 것이다.

경주지역 인근에 위치한 동해안 주요 지역의 집단들은 신라가 고대국가의 틀을 형성하기 전(원삼국시대)부터 강한 공통성을 지니고 있었다. 대표적인 지역 집단은 포항 옥성리유적과 울산 하대유적을 조성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4세기 즈음에 신라의 영역 확대가 본격화되고 5세기 이후에는 영덕·울진 지역을 넘어 강릉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장에서는 동해안 주요 지역에 위치하였던 각 지역 집단의 무기체계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신라의 영역 확대 동향을 추정하려고 한다. 주요 검토 자료는 동해안 지역 주요 고분군에서 출토된 철제 무기이다. 그 이유는 유구에서 조사된 고고자료 중에 양과 질이 가장 좋기 때문이다. 또한 시기는 신라의 영역 확대가 본격화되고 고대국가로서 고구려와 백제의 대립이 확연해지는

4~7세기를 대상으로 한다.

1. 동해안 지역별 무기체계와 군사적 기능

신라의 동해안 지역에 위치한 집단은 고분군 유적의 종합적인 양상으로 보았을 때 크게 세 가지로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경주지역과 근접해 바다로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동시에 고구려나 왜의 침입에 대한 연락망 혹은 방어의역으로서의 특징을 가진 해안가의 군사적 요충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신라 중앙의 직접 지배 영역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 지역은 신라의 간접 지배를 받는 타 지역에 비해 고층의 출현이나 위세품적 성격의 무기 부장이 현격히 떨어진다. 둘째는 신라 중앙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나 원삼국시대부터 이미 경주지역과 공통적 문화를 형성하여 대등적 관계에 있다가 신라가 고대국가로 성립하는 과정에서 경주지역 중심으로 재편되어 신라 중앙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다. 셋째는 경주지역과의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신라가 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대외 진출 혹은 대외 방어를 위해 군사적으로 중요한 거점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복속 혹은 투항하여 간접 지배의 형태가 존속하는 곳으로 앞의 경우보다 신라 중앙세력의 영향을 적게 받는 곳이다.

1) 신라 중앙과 근접한 곳에 위치한 동해안 지역 고분 출토 무기

앞서 구별한 것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곳으로 경주지역 인근에 위치하며, 신라 중앙의 강한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1) 해안가 군사적 요충지역

① 경주 봉길리고분군 축조 집단의 군사·지리적 특성과 출토된 무기류 검토

경주 봉길리고분군은 경주분지 경계의 토함산에서 발원하여 동해로 흘러드는 대종천 수계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대종천 수계를 거슬러 토함산의 추령재를 통하면 경주와 직접 연결될 수 있다.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대왕암·감은사지 등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곳 해안은 왜와의 관계에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고분군은 울산대학교박물관과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발굴 조사되었다. 그 결과 수혈식석곽묘 149기를 비롯하여 목곽묘 26기, 석실묘 8기, 옹관묘 4기 등 총 187기의 분묘가 확인되었다.²⁰⁾

경주 봉길리고분군에서 출토된 철기는 대도, 철모, 철촉(광형계 착두형, 역자형), 주조철부, 단조철부, 철착, 철검 등 다양하다. 목곽묘 단계에서는 주조철부, 단조철부, 철착 등 실생활에 가까운 철기들이 출토되고 있고 석곽묘 단계에서는 대도, 철모, 철촉, 철검, 철부 등 무기류와 농공구류가 함께 확인되고 있다. 특히 전투용 무기류로는 대도, 철모, 철촉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대도나 삼익형 및 착두형 철촉은 일정 신분 이상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석곽묘 4-3호와 54호에서 나온 착두형 및 삼익형 철촉은 영남지방에서도 출토된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이 지역집단의 군사적 성격을 일부나마 추정할 수 있다.

삼익형·착두형 철촉은 4세기 중엽 이후 고구려 무기체계의 영향으로 신라에 도입되었으며, 신라 중앙의 상위층뿐만 아니라 지방의 수장에게도 분여되는 위세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히 4세기 후엽부터 5세기 전엽 이후 본격

20)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2005a), 『慶州 奉吉里古墳群』; 울산대학교박물관(2000), 『경주 봉길리고분군』 I, 울산대학교박물관 학술연구총서 제3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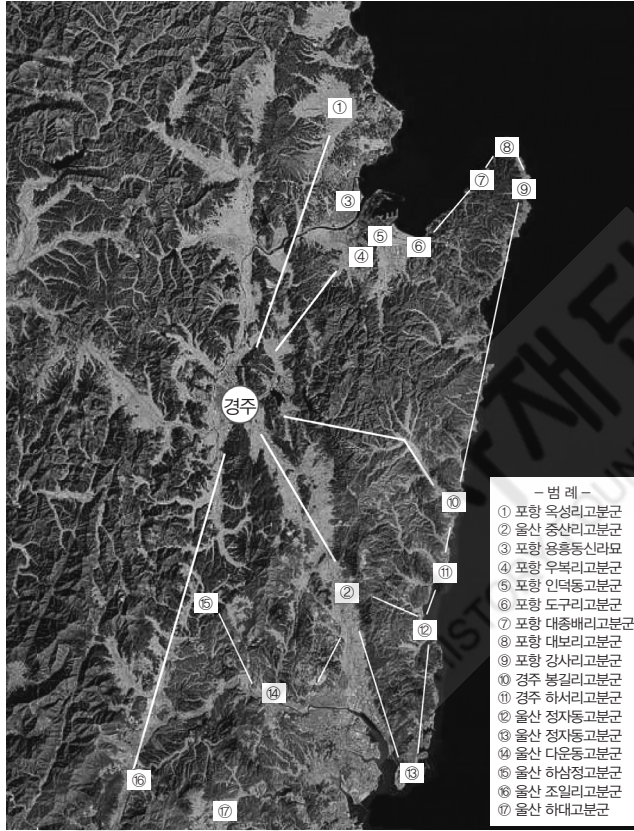


그림 11_ 신라 수도와 근접한 곳에 위치한 동해안 지역 고분군

적으로 위세품 역할을 한다. 신라 중앙의 최상급 분묘인 경주 황남동 110호에서는 삼익형 철촉이 나왔고, 경주 황남대총 남분과 북분, 황오리 16호, 노동리 4호, 천마총, 금령총에서는 광형계 착두형 철촉 등이 많게는 수십 점에 달하는 다수 부장 현상이 확인된다. 또한 지방인 부산, 울산, 양산, 경산, 대구, 성주, 창녕, 의성, 구미, 상주, 포항, 강릉 지역 등의 주요 수장급묘에 대개 1점 정도 부장되는 것으로 볼 때 그 정형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삼익형 철촉의 경우 희소성이 더욱 두드러지는데, 경주 황남동 110호에서 처음 출현하고 5세기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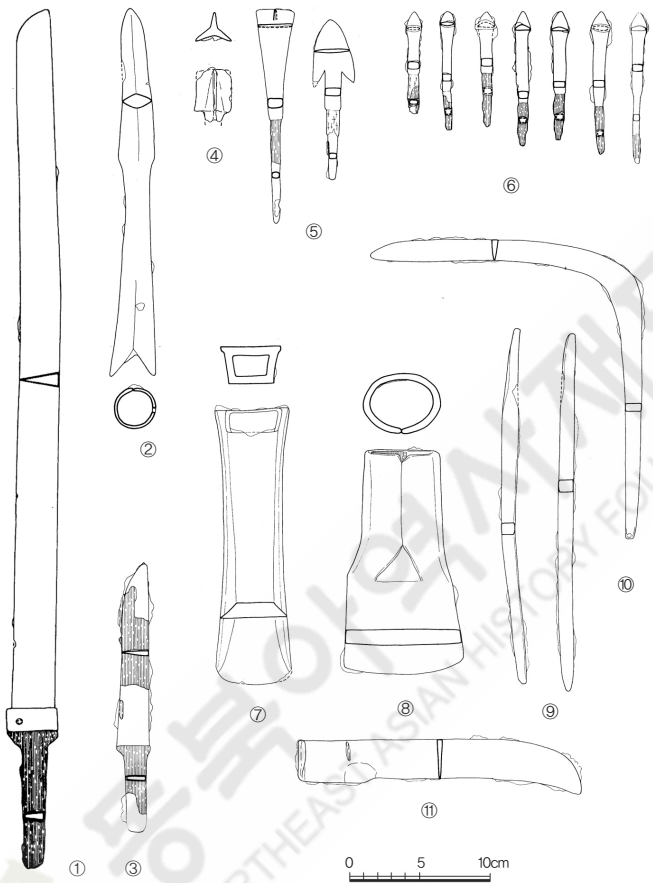


그림 12 경주 봉길리고분군 출토 철기류 일괄
 (①·②·⑤ 석곽묘 4-3호, ③·⑥·⑪ 석곽 47-3호, ④ 석곽 54호,
 ⑦ 목곽묘 10호, ⑧·⑨·⑩ 목곽묘 12호)

후에는 경주 천마총, 양산 부부총, 창녕 교동 89호 등 최상급 신분의 고총에서만 출토되고 있다.

그런데 봉길리고분군 축조 집단은 위세적 성격의 무기가 출토되는 타 지역과 전반적으로 차이점이 상당하다. 봉길리고분군 축조 집단은 전반적인 유구

나 부장된 토기류 등으로 보았을 때, 그 시작 시점부터 신라 중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타 지역의 경우 지방의 거점지역에 고층이 조성되면서 그 지방의 가장 유력한 수장급묘에서 금동관을 비롯한 다수의 위세품이 공반되고 있는 데 비해, 봉길리고분군에서는 고층이 축조되지도 않았고 화려한 위세품도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주 봉길리고분군의 축조 집단은 신라 중앙과 가장 가까운 해안가로 이어지는 중요한 군사·지리적 특성, 출토된 무기류의 위계성, 타 지역에서 무기류와 함께 출토되는 유물의 위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구려나 왜의 침입을 방어하는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역에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시기적으로는 5세기 전엽부터 이러한 해안가 군사적 요충지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고고자료로 단언할 수 없으나 당시의 사회적 정황으로 보았을 때 신라세력의 직접 지배를 받아 군사적 관료가 파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② 포항 용흥동 신라묘²¹⁾ 축조 집단의 군사적 성격

포항 용흥동 신라묘는 국립경주박물관에 의해 2006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삼국시대 수장급묘에서만 출토되는 금동제 대관, 금동제 삼엽문화두대도, 금동제 허리띠 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용흥동 신라묘의 축조 시기는 5세기 후엽에서 6세기 전엽으로 판단되고 있다.²²⁾ 유적이 위치한 곳은 고구려에서 신라로 오는 해로에서 영일만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해당하며, 경주에서 형성강 하구와 영일만으로 이어지는 동해안으로

21) 國立慶州博物館(2007), 『浦項 龍興洞 新羅墓』, 學術調查報告 第20冊.

22) 尹相惠(2007), 「V. 考察」, 『浦項 龍興洞 新羅墓』 學術調查報告 第20冊, 59쪽.

나가는 주된 교통로이다. 또한 역사적 배경을 보면 왜가 동해안을 통해 월성까지 침입한 기록이 있다. 자비마립간(慈悲麻立干) 2년(459)에 왜가 병선 100여 척으로 동쪽 변경을 습격하여 월성까지 침입하자 신라가 이를 물리쳐 도망치는 왜를 북쪽 바다 어구까지 뒤쫓았다는 기록이다. 이때 왜의 도주로가 형산강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이 신라가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진출하는 데 넓은 충적 평야를 낀 흥해지역이 중요 거점으로 이용되었을 것이나, 왜의 침입 기사 등을 볼 때 형산강 하구 역시 교통로로서 중요한 지점이었음이 분명하다.

용흥동 신라묘에서 세트르 출토된 금동제 대관, 금동제 삼엽문환두대도 등은 당시 지방의 수장급묘 가운데에서도 대구, 경산, 창녕, 양산 등 신라가 대가야를 공략하는 주요 군사적 거점지역에서만 확인된다. 이러한 위계성이 높은 유물이 부장되는 것은 이 지역들이 당시 왜의 잦은 침략, 고구려로부터의 해안가 방어에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해준다.

한편 경주 봉길리고분군 축조 집단이 5세기 전엽 이후부터 군사적 기능을 담당하였다면 포항 용흥동 신라묘 축조 집단은 5세기 후엽~6세기 전엽에 이르러서 그 기능을 하였다. 즉 두 집단 사이에 시기적 차이가 있는 것이다. 또한 출토된 유물을 볼 때 5세기 후엽~6세기 전엽에 용흥동 신라묘 축조 집단이 해안가 군사적 요충지인 거점지역을 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2) 군사적 정보체계에 속한 소규모 집단 지역

신라 중앙과 근접한 지역이나 고분군 축조의 성격으로 볼 때 군사적 요충지보다는 어촌의 집단 혹은 적이 침입하였을 때 군사적 정보 네트워크의 기능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들이다. 발굴 조사되어 그 성격을 일부나마 추정할 수 있는 포항 강사리고분군, 대보리고분군, 양남 하서리유적, 울산 정

자동고분군을 비롯하여 발굴 조사되지는 않았으나 영일만 일대의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포항 대종배리유적, 인덕동유적, 호동유적, 도구리유적 등과 관련된 집단이 이에 해당된다. 여기서는 발굴 조사로 그 성격을 일부나마 추정할 수 있는 포항 강사리고분군과 양남 하서리유적을 표본으로 하여 이 고분군 축조 세력들의 성격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① 포항 강사리고분군 출토 무기의 특성

해안가에 위치한 포항 강사리고분군은 포항시 대보면 일대, 즉 한반도 남동단 장기반도의 끝부분에 있다. 그리고 북쪽으로 해안가를 약 6km 따라가면 나오는 장기반도의 가장 끝부분에 대보리고분군이 있다. 강사리고분군은 2004년에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일부가 발굴 조사되었는데, 조사 결과 삼국시대 목곽묘 16기, 석곽묘 55기, 석실묘 1기 등이 확인되었다.²³⁾

발굴된 강사리유적은 강사리고분군 동쪽 말단부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양상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나, 출토된 유물을 토대로 어느 정도의 성격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강사리고분군에서 출토되는 철기류로는 철모, 철촉, 소도, 판상철부, 단조철부, 철검 등이 있다. 특히 목곽묘 8호에서 출토된 1점의 철모를 제외하고 철제 무기류는 잘 확인되지 않고, 단조철부, 철검, 소도 등 실생활에 사용되는 철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고층의 축조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중소형의 목곽묘, 석곽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수의 분묘가 조사되었음에도 철모(목곽묘 8호), 철촉(석곽묘 33호) 등의 출토 자료가 적고, 더욱이 위세적 성격이 강한 대도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더 많은 면적의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출토될 가능성이 있

23)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2007), 『浦項 江沙里古墳群』.

겠으나 현재까지 발굴 조사된 수십여 기의 자료로 보았을 때 무기류의 부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강사리고분군은 경주 봉길리고분군과 같이 경주지역에 근접한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지만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강사리고분군을 축조한 집단은 경주 봉길리고분군 축조 집단에 비해 군사적 기능이 현격하게 떨어진다. 그 집단은 신라의 전반적인 양상으로 보았을 때 주로 해안가에서 어로생활을 하는 소규모 집단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② 양남 하서리유적 출토 무기의 특성

양남 하서리유적은 포항 강사리고분군과 반대로 해안가 군사적 요충지인 경주 봉길리유적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남쪽으로 해안가를 따라가면 울산 정자동고분군이 있다. 동국대학교박물관이 하서리고분군의 일부분을 조사한 결과 삼국시대 목곽묘 9기, 석곽묘 1기가 확인되었다.²⁴⁾ 조사된 면적이 제한적이며, 이 유적에서 출토된 철기류로는 철촉, 철검, 단조철부, 도자 등이 있다.

하서리유적 축조 집단도 실생활에 필요한 철검이 출토 유물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군사적 특성을 지니지 않고, 포항 강사리고분군 축조 집단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다.

③ 기타²⁵⁾

포항 강사리고분군과 양남 하서리유적과 같은 성격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24) 金吉雄 외(2004), 『陽南 下西里遺蹟』,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25)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발굴 조사 보고서가 아직 발행되지 않은 유적이다.

포항 대보리고분군과 울산 정자동고분군이 있다. 포항 대보리고분군²⁶⁾은 한반도 남동단에 위치한 장기반도의 끝부분에 있다. 그리고 남동쪽으로는 강사리고분군이, 남서쪽으로는 대종배리고분군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2004~2005년에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한 결과 100기 이상의 삼국시대 분묘가 확인되었다. 대보리고분군에서 출토된 철기류의 양상을 보면 분묘에 철제 무기류가 다수 부장되어 있어 인근의 강사리고분군보다는 군사적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대보리고분군의 지리적 특성, 즉 장기반도의 끝부분에 위치하여 해안가를 따라 침입하는 적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울산 정자동고분군은 양남 하서리유적에서 울산만 방향으로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 울산 신대리 산성을 넘어가면 울산 중산리고분군에 도달한다. 이들 고분에서 출토된 철기류는 포항 강사리고분군과 양남 하서리유적과 같이 실생활에 사용되는 철부, 철검 등이 주류를 이루고 무기류는 제한적으로 출토되고 있다. 이 고분 축조 집단 역시 유적이 입지한 지리적 특징, 출토된 철기류 중 실생활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적의 침입을 알리는 군사적 정보체계에 속한 소규모 집단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2) 신라 중앙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동해안 지역 고분 출토 무기

(1) 신라의 수도 방어를 위한 군사적 거점지역

이들 지역은 신라의 수도인 경주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해안가 혹은 교통로의 중심지에 위치한 곳이다. 포항(옥성리고분군), 영덕(괴사리고분군), 울산지역(중산리고분군)이 대표적인 곳으로 해안을 통한 적의 침입을 방어하는 군사적 요충지역

26)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2009), 『浦項 大甫里遺蹟』.

이라 할 수 있다. 경주 봉길리고분군을 축조한 집단은 4세기 후엽 이후 신라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는데, 이것은 신라가 해안가 방어에 대한 직접적 필요성에 의해 그 군사적 기능이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수도를 방어하는 군사적 요충지역으로서 포항과 울산 지역은 해안가 방어라는 군사적 기능은 경주 봉길리고분군 축조 집단과 성격을 같이 하겠지만 전반적인 양상에는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두 가지다. 첫째, 포항 옥성리고분군과 같이 지방의 주요 타 지역에 비해 위세가 약간 떨어지지만 관식이나 대도, 철촉(광형계 작두형) 등의 위세품과 위세적 성격의 무기류가 확인돼 경주 봉길리고분군 축조 집단보다는 상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 지역들은 원삼국시대부터 영남지방 공통의 와질토기 문화를 공유하였고 경주지역과 비교해 손색이 없다. 철제 무기도 철검, 철도, 철모(관부돌출형 철모의 다수 부장) 등으로 군사적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역은 4세기 이후 신라의 고대국가 형성 과정에서 신라 중앙세력에 복속 혹은 합병되면서 신라 중앙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중앙세력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된다.

① 포항 옥성리고분군²⁷⁾의 군사·지리적 특성과 출토 무기류 검토

포항 옥성리고분군은 흥해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신라가 북쪽의 동해안 지역으로 진출하는 데 관문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또한 삼국시대 고분군의 분포로 보면, 흥해지역 중심지인 포항 옥성리고분군의 남쪽으로 남성리고분군, 학천리고분군,²⁸⁾ 성곡리고분군, 대련리고분군²⁹⁾이 경주로 이어지

27) 嶺南文化財研究院(1998), 『浦項玉城里古墳群-나지구』; 國立慶州博物館(2000), 『浦項玉城里古墳群-가지구』;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2002), 『浦項玉城里古墳群』.

28) 浦項市·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2002), 『浦項鶴川里遺蹟發掘調查報告書』 I~III.

29)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2008), 「포항 국도대체우회도로(유강-대련)건설구간 내 포항

는 주된 교통로의 일직선상에 분포하고 있다. 또한 신라의 동북방 전초기지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남성리의 남미질부성(南彌秩夫城)³⁰⁾과 흥안리의 북미질부성(北彌秩夫城)이 위치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이 지역의 군사적 기능을 가늠해 볼 수 있겠다.

포항 옥성리고분군의 축조 집단은 원삼국시대의 목곽묘가 조성되는 2세기 중엽부터 신라세력의 영향 아래로 접어드는 3세기 중엽까지 가장 융성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목곽묘 78호에 100여 점의 관부돌출형 철모가 부장되는 등 다수의 목곽묘에 부장된 철기의 양상을 보면 이 집단의 철제 무기 제작이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앞의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4세기 전엽을 전후로 경주지역(인근)을 중심으로 의례적 성격이 강한 꺾수형 철모의 집중 현상이 확인된다. 꺾수형 철모의 분포 정형은 경주, 영덕, 포항, 경산, 울산, 밀양, 부산 지역 등 경주의 인근 지역으로 한정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꺾수형 철모가 포항 옥성리고분군, 마산리고분군, 학천리고분군 등에서 확인되며 그 수량이 경주지역을 제외하고는 신라의 지방에서 가장 많다. 또한 4세기대 목곽묘에서 고식의 종장판주와 경갑, 원판비, 철촉(작두형)이 출토되는 점에서 이 시기 신라의 군사적 기능으로서 그 중요성이 인지된다.

한편 5세기에 이르르게 되면, 앞 시기(4세기대)의 강력한 군사적 기능이 점차 사라진다. 더욱이 신라 지방의 타 지역과 비교할 만큼의 고층 축조, 부장된 유물의 화려함 등의 특성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라의 지방 정치체 중에서도 위계가 낮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신라의 영역 확장이 확대되면서 가

대련리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30) 慶州文化財研究所(1993), 『南彌秩夫城 地表調査 報告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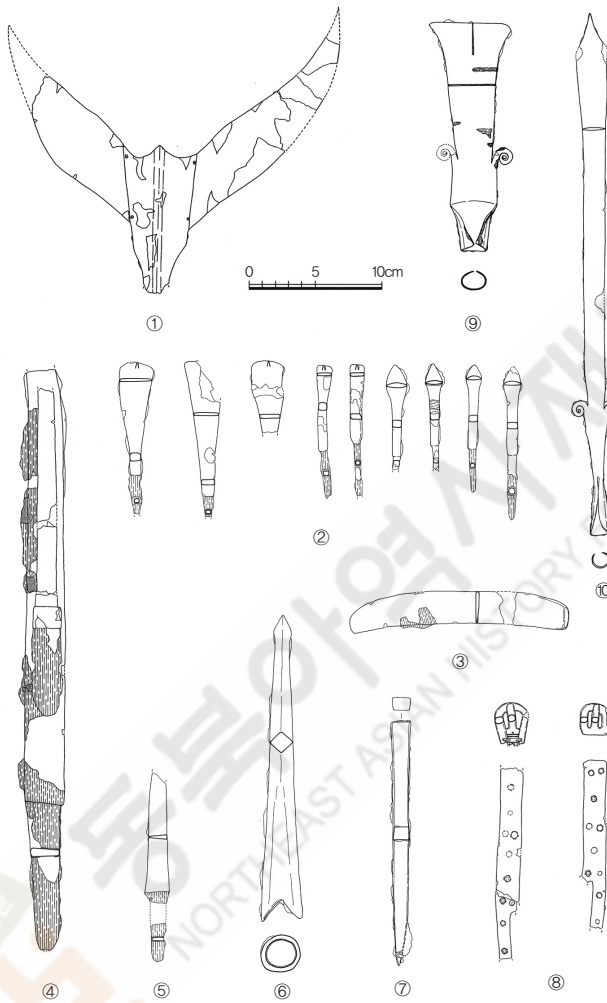


그림 13_ 포항 옥성리고분군 출토 철기류
 (①~⑧ 옥성리 50호, ⑨~⑩ 나122호)

야세력과 대치하는 낙동강을 경계로 군사적 전선이 이동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신라 수도 방어의 최전선인 만큼 그 기능이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은 듯하다.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포항 옥성리 50호 적석목곽묘 출토 철제 무

기류를 들 수 있다. 옥성리 50호 적석목곽묘는 5세기 전반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출토된 철기는 관식을 비롯하여 대도(모자대도), 철모, 철촉, 성시구, 철정, 철착, 철검 등이다. 이 가운데 철제 관식과 대도(모자대도), 철촉(광형계 작두형)은 위세적 성격이 강하다. 관식, 철촉(광형계 작두형)은 신라의 중앙과 지방의 주요 수장급묘에서 확인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옥성리 50호 적석목곽묘의 피장자는 이 시기 흥해지역의 유력 세력 혹은 신라에서 파견된 관료일 가능성이 높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포항 옥성리고분군 축조 집단은 2~3세기에 흥해지역의 중심세력이었으나, 3세기 후엽부터 4세기까지 신라세력의 영향으로 편제되면서 그 위계가 약화되었다. 하지만 4세기대에는 신라의 영토 확장을 위한 군사적인 요충지로 인지되었다. 그러다가 5세기 이후 신라의 영역 확장이 가야세력과 대치하는 낙동강 전선으로 이동하면서 신라의 주요 교통로 성격을 가진 하나의 변방으로 전략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② 울산 중산리고분군의 군사·지리적 특성과 출토 무기류 검토

경주분지와 가장 가까운 동해 해안가 지역은 감포읍 일대이지만 경주분지에 형성된 태백산맥의 지리적 특성으로 이 지역을 통한 공략은 쉬운 전술이 아닐 것이다. 울산만 일대는 경주지역과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동해에 위치하고 있어, 바다를 통해 신라를 침략하는 왜가 대규모 군사를 진입시킬 수 있는 곳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기록된 수많은 왜와의 전쟁 기사를 보더라도 신라에 해안가 방어의 중요한 문제였다. 울산만 지역이 방어의 중추를 담당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삼국사기』의 기록(402년)을 보면 신라가 5세기 초에 왜에 인질로 보낸 왕자 미사흔(末斯欣)을 박제상(朴堤上)이 구출한 사건이 나오는데, 박제상이 왕자와 함께 돌아왔던 곳이 울산만으로 추정되고 있다.³¹⁾

울산만 지역의 고분군 분포를 살펴보면 울산만에서 경주 방향으로 조금 들

어간 지역에 울산 중산리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고분군을 축조한 집단이 이 일대의 군사적 방어체계를 총괄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후의 시기에 축조된 것이지만 중산리고분군 인근에는 관문성이 있고, 동쪽으로 울산 신대리 산성을 거쳐 해안가로 가면 울산 정자동고분군이 있는 곳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여러 지리적 상황으로 보았을 때, 해안가로 침입하는 왜를 방어하는 최적의 군사적 요충지라 할 수 있겠다.

울산 중산리고분군에서 출토된 무기류의 특성은 포항 옥성리고분군과 유사하다. 2~3세기에 울산지역의 중심세력으로 존재하였으나 3세기 후엽~4세기 까지 신라세력의 영향으로 편제되면서 위계가 약화되는 점, 신라 지방의 타 지역과 비교할 만큼 부장된 무기류에 위세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신라의 해안가 방어의 군사·지리적 중요성 등이 그러하다. 그리고 포항 옥성리고분군 축조 집단이 북쪽 해안 방어의 중심축을 이루었다면 울산 중산리고분군 축조 집단은 남쪽 해안 방어의 중요한 군사적 역할을 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3) 신라 중앙과 원거리에 위치한 동해안 지역 고분 출토 무기의 특성

(1) 대외 진출 혹은 대외 방어를 위한 군사적 거점지역

영남지방 각 지역의 소국은 4~5세기 신라의 영역 확장 과정에서 신라 중앙세력에 복속 혹은 합병되고 소국의 중심이던 곳은 신라의 간접 지배 형태에서 지방의 거점지역이 된다. 그리고 군사적 거점지역은 신라의 영역 확대 과정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할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5~6세기에 가야와 경계를 이루는 대구, 창녕, 양산 지역과 백제 혹은 한강유역으로 진출하기 위

31) 朱甫噉(2002), 「辰·弁韓의 成立과 展開」, 『진·변한사 연구』, 경상북도·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한 의성지역 등에 고층의 축조와 더불어 화려한 위세품이 부장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강릉지역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고구려의 침입을 방어하거나 고구려 지역으로 진출하는 중요한 거점지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울진지역은 신라의 경주지역에서 강릉으로 가기 위한 주요 교통로이자 군사·지리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었다. 그렇지만 발굴 조사가 극히 적기 때문에 당시 울진지역의 양상을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먼저 강릉지역의 고분문화를 검토한 후, 울진지역의 문화를 신라의 영역 확대 양상 내에서 일부나마 추정해 보고자 한다.

① 강릉 초당동고분군의 군사·지리적 특성과 출토 무기류 검토

초당동고분군은 강릉지역 북동쪽의 경포호와 동해가 인접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삼국시대 당시의 강릉지역은 영동지방 교통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신라의 접경지대로 영토 확장을 위해 잦은 전쟁이 벌어진 곳이기도 하다. 신라의 입장에서 볼 때, 고구려에 대한 군사적 방어 혹은 진출을 위한 요충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초당동고분군을 중심으로 북쪽 해안에는 주문리고분군과 영진리고분군이, 남쪽 인근 해안에는 병산동고분군과 하시동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삼국시대 강릉지역 고분군 축조 집단의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강릉지역의 삼국시대 고분으로는 영진리·초당동·병산동·하시동고분군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 고분군은 대개 이 지역이 신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조성되었다. 이 가운데 초당동고분군에서는 금동관, 금동제 과대, 환두대도, 철모(반부철모), 철촉(광형계 착두형) 등 당시 강릉지역 유력세력의 위세품 또는 위세적 성격의 무기류가 많이 출토되었다. 이로 미루어 이 고분군 축조 집단은 이 지

역의 중심 집단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강릉지역 신라화 과정의 주된 논의 대상은 신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분묘의 축조 시기, 피장자들의 성격 등인 듯하다. 이러한 구체적 쟁점의 논의는 후일을 기약하고 여기에서는 강릉지역의 삼국시대 고분군, 특히 이 지역의 가장 중심 집단이 축조했다고 할 수 있는 초당동고분군에서 출토된 철기의 양상을 검토하겠다.

초당동고분군에는 신라 지방의 주요 거점지역에서 확인되는 고총이 조성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은 초당동 A-1호,³²⁾ 123-3번지 C-1호,³³⁾ 84-2번지 석곽묘 1호 등이다. 이들 대형분에서는 관식(조익형, 호점형), 금동제 용문투조대금구, 장식대도(모자형), 철모(반부철모), 철촉(광형계 착두형) 등 위세품 또는 위세적 성격의 무기류가 출토되었다. 또한 고총이 아닌 중소형의 초당동 B-14호에서는 금동관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초당동고분군의 주요 고총 중 하나인 초당동 A-1호에서는 관식(호점형), 대금구, 이식, 장식도자, 철모, 철촉, 등자, 행엽 등이 출토되었다. 이를 통해 신라 권역 내에서 초당동고분군 축조 집단의 위계를 일부나마 추정할 수 있다. 이 무덤에서 출토된 금동관, 관식, 대금구, 이식 등은 신라의 위세품 분여와 간접 지배를 추정하는 고고자료로 잘 알려져 있다. 이뿐만 아니라 위세적 성격을 가진 무기류인 철모(반부), 철촉(광형계 착두형)도 출토되었다. 반부철모와 착두형철촉이 고구려에서 도입한 신라의 위세적 성격의 무기류임은 앞서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위세적 성격의 무기는 황남대총을 비롯한 경주지역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며 지방에서는 군사적 주요 거점지역에서만 확인된다. 다시 말해, 초당동고분군 축조집단은 고총의 축조와 출토된 철기의 조합상을 보더라도

32) 江原文化財研究所(2007), 『江陵 草堂洞 遺蹟』 III.

33) 강릉대학교박물관(1996), 『강릉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그림 14_ 강릉 초당동고분군 출토 철기류(초당동 A-1호 출토 철기류)

도 신라 지방의 주요 거점지역인 경산, 대구, 창녕, 양산, 의성, 구미 지역 등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초당동 A-1호에서 출토된 일괄유물을 종합적으로 보면 황남대총 북분 단계인 5세기 중후엽이고, 이 시기에 이 지역이 적어도 신라의 간접 지배의 거점지역으로 존속하였다고 판단된다.³⁴⁾ 그리고 이 지역은 신라가 고구

려에 대한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고구려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는 신라의 군사적 거점지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② 강릉지역 고분군 축조 집단을 통해 본 영덕과 울진 지역

강릉지역에 5세기 중엽 이후 신라계 철제 무기류가 이입되는 양상으로 보아, 경주와 강릉 사이에 위치한 영덕과 울진 지역은 이 시기를 전후해서 신라 영역으로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영덕과 울진 지역에 위치한 삼국 시대의 고분군은 다수 알려져 있으나 극히 일부분만 발굴 조사되어 그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북방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거점지역이므로 당시의 문화에 다소 접근할 수 있는 강릉지역과 비교한다면 이 지역들의 성격을 일부나마 추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영덕지역에서는 영덕읍 내에 위치한 덕곡리고분군³⁵⁾과 북쪽 동해안에 위치한 괴시리고분군이 일부 조사되었다. 덕곡리고분군의 자료는 삼국시대 초기에 한정되고 있어 정확한 양상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괴시리고분군에 다수의 고층이 조성된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 영덕지역의 거점지역은 영덕 괴시리고분군이 위치한 곳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괴시리고분군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의 해안가를 따라 창포리고분군, 화전리고분군, 영리고분군, 금음리고분군, 거일리고분군 등 중소형 고분군이 있다(그림 15 참조). 괴시리고분군은 고고자료가 제한적이지만 발굴 조사된 괴시리 16호분³⁶⁾의 출토품을 보았을 때

34) 초당동고분군에서 발굴 조사된 분묘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라의 영향은 4세기 후엽에서 5세기 전엽으로 소급될 수 있으나 그 영향이 간접지배의 형태인지는 알 수 없다.

35)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2005b), 『盈德 德谷里遺蹟』.

36) 國立慶州博物館(1999), 『盈德 槐市里 16號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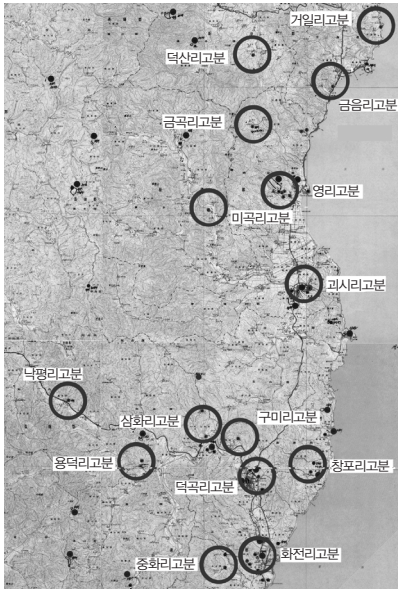


그림 15_ 영덕지역 삼국시대 고분군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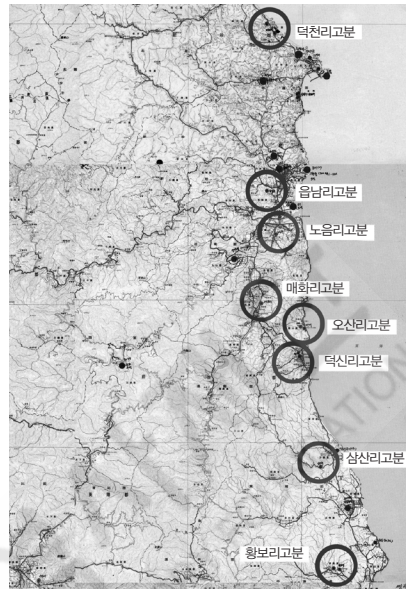


그림 16_ 울진지역 삼국시대 고분군의 분포

5세기 중엽에 신라의 영향권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강릉 초당동고분군과 비교해 볼 때, 다수의 고층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위계가 어느 정도 높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강릉 초당동고분군 역시 5세기 중엽에 신라의 영향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신라 영역 확대 과정에서의 군사적 역할은 다소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울진지역은 영덕지역과 마찬가지로 발굴 조사된 울진 덕신리고분군³⁷⁾을 빼면 고고자료가 극히 제한적이다. 울진 덕신리고분군에서는 위세적 성격을 가진 철기류가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울진 음남리고분군은 거의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고층으로 보이는 분묘들이 다수 확인되기 때

37) 안동대학교박물관(2004), 『울진 덕신리유적』.

문에 이 지역의 중심 집단이 축조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울진지역 역시 영덕 지역과 마찬가지로 읍남리고분군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의 해안가를 따라 덕천리고분군, 노음리고분군, 매화리고분군, 오산리고분군, 덕신리고분군 등이 있다(그림 16 참조). 읍남리고분군의 성격은 앞서 설명한 영덕 괴시리고분군과 같은 맥락일 가능성이 크다.

2. 동해안 지역의 군사적 성격과 역할

영남지방 철기 문화의 변천 과정을 볼 때, 신라는 3세기 후엽부터 나름의 무기체계를 갖추게 된다. 구체적으로 3세기 후엽~4세기 전엽에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궤수형 철모는 경주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그 인근 지역인 포항, 영덕, 경산, 울산, 밀양, 부산 지역에서는 소수의 예만 확인되고 있다. 당시 이들 지역이 신라의 영향권에 속하였는지, 연맹의 형태로 대등적 관계였는지 등의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궤수형 철모라는 동질적 문화를 공유하였다는 점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4세기 중엽에 이르러 신라는 고구려 무기체계를 받아들여 나름의 무기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위세적 성격이 강한 무기류에서 그 특징이 확인되는데, 환두대도(용봉문, 삼루문, 삼엽문), 철모(반부, 가지형), 철촉(삼익형, 착두형) 등이 신라 중앙과 지방 주요 지역의 수장급묘에서 확인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해안 지역에는 다수의 고분군이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다. 그 규모는 중소형부터 대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들 고분군에서 출토된 철기 혹은 철제 무기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크게 세 가지의 군사적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신라의 중앙인 경주지역에 인접한 동해 해안가에 위치하는 소규모 고분군 축조 집단으로 어로 혹은 농경생활을 하면서 적의 침입이 있을 때 군사적 정보 네트워크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경주지역의 동쪽에 위치한 경주 봉길리고분군, 포항 강사리고분군과 대보리고분군, 양남 하서리고분군 등이 있다. 특히 경주 봉길리고분군에서는 위세적 성격이 강한 철축(삼익형, 착두형), 대도, 철모 등이 확인된 점, 경주에서 가장 가까운 점 등으로 보아 이 지역은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경주분지가 태백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 적의 침입이 쉽지 않은 경로이다. 따라서 봉길리고분군 축조 집단은 포항·울산과 같은 지역에 비해 군사적 역할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 외 지역은 고분군에서 출토된 철기들의 주류가 단조철부나 철검이고 무기류가 제한적으로 출토되므로 군사적 기능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일만 지역은 5~6세기 신라와 왜의 잦은 전쟁으로 해안가의 치안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포항 용흥동 신라묘에서 금동제 대관, 금동제 삼엽문환두대도 등이 세트로 출토된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5세기 후엽에서 6세기 전엽으로 비정되는 용흥동 신라묘에서 출토된 금동제 삼엽문환두대도는 신라가 대가야를 공략하는 주요 군사적 거점지역의 수장급묘에서만 확인되는 것이다. 위계성이 높은 유물이 부장되었다는 것은 이 지역이 당시 왜의 잦은 침략, 고구려의 침입으로부터 해안가 방어에 중요한 군사적 역할을 담당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해준다.

둘째, 경주지역과 인접한 동해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 신라의 수도를 방어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곳이다. 대표적인 곳은 포항과 울산 지역이다. 이들 지역의 군사·지리적 특성을 보면, 포항(홍해)지역의 중심 고분인 옥성리고분군이 위치하는 곳은 고구려 혹은 북방지역의 침입을 방어할 때 최후 전선

의 역할을 한다. 또한 울산 중산리고분군이 있는 곳은 인근에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관문성이 위치할 정도로 교통의 요지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왜가 해안가로 침입할 때 군사적 이동이 가장 용이한 곳의 하나인 울산만으로 이어지는 루트, 동쪽으로 신대리 산성을 경유하여 울산 정자지역으로 가는 루트 등 지리적 요건으로 보았을 때 신라의 동해안 남쪽 방어에서 핵심적인 지역이라 볼 수 있다.

포항 옥성리고분군과 울산 중산리고분군 출토 철기의 양상을 보면 전반적으로 유사한 면이 있다. 원삼국시대 목곽묘에서 출토되는 철검, 철모(관부돌출형 철모의 다수 부장), 철촉 등 무기류 조합을 보면 각각 포항과 울산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4세기 전엽에 출현하는 경주지역 중심의 꺾수형 철기의 부장이 확인되고, 5세기대에는 관식을 비롯한 위세품과 위세적 성격을 가진 철촉(광형계 철촉)의 부장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5세기대에 영남지방의 타 거점지역과 비교할 때 위세품과 위세적 성격의 무기류는 상대적으로 격이 떨어진다.

즉 이 지역들은 원삼국시대부터 이른바 와질토기 문화로 불리는 진·변한의 공통적 문화를 공유하면서 경주지역과 대등적 관계를 유지하다가 신라의 국가 형성 과정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경주지역 중심으로 재편되어 신라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신라의 영역 확대가 가속화되면서 가야와 백제가 경계를 이루고 고총의 축조와 위세품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주요 거점지역이 두각을 나타낸다. 이는 신라의 정치문화에서 간접 지배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포항 옥성리와 울산 중산리 지역에서는 지방의 타 지역과 달리 고총의 축조와 위세품이 잘 확인되지 않는다. 이것은 이들 지역이 경주 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수도 방위에 중요한 곳이어서 신라 중앙세력의 직접 지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셋째, 경주지역에서 원거리인 동해 해안가에 위치한 곳으로, 신라의 영역 확대가 가속화되면서 대외 진출 혹은 대외 방어를 위한 군사적 거점지역들이 출현한다. 이들 군사적 거점지역은 신라의 영역 확대 과정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할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경주 북쪽의 동해안에 위치한 주요 거점 지역으로는 영덕 괴시리, 울진 읍남리, 동해 추암동, 강릉 초당동 지역이 있다. 그런데 강릉지역을 제외하고 영덕, 울진, 동해의 고분 자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신라의 동해안 진출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강릉 초당동고분군에 고총의 축조와 더불어 화려한 위세품이 부장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이 지역은 신라의 간접 지배 형태와 고구려와의 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유효한 곳이라 할 수 있다.

앞의 장에서 검토하였듯이 강릉 초당동고분군에서는 다수의 철제 무기류가 분묘에 부장되고, 특히 위세적 성격이 강한 장식소도, 철모(반부철모), 철촉(작두형)이 고총에서 출토되고 있다. 더욱이 위세품인 금동관, 관식, 대금구 등도 출토되고 있어 위계가 가야와 백제의 경계에 있는 창녕, 양산, 의성 지역과 유사하다. 이와 같은 군사적인 맥락으로 보면 강릉 초당동고분군의 축조 집단은 고구려에 대한 군사적 방어 혹은 고구려 지역으로의 진출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IV. 맺음말

삼국시대 신라가 고대국가로 성립하는 데 사용된 무기체계의 이해는 당시의 사회를 아는 데 중요하다. 기왕의 연구에서 신라의 영역 확장을 논의할 때 다양한 고고자료가 이용되었지만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논의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었다. 신라의 수도인 경주지역은 동해안에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해안가에 위치한 주요 지역은 수도 방위와 대외 진출을 위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이 글은 신라의 동해안 지역 진출을 검토하면서 고분에서 출토된 철제 무기를 중심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신라의 영역 확장과 각 지역의 군사적 역할을 추정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연구가 미미하였던 영남지방 철제 무기의 변천을 통한 신라의 무기체계 성립을 살펴보고, 이후 그 무기체계를 토대로 동해안 각 지역의 고분군에서 출토된 철기를 검토함으로써 신라 세력의 동해안 진출을 논의하였다. 더불어 동해안의 각 지역이 신라에 복속 혹은 합병된 후 신라 내에서 어떠한 군사적 역할을 담당하였는지도 추정해 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해안에는 여러 삼국시대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고, 『삼국사기』에 기록된 왜와의 잦은 전쟁, 고구려와의 대외전쟁 기사에서 보듯이 신라의 중앙세력은 동해안에 위치한 집단과의 긴밀한 군사체계가 필요하였을 것이다. 앞서 동해안 각 지역의 고분군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실생활에 사용되는 철부·철검이 주류를 이루면서 무기류가 제한적인 소규모 집단의 지역, 해안가로 침입하는 적으로부터 수도를 방위하는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지역, 영역 확장과 대외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중요해진 지방의 군사적 거점지역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동해안 각 지역에 축조된 고분군의 양상과 출토된 철제 무기류 등을 군사·지리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여러 형태의 군사적 역할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군사적 기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함을 알 수 있었다.

• 참고문헌

〈보고서〉

- 강릉대학교박물관(1996), 『강릉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江原文化財研究所(2007), 『江陵 草堂洞 遺蹟』 III.
-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2002), 『浦項玉城里古墳群』.
-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2005), 『浦項 馬山里古墳群』.
-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2005), 『慶州 奉吉里古墳群』.
-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2005), 『盈德 德谷里遺蹟』.
-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2007), 『浦項 江沙里古墳群』.
-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2008), 『大邱 月城洞 777-2番地 遺蹟(II)』.
-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2009), 『浦項 大甫里遺蹟』.
- 慶州文化財研究所(1993), 『南彌秩夫城 地表調査 報告書』.
- 國立慶州博物館(1999), 『盈德 槐市里 16號墳』.
- 國立慶州博物館(2000), 『浦項玉城里古墳群-가지구』.
- 國立慶州博物館(2007), 『浦項 龍興洞 新羅墓』 學術調查報告 第20冊.
- 金吉雄 외(2004), 『陽南 下西里遺蹟』,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 釜山大學校 博物館(1997), 『蔚山下岱遺蹟-古墳 1』.
- 안동대학교박물관(2004), 『울진 덕신리유적』.
- 嶺南文化財研究院(1998), 『浦項玉城里古墳群-나지구』.
- 울산대학교박물관(2000), 『경주 봉길리고분군』 I, 울산대학교박물관 학술연구총서 제3집.
- 울산대학교박물관(2001), 『울산조일리고분군』 I.
- 昌原大學校博物館(1998), 『蔚山 日山洞古墳群』.
- 浦項市·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2002), 『浦項鶴川里遺蹟發掘調查報告書』 I~III.

〈논문〉

- 高田貫太(2005), 「日本列島 5, 6世紀 韓半島系 遺物로 본 韓日交涉」, 慶北大學校大

- 學院 博士學位論文.
- 權五榮(1998), 「『三國志』 弁·辰韓 기사와 고고자료의 비교검토」, 『弁·辰韓의 世界』, 제2회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 학술발표대회 요지.
- 金度憲(2002), 「三韓時期 鑄造鐵斧의 流通樣相에 대한 檢討」, 『嶺南考古學報』 第31號.
- 金度憲(2004), 「고대의 관상철부에 대한 검토-영남지역 분묘출토품을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 53, 韓國考古學會.
- 金榮珉(2004), 「三韓後期 辰韓勢力的 成長過程研究」, 『新羅文化』 第23輯, 東國大學 校新羅文化研究所.
- 박수영(2009), 「江陵 草堂洞 三國時代 遺構와 遺物에 대한 小考」, 『강릉 초당동 유적』,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박진일(2007), 「점토대토기, 그리고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 『한국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 한국청동기학회.
- 申東昭(2008), 「嶺南地方 原三國時代 鐵斧와 鐵矛의 分布定型 研究」, 慶北大學校 文學碩士學位論文.
- 禹炳喆(2005), 「南韓出土 釜部多角形 鐵銚에 대한 一考察」, 『嶺南文化財研究』 18, 嶺南文化財研究院.
- 禹炳喆(2006), 「新羅 및 加耶式 鐵鏃의 成立과 擴散」, 『韓國考古學報』 58, 韓國考古學會.
- 禹炳喆(2008), 「鐵鏃과 鐵銚로 본 新羅, 加耶 그리고 倭」, 『嶺南考古學』 第47號, 嶺南考古學會.
- 禹炳喆·金玟澈(2009), 「꺾수형철기를 통해 본 진·변한정치체의 상호작용」, 『韓國上古史學報』 第65號, 韓國上古史學會.
- 禹在柄(1998), 「國家形成期武器의 武裝」, 大阪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尹相憲(2007), 「V. 考察」, 『浦項 龍興洞 新羅墓』 學術調查報告 第20冊.
- 李健茂(1990), 「夫餘 合松里遺蹟 出土 一括遺物」, 『考古學誌』 第2輯.
- 李南珪(1993), 「1~3세기 낙랑지역의 금속기문화-鐵器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論叢』 5, 韓國古代社會研究所.
- 李盛周·姜善旭(2009), 「草堂洞遺蹟에서 본 江陵地域의 新羅化 過程」, 『강릉 초당동 유적』.
- 李盛周·金炫希(2000), 「蔚山 茶雲洞·中山里遺蹟의 木棺墓와 木槨墓」, 『三韓의 마

- 을과 무덤』, 第9回 嶺南考古學會 學術發表會 要旨, 嶺南考古學會.
- 李在賢(2003), 「弁·辰韓社會의 考古學的 研究」, 부산대학교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 李清圭(2007), 「石劍, 銅劍, 그리고 鐵劍」, 『石心鄭永和教授 停年退任記念 天馬考古學論叢』, 석심정영화교수 정년퇴임논총 간행위원회.
- 李熙濬(1996), 「신라의 성립과 성장과정에 대한 고찰」, 『신라고고학의 제문제』, 한국고고학회.
- 李熙濬(1998), 「4~5세기 新羅의 考古學的 研究」, 서울대학교 文學博士學位論文.
- 조성운(2006), 「慶州 隍城洞 原三國時代 墳墓 出土 鍛造鐵斧에 대하여, 新羅形成의 秘密-慶州 隍城洞遺蹟의 最近 研究成果」, 『第5回 古墳研究會 學術세미나』, 古墳研究會.
- 朱甫噉(1998), 「朴堤上과 5세기 초 新羅의 政治 動向」, 『慶北史學』 21.
- 朱甫噉(2002), 「辰·弁韓의 成立과 展開」, 『진·변한사 연구』, 경상북도·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崔鐘來(2007), 「江陵 草堂洞古墳群의 築造集團에 대하여」, 『嶺南考古學』 第42號, 嶺南考古學會.

4~6세기 신라의 동해안 지역 진출과 지방 지배방식

서울대학교 홍승우

- I. 머리말
- II. 신라의 동해안 지역 진출 시기와 과정
- III. 6세기 신라 지방 지배방식의 변화
- IV. 맺음말

4~6세기 신라의 동해안 지역 진출과 지방 지배방식

서울대학교 홍승우

I. 머리말

신라는 국가 형성 초기부터 동해안 지역과 깊은 관련을 맺어 왔다. 신라 건국의 중심세력인 6부(部)는 경주분지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¹⁾ 석탈해(昔脫解) 설화에서 보듯이 울산(蔚山)·감포(甘浦) 방향의 해양세력과 이른 시기부터 교류하였고, 그들은 신라의 핵심 지배층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중앙인 경주(慶州)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포항(浦項)지역 역시 이른 시기부터 신라의 영향력 하에 들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²⁾ 아울러 6세기 신라의 팽창기에 이뤄진 지방관의 설치도 동해안 지역부터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영남 동해안 지역은 지리적 여건상 경주에서 기원한 신라와 깊은

1) 全德在(1996), 『新羅六部階體制研究』, 一潮閣, 26쪽.

2) 울산과 포항 방향을 모두 신라 6부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김재홍(1996), 「신라[사료국]의 형성과 발전」, 『역사와 현실』 21, 109~111쪽. 하지만 이 역시 3세기 후반 이후 신라 6부의 성립 과정에서 6부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으로, 동해안 방면으로의 진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글의 논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관계를 맺어왔던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삼국사기(三國史記)』와 같은 문헌 사료에는 이 지역이 언제, 어떻게 신라의 영역으로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거나, 그 기년에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다. 따라서 경상도 동해안 지역에 대한 신라의 진출과 그 지배방식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1980년대 말부터 포항과 울진 등의 지역에서 6세기 신라 금석문들이 발견되기 시작하였다. 1988년에 경상도 북쪽 울진지역에서 ‘울진봉평신라비(蔚珍鳳坪新羅碑)’(이하 ‘봉평비’라 칭함)가 우연히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1989년에 영일(당시 경북 영일군, 현 행정구역은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영일냉수리신라비(迎日冷水里新羅碑)’(이하 ‘냉수비’라 칭함)가 발견되었다. 2009년 5월에는 현전하는 최고(最古)의 신라 석각비문 자료인 ‘포항중성리신라비(浦項中城里新羅碑)’(이하 ‘중성리비’로 칭함)가 발견되어 커다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 비석들은 모두 신라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현지에 세운 것들로, 신라 중앙 정부와 비석이 세워진 지역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들이다. 이 비석들의 비문들로 인해 경상도 동해안 지역에서의 신라 진출 시기 및 방식, 그리고 신라 영역으로의 편제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실마리가 잡혔다고 하겠다.

또 1999년 경남 함안지역의 성산산성(城山山城)에서는 다수의 6세기 중반 신라시대 목간(木簡)이 출토되었다. 이 목간들은 신라의 부세 수취와 관련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당시 신라의 지방 지배방식 면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문헌 자료의 영성함으로 인해 자세한 모습을 알 수 없었던 신라의 주변지역으로의 확대와 지배방식의 추이에 대한 고찰이 새로운 문자 자료들의 발견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신라의 경상도 동해안 지역 진출과 이 지역에 대한 지배방식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지역적으로는 당시 금석문 자료가 남아 있어,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포항·울진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이 글은 영남지역에 한정하여 서술할 것이므로, 시기적으로는 6세기
까지만을 다룰 것이다. 7세기에도 동해안 지역을 둘러싸고 고구려와 다툼을
벌이기는 하지만, 영남의 동해안 지방은 계속 신라의 영토였다고 봐도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 시기는 사료만 가지고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힘들어, 고고학
연구성과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면이 있다. 하지만 고고학적인 고찰은 다
른 글들에서 다루어질 것이므로, 이 글은 문헌 사료와 금석문 명문자료를 중
심으로 서술하고, 고고학 연구성과는 언급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

이 글의 주제는 한정된 자료로 그간 논의가 많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새로
운 금석문 자료가 발견되었지만, 아직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치지 않았기 때
문에, 당장 새로운 단계의 논의로 진전되기는 힘들다. 이에 이 글도 기존의 연
구들을 정리하면서 필자의 견해를 첨가하는 정도일 것이다.

II. 신라의 동해안 지역 진출 시기와 과정

1. 포항 방면으로의 진출

신라는 경주분지 일대에서 6부를 중심 정치세력으로 하여, 사로국(斯盧國)이
라는 이름으로 성립하였다고 일반적으로 이해된다. 물론 그 건국신화를 통해
볼 때, 사로(斯盧) 6부가 경주지역 토착세력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외부에서 이주해온 세력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상정된다. 하지만 이주 세
력의 출신 지역을 사로국의 영역으로 포괄했다고 보기는 힘들고, 경주분지 일

대만 초기 신라(사로국)의 범위라고 하겠다.

신라는 성장하면서 점차 주변부로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처음의 확장 방향은 동남쪽이었던 것 같다. 먼저 다음의 문헌 사료가 주목된다.

A-1. 居道는 가계와 성씨가 전하지 않아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 脫解尼師今대에 벼슬하여干이 되었다. 그 때 于尸山國과 居柒山國이 국경의 이웃에 끼어 있어서 자못 나라의 걱정거리가 되었는데, 거도가 변경의 지방관이 되어 그곳을 병합할 생각을 품었다. 매년 한 번씩 여러 말들을 張吐 들판에 모아놓고 군사들로 하여금 말을 타고 달리면서 유희 놀이를 하게 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이 놀이를 馬技라 불렀다. 두 나라 사람들이 자주 보아 왔으므로 신라의 평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여 괴이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에 병마를 출동하여 불의에 쳐들어가 두 나라를 멸하였다.³⁾

2. (신라 良州) 臨關郡은 본래 毛火郡이었다. …… 破婁王 재위시에 屈阿火村을 빼앗아 縣을 설치하였다.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의 蔚州이다.⁴⁾

A-1에 보이는 우시산국(于尸山國)은 지금의 울산(蔚山)에, 거칠산국(居柒山國)은 동래(東萊)에 비정되는데,⁵⁾ 『삼국사기』에서 신라가 주변의 구체적인 ‘국(國)’을

3) 『三國史記』 卷44, 列傳4, 居道傳, “居道 失其族姓 不知何所人也 仕脫解尼師今爲干 時于尸山國 居柒山國 介居鄰境 頗爲國患 居道爲邊官 潛懷并吞之志 每年一度 集羣馬於張吐之野 使兵士騎之 馳走以爲戲樂 時人稱爲馬技 兩國人 習見之 以爲新羅常事 不以爲怪 於是起兵馬 擊其不意 以滅二國.”

4) 『三國史記』 卷34, 雜志3, 地理1, 新羅 良州條, “臨關郡 本毛火[一作蚊化]郡 …… 婁婁王時 取屈阿火村 置縣 景德王改名 今蔚州.”

5) 李丙燾(1977), 『國譯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645쪽. 한편 신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었다는 기사의 내용으로 보아 거칠산국을 동래가 아닌 울산 방면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李鍾旭(1982), 『新羅國家形成史研究』, 一潮閣, 21쪽.

공격하여 멸망시켰다는 기록은 이 기사가 처음이다. 그 시기는 탈해이사금(脫解尼師今)대(57~80)인데, 초기 기사의 연대를 그대로 취신(取信)할 수 있는냐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⁶⁾ 대체로 신라의 울산·동래 지역으로의 진출이 다른 지역보다 빨랐던 것은 분명하다.⁷⁾ 한편 울산지역으로의 진출은 파사이사금(婆娑尼師今)대(80~112)에 다시 한 번 확인된다(A-2).

이렇게 동남해안 방향으로 진출한 신라는 이어 동북 방향으로의 진출을 도모하였던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파사이사금 23년(102)조의 음즙벌국(音汁伐國)과 실직곡국(悉直谷國) 관련 기사이다.

A-3. (파사이사금) 23년(102) 가을 8월에 音汁伐國과 悉直谷國이 강역을 다투다가, 왕을 찾아와 해결해 주기를 청하였다. 왕이 이를 어렵게 여겨 말하기를 “金官國 首露王은 나이가 많고 지식이 많다”하고, 그를 불러 물었더니 수로가 의논하여 다투던 땅을 음즙벌국에 속하게 하였다. 이에 왕이 6부에 명하여 수로를 위한 연회에 모이게 하였는데, 5부는 모두 이찬으로서 접대 주인을 삼았으나 오직 漢祗部만은 지위가 낮은 사람으로 주관하게 하였다. 수로가 노하여 奴 耽下里에게 명하여 한기부의 우두머리 保齊를 죽이게 하고 돌아갔다. 그 종은 도망하여 음즙벌국의 우두머리 陲鄒干의 집에 의지해 있었다. 왕이 사람을 시켜 그 종을 찾았으나 陲鄒가 보내주지 않으므로, 왕이 노하여 군사

6) 『三國志』 卷30, 魏書30, 東夷傳 韓條, “辰韓在馬韓之東 …… 始有六國 稍分爲十二國 …… 弁辰韓合二十四國 大國四五千家 小國六七百家 總四五萬戶 其十二國 屬辰王 辰王常用馬韓人作之 世世相繼 辰王不得自立爲王.” 이 기사를 볼 때, 3세기 중엽까지 사로국은 진한 12국 중 하나였다고 여겨지면서, 이전 시기 주변 소국 평정 기사에 대한 신빙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한편 고고학적인 검토에서도 울산지역에 신라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치는 시기는 4세기대로 보여 초기 기사의 기년을 그대로 인정하기 힘들다. 이희준(2007), 『신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95~96쪽.

7) 고고학적 양상을 통해 볼 때도 울산·동래·홍해(포항)·영천 등지가 이른 시기에 경주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왔다고 보인다. 이희준(2007), 위의 책, 74~75쪽.

로 음즘벌국을 치니 그 우두머리가 무리와 함께 스스로 항복하였다.
悉直國과 押督國 두 나라의 왕도 와서 항복하였다.⁸⁾

이 사료 역시 신라가 소국들을 정벌하여 복속시켰다는 내용이다. 이때 신라에 복속되었다는 소국은 음즘벌국, 실직국(悉直國), 압독국(押督國)인데, 각각 안강(安康), 삼척(三陟), 경산(慶山)으로 비정된다.⁹⁾ 이 사료에 의하면 2세기 초에 신라는 강원도 삼척까지 영역을 확장한 것이 된다. 하지만 이 기사 역시 『삼국지(三國志)』 「동이전(東夷傳)」에 묘사된 진한(辰韓)의 모습이나, 안강과 삼척 사이의 거리를 고려할 때 강역분쟁의 가능성이 약한 점 등 때문에 그 기년의 신빙성에 의문들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실직국을 삼척이 아니라, 경주 부근의 월성군(月城郡) 천북면(川北面)¹⁰⁾이나 흥해(興海) 등지로 새롭게 비정하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¹¹⁾ 하지만 『삼국사기』 「지리지(地理志)」의 기재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안강, 삼척으로 비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만 안강의 경우는 흥해~포항의 동해안 쪽으로 이어지는 지역과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지역단위로 묶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음즘벌국을 안강에 비정한다고 해서 안강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항지역까지를 포괄하

8)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婆娑尼師今 23年條, “秋八月 音汁伐國與悉直谷國爭疆 詣王請決 王難之 謂金官國首露王 年老多智識 召問之 首露立議 以所爭之地 屬音汁伐國 於是 王命六部 會饗首露王 五部皆以伊滄爲主 唯漢祇部 以位卑者主之 首露怒 命奴耽下里 殺漢祇部主保齊而歸 奴逃依音汁伐主 陁鄒干家 王使人索其奴 陁鄒不送 王怒 以兵伐音汁伐國 其主與衆自降 悉直押督二國王來降。”

9) 李丙燾(1977), 앞의 책, 17쪽. 『三國史記』 卷34, 雜志3, 地理1, 新羅 良州 義昌郡條, “義昌郡 本退火郡 景德王改名 今興海郡 領縣六 …… 音汁火縣 婆娑王時取音汁伐國 置縣 今合屬安康縣”; 『三國史記』 卷35, 雜志4, 地理2, 新羅 朔州 三陟郡條, “三陟郡 本悉直國 婆娑王世來降 智證王六年 梁天監四年 爲州 以異斯夫爲軍主 景德王改名 今因之.”

10) 崔炳云(1982), 「西紀2世紀頃 新羅의 領域擴大」, 『全北史學』 6, 25쪽.

11) 方龍安(1987), 「悉直國에 대한 考察」, 『江原史學』 3, 53~56쪽.

는 범위로 볼 수 있겠다.¹²⁾

이 기사의 기년¹³⁾이나 사건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¹⁴⁾ 동남해안 지역으로 확장한 이후 다시 안강·포항 지역으로 진출해 나간 경향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동해안 포항지역으로의 구체적인 진출 시기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신라의 금석문은 이 지역이 신라에 복속된 절대 연도의 하한을 알려준다. 먼저 널리 알려진 ‘냉수비’를 들 수 있다. 논의의 편 의상 전문을 먼저 제시한다.¹⁵⁾

- B-1. ① 斯羅 喙 斯夫智王 乃智王 此二王 教 用珍而麻村 節居利 爲證尔 令其得財教耳 ② 癸未年 九月 廿五日 沙喙 至都盧葛文王 斯德智阿干支 子宿智居伐干支 喙 尔夫智壹干支 只心智居伐干支 本彼 頭腹智干支 斯彼 暮斯智干支 此七王等 共論教 ③ 用前世二王教 爲證尔 取財物盡 令節居利得之教耳 ④ 別教 節居利 若先死 後令其弟兒斯奴得此財 教耳 ⑤ 別教 未鄒斯申支 此二人 後莫更導此財
2. 若更導者 教其重罪耳 典事人 沙喙 壹夫智奈麻 到盧弗 須仇休 喙 眈須道使 心嘗公 喙 沙夫 那斯利 沙喙 蘇那支 此七人 張踪所白了事 煞牛拔誥 故記

12) 이희준(2007), 앞의 책, 192~194쪽.

13) 강종훈(2000), 『신라상고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17~127쪽에서는 3세기 후반으로 기년을 조정하고 있다. 또 宣石悅(2001), 『新羅國家成立過程研究』, 해안, 130쪽에서는 3세기 말~4세기 중엽 사이의 일로 파악하였다.

14) 읍증별국을 포항지역 해안을 포괄하는 범위로 설정한다고 해도, 삼척과의 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직국의 범위를 동해안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안선을 따라 길게 설정한다면 양자간의 분쟁도 가능할 수 있다. 金球河(1999), 「三國과 南北國時代의 東海岸地方」, 『韓國古代社會와 蔚珍地方』, 蔚珍郡·韓國古代史學會, 74~75쪽.

15) 盧重國(1992), 「迎日 冷水里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I』,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의 판독문, 해석문을 기본으로 약간 수정하였으나, 전체적인 내용에 크게 다른 것이 없으므로 수정 부분을 별도로 표시하지는 않는다.

3. 村主與支干支 須支壹今智 此二人 世中了事 故記

- B-1. ① 사라 韃(부)-사부지왕[실성왕]과 내지왕[눌지왕], 이 두 왕께서 교하셔서 진이마촌의 절거리가 그 '財'를 가진다는 증거로 삼으라 하셨다. ② 계미년(503) 9월 25일에 사韃(부)-지도로-갈문왕·사덕지-야간지·자숙지-거벌간지·韃(부)-이부지-일간지·지심지-거벌간지·본피(부)-두복지-간지·사피(부)-모사지-간지 이상 7왕들이 함께 논의하여 교하하셨다. ③ 앞서 2왕의 교를 증거로 삼아 절거리가 모든 '財'를 가지라고 하셨다. ④ 별도로 교하시기를 만약 절거리가 먼저 죽으면 나중에 그 弟兒인 사노가 이 '財'를 가지라고 하셨다. ⑤ 또 별도로 교하시기를 말추·사신지 두 사람은 이후 다시 이 '財'에 대하여 언급하지 말라고 하셨다.
2. 만약 다시 언급하는 자가 있으면 중죄로 (판결)하겠다고 하셨다. 典事人是 사韃(부)-일부지-나마·도로불·수구후·韃(부)-탐수도사-심자공·韃(부)-사부·나사리·사韃(부)-소나지이다. 이 7명이 삼가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말은 일을) 끝냈다고 아뢴다. 얼룩소를 잡아서 (하늘에) 알렸다. 이에 기록한다.
3. 촌주-유지-간지와 수지-일금지, 이 두 사람이 이 해에 일을 마쳤다. 이에 기록한다.

일반적으로 '냉수비'의 작성연대는 503년(지증왕 4)으로 보고 있다. 비문의 내용은 이 지역¹⁶⁾에서 '재(財)'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그것에 대해 신라 중앙의 6부가 '공론(共論)'하여 결정한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지방의 분쟁에 신라 6부가 간여하고 있는 것으로, 신라가 이 시기에 이 지역 한 개별 촌의 일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진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

16) '냉수비'가 발견된 지역은 현재의 포항시 북구(발견 당시 영일군) 신광면 냉수2리인데, 본래는 東仍音縣이었으며, 景德王대에 神光縣으로 개칭하면서 興海郡의 영현이 되었다. 『三國史記』卷34, 雜志3, 地理1, 新羅 良州 義昌郡條, “義昌郡 本退火郡 景德王改名 今興海郡 領縣六 …… 神光縣 本東仍音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安康과 인접해 있다.

은 비문 첫머리의 내용이다. 이전에 이미 ‘사부지왕(斯夫智王)·내지왕(乃智王)’ 두 왕이 ‘교(敎)’를 내린 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 두 왕은 각각 실성이사금(實聖尼師 今, 402~417)·눌지마립간(訥祗麻立干, 417~458)에 비정되므로, 적어도 5세기 초에 는 이 지역에 신라의 영향력이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발견된 ‘중성리비’에서 이러한 추측은 더욱 뒷받침된다.¹⁷⁾ 이 비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리 167-1번지(현 흥해 중앙교회 앞)에서 발견되었다. ‘냉수비’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이 지역도 비슷한 시기에 신라에 복속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비문은 이 지역에서 어떤 권리나 물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신라 중앙이 이를 해결하고 그 내용을 공표한 것으로 추정된다.¹⁸⁾ 이는 ‘냉수비’와 유사한 것으로, 역시 이 지역에 대한 신라의 진출 시기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하겠다. 일단 논의의 편의를 위해 먼저 ‘중성리비’의 판독문과 해석문을 제시하겠다.

C-1. 辛巳○○○[中]折廬 ……

2. 「喙部-習智-阿干支」 「沙喙-斯使(혹은 德)智-阿干支」 敎 「沙喙-尔

17) ‘중성리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2009a), 『浦項 中城里新羅碑』;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2009b), 『浦項 中城里新羅碑 발견기념 학술심포지엄 발표문』을 참조. 한편 2009년 10월 7~8일 포항정신문화연구원·한국고대사학회 주관으로 개최된 ‘신발견 포항 중성리신라비에 대한 역사학적 고찰’ 학술대회에서 몇몇 연구성과가 발표되었다. 하지만 이 글은 학술대회 이전에 작성되어 연구성과들을 참고하지 못하였음을 밝혀둔다.

18) 선석열(2009), 「포항 중성리신라비의 금석학적 위치」, 『浦項 中城里新羅碑 발견기념 학술심포지엄 발표문』; 권인한(2009), 「포항 중성리신라비의 어문학적 검토」, 위의 책; 이우태(2009), 「포항 중성리신라비의 내용과 건립연대」, 위의 책; 고평의(2009), 「포항 중성리신라비의 서체와 고신라 문자생활」, 위의 책. 이상 발견기념 학술심포지엄 발표문의 모든 글들은 세부적인 사항에선 갈리지만 비문의 내용이나 건립 목적 등에는 동의하고 있다.

抽智-奈麻」 「喙部-本智-奈麻」

3. 本牟子-「喙-沙利夷, 斯利」 白 爭人 「喙-評公-斯弥」 「沙喙-夷須」 「牟旦伐喙-斯利-壹伐」 「皮米智」 「本波喙-柴-干支」 「弗乃-壹伐」 「金評○-干支」 「祭智-壹伐」
4. 使人-「奈蘇毒只道使-喙-念牟智」 「沙喙-鄒須智」
5. 世令于 「居伐-壹斯利」 「蘇豆古利村-仇鄒列支-干支」 「沸竹休-壹金智」 「那音支村-卜岳-干支」 「走斤-壹金知」 「珍伐-壹昔」 云
6. 「豆智-沙干支」 宮 「日夫智」 宮 奪尔 今更還
7. 牟旦伐喙 作民 「沙干支使人-果西牟利」 白口 若後世更導人者 与重罪
8. 「典書-与牟豆」 故記 「沙喙-心刀里」 ○○

C-1. 신사(년) ○월에 ① 절로 ……,

2. ② 휘부-습지-아간지, ③ 사훼-사사(덕?)지-아간지가 ① 사훼-이추지-나마, ② 휘부-본지-나마 (등 2명)에게 교하였다.
3. 본모자인 ① 휘-사리이, ② 사리가 아뢰기를, 쟁인은 ① 휘-평공-사미, ② 사훼-이수, ③ 모단별훼-사리-일벌, ④ 피미지, ⑤ 본파훼-시-간지, ⑥ 불내-일벌, ⑦ 금평○-간지, ⑧ 제지-일벌이다 하였다.
4. 사인인 ① 나소독지도사-훼-염모지, ② 사훼-추수지 (등 2명)가
5. 이 해에 ① 거벌-일사리, ② 소두고리촌-구추열지-간지, ③ 비죽휴-일금지, ④ 나음지촌-복악-간지, ⑤ 주근-일금지, ⑥ 진벌-일석 (등 6명)에게 영을 내려 이르되,
6. ① 두지-사간지의 궁과 ② 일부지의 궁은 빼앗은 것이므로, 다시 돌려주라 하였다.
7. 모단별훼가 민을 일으키자, 사간지의 사인-과서모리가 입으로 이르기 후세에 다시 언급하는 자가 있으면, 중죄(라는 판결)를 줄 것이다 하였다.
8. 전서인은 여모두이며 고로 기록한다. 사훼 심도리 ……(가 세웠다.)

이 판독문과 해석문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도록에 실린 판독문을 기본으로, 같은 책에 실린 비문 사진과 탁본을 참고하여 필자가 다시 해석한 것이다.

비문의 판독이나 해석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현재로서는 기존 연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생략하고, 이 글에서는 신라가 이 지역에 진출한 시기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따라서 비문의 연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이 비문의 건립 시기에 대해서는 441년(訥麻立干 25)설¹⁹⁾과 501년(智證王 2)설²⁰⁾이 제기되고 있다. 501년설의 논거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503년의 ‘냉수비’와 같은 인명이 보이므로 근접한 501년이라는 것이다. 그 인명은 C-2의 첫 번째 인명(②)인데 ‘사휼(沙喙) 사덕지(斯德智) 아간지(阿干支)’로 판독하였고, 이는 ‘냉수비’에도 등장하는 인명(B-1의 ②)이라는 것이다.²¹⁾ 또 C-1의 ‘중절로○(中折盧○)’를 ‘지절로갈(只折盧葛)’로 판독하면서, 비의 첫머리에 교(敎)를 내린 주체 중 하나가 ‘지절로갈문왕(只折盧葛文王)’, 곧 지증왕이라고 보는 것이다.²²⁾

두 번째는 ‘중성리비’의 내용이나 문제 해결의 방식이 ‘냉수비’와 유사하다는 것이다.²³⁾ 또한 서체가 조금 더 오래되기는 했으나 ‘냉수비’와 같이 6세기

19) 노중국(2009), 「금석문·목간 자료를 활용한 한국고대사 연구과제와 몇 가지 재해석」, 『신발견 문자자료와 한국고대사연구(제11회 한국고대사학회 하계 세미나)』, 4쪽 ; 권인한(2009), 앞의 글.

20) 이우태(2009), 앞의 글 ; 고광의(2009), 앞의 글.

21) 이우태(2009), 앞의 글, 84쪽 ; 고광의(2009), 앞의 글, 112쪽.

22) 선석열(2009), 앞의 글, 42쪽에서 ‘折盧’에 대해 ‘至度盧’의 다른 표기일 가능성을 제시하였지만, 발표자 본인이 바로 그 가능성을 부정하였다. 한편 이에 대한 토론에서 李成市가 ‘中’을 ‘只’로 판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지만, 토론문 52쪽에서는 하단에 ‘文王’이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서 역시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따라서 직접 글을 통해 ‘只折盧葛文王’의 존재를 추정하는 것은 아직 없지만, 이후 이러한 판독에 동조하는 경향이 다수 있어 여기에 적시하였다. 또 구체적인 논증은 없지만, 이우태 역시 첫 행의 인물을 지증왕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였다. 이우태(2009), 앞의 글, 84쪽.

23) 분명하게 이러한 내용 때문에 501년이라고 적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비문의 내용이 지역의 재물에 대한 분쟁과 그 해결이며, 신라 중앙이 간여하여 해결방식을 결정

전반 신라 서체의 특징을 보여준다는 점도 들고 있다.²⁴⁾

하지만 이상에서 본 501년설의 근거는 첫 번째로 귀결된다. 즉 서체, 문장, 용어 등이 ‘냉수비’ 이전의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동일인이 등장하므로 503년과 가까운 501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인이 아니라면, 501년설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 ‘沙喙-斯德智-阿干支’에서 ‘德’자는 판독이 불분명하다. ‘使’로 읽힐 여지가 다분히 많다.²⁵⁾ 한편 ‘德’으로 판독한다고 해도 문제가 남는다. ‘냉수비’의 ‘斯德智阿干支’와 ‘斯’자가 서로 다른 형태로 쓰여져 있는 것이다.²⁶⁾ 뿐만 아니라 ‘냉수비’의 ‘喙-尔夫智-壹干支’^(B-1)와 ‘봉평비’의 ‘悉支軍主-喙部-尔夫智-奈麻’^(F-5)의 예처럼 동명이인일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또 다른 인물명인 ‘지절로갈문왕’의 경우는 그 견해를 제기했던 사람들조차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 정도이다.²⁷⁾ 물리적 손상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를 추정할 결과이므로, 이를 통해 연대를 확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겠다. 오히려 C-1의 마지막에 ‘文王’이 들어갈 가능성이 희박한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只折盧葛’로 판독할 수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이 비문은 신라 중앙 차원에서 직접 제작한 것이다. 그런데 불과 2년 차이를 두고 만들어진 비문에서 왕의 이름 표기에 서로 다른 한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 심지어 같은 사궤부(沙喙部) 소속인 ‘阿干支’의 이름 표기는 같은데—‘斯’자의 표기가 다른 점은 있다—, 왕만 다른

하기 때문에 ‘냉수비’와 유사한 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우태(2009), 앞의 글, 84쪽.

24) 고광의(2009), 앞의 글, 109쪽.

25) 권인한(2009), 앞의 글, 61~62쪽. 필자도 ‘使’로 판독한다.

26) 이우태(2009), 앞의 글에 대한 김재홍의 토론문, 90쪽.

27) 이 글의 각주 22) 참조.

표기를 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한 인명만을 가지고 연대를 501년으로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하겠다. 그런데 ‘중성리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냉수비’와 다른 면모를 보여 준다. 가장 먼저 주목되는 것은 ‘部’의 표현이다. 주지하다시피 신라의 부명(部名) 표현이 ‘냉수비’에서는 ‘喙·沙喙·本彼·斯彼’로만 나오고 뒤에 ‘部’가 붙지 않는다. 이에 비해 ‘봉평비’는 ‘喙部·沙喙部·本波部·岑喙部^(F-1)’와 같이 모두 뒤에 ‘部’를 붙이고 있다. 그런데 ‘중성리비’에서는 ‘喙·沙喙·本波喙·牟旦伐喙’와 같이 ‘喙’자로 끝나고 있다.²⁸⁾ 여기에서 ‘喙’는 특정 지역을 뜻하는 신라어를 음차하여 표기한 것으로 보이며, ‘냉수비’에서는 ‘喙’가 탈락하고, 대신 ‘봉평비’에서는 ‘部’자가 붙는 변화 과정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²⁹⁾ 이렇게 ‘부명’의 뒤에 ‘喙’를 붙이는 표기방법을 통해 볼 때, 이 비는 ‘냉수비’ 이전에 건립된 것이 확실하며, 약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일어난 변화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³⁰⁾

또 ‘냉수비’보다 불과 2년 일찍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기에는 한문 구사력과 문장력의 수준차가 너무나 현저하다.³¹⁾ 판독문을 읽고 해석하는 데 커다란 문제가 없었던 ‘냉수비’와 달리, ‘중성리비’는 문장의 주술구조조차 제대로 파악

28) 本波喙의 경우 喙를 뒤에 오는 인명의 첫 글자로 보고, 牟旦伐喙의 경우 牟旦伐을 인명으로 파악하고 喙를 뒤에 오는 사람의 소속 부명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선석열(2009), 앞의 글, 44쪽; 이우태(2009), 앞의 글, 81쪽; 고광의(2009), 앞의 글, 105쪽. 하지만 牟旦伐은 지명을 나타내는 ‘伐’로 끝나므로 지명으로 보아야 하며, 牟旦伐 다음에 일관적으로 喙가 붙어서 나오므로 喙는 지명에 붙어서 ‘部’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9) 권인한(2009), 앞의 글, 71쪽.

30) 만약 牟旦伐喙를 岑喙部(牟喙部)로 본다면 명칭 자체의 변형이 일어나므로, 5세기대에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31) 권인한(2009), 앞의 글, 70쪽.

하지 못할 정도이다.³²⁾ 불과 2년 만에 ‘냉수비’와 같은 단계로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한다.

한 가지 더 들자면 ‘중성리비’에서 신라의 관등체계가 아직 확립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C-3의 ‘本波喙 …… 弗乃-壹伐’처럼 중앙 6부인 이면서 외위(外位)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별이 외위가 아니며, 이 단계에서는 지방민에게 수여되는 외위라는 것이 정립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³³⁾ 또 경위(京位) 8위 관등인 ‘사간지(沙干支)’가 확인되는데, 부명을 관칭하고 있지 않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아직 경위조차 확립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준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중성리비’를 501년에 건립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되며, 441년이나 그 이전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³⁴⁾ 아직 이 비문에 대해 만족할 만한 검토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비문의 건립 연대를 일단은 441년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이렇게 볼 때 441년, 즉 5세기 중반에 신라가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음을 확인해 준다고 하겠다. 그리고 비문에 ‘촌(村)’이 등장하는 것은 분쟁의 소재가 개별 ‘촌’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지방사회의 말단인 개별 촌 단위에 신라 중앙의 세력이 개입하였다는 사실은 신라가 이 지역을 차지하고 일정한 시간이 흘렀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어느 시기에 처음 진출한 것일까. 기사 A-3에서 삼척지역으로 비

32) 심지어 학술심포지엄 발표자들도 모두 끊어 읽거나 해석을 확신하지 못하고 잠정적인 것이라면서, 언제든지 수정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쳤다.

33) 선석열(2009), 앞의 글, 46쪽.

34) 그런데 ‘냉수비’와 ‘봉평비’를 비교해 보면, 20년 정도의 짧은 기간 차이임에도 많은 변화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2년 안에 ‘중성리비’에서 ‘냉수비’로의 변화도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501년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추후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정되는 실직국과 영역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강원도 동해안 지역과 어느 정도 같은 범주로 여겨짐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포항 지역에서 발견된 ‘진솔선예백장(晉奉善穢伯長)’ 동인(銅印)이 주목된다.³⁵⁾ 이는 남해차차웅(南解次次雄) 16년(19)에 ‘북명인(北溟人)³⁶⁾이 밭을 갈다가 예왕인(濊王印)을 얻어 바친³⁷⁾’ 기사의 동인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진(晉)에서 동예(東濊)의 수장에게 사여한 것으로, 이 지역이 동예의 활동범위 안이었거나 교류가 이루어지는 지역에 포함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³⁸⁾

예(濊)의 동향을 보여주는 다음의 기사를 보자.

D-1. 單單大山嶺의 서쪽은 樂浪에 소속되었으며, 嶺의 동쪽 일곱 縣은 (東部)都尉가 통치하는데 그 백성은 모두 濊人이다. 그 뒤 都尉를 폐지하고 그들의 우두머리[渠帥]를 封하여 侯로 삼았다. 오늘날의 不耐濊는 모두 그 종족이다. 漢末에는 다시 (고)구려에 복속되었다. ……
正始 6년(245)에 樂浪太守 劉茂와 帶方太守 弓遵은 (單單大)嶺 동쪽

35) 梅原末治(1967), 「晉奉善穢伯長銅印」, 『考古美術』 8-1; 岡崎敬(1968), 「夫租穢君’銅印をめぐる諸問題」, 『朝鮮學報』 46. 한편 고구려 집안지역에서도 ‘晉高句麗奉善伯長’ 등의 동인이 발견되었다. 林起煥(1992), 「제2부 중국계 금석문-제1장 고구려지역 출토 금석문-2. 印章」,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451~453쪽.

36) 강원도 강릉지방 혹은 함경남도 안변 일대로 비정된다. 李丙燾(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205~206쪽 참조.

37)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南解次次雄 16年條, “春二月 北溟人耕田 得濊王印獻之.” 濊는 한반도 중북부와 함경남도 安邊, 강원도 강릉 일대의 동해안에 있던 나라 혹은 종족 이름으로, 남해차차웅 16년 당시 이 지역은 낙랑군의 東部都尉에 속해 있었다. 따라서 이 기사의 내용은 시기적으로 믿기 어렵다. 또 기사의 내용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 시기는 아마도 이 지역이 신라의 영역으로 편입된 지증왕 혹은 진흥왕대 이후로 생각된다. 鄭求福 外編(1997), 『譯註 三國史記 3 주석편』 상, 韓國精神文化研究院, 33쪽.

38) 『三國志』 卷30, 魏書30, 東夷傳 濊條, “濊南與辰韓 北與高句麗沃沮接 東窮大海 今朝鮮之東皆其地也 戶二萬.”

의 濊가 (고)구려에 복속하자, 군대를 일으켜 정벌하였는데, 不耐侯 등이 고을을 들어 항복하였다.

(正始) 8년(247)에는 (魏나라의) 조정에 와 조공하므로, 不耐濊王으로 봉하였다. (不耐濊王은) 백성들 사이에 섞여 살면서 계절마다 郡에 와서 朝謁하였다. 二郡에 戰役이 있어 租稅를 거둘 일이 있으면, (濊의 백성에게도) 供給케 하고 使役을 시켜 마치 (郡의) 백성처럼 취급하였다.³⁹⁾

영동지방의 동예는 본래 토착사회에서 성립한 정치적 사회의 하나였으나, 일찍이 중국 군현의 통제를 받아왔다. 처음에 동예의 북부지역은 임둔군(臨屯郡)에 속하였지만, 나중에 영동 7현은 낙랑군(樂浪郡) 동부도위(東部都尉)의 관할 하에 있었다. 이후 후한은 낙랑 토착사회 호족 왕조(王調)의 반란을 계기로 동부도위를 폐지하고 동예지방의 거수(渠帥)를 불내예후(不耐濊侯)로 삼아 간접 지배를 하였다.⁴⁰⁾ 후한 말기에 일시적이거나 고구려에 복속된 바 있지만, 위(魏)가 정시(正始) 6년(245)에 정벌하여 다시 중국 군현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 결과 예의 거수는 중국 군현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않았지만, 군사적 동원과 경제적 부담의 의무를 지는 간접 지배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313, 314년에 낙랑, 대방군이 축출되면서 동예는 다시 고구려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들은 일정 정도 자치를 영위하면서 고구려에 복속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⁴¹⁾ 『삼국사기』 초기 기사에서 신라의 북변을 침략하던 말갈(靺鞨)과

39) 『三國志』 卷30, 魏書30, 東夷傳 濊條, “自單單大山領以西 屬樂浪 自領以東七縣 都尉主之 皆以濊爲民 後省都尉 封其渠帥爲侯 今不耐濊皆其種也 漢末更屬句麗 …… 正始六年 樂浪太守劉茂 帶方太守弓遵 以領東濊屬句麗 興師伐之 不耐侯等舉邑降 其八年 詣闕朝貢 詔更拜不耐濊王 居處雜在民間 四時詣郡朝謁 二郡有軍征賦調 供給役使 遇之如民.”

40)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濊條, “建武六年 省都尉官 遂棄領東地 悉封其渠帥爲縣侯, 皆歲時朝貢.”

같은 존재였던 것으로 보인다.⁴²⁾

그런데 다음의 기사들에서 고구려가 신라의 북쪽 변경을 침략하고 있다.

- E-1. (동천왕) 19년(245) 봄 3월에 동해 사람이 미녀를 바치니 왕은 그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겨울 10월에 군사를 내어 신라의 북쪽 변경을 침략하였다.⁴³⁾
2. (조분이사금) 16년(245) 겨울 10월에 고구려가 북쪽 변경에 침입하였으므로, 于老가 군사를 이끌고 나가 쳤으나 이기지 못하고 물러나 馬頭柵을 지키고 있었다. 그 날 밤은 매우 추웠는데, 우로가 사졸을 위로하고 몸소 나무로 불을 지펴 따뜻하게 해주니 모두 마음속으로 감격하였다.⁴⁴⁾

5세기 이전에 고구려가 신라를 침공한 사실을 전하는 것은 이 기사가 유일하다. 그리고 이 해는 사료 D-1에서 보듯이 고구려가 동예를 복속시키고 있었던 때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기사는 고구려가 직접 중앙의 군사를 내어 신라를 침공한 것이라기보다는, 고구려에 복속된 예[말갈]가 신라의 북변을 침략한 것으로 보인다. 예[말갈]가 2세기 전반부터 신라의 북변을 여러 차례 침략한 사실도 확인된다.⁴⁵⁾

41) 金瑛河(1999), 앞의 글, 72~73쪽.

42) 津田左右吉(1964), 「好太王征服地域考」, 『滿鮮歷史地理研究 1』(津田左右吉全集 11), 岩波書店, 47~48쪽.

43) 『三國史記』 卷17, 高句麗本紀5, 東川王 19年條, “春三月 東海人獻美女 王納之後宮 冬十月 出師侵新羅北邊.”

44) 『三國史記』 卷2, 新羅本紀2, 助賁尼師今 16年條, “冬十月 高句麗侵北邊 于老將兵 出擊之 不克 退保馬頭柵 其夜苦寒 于老勞士卒 躬燒柴煖之 羣心感激.”

45)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祇摩尼師今 14年條, “春正月 靺鞨大入北境 殺掠吏民 秋七月 又襲大嶺柵 過於泥河 王移書百濟請救 百濟遣五將軍助之 賊聞而退”;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逸聖尼師今 4年條, “春二月 靺鞨入塞 燒長嶺五柵”; 『三國史記』 卷1,

물론 2세기라는 기년을 그대로 믿기는 힘들지만, 신라가 초기에 예와 인접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포항지역의 경우 진으로부터 인장을 수여받은 거수가 존재하는 별도의 소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예군(滅君)’의 인장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 지역이 바로 동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진으로부터 예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동해안 해안선을 따라 예와 일정한 교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한편 중국 측 사료 역시 3세기 중엽에 신라가 주변 지역을 완전히 아우르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D-2. (後漢의) 桓帝(146~167)·靈帝(167~189) 말기에는 韓과 濊가 강성하여 郡縣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니, 많은 백성들이 한으로 유입되었다.

建安 연간(196~220)에 公孫康이 屯有縣 이남의 황무지를 분할하여 帶方郡으로 만들고, 公孫模·張敞 등을 파견하여 漢의 遺民을 모아 군대를 일으켜서 韓과 濊를 정벌하자, 옛 백성들이 차츰 돌아오고, 이 뒤에 倭와 韓은 드디어 대방에 복속되었다.⁴⁶⁾

3. 景初 연간(237~239)에 明帝가 몰래 帶方太守 劉昕과 樂浪太守 鮮于嗣를 파견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두 郡을 평정하였다. 그리고 여러 韓國의 臣智에게는 邑君의 印綬를 더해 주고, 그 다음 사람에게는 邑長(의 인수)을 주었다. (한)의 풍속은 衣幘을 입기 좋아하여, 下戶들도 郡에 가서 朝謁할 적에는 모두 衣幘을 빌려 입으며, 자신의 印綬를 차고 衣幘을 착용하는 사람이 천여 명이나 된다.⁴⁷⁾

新羅本紀1, 逸聖尼師今 6年條, “八月 靺鞨襲長嶺 虜掠民口 冬十月 又來 雪甚 乃退”; 『三國史記』卷2, 新羅本紀2, 奈解尼師今 8年條, “冬十月 靺鞨犯境 桃李華 人大疫.”

46) 『三國志』卷30, 魏書30, 東夷傳 韓條, “桓靈之末 韓濊彊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 建安中 公孫康分屯有縣以南荒地爲帶方郡 遣公孫模 張敞等 收集遺民 興兵伐韓濊 舊民稍出 是後倭韓遂屬帶方.”

4. 部從事 吳林은 낙랑이 본래 韓을 통치했다는 이유로 辰韓 8국을 분할하여 낙랑에 넣으려 하였다. 그때 통역하는 관리가 말을 옮기면서 틀리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 臣智와 한인들이 모두 격분하여 대방군의 崎離營을 공격하였다. 이때 태수 궁준과 낙랑태수 劉茂가 군사를 일으켜 이들을 정벌하여, 遵은 전사하였으나 2군은 마침내 韓을 멸하였다.⁴⁸⁾
5. (西晉) 武帝 太康 元年(280)에 (진한)왕이 사신을 보내어 方物을 바쳤다. 2년에 다시 와서 조공하였다. 7년에 또 왔다.⁴⁹⁾

D-2의 기사는 2세기 중엽에 후한의 삼한지역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한·예지역에서 일정한 세력이 주축이 되어 정치적 통합운동을 강력하게 벌인 결과 유력한 세력집단이 출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⁵⁰⁾ 이때 신라 역시 진한지역에서 중요한 세력으로 부상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240년대에 중국 군현이 다시 동해안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동예지역과 진한 12국 중 8국이 중국 군현에 복속되었다는 D-1, D-4의 기사를 볼 때, 중국 군현을 배제하고 동해안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확고한 진한의 맹주국 지위를 차지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D-5에서 280년 무렵에 신라가 진한지역 전반을 장악한 듯한 인상

47) 『三國志』卷30, 魏書30, 東夷傳 韓條, “景初中 明帝密遣帶方太守劉昕 樂浪太守鮮于嗣 越海定二郡 諸韓國臣智 加賜邑君印綬 其次與邑長 其俗好衣幘 下戶詣郡朝謁 皆假衣幘 自服印綬衣幘千有餘人.”

48) 『三國志』卷30, 魏書30, 東夷傳 韓條, “部從事吳林 以樂浪本統韓國 分割辰韓八國 以與樂浪 吏譯轉有異同 臣智激韓忿 攻帶方郡崎離營 時太守弓遵 樂浪太守劉茂 興兵伐之 遵戰死 二郡遂滅韓.”

49) 『晉書』卷97, 列傳67, 東夷列傳 辰韓條, “武帝 太康元年 其王遣使獻方物 二年復來朝貢 七年又來.”

50) 李賢惠(1984), 『三韓社會形成過程研究』, 一潮閣, 184쪽.

을 받는다. 280년대에 세 차례에 걸쳐서 진한왕이 진에 사신을 보내 방물(方物)을 바치는데, 이 진한왕은 진한의 맹주국 왕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를 신라(新羅)의 왕으로 볼 수 있다.⁵¹⁾ 즉 3세기 중반 이후로 신라가 진한지역에서 맹주국의 지위를 차지했고, 주변의 소국을 복속시켜 나가기 시작했으며, 포항지역이 이른 시기에 신라에 내부(來附)했을 것이다.

이상에서 보았을 때 포항지역은 3세기 후반~4세기 초에는 신라에 복속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포항·홍해 지역의 고고학 발굴 성과도 4세기 이후에 이 지역이 신라의 권역 안에 들어왔음을 방증해 준다. 포항 옥성리고분군의 경우 3세기대까지 수장(首長)의 존재가 뚜렷하다가 4세기대에 접어들면 그 존재가 잘 관찰되지 않는다. 4세기대 이후 수장의 존재가 미미해지는 것은 신라의 중앙에서 이 지역 수장이 기존에 지녔던 자치 기반을 해체한 결과로 이해된다.⁵²⁾

2. 울진 방면으로의 진출

울진은 동해안에서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접경지역에 위치하는데, 원래는 진한의 독자적인 세력이 있었던 것 같다.⁵³⁾ 『삼국사기』에는 본래 고구려의 우진야현(于珍也縣)이라 기록되어 있으며,⁵⁴⁾ 진흥왕 12년(551)에 건립된 것으로 보

51) 全德在(1996), 앞의 책, 33~34쪽.

52) 이한상(2000), 「4세기 전후 신라의 지방통제방식-분묘자료의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37, 250쪽.

53) 盧重國(1999), 「고대 울진의 역사 개관」, 『韓國古代社會와 蔚珍地方』, 蔚珍郡·韓國古代史學會, 215~216쪽.

54) 『三國史記』卷25, 雜誌4, 地理2, 新羅 朔州 蔚珍郡條, “蔚珍郡 本高句麗于珍也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高麗史』나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일명 古弓伊郡으로 나온다. 모

이는 ‘창녕신라진흥왕탁경비(昌寧新羅眞興王拓境碑)’(이하 ‘창녕비’로 칭함)에는 우추군(于抽郡)으로 표기되어 있다.⁵⁵⁾ 이름으로 추정하건대, 진한 12국 중 하나인 우유국(優由國)으로 추정된다.⁵⁶⁾ 한편 『삼국사기』 「석우로전(昔于老傳)」에 등장하는 우유촌(于柚村) 역시 같은 지역이라고 여겨진다.⁵⁷⁾ 「석우로전」에 따르면 첨해이사금(沾解尼師今) 7년(253)에 이 지역은 이미 신라의 영역이었다.

울진 방면으로의 진출과 관련해서는 역시 A-3이 중요한 사료가 된다. 여기에서는 삼척으로 비정되는 실직국을 복속하고 있다. 울진은 삼척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삼척지역을 복속했다면 울진지역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항지역으로의 진출도 3세기 후반~4세기 초였으므로, 2세기 초에 삼척지역까지 영역화했다는 A-3의 기년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물론 이미 남해차차웅 16년(49)에 ‘북명인이 밭을 갈다가 예왕인을 얻어 바쳤다’는 기사의 기년을 믿는다면 1세기 초에 삼척지역이 신라의 직접 영향 하에 있었다고 하겠지만, 이 기사를 그대로 취신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울진지역은 6세기 초의 금석문인 ‘봉평비’를 통해, 524년에 신라의 지방관이 파견되어 있는 신라의 영역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전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⁵⁸⁾

두 유사한 음을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55) 盧重國(1992), 「昌寧新羅眞興王拓境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I』, 65~66쪽.

56) 『三國志』 卷30, 魏書30, 東夷傳 漢條. 『翰苑』 蕃夷部 新羅條에는 優由國으로 되어 있다.

57) 『三國史記』 卷45, 列傳5, 昔于老傳, “昔于老 …… 沾解王在位 …… 七年癸酉 倭國使臣葛那古在館 于老主之 與客言 早晚 以汝王爲鹽奴 王妃爲婦 倭王聞之怒 遣將軍于道朱君 討我 大王出居于柚村 ……”

58) 李明植(1992), 「蔚珍 鳳坪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I』,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의 관독문과 해석문을 기본으로, 성균관대학교 박물관(2008), 『新羅 金石文 拓本展』, 17쪽의 탁본을 참고하여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다만 수정한 부분이 대부분 비문의 내용

- F-1. 甲辰年 正月 十五日 喙部牟卽智寐錦王 沙喙部徒夫智葛文王 本波部○
夫智干支 岑喙部美昕智干支 沙喙部而粘智太阿干支 吉先智阿干支 一
毒夫智一吉干支 喙勿力智一吉干支 慎肉智居伐干支 一夫智太奈麻 一
尔智太奈麻 牟心智奈麻 沙喙部十夫智奈麻 悉尔智奈麻 等所教事
2. 別教令 居伐牟羅男弥只 本是奴人 雖是奴人 前時王大教法 道俠阡隘
不所恩 城失火○ 城村大軍起 若右者 一行白之 又侮主尊○ 大奴村負共
值○ 其餘事種種奴人法
3. 新羅六部 煞斑牛 謂沐麥 事大人 喙部內沙智奈麻 沙喙部一登智奈麻 具
沙邪足智 喙部比須婁邪足智 居伐牟羅道使卒次小舍帝智 悉支道使烏
婁次小舍帝智
4. 居伐牟羅尼牟利一伐 弥宜智波旦 緹只斯利一○智 阿大兮村使人奈尔
利 杖六十 葛尸条村使人奈尔利居○尺 男弥只村使人異○ 杖百 於卽听
利 杖百
5. 悉支軍主喙部尔夫智奈麻 節書人牟珍斯利公吉之智 沙喙部善文吉之
智 新人喙部述刀小烏帝智 沙喙部牟利智小烏帝智 立石碑人喙部博士
于時教之若此者獲罪於天 居伐牟羅異知巴下干支辛日智一尺世中子
三百九十八

- F-1. 갑진년 정월 15일에 휘부 모즉지매금왕, 사훼부 사부지갈문왕, 본피
부○부지간지, 잡훼부 미흔지간지, 사훼부 이점지태아간지, 길선지아
간지, 일독부지일길간지, 휘부 물력지일길간지, 신육지거벌간지, 일
부지태나마, 일이지태나마, 모심지나마, 사훼부 십부지나마, 실이지
나마 등이 함께 교하였다.
2. 별도로 교하시기를 거벌모라 남미지(촌)는 본래 노인(촌)이었다. 비록

과 직접 관련이 없어 모두 적시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F-2의 경우는 이 비를 세우게 된 사건에 대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여러 사람의 판독과 해석이 다양하게 제기되어 있다. 그리고 필자 역시 이 부분을 약간 수정하였기에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하지만, 필자의 수정 역시 기존 연구들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되었던 것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자세한 논급은 하지 않고, 해석문으로 대신한다. F-2에 대한 기존의 견해들은朴宗基(2006), 「韓國 古代의 奴人과 部曲」, 『韓國古代史研究』 43 참조.

노인(촌)이었으나 전에 왕이 크게 法을 교하였다. 길이 좁고 험한데 은
 혜입은 바를 몰라서 성에 불이 심히 일어나고 성촌에서 크게 군대가
 일어났다. 만약 다음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고 또 왕을 모독하였으니
 …… 대노촌은 함께 …… (책임) 져야 한다. 그 나머지 일은 모두 노
 인법으로 처리한다.

3. 신라 6부가 얼룩소를 잡아서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 고하였다. 일을 맡
 은 대인은 휘부-내사지-나마, 사훼부-일등지-나마, 구사-사족지,
 휘부-비수루-사족지, 거벌모라도사-졸차-소사제지, 실지도사-오
 루차-소사제지이다.
4. 거벌모라-니모리-일벌, 미의지-파단, 제지사리-일○지, 아대혜촌
 사인-나이리는 장 60대이다. 갈시조촌사인-나이리거-○척, 남미지
 촌사인-이○는 장 100대이다. 어즉근리는 장 100대이다. (처벌 책임
 자는) 실지군주 휘부-이부지-나마.
5. 전서인은 모진사리-공길지지와 사훼부-선문-길지지이다. 新人[글
 을 새긴 사람]은 휘부-술도-소오제지와 사훼부-모리지-소오제지이
 다. 비석을 세운 사람은 휘부-박사이다. 이때 교하시기를 이와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는) 자는 하늘로부터 죄를 (판결)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거벌모라-이지파-하간지와 신일지일척, 세종자 398인

이 비문의 건립 연대는 524년(法興王 11)으로 추정된다. 내용은 ‘노인촌(奴人村)
 인 남미지촌(男彌只村)에서 무언가 사건이 일어나, 성에 불이 나는 등 소요사태
 가 발생하여 군대를 일으켜 사태수습을 하고 뒤처리하였다는 것이다.

이 비문의 대상지로 여겨지는 거벌모라(居伐牟羅)에 파견된 도사(道使) 및 실지
 도사(悉支道使, F-3), 거벌모라와 실지 모두를 총괄한 것으로 보이는 실지군주(悉支
 軍主, F-4) 등 지방관이 보이는데, 이들은 모두 경위(京位)를 소지한 중앙 6부인이
 다. 그리고 지방민들도 외위(外位)를 수여받고, 신라의 국법(國法, 奴人法)이 이 지
 역에 적용되는 양상 등을 볼 때, 울진지역을 신라가 완전히 장악하였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런데 F-2의 ‘노인(奴人)’이라는 표현이 주목된다. 노인은 ‘새로이 복속된 지역의 백성’을 의미하며, 원래 신라인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존재로 여겨진다.⁵⁹⁾ 그런데 ‘본래 노인이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이미 이전에 신라의 영역 내로 포괄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또 ‘전에 왕이 크게 법을 교하여 은혜를 베풀었다’(F-2)고 한다. 보통 ‘전(前時)’을 520년의 율령 반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노인’과 관련된 것인 만큼 지방제도의 정비와 연관된 것이라고 본다면, 지증왕(智證王)대 실직주(悉直州)의 설치(505)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어느 것이든 이 지역에 신라의 정책이 행해졌던 것을 상징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에 노인촌이었던 울진지역과 관련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이전 시기에 진출해 있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전 시기가 언제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A-3의 기사에서 추측해 보면, 대체로 포항지역과 비슷한 시기에 진출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A-3은 그 기년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대체로 신라 영역 확장의 경향성은 보여주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⁶⁰⁾

그런데 신라가 4세기 초에 이미 삼척·울진 지역에 진출하였고,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봉평비’가 세워진 상황을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이 비를 세운 목적은 이 지역의 반발을 진압하고, 신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고 보인다. 이는 이 지역을 영역화한 지 얼마되지 않은 양상

59) 김창석(2009), 「新羅 中古期の 奴人と 奴婢—城山山城 木簡과 「鳳坪碑」의 분석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54, 57~63쪽 참조.

60) 신라의 소국 평정 기사를 보면 그 지역은 나중에 중요한 거점지역으로 州治 내지는 郡治에 해당하는 곳이다. 『삼국사기』 초기 기사 중 소국 정벌 기사들은 국가 내의 중요한 거점들을 신라 영역 내로 포괄하는 과정을 상고 시기로 소급하여 적용한 것이므로, 그 기년을 그대로 인정하기 힘들지만, 대체적인 양상은 인정할 수 있다.

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신라는 포항지역에 진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삼척·울진 지역까지 진출하였지만, 곧 무슨 이유에선지 이들 지역에 대한 장악력을 상실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양상은 고구려의 동해안 지역 진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는 4세기 초에 중국 군현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축출한 뒤 동예지역을 재 장악하였다. 그러나 요동지역으로의 진출이 전연의 공세로 좌절되고, 대방군 지역을 둘러싸고 백제와 치열한 격전을 벌이는 와중에 고국원왕(故國原王)이 전사하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소수림왕(小獸林王)은 올령 반포나 불교 공인과 같은 제도 마련을 통해 국가체제의 개혁을 이룩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 광개토왕은 대외적 팽창을 추구하여 고구려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광개토왕대의 대외 확장은 전방위로 이루어졌다. 동해안 방면으로는 일단 동예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신라 방면으로도 군사활동을 전개하였다.⁶¹⁾ 신라는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왜(倭)의 침략이 빈발하는 데다 고구려의 압박까지 받아 곤란에 처하게 된다.⁶²⁾ 이에 신라는 당시 강국이던 고구려와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국가의 안정을 추구하게 된다. 나물이사금(奈勿尼師今) 37년(392)에 유력 왕족인 실성(實聖)을 질(質)로 보낸 것이 고구려에 대한 신라의 외교정책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⁶³⁾

61)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3, 奈勿尼師今 40年條, “秋八月 靺鞨侵北邊 出師 大敗之於悉直之原.” 이 기사의 말갈은 동예로 보이는데, 이 시기에 동예는 고구려에 완전히 예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군사활동은 실질적으로 고구려의 의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62) 『三國史記』에 나오는 倭의 침략 기사는 다음과 같다. 脫解尼師今 17年, 祇摩尼師今 10年, 奈解尼師今 13年, 助賁尼師今 3·4年, 沾解尼師今 3年, 儒禮尼師今 4·9·11年, 訖解尼師今 37年, 奈勿尼師今 9·38年, 實聖尼師今 4·6·14年, 訥祇麻立干 15·24·28年, 慈悲麻立干 2·5·6·19·20年, 炤知麻立干 4·8·19·22年.

63)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3, 奈勿尼師今 37年條, “春正月 高句麗遣使 王以高句麗強盛

‘광개토왕릉비’는 399년에 신라왕이 사신을 보내어 고구려에 귀의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고, 400년에 보기(步騎) 5만을 파견하여 신라를 구원한 결과 신라의 왕(麻嗣)이 이전과 달리 몸소 고구려에 와서 보고하고 명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⁶⁴⁾ 5세기 초에 신라는 고구려의 영향력 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의 영향력은 실질적이고 강력해, 나말이사금 사후 실성이사금의 즉위나 실성과 눌지마립간 사이의 왕위 계승 분쟁에 고구려가 간여하기도 하였다.⁶⁵⁾

고구려는 신라에 대한 복속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신라 영역에 대한 침투를 더불어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 영역 내에 직접 군대를 주둔시키면서,⁶⁶⁾ 해당 지역에 대한 신라의 지배력을 해체시키고 고구려의 지배력을 침투시켜 나갔다. 물론 그 방식이 고구려가 직접 지방통치기구를 설치하여 영토화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⁶⁷⁾ 신라 역시 이 지역을 완전히 영역화한 것이 아니라 재지 세력을 매개로 간접 지배했던 것으로 여겨지므로, 고구려는 이 지역의 재지 세력을 신라의 영향력에서 분리시키는 방법을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의 신라지역으로의 진출은 장수왕(長壽王) 15년(427) 평양으로 천도하

送伊大西知子實聖爲質.” 실성을 質로 보낸 것은 고구려와 우호관계를 맺으려는 외교적 목적 이외에 석씨계와 연결되는 실성의 세력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기인하였다고 보기도 한다. 盧重國(1981), 「高句麗·百濟·新羅 사이의 力關係變化에 대한一考察」, 『東方學志』 28, 66쪽.

64) 盧泰敦(1992), 「廣開土王陵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 18~19쪽.

65) 李弘植(1971), 「新羅의 勃興期」, 『韓國古代史의 研究』, 新丘文化社, 443~446쪽.

66) ‘中原 高句麗碑’에 “新羅土內幢主”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신라 영토 내에 주둔하고 있는 고구려 사령관이란 의미이다. 徐永夫(1992), 「中原 高句麗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 51쪽.

67) 위의 주에서 “新羅土內幢主”라는 표현을 볼 때, 고구려의 영역으로 인식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면서 더욱 심화되었다고 여겨진다. 이에 신라는 고구려에 우호적인 외교정책에서 물러나, 고구려의 침투에 반발하기 시작한다. 눌지마립간은 자신의 왕위 즉위에 고구려의 도움을 받았으나, 즉위하자마자 고구려에 인질로 가 있던 동생 복호(卜虎)를 탈출시켜 데리고 오는 등⁶⁸⁾ 고구려의 영향력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나아가 백제와 우호 협력관계를 새로이 구축하면서⁶⁹⁾ 고구려에 군사적 대응을 시작한다.⁷⁰⁾

- G-1. (訥祗麻立干) 34년(450) 가을 7월에 고구려의 변방 장수가 悉直의 들에서 사냥하는 것을 何瑟羅城主 三直이 군사를 내어 불의에 공격하여 그를 죽였다. 고구려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사신을 보내 말하였다. “내가 대왕과 우호를 닦은 것을 매우 기쁘게 여기고 있었는데, 지금 군사를 내어 우리의 변방 장수를 죽이니 이는 어찌 의리있는 일이겠는가?” 이에 군사를 일으켜 우리의 서쪽 변경을 침입하였다. 왕이 겸허한 말로 사과하자 물러갔다.⁷¹⁾
2. 38년(454) 8월에 고구려가 북쪽 변경을 침략하였다.⁷²⁾
3. (慈悲麻立干) 11년(468) 봄에 고구려와 말갈이 북쪽 변경의 悉直城을 습격하였다. 가을 9월에 何瑟羅 지방 사람으로 15세 이상을 징발하여 泥河에 성을 쌓았다.⁷³⁾

68)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訥祗麻立干 2年條, “春正月 親謁始祖廟 王弟卜好 自高句麗 與堤上奈麻還來 秋 王弟末斯欣 自倭國逃還.”

69)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訥祗麻立干 17·18年條.

70)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訥祗麻立干 39年條, “冬十月 高句麗侵百濟 王遣兵救之.”

71)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訥祗麻立干 34年條, “秋七月 高句麗邊將 獵於悉直之原 何瑟羅城主三直 出兵掩殺之 麗王聞之怒 使來告曰 “孤與大王 修好至歡也 今出兵殺我邊將 是何義耶” 乃興師侵我西邊 王卑辭謝之 乃歸”;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長壽王 38年條, “新羅人襲殺邊將 王怒 將舉兵討之 羅王遣使謝罪 乃止.”

72)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訥祗麻立干 38年條, “八月 高句麗侵北邊”;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長壽王 42年條, “秋七月 遣兵侵新羅北邊.”

73)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慈悲麻立干 11年條, “春 高句麗與靺鞨 襲北邊悉直城 秋九

4. (炤知麻立干) 2년(480) 11월에 말갈이 북쪽 변경을 침범하였다.⁷⁴⁾
5. 3년(481) 3월에 고구려와 말갈이 북쪽 변경을 쳐들어와 狐鳴城 등 일곱 성을 빼앗고, 또 彌秩夫에 진군하였다. 우리 군사가 백제·가야의 구원병과 함께 여러 길로 나누어서 그들을 막았다. 적이 패하여 물러가므로 뒤쫓아가 泥河의 서쪽에서 공격하여 깨뜨렸는데 천여 명을 목베었다.⁷⁵⁾

이 사료들은 신라 하슬라성주(何瑟羅城主)가 고구려 변장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 신라 영토 내로 고구려가 침공해 온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서 실직의 들에서 사냥하는 고구려 변장이란 아마 ‘신라토내당주(新羅土內幢主)’에 해당하는 인물이 아닐까 한다. 즉 G-1 기사는 실직지역을 거점으로 침투하는 고구려 세력을 신라에서 격살했다는 내용으로 여겨진다. 이에 고구려는 직접 신라 정벌에 나서고, 차례로 동해안 지역을 점령하면서 남하하여 포항지역까지 이른다.⁷⁶⁾ 결국 이 시점에 신라는 동해안 지역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전 시기부터 신라는 이미 이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해 가고 있던 상태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고구려의 남하는 미질부(彌秩夫)에서 백제·신라·가야 연합군에 저지되었다.⁷⁷⁾ 그리고 일견 이하(何訖)까지 북진하여 회복하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月 徵何瑟羅人年十五已上 築城於泥河”；『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6, 長壽王 56年條, “春二月 王以靺鞨兵一萬 攻取新羅悉直州城。”

74)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 2年條, “春二月 祀始祖廟 夏五月 京都旱 冬十月 民飢 出倉穀賑給之 十一月 靺鞨侵北邊.” 말갈로만 적혀 있지만, 고구려에 의한 침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75)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 3年條, “三月 高句麗與靺鞨入北邊 取狐鳴等七城 又進軍於彌秩夫 我軍與百濟加耶援兵 分道禦之 賊敗退 追擊破之泥河西 斬首千餘級.”

76) G-5의 彌秩夫는 포항시 흥해읍으로 비정된다. 李丙燾(1977), 앞의 책, 47쪽.

이후 고구려의 공격 방향이 다시 동해안 지역이 아니라 남한강 상류의 내륙 지방으로 바뀌고 있는 점을 볼 때,⁷⁹⁾ 동해안 지역을 신라가 완전히 차지했다고 보기는 힘들다.⁸⁰⁾ 당시의 이러한 정황을 반영했다고 보이는 것이 『삼국사기』 「지리지」의 신라 삭주(朔州)·명주조(溟州條)의 군현명에 나타나는 ‘本高句麗郡縣’이라는 기술이다. 물론 이러한 기술들이 실제로 해당 지역에 고구려 군현이 설치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9주를 설치시 한(漢)·삭(朔)·명(溟)의 3주(州)가 고구려의 옛 영토라는 인식을 기계적으로 대입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다.⁸¹⁾ 하지만 고구려의 군현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지역에 고구려가 진출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지리지」의 기술은 5세기 말의 동해안 지역 상황을 일정 정도 반영한 결과라고 하겠다.⁸²⁾

신라가 다시 동해안 지역을 회복하는 것은 지증왕대로 추정된다. 지증왕대에 동해안 지역을 포함해 12성을 쌓고, 지방제도로 주(州)·군(郡)·현(縣)제가 처음 시행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동해안 지역인 실직주의 군주

77) 포항지역은 이때 고구려에 정복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고구려의 침투가 새로운 재지 세력을 지원하여 기존의 지배질서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른 시기부터 진행되었다고 본다면, 포항(홍해)지역 역시 신라의 영향력이 후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냉수리고분’이 주목된다. 냉수리고분은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굴조사된 대형 횡혈식석실분으로 고구려 석실분과의 관련성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국립경주박물관(1995), 『냉수리고분』 참조. 이렇게 보면 포항지역에 대한 신라의 지배력도 4세기 말에 일시적으로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78) 泥河는 강릉 부근이나 남한강 상류로 비정된다. 鄭求福 外編(1997), 『譯註 三國史記 3 주석편(상)』, 52쪽 참조.

79)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 6·11·16·18·19年條.

80) 泥河를 강릉 부근으로 비정한다고 해도, 고구려와 분쟁이 계속되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신라가 안정적으로 동해안 지역을 장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81) 津田左右吉(1964), 「長壽王征服地域考」, 『滿鮮歷史地理研究 1』(津田左右吉全集 11), 岩波書店, 66쪽.

82) 金瑛河(1999), 앞의 글, 82~83쪽.

(軍主) 설치였다.

- H-1. (지증왕) 5년(504) 가을 9월에 인부를 징발하여 波里城(삼척), 彌實城(포항), 珍德城, 骨火城(영천) 등 12성을 쌓았다.⁸³⁾
2. 6년(505) 봄 2월에 왕이 몸소 나라 안의 州·郡·縣을 정하였다. 悉直州를 설치하고 異斯夫를 軍主로 삼았는데, 軍主의 명칭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⁸⁴⁾
3. 13년(512) 여름 6월에 于山國이 항복하여 해마다 토산물을 바쳤다. 우산국은 溟州의 정동쪽 바다에 있는 섬으로 혹은 鬱陵島라고도 한다. 땅은 사방 100리인데, 지세가 험한 것을 믿고 항복하지 않았다. 이찬 異斯夫가 何瑟羅州 군주가 되어 말하기를 “우산국 사람은 여러 석고도 사나워서 힘으로 복속시키기는 어려우나 피로는 복속시킬 수 있다”하고, 이에 나무 사자를 많이 만들어 전함에 나누어 싣고 그 나라 해안에 이르러 거짓으로 “너희가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이 사나운 짐승을 풀어 뱀아 죽이겠다”고 말하자 그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 곧 항복하였다.⁸⁵⁾

이 기사들에서 보듯이 실직·미실(彌實)을 비롯한 주요 거점에 성을 쌓은 것은,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해당 지역을 차지한 후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요 거점들을 장악한 후 직접 군사

83)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智證麻立干 5年條, “秋九月 徵役夫 築波里 彌實 珍德 骨火 等十二城.”

84)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智證麻立干 6年條, “春二月 王親定國內州郡縣 置悉直州 以異斯夫爲軍主 軍主之名 始於此.”

85)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智證麻立干 13年條, “夏六月 于山國歸服 歲以土宜爲貢 于山國在溟州正東海島 或名鬱陵島 地方一百里 恃不服 伊異斯夫爲何瑟羅州軍主 謂于山人愚悍 難以威來 可以計服 乃多造木偶師子 分載戰船 抵其國海岸 告曰 汝若不服 則放此猛獸啗殺之 國人恐懼 則降.”

지휘관인 지방관을 파견하여 그 지역에 대한 신라의 장악력을 확고히 하였다. 바로 실직에 최초의 주를 두고 유력 귀족 중 하나인 이사부(曷斯夫)를 군주로 임명하였다. 이사부는 얼마 후에 우산국(于山國)을 정벌하고, 하슬라주(曷耜)의 군주가 된다. 이러한 지방관 파견은 이 주변에 대해 직접 지배가 실시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다시 실직이 신라의 영토가 되는 비슷한 시기에 울진지역 역시 신라의 영토로 다시 편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⁸⁶⁾

결국 이 지역이 이른 시기에 신라의 영향력 아래 편입되었다고 해도, 5세기 초 이래로 신라의 지배력이 후퇴하고 고구려 세력의 침투가 이루어지면서, 신라는 이 지역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5세기 말 이후 이 지역을 회복하고 6세기 초에는 축성과 지방관 파견을 할 정도로 다시 지배력을 갖추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신라는 울진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 지역을 신라의 법률제도로 다스린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 이 지역에서의 지배를 안정화하려는 목적으로 ‘봉평비’를 건립한 것이다.

III. 6세기 신라 지방 지배방식의 변화

이상에서 살펴본 신라의 동해안 지역 진출은 당연히 그 지역에 대한 신라의 통치를 수반하였다. 『삼국사기』의 기사들은 신라가 주변 지역 진출과 함께 이른 시기에 주(州)·군(郡) 같은 지방제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을 직접 지배했다고 전한다.⁸⁷⁾ 하지만 6세기 신라 금석문들의 내용을 보면, 이전 시기 신라

86) ‘봉평비’에서 悉支軍主가 居伐牟羅를 포괄하여 관할하는 점, 이사부가 곧 何瑟羅州의 군주가 되는 점 등을 볼 때, 강릉-삼척-울진은 하나의 지역단위로 묶일 수 있을 것이다.

87)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脫解尼師今 11年條, “春正月 以朴氏貴戚 分理國內州郡

의 지방 지배가 나중과 같은 직접 지배방식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6세기 이래 지방 지배에 변화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5세기 말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지방 지배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며, 520년의 울령 반포나 528년의 불교 공인과 같은 국가체제의 변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즉 진한의 소국들을 복속시키면서 처음 진출했을 때와, 5세기 말 이후 다시 진출했을 때 신라의 통치방식에서 일정한 차이가 확인되는 것이다.

이제 신라 금석문들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6세기 신라 지방 통치제도의 변화상을 그 이전의 것과 비교·검토해, 이 시기 동해안 지역으로의 진출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이서국(伊西國)·음즙벌국(音汁伐國)·실직국(悉直國)·압독국(押督國)·소문국(召文國)·사벌국(沙伐國) 등 진한의 소국으로 있다가 경주지역의 사로국에 복속된 세력은, 비록 복속되었다고는 하지만, 신라 영역으로 편입되어 지방관이 파견된 다거나 군부대가 주둔하는 것과 같이 직접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지배·복속 관계를 맺기는 하지만 정기적인 공납을 현상하면 독자적인 세력 내의 자치권을 인정받는 일종의 반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⁸⁸⁾ 바로 ‘공납을 매개로 한 간접 지배’ 방식이 적용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들에 신라가 인위적인 통치단위를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하는 방식의 지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방의 세력은 독자성과 기존의 지배권을 그대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신라와 맺은 지배·복속 관계는 유동적인 것이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신라의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기도 하고, 신라를 침공하는 경우도 있었다.⁸⁹⁾ 이로 인해 신라가 위기에 처한 경우도 있지만,⁹⁰⁾ 대

號爲州主 郡主.”

88) 李宇泰(1991), 「新羅 中古期の 地方勢力 研究」,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34~38쪽.

개 신라가 그들을 토벌하고 새로이 지배·복속 관계를 복구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해당 지역을 신라의 영역(영토)으로 바로 등치시키기 힘든 면이 있다. 신라의 세력권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⁹¹⁾

반란을 일으켰던 지역의 지배층은 그 대가로 지배권을 상실하고 다른 지방으로 이주되기도 하였다.⁹²⁾ 어떤 경우는 처음부터 기존의 지배권이 해체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기존의 지배권이 해체되고, 거기에 신라의 세력이 침투하게 되면 그 지역은 세력권을 넘어 신라의 영토에 가깝게 변했다고 할 수 있겠다. 기존의 지배권을 해체한 이후 신라 세력이 침투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재지 세력을 지원할 수도 있고, 신라 중앙에서 직접 사람을 파견하여 통제할 수도 있다.⁹³⁾ 이 경우에 재지 세력이나 파견된 사람이 그 지역에서 가지는 권위는 신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더 이상 지방 세력의 독자성은 유지되기 힘들어지고, 신라 중앙의 통제를 받는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소국을 완전히 해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⁹⁴⁾ 여전히 거점 지배방식을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소국은 중심 읍락인 국읍(國邑)과 주변의 읍락(邑落)으로 이루어지는데, 국읍은 주변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읍락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다. 지역에 따라 국읍이 주변 읍락과 종속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었고, 주변 읍락이 정치·경제적으로 독자성을 갖는 경우도 있

89)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婆娑尼師今 25年·逸聖尼師今 13年條 등

90) 『三國史記』 卷2, 新羅本紀2, 儒禮尼師今 14年條.

91) 영역이란 표현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다. 직접 지배 영역인 領土, 간접 지배 영역까지 포함한 勢力圈, 그 밖에 여러 세력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지역까지 포함한 影響圈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김영심(2004), 「웅진·사비시기 百濟의 領域」, 『古代 東亞細亞와 百濟』, 서경문화사.

92) 全德在(1990), 「新羅 州郡制의 成立背景研究」, 『韓國史論』 22, 10~12쪽.

93) 朱甫噉(1998), 『新羅 地方統治體制의 整備過程과 村落』, 신서원, 43~49쪽 참조.

94) 全德在(1990), 앞의 글, 11쪽.

었다.⁹⁵⁾ 복속한 소국 지역에 대한 간접 지배, 즉 거점 지배방식이란 국읍의 거수(渠帥)를 매개로 주변 읍락을 아울러 통제하는 방식이다.⁹⁶⁾ 그리고 신라가 국읍의 지배층을 해체한 경우나, 처음부터 국읍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미약하였던 경우에는 읍락이 개별적으로 신라에 복속되기도 하였는데, 이 경우도 읍락의 거수를 매개로 간접 지배하였다.⁹⁷⁾

결국 국읍의 거수층인 소국의 기존 지배층을 해체했다고 해서, 주변 읍락까지 기존의 지배권을 해체하고 직접 지배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즉 중심 국읍에 대한 신라의 통제는 직접적이었지만, 소국 주변을 포함한 그 지역 전체를 신라가 직접 통제하는 영역지배의 단계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5세기대 고구려의 신라지역 침투는 어느 정도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재지 세력을 고구려 영향력 하에 두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하겠다. 그리고 5세기 후반에 고구려군이 남진함에 따라 신라는 실질적으로 영토를 상실하게 되었다. 결국 신라는 다른 내륙지역과 마찬가지로 동해안 지역에 대한 기존의 지배력을 점차 상실해 간 것이다. 5세기 말 이후 신라는 다시 동해안 지역을 회복하였지만, 당장 기존과 같은 지배력을 회복할 수는 없었다.

95) 李宇泰(1981), 「新羅의 村과 村主-三國時代를 중심으로」, 『韓國史論』 7, 89~90쪽.

96) 신라가 복속한 소국의 국읍에 州·郡을 설치하였고, 읍락들은 城·村으로 편제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李宇泰(1981), 위의 글, 97쪽. 하지만 국읍이나 읍락 모두를 일단 성·촌으로 편제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겠다. 金在弘(1991), 「新羅 中古期の 村制와 지방사회 구조」, 『韓國史研究』 72, 5~6쪽. 그리고 주요한 거점이 되는 성·촌에 상위의 행정구역인 주·군을 설정한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읍이 중심 성·촌으로 중요시되었을 것이므로, 국읍 지역에 주·군이 설치되었다고 보아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97) 邑落도 중심 취락인 邑과 주변 취락인 落으로 구성되었으며, 邑과 落의 관계는 國邑과 주변 邑落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개별 읍락에 대한 신라의 간접 지배는 중심 취락(邑)을 거점으로 장악하면서 주변의 취락(落)을 아울러 통제하는 방식이었다.

일시적이거나 고구려의 치하에 들어갔던 지방에서는 재지 세력들 간의 주도권 경쟁 등으로 인해, 기존에 신라가 구축해 놓았던 지역의 세력구도가 그대로 존속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라는 새로이 이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수립할 필요가 생겼다. 그런데 이전의 간접 지배·거점 지배방식은 한계를 노정한 상태였다. 재지 세력을 온존시킨 상태에서는 그들의 이탈이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었다. 이에 재지 세력을 매개로 하지 않는 직접적인 지배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5세기 고구려와의 전쟁에는 정예화된 부대와 대규모 인력 동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전과 같이 중앙의 6부병 중심의 군단 편성으로는 대규모·장기화된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힘들어진 것이다. 이제는 지방민들도 모두 신라에서 직접 동원하여 정예화해야만 하도록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 이는 기존의 간접 지배·거점 지배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 개별 읍락과 신라 중앙의 관계가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하는 계기도 마련되었다. 5세기 중반 이후에 고구려의 남진이 본격화되자, 신라 정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변방지역이나 내지에 성곽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자비마립간(慈悲麻立干) 시기에 15세 이상 하슬라인(何瑟羅人)을 징발하여 이하(泥河)에 성을 쌓은 것을 비롯하여(G-3), 모로(毛老)·명활(明活)·일모(一牟)·사시(沙尸)·광석(廣石)·답달(答達)·구례(仇禮)·좌라성(坐羅城)을 쌓거나 수리하였다.⁹⁸⁾ 소지마립간(昭知麻立干)도 7년(485) 구벌성(仇伐城)을 쌓았고, 8년에는 일선계(一善界)의 정부(丁夫) 3,000명을 징발하여 삼년(三年)·굴산(屈山)의 2성을 고쳐 쌓았다. 이후 도나(刀那)·비라성(毗羅城)을 수축하였다.⁹⁹⁾ 이처럼 일정한 지역의

98)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3, 慈悲麻立干 13·14·16·17年條.

99)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3, 昭知麻立干 7·8·10·12年條.

지방민을 동원하여 성을 쌓을 수 있었다는 사실은 소국의 전통적 지배구조의 해체가 진전되어 그러한 지역을 직접 지배 하에 편제해도 좋을 만큼 당시의 지배체제가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¹⁰⁰⁾

이렇게 신라가 동해안 지역을 지배하는 데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게 된 것과 함께, 지방사회 내부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당시 농업생산력의 발달로 사회 분화가 촉진되면서 전통의 공동체적 유제가 약화되고, 개별 읍락의 자립성이 강화되었다. 나아가 개별 호의 호구나 자산을 토대로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재지 수장층의 지배기반은 크게 약화되었고, 신라 중앙정부는 읍락사회의 재편을 추진하게 된다.¹⁰¹⁾ 읍락 거수층의 지배력이 어느 정도 인정해 주면서도, 개별 가호에 대한 직접적인 파악과 통제가 가능한 여건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배방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지식을 고구려 및 중국과의 통교를 통해 신라가 습득할 수 있었는데, 이를 구체화하여 국가제도로서 공표한 것이 바로 520년 법흥왕의 율령 반포이다.

이러한 당시의 내외적인 동인들로 인해 신라의 지방 통치방식은 이전과 다른 지배방식으로 변모했다. 우선 6세기 초 신라 지방 지배와 관련된 『삼국사기』의 기사로는 H-2를 들 수 있다. 이에 따르면 505년(지증왕 6)에 주·군·현의 지방제도를 마련하고 중앙에서 직접 지방관을 파견하였다고 볼 수 있다.¹⁰²⁾ 하지만 6세기 초의 금석문들에서 군(郡)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파견되는 지방관으로 실직군주(悉直軍主)만 등장한다는 점 등을 볼 때 전 영토에 전면적으로 주군제가 실시된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¹⁰³⁾ 아마도 전략적 거점

100) 李宇泰(1991), 앞의 책, 43~45쪽.

101) 金在弘(1991), 앞의 글, 13~22쪽 참조.

102) 李鍾旭(1974), 「南山新城碑를 통하여 본 新羅의 地方統治體制」, 『歷史學報』 64, 28쪽.

103) 朱甫暎(1998), 앞의 책, 75~85쪽 참조.

이었던 실직(悉直)에 군사적 성격을 띤 주(州)를 설치하고, 거기에 군사지휘관인 지방관을 보내 주변 지역을 직접 장악·관할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거점인 주의 하위 단위로는 성(城)이나 촌(村)이 있다. 이들은 신라 지방행정단위의 가장 말단으로 소국의 읍락을 신라가 편제한 것이다. 그런데 성과 성주에 대한 기록은 이른 시기부터 등장한다. 나해이사금(奈解尼師今) 19년(21)에 백제의 공격으로 요거성(腰車城)의 성주가 사망하고, 첨해이사금(沾解尼師今) 15년(261)에 달벌성(達伐城)을 쌓고 성주를 임명했다는 기사가 나온다.¹⁰⁴⁾ 하지만 3세기 중반까지 진한 12국 중 하나에 불과했던 신라가 지방의 거점에 성을 쌓고 지방관을 파견하는 지방통치를 실시했다고 믿기 힘들다. 따라서 이들 기사는 후대의 사실을 소급하여 기술한 것이거나, 재지 수장층을 지방관으로 윤색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450년에도 성주의 존재가 확인된다(G-1). 하슬라 성주가 고구려 장수를 살해한 사건은 하슬라 성주의 독단적 행위라기보다는 놀지마립간의 의도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하슬라 성주는 단순한 재지 수장층이라고 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아직 이 지역을 확고하게 장악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실직주 군주와 같이 신라가 주변 지역에 대해 직접 지배권을 행사하는 지방관을 파견한 것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하슬라 성주의 경우 아마도 기존 재지 수장층의 지배권을 해체하고,¹⁰⁵⁾ 신라 중앙에서 의도적으로 이주시켜 그

104) 『三國史記』卷2, 「新羅本紀」2, 奈解尼師今 19年條, “秋七月 百濟來攻國西腰車城 殺城主薛夫 王命伊伐利音 率精兵六千伐百濟 破沙峴城”; 『三國史記』卷2, 「新羅本紀」2, 沾解尼師今 15年條, “春二月 築達伐城 以奈麻克宗爲城主.”

105) 『三國史記』卷1, 「新羅本紀」1, 婆娑尼師今 25年條, “秋七月 悉直叛 發兵討平之 徙其餘衆於南鄙.” 이 기사에서 보듯이, 기존의 지방 지배층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면서 지배층을 제거한 후, 중앙에서 그 지역에 이주해간 사람을 새로운 지배층으로 삼았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을 장악하게 한 존재가 아닐까 한다.¹⁰⁶⁾

즉 주와 군주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재지의 공동체적 질서가 일정 정도 존속되는 간접 지배방식이었다. 이러한 5세기의 지방 지배와 재지 세력의 존재 형태는 503년에 세워진 ‘냉수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냉수비’가 세워진 위치는 경주~포항(흥해)으로 이어지는 루트의 중간으로, 이미 3세기 말~4세기 초에 신라의 영향력 아래에 포섭된 곳이었다. 이는 실성이사금 시기부터 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신라 중앙 6부가 직접 간여하는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이 비문이 해결하고자 한 것은 ‘재(財)’의 소유권이라고 하겠다. ‘재’는 신라의 왕을 포함한 6부의 주요 귀족이 공론을 통해 결정할 정도로, 단순히 개인이나 가호 단위에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지역의 철광(鐵礦) 관련 권리라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는데,¹⁰⁷⁾ 이 지역 전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비문의 내용을 볼 때, 절거리로 대표되는 세력이 원래 신라로부터 ‘재’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는데, 이후 말추·사신지로 대표되는 세력이 절거리의 권리를 가져오려고 했던 듯하다. 이는 단순한 재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지역에 대한 주도적 지배권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¹⁰⁸⁾ 그렇다면 말추·사신지는 5세기 후반 이 지역에 대한 신라의 지배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새롭게 지배층으로 자리매김한 세력이라 하겠다.

106) 이렇게 지방에 이주되어 지방의 통치를 맡은 경우, 나중에 파견되는 지방관과 역할은 어느 정도 비슷하나, 지방에 대한 통제의 방식은 지방관과 다르다. 이 경우 재지의 공동체적 질서를 해체하지 않고, 그 공동체적인 질서 속에서 지배층이 된 후에 그들을 제어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에서 직접 이주한 세력 이외에 주변의 읍락과 신라 중앙의 관계는 여전히 이전과 같이 공납을 매개로 한 간접 지배방식을 유지한다.

107) 李宇泰(1992), 「迎日冷水碑의 再檢討」, 『新羅文化』 9, 13~18쪽.

108) 姜鳳龍(1994), 「新羅 地方統治體制 研究」,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41~42쪽.

이런 상황에서 신라는 5세기 말 이후 다시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기존의 친신라적 세력을 중심으로 이 지역의 지배권을 복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방관으로 도사(道使, B-2)의 존재가 확인된다. 이 도사는 휘부(隸部) 소속으로 이 지역에 파견된 지방관이다. 그리고 이 도사가 다른 6 부인들과 함께 일을 주관하고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찍부터 이 지역 수장층의 지배권이 해체되고, 신라 중앙의 권력이 침투한 결과라고 하겠다. 따라서 재지 세력인 촌주(村主)는 실무적인 일을 맡아 처리한 듯하며,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촌주의 경우 관등을 받지 못하고 단순히 ‘간지(干支)’만을 칭하는데, 이는 아직 재지 세력이 완전히 신라의 제도 아래 편제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전통적인 간접 지배방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지리적 여건상 신라의 중앙세력이 상당히 침투한, 말하자면 직접 지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단계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렇게 신라의 영역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재지의 지배력이 해체되었지만, 완전한 직접 지배로 전환되지 못하였기에 새로운 재지 세력이 기존의 지배권에 도전하기도 하는 과도기적인 상황은 고고학적 양상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난다. 이 지역에서 발견된 ‘냉수리고분’은 6세기 초에 축조된 축실이 있는 횡혈식석실분으로 고구려 석실분과의 관련성이 주목되었다. 이 지역까지 진출한 고구려 세력의 일부가 남아서 재지 세력과 융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모제로 추정된다.¹⁰⁹⁾ 출토 유물로 볼 때는 신라의 영향 아래 축조된 고분이 분명하지만, 고구려 계통의 영향을 받은 모습은 이 지역 수장층이 전적으로 신라화되어 있었던 상태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경주에서 가까운 지역부터 기존의 간접 지배에서 직접 지배로의 전

109) 국립경주박물관(1995), 앞의 책, 254쪽.

환이 이루어져 나갔다. 이는 지증왕대에 본격화되었고 법흥왕 7년(520)의 율령 반포 이후 각종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 가는 과정에서 완전히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법흥왕대 율령 반포 이후 지방 지배방식의 변화는 ‘봉평비’에 잘 드러난다.

먼저 이 지역 전체를 책임지는 것으로 보이는 지방관 실지군주의 존재가 확인된다. 그리고 그의 지휘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별모라도사와 실지도사가 확인된다. 중앙 6부인이 지방관으로 파견되었고, ‘군주-도사’라는 상하영속 관계의 지방관제도도 확인되는 것이다. 또한 촌사인(村使人)을 포함한 모든 재지인들은 ‘외위’를 받아 신라의 관등제도 안에 포섭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제 울진지역은 실직주가 관할하는 범위에 속하면서, 주요한 거점에 파견된 지방관(道使)이 재지 세력을 예하에 두고, 그들의 협력 하에 지방을 통치하는 지배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은 여전히 6부의 주요 귀족들이 회의를 통해 하지만 이제는 ‘노인법(奴人法)’과 같은 율령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국가의 법률제도로써 전 영토와 전 인민을 동일한 제도로 통치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확인된다고 하겠다.¹¹⁰⁾

그리고 이 시기에는 정치단위체에 대한 공납 징수가 아닌 개별 가호(家戶)에

110) 노인법을 새로 편입된 지역의 민에게 적용되는 법이라고 볼 경우, 영토 내의 모든 민을 같은 율령으로 통제하는 일원적 지배가 아니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노인에 대한 차별과 동일한 법률제도의 적용은 다른 문제이다. 노인에 대한 규정과 그들의 의무 등을 규정한 법은 노인만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국법체계 안에서 그들을 구분하는 것에 불과하다. 즉 신라 ‘노인법’의 적용을 받는 ‘신라의 노인’이므로 신라 국법에 의해 통치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들이 규정에 따라 일반공민으로 신분이 상승한다면, 당연히 공민의 법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노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설정했다고 해도, 그것은 그들을 별도의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라의 국법체계 안에서 더욱 철저하게 파악하고 통제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대한 조세 수취와 인력 동원이 가능해진다. 가호 단위의 수취가 이루어지는 모습은 6세기 중반의 상황을 전해주는 ‘함안 성산산성 목간(咸安城山山城木簡)’(이하 ‘성산산성 목간’으로 칭함)들에 잘 나타나 있다. ‘성산산성 목간’은 지방에서 수취한 물품에 붙이는 하찰목간(荷札木簡)과 동원된 사람들의 명적(名籍) 등으로 추정되는데,¹¹¹⁾ 상주(上州)에 속했던 경상북도 북부의 여러 촌에서 징발한 물자에 관한 것이다. 이 물자들은 주의 장관인 군주나 민정관인 행사대등(行使大等)의 감독 아래 취합되어 함안지역으로 운반된 것으로 추정된다.¹¹²⁾

이 ‘성산산성 목간’은 6세기 중반 지방에 대한 신라의 수취체제와 지방 지배방식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¹¹³⁾ 이 목간 자료들에 의하면 신라의 부세 수취는 말단 행정단위인 촌이 기층단위였음을 알 수 있다. 촌은 지방관이 파견되는 행정촌과 파견되지 않는 자연촌으로 나눌 수 있다.¹¹⁴⁾ 그리고 이 중 중심이 되는 촌(행정촌)이 주변의 자연촌을 포괄하는 범위에서 조세 수취의 총괄을 담당하는 것이 확인된다.¹¹⁵⁾

111) 全德在(2008),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연구현황과 쟁점」, 『新羅文化』 31, 7~10쪽 참조.

112) 전덕재(2007),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내용과 중고기 신라의 수취체제」, 『역사와 현실』 65, 246쪽.

113) 목간의 판독문 및 제반사항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2007), 『함안 성산산성 출토목간』: 『함안 성산산성 제12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 등 참조. ‘성산산성 목간’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 대해서는 全德在(2008), 앞의 글 참조.

114) 필자는 행정촌, 자연촌이란 용어에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촌이라는 이름 자체가 인위적인 명명이기 때문이다. 비록 자연취락으로 형성되었다고 해도, 촌이라는 이름은 신라에서 붙인 행정단위명이기 때문이다. 주요한 거점 촌에는 지방관인 도사가 파견되어 행정업무를 주관하고, 주변의 촌들은 재지 촌주 등이 행정업무를 맡되 거점 촌 도사의 지휘를 받는 체제가 상정되는데, 이렇게 볼 때 행정촌, 자연촌이라는 명칭보다는 중심촌, 종속촌이라는 용어가 더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촌, 자연촌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기로 한다.

115) ‘성산산성 목간’들에 나타나는 수취의 기본단위는 村이다. 그런데 목간의 제작 주체

따라서 6세기 중반 신라의 지방지배는 촌을 기본 단위로 지방 사회를 통제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방관이 본격적으로 파견되기 시작한 6세기 초반과 비교했을 때, 촌을 매개로 국가의 행정력이 지방 기층 사회 내부에 까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직접 지배가 진전되었음을 뜻한다. 즉 기존의 소국이 국읍과 읍락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때, 신라가 소국을 복속한 이후 취한 지배방식은 중심의 국읍을 장악한 후 이 국읍을 통해 주변 읍락을 제어하는 간접 지배였다. 그래서 주변 읍락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파악이나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5세기~6세기 이후 개별 읍락을 ‘촌’으로 편제하고, 거점이 되는 촌(행정촌)에는 지방관(道使)을 파견하고, 그 외 거점 촌 주변부의 촌(자연촌)에는 재지 세력(干支)을 그대로 활용하여 지방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기면서(使人), 개별 읍락(村)에 대한 직접 지배방식을 관철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지방에 대한 직접 지배가 관철되는 시기를 ‘봉평비’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전 ‘냉수비’ 단계에서는 촌주가 여전히 독자적 세력을 의미하는 ‘간지(干支)’만을 취하고 있다.¹¹⁶⁾ 하지만 ‘봉평비’에서는 촌의 유력층을 사인(使

이며 여러 村을 총괄하는 상위 단위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행정촌으로 보는 견해와 郡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전자는 전덕재(2007), 앞의 글, 237~240쪽 참조, 후자는 金在弘(2005), 「咸安 城山山城 出土 木簡과 촌락사회의 변화」, 『國史館論叢』 106, 65쪽 참조. 하지만 양자 모두 군에 별도의 지방관이 파견되어 수취업무를 총괄했다고 보지 않으며, 군을 설정하는 견해에서도 실제 업무를 맡은 것은 군의 중심촌이라고 파악하고 있어서, 중심촌이 주변의 촌을 포괄하는 수취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즉 촌이 수취의 기본단위가 된다는 데에는 같은 의견이라 생각된다.

116) 촌주 하위에 壺智智라는 신라 중앙의 관등에 해당하지 않는 관등 소지자가 촌 소속으로 등장한다. 촌주가 단순히 간지만을 칭하면서 외위를 받지 않은 상태인 것과 연관하면, 일급지라는 관등은 촌에서 독자적으로 사여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촌이 신라의 행정단위로 편제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독자적인 세력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포항지역이 이른 시기 신라의 영역에 포괄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독자성의 정도는 그리 강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으로 삼고 상당수에게 외위를 내리면서 신라의 지배구조 내로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거점이 되는 촌에 지방관인 도사를 파견하고 지방인들이 일으킨 문제에 대하여 신라의 국법(율령)으로 단죄하는 등 신라의 제도를 지방에 그대로 적용하는 모습이 보인다.

한편 이러한 율령에 입각한 지방 지배가 시작되는 ‘봉평비’ 단계에서는 이전의 거점 지배방식에서 벗어나 영역 지배방식으로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 있다. 거점 지배방식에서 지방은 소국이나 읍락 단위로 신라에 포괄되므로, 중심지역을 제외한 주변지역은 직접 신라 중앙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영역지배에서는 지방의 개별 읍락(村)이 일단 직접 신라 중앙에 의해 파악되고 통제되면서, 거점지역을 통하지 않고도 신라 중앙과 연결된다. 다만 원래의 거점지역에 설치된 광역의 행정조직(州·郡)에 속하게 되는데, 이는 군정(軍政)과 행정상의 연속관계일 뿐이다.¹¹⁷⁾ 이제 신라 중앙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지역이 신라의 영토이며, 그 안의 모든 민은 신라의 백성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영역 지배방식의 확대는 광역 행정단위인 주(州)의 성격 변화를 가져왔다. 주와 관련된 다음의 사료들을 보자.

- I-1. (法興王) 12년(525) 봄 2월에 大阿滄 伊登을 沙伐州 軍主로 삼았다.¹¹⁸⁾
2. 尙州는 첨해왕 때에 沙伐國을 빼앗아 州로 삼은 것이었다. 법흥왕 11년(524), 梁 普通 6년(525)에 처음으로 軍主를 두어 上州로 삼았다. 진흥왕 18년(557)에 주를 폐지하였다.¹¹⁹⁾

117) 예컨대 거점 지배방식에서 개별 읍락은 신라 중앙에 조세를 납부하고 군역에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거점지역에 그러한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영역지배에서는 거점지역이 행정업무상 상위단계이고, 개별 읍락이 신라 중앙에 조세를 납부하고 군역 의무를 진다.

118)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4, 法興王 12年條, “春二月 以大阿伊登 爲沙伐州軍主.”

3. (眞興王) 16년(555) 봄 정월에 比斯伐에 完山州를 설치하였다.¹²⁰⁾
4. 17년(556) 가을 7월에 比列忽州를 설치하고 沙滄 成宗을 군주로 삼았다.¹²¹⁾
5. 18년(557) 國原을 小京으로 삼았다. 沙伐州를 폐하고 甘文州를 설치하여 沙滄 起宗을 군주로 삼았으며, 新州를 폐하고 北漢山州를 설치하였다.¹²²⁾

I-1과 I-2의 기사에 의하면, 법흥왕 12년(525) 현 경북 상주(尙州)지역에 주를 설치했다고 한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I-1에서는 사벌주(沙伐州)라고 하고, I-2에서는 상주(上州)라 기록했다. 이는 같은 주에 대해 서로 다른 이름이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I-2와 I-5에 의하면 진흥왕 18년(557)에 이 주를 폐지하고 감문주(甘文州)를 설치했다. 그런데 진흥왕 22년(561)에 건립된 ‘창녕비’에는 폐지된 상주가 등장한다. 그 내용에 비자벌군주·한성군주(漢城軍主)·비리성군주(碑利城軍主)·감문군주(甘文軍主)의 사방군주(四方軍主)가 나오며, 아울러 상주(上州)·하주(下州)의 행사대등(行使大等)도 기록되어 있다.¹²³⁾ ‘창녕비’에 기재된 주들을 보건대, 사벌주가 폐지될 때 상주가 같이 폐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벌주와 상주는 같은 주라고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신라에서는 두 종류의 주가 있다고 논의된다. 여러 군의 영역

119) 『三國史記』 卷34, 雜志3, 地理1, 新羅 尙州條, “尙州 沾解王時 取沙伐國爲州 法興王十一年 梁普通六年 初置軍主爲上州 眞興王十八年 州廢.”

120)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4, 眞興王 16年條, “春正月 置完山州於比斯伐.”

121)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4, 眞興王 17年條, “秋七月 置比列忽州 以沙滄成宗爲軍主.”

122)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4, 眞興王 18年條, “以國原爲小京 廢沙伐州 置甘文州 以沙滄起宗爲軍主 廢新州 置北漢山州.”

123) 盧重國(1992), 「昌寧 眞興王拓境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I』,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을 포괄하는 넓은 지역을 주라고 부르기도 하고(이하 영역주), 주치(州治)인 1개 군 정도의 영역 자체를 주(이하 거점주)라고도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후자는 I-3·4·5와 같이 상황에 따라 수시로 치폐(置廢)될 수 있었다고 본다.¹²⁴⁾ 주가 처음 설치될 때에는 실직주와 같이 군주가 주둔하는 지역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즉 주요 거점에 설치된 것으로, 기존의 거점 지배방식과 유사한 형태라고 하겠다. 하지만 지방에 대한 직접 지배가 관철되면서 영역 지배방식으로 전환되었고, 그 과정에서 영역주의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다.¹²⁵⁾ 이제 거점 지배에서 벗어나 영역지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거점주는 군사·행정적인 면에서 해당 영역 전체를 관할하기 힘든 면이 있으므로,¹²⁶⁾ 영역주가 별도로 설정되면서 영역 지배방식이 실현되어 갔다고 하겠다.

동해안 울진지역이 속하는 주 역시 같은 변천 과정을 거친다. 지증왕 6년(505)에 처음 설치된 실직주는 거점주(H-2)로, 동양 13년(512)에는 하슬라주로 이

124) 姜鳳龍(1994), 앞의 책, 3~5쪽 참조. 이 글에서 신라 중고기 州의 성격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는 지면이 부족할 뿐 아니라 논지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생략하겠다.

125) 한편 6세기 전반의 지역명 州의 경우 금석문에서 직접 州를 붙이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실재했던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즉 초기 지역명 주는 단순히 그 지역에 軍主라는 군사지휘관이 통솔하는 군단이 파견되어 상주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중에(6세기 중반 이후) 군주가 州의 행정까지 총괄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변하면서 州의 장관이 되자, 군주가 파견된 지역을 일괄 州로 표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견해는 6세기 전반에 거점주가 존재하지 않고 영역주만 설정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도 6세기 중반 이후로 영역지배를 위한 광역의 지방통치단위로 성격이 변한 州가 설정된다고 파악하고 있어, 이 글의 논지와 크게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朱甫曠(1998), 앞의 책, 83~84쪽; 全德在(2001), 「신라 중고기 주(州)의 성격변화와 군주」, 『역사와 현실』 40, 84~88쪽.

126) 예컨대 거점주의 경우 군사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주로 전방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영역주 전체를 관할하기에 편중된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역주에 파견된 민정관으로 보이는 (行)使大等の 존재가 주목된다. 全德在(2001), 위의 글, 87쪽.

치(移置)되었다(H-3). 하지만 법흥왕 11년(524)에는 다시 실직주가 된다(F-5). 그런데 ‘창녕비’에서는 ‘우추(于抽)·실직(悉直)·하서아군(何西阿郡)’이라 하여 군(郡)으로 표기되며, 거점주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¹²⁷⁾ 영역주로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¹²⁸⁾ 대체로 진평왕대에 하서주(河西州)라는 영역주가 설정된 듯하다.¹²⁹⁾ 한편 선덕여왕(善德女王)대에 하슬라소경(何瑟羅小京)이 설치된 듯 하며,¹³⁰⁾ 태종무열왕 5년(658)에 하서주가 설정되었고 경덕왕(景德王) 16년(757)에 명주(溟州)로 이름이 바뀌었다.¹³¹⁾

이렇듯 6세기에 촌을 기층단위로 하는 영역 지배방식으로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주가 설치되면서 하위 지방통치단위인 성·촌은 주에 영속되었다. 그런데 6세기 중반에는 주와 성·촌 중간에 위치하는 행정단위인 군이 설치되기 시작한다.¹³²⁾ 하지만 앞서 ‘성산산성 목간’의 검토에서 살펴본 대로 군이 설

127) 그런데, ‘봉평비’의 경우를 보면, 悉支에 軍主와 道使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郡과 거점주가 동일 지역에 있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128) 3군의 명칭을 연칭한 것은, 이 3군의 영역을 총괄하는 지역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영역주와 거의 같은 개념일 것이다. 다만 아직 군만을 칭한 것으로 볼 때, 영역주가 설치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129) 『三國史記』 卷40, 雜志9, 職官下, 武官 二弓條, “二弓 或云外弓 一曰漢山州弓尺 眞德王六年置 二曰河西州弓尺 眞平王二十年置 無衿.” 이 기사를 볼 때 늦어도 진평왕 20년(598)에는 河西州가 설치되었다.

130)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 5, 善德王 8年條, “春二月 以何瑟羅州爲北小京 命沙浪眞珠鎮之.”

131) 『三國史記』 卷35, 雜志4, 地理2, 新羅 溟州條, “溟州 本高句麗河西良[一作何瑟羅] 後屬新羅 善德王時 爲小京置仕臣 太宗王五年 唐顯慶三年 以何瑟羅地連靺鞨 罷京爲州 置軍主以鎮之 景德王十六年改爲溟州.”

132) 『三國史記』에서는 지증왕 6년에 郡을 설치하였다고 하지만(H-2), ‘봉평비’ 단계(524)까지는 군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명활산성비’나 ‘창녕비’에서는 郡의 존재가 확인되므로 6세기 중반에는 郡의 설치가 확실히 이루어진다. 한편 『삼국사기』에서 ‘봉평비’ 입비 이후 나타나는 최초의 郡 설치는 법흥왕 11년(532)이다. 『三國史記』 卷34, 雜志3, 地理1, 新羅 康州條, “咸安郡 法興王以大兵 滅阿尸良國[一云阿那加

치되었다고 해서 군이 성·촌을 행정적으로 관할한 것은 아니다.¹³³⁾ 이는 군이 설치될 당시에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역주가 보편화되면서 점차 군이 주와 성·촌 사이의 중간 행정단위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 그 결과 중고기 말부터 군에 태수(太守)를 파견하고, 그와 동시에 촌을 현(縣)으로 재편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이러한 단계에 들어서면 이제 ‘주-군-현’의 지방행정단위가 체계화되어 영역 지배체제가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라는 5세기에 고구려에 동해안 지역을 일시적으로 내어주었다가, 6세기 초에 다시 이 지역을 회복한다. 그리고 되찾은 동해안 지역에 대한 지배체제를 확고히 하는 과정에 기존의 간접 지배방식에서 벗어나, 지방관 파견을 통한 직접 지배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즉 기존의 거점 지배가 아닌 영역지배를 시도한 것이다. 이러한 영역지배를 관철한 결과, 6세기 말에 신라는 전 영토·전 인민을 동일한 제도로 다스리는, 율령제에 입각한 중앙집권적·영역적 고대국가가 되었다. 동해안 지역은 이러한 신라의 확장과 지방통치제도의 변화 양상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동해안 지역이 이른 시기부터 신라 중앙과 깊은 연관을 맺어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耶] 以其地爲郡 景德王改名.” 하지만 이 기사에서 멸망시켰다는 阿那加耶(곧 安羅國)는 562년까지 존재가 확인되므로 이 기년을 군의 최초 설치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23年條.

133) 全德在(2007), 「신라 중고기 지방행정과 郡의 성격」, 『韓國古代史研究』 48, 103~118쪽 참조.

IV. 맺음말

이상에서 신라가 영남의 동해안 지역에 진출하여 영역화하는 과정과 그 지배방식의 변화상을 살펴보았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신라는 3세기 중엽에서 4세기 초에 동해안 지역으로의 진출을 시작한다. 처음에는 동남해안 방면인 울산지역으로, 곧 이어 동북방면의 안강-포항으로 나아갔다. 문헌에는 이미 1세기에서 2세기 초에 이들 지역을 장악한 것으로 나오지만 고고학 발굴성과에 의한 물질문화의 양상, 그리고 『삼국지』 「동이전」에 나타나는 진한의 사회상을 고려하면 3세기 후반 이후로 보인다.

포항지역으로의 진출과 비슷한 시기에 신라는 울진지역까지 진출한 것으로 여겨진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는 안강-포항 지역을 손에 넣은 것과 거의 동시에 강원도 삼척지역까지 진출하였다. 포항에서 삼척까지의 거리가 상당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영덕~삼척 사이에 고고학적으로 대규모의 단위 정치세력이 존재한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진한지역의 소국들을 복속시키면서 동해안 지역으로 진출한 신라는 처음부터 이 지역을 직접 지배하는 영역으로 만들지는 않았다. 국읍의 수장층을 복속시키면서도, 그들의 재지 지배권을 온존시켜주며 간접 지배를 한 것이다. 다만 간접 지배에도 정도의 차이는 존재했다. 경주지역과 가까워 중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지역, 복속 과정에서 수장층이 완전히 몰락한 경우, 한 번 복속된 이후에 반란을 일으켜 재정벌되면서 재지 수장층이 그 지역에서 제거된 경우 등은 신라 중앙에 의해 다시 지배 수장층이 세워져 신

라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

한편 자발적 복속이나 거리가 멀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
의 경우 전통 재지 수장층의 지배력이 여전히 강고하여, 지방의 독자성이 더
강하게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주요 거
점만을 통제하고 그 주변 지역은 지방세력을 통해 통제하는 이러한 거점 지배
방식이 5세기까지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4세기 후반에 이르러 넓게 본다면 삼척·강릉까지를 권역으로 하는 울진
지역을—그 중심부는 울진보다는 강릉·삼척 쪽이라고 생각된다—장악하면
서 동해안 지역을 차지한 신라는, 영역 확장으로 동예지역을 장악한 고구려와
맞닥뜨리게 된다. 이에 신라는 강대한 고구려 세력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고구려와 일정 정도 종속적인 우호적 외교관계를 맺게 된다. 고구려는 신라지
역 내에 주둔한 고구려 군대의 위력을 기반으로, 간접 지배방식의 신라 세력
권에 침투하여 신라의 지배력을 약화시켜 나갔다.

5세기 중반에 이르러 신라는 고구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하고,
고구려에 대한 군사적 활동을 시작한다. 450년 실직지역에서 신라의 의지에
따라 고구려의 변장을 제거한 사건이 그 시작이다. 그러면서 기존의 동해안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복구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고
구려의 반발을 불러왔고, 고구려군의 남진이 시작되었다. 결국 포항지역까지
고구려군의 진군이 이루어지면서 신라는 동해안 지역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그러나 5세기 말 이후, 신라는 백제·가야와 연합전선을 구축하면서 점차
고구려를 몰아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6세기 초가 되면 다시 울진·삼척 지
역까지의 동해안 지역을 회복하였다. 동해안 지역을 둘러싼 고구려와의 전쟁
은 신라의 지방 지배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첫째, 다시 회복한 동해안 지역에서 신라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던 지역 사

회 내부의 저항 때문에 지배권을 재수립해야만 했다. 둘째, 고구려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라 중앙의 군사력만으로는 부족하여 지방민들도 총동원해야만 했다. 셋째, 고구려의 침입에 대비하여 변경의 주요 거점에 축성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지방민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고, 지방민에 대한 신라의 직접적인 통제가 일정 정도 시행되었다. 넷째, 4세기 이후 농업생산력의 발달은 기존의 소국 읍락의 전통적인 재지 지배력의 해체를 가져왔고, 나아가 개별 가호 단위의 조세 수취가 가능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즉 각 읍락이 중심세력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신라에 영속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제 신라는 동해안 지역을 다시 회복하면서 기존의 간접 지배, 즉 거점 지배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읍락을 성·촌으로 편제하고, 여기에 지방관인 도사(道使)를 파견하여 직접 통제하는 지배방식을 추구하였다. 이들 지역에 대한 직접 지배는 곧 영역지배의 형태로 발전한다. 즉 일정한 영역 안의 성·촌들을 포괄하는 광역의 통치단위를 성·촌의 상위 단위로 설정하게 된다. 먼저 군사적인 성격을 지닌 주(州)를 설치하고, 거기에 군사지휘관인 군주(軍主)를 지방관으로 파견하였는데 이것이 점차 광역의 행정단위로 기능하게 된다. 이러한 단계에 재지 수장층은 더 이상 지방의 독자적인 세력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신라의 외위를 받아 중앙에서 맡긴 임무를 수행하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

이어서 주 아래의 행정단위인 군(郡)도 6세기 중반 이후 설정되었다. 처음에는 주와 마찬가지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설치되어 행정적으로 하위의 성·촌과 연결되지 못하였지만, 점차 몇 개의 성·촌을 포괄하는 영역에 대한 행정단위로 변모해 나가면서, ‘주-군-성·촌(현)’이라는 지방통치단위가 완성된다.

이렇게 지방에 대한 영역적·직접적 지배체제가 확립되면, 신라는 전 영토와 영토 내의 모든 민을 동일한 제도로 다스리는 중앙집권적·영역적 고대국

가로 성립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신라의 중앙집권적·영역적 고대국가 형성 양상은 영남의 동해안 지역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신라 국가발전에서 동해안 지역이 차지하는 위치를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 참고문헌

〈사료〉

『三國史記』.

『三國志』.

『梁書』.

『晉書』.

『後漢書』.

〈보고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2007), 『함안 성산산성 출토목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2009), 『浦項 中城里新羅碑』.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편(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III,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저서〉

강중훈(2000), 『신라상고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宣石悅(2001), 『新羅國家成立過程研究』, 혜안.

李丙燾(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李鍾旭(1982), 『新羅國家形成史研究』, 一潮閣.

李賢惠(1984), 『三韓社會形成過程研究』, 一潮閣.

이희준(2007), 『신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全德在(1996), 『新羅六部階體制研究』, 一潮閣.

朱甫暉(1998), 『新羅 地方統治體制의 整備過程과 村落』, 신서원.

津田左右吉(1964), 『滿鮮歷史地理研究 1(津田左右吉全集 11)』, 岩波書店.

〈논문〉

姜鳳龍(1994), 「新羅 地方統治體制 研究」,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고광의(2009), 「포항 중성리신라비의 서체와 고신라 문자생활」, 『浦項 中城里新羅碑 발견기념 학술심포지엄 발표문』.
- 권인한(2009), 「포항 중성리신라비의 어문학적 검토」, 『浦項 中城里新羅碑 발견기념 학술심포지엄 발표문』.
- 김보상(2009), 「포항 중성리 신라비의 발견경위 및 향후 과제」, 『浦項 中城里新羅碑 발견기념 학술심포지엄 발표문』.
- 김영심(2004), 「웅진·사비시기 百濟의 領域」, 『古代 東亞細亞와 百濟』, 서경문화사.
- 金瑛河(1999), 「三國과 南北國時代의 東海岸地方」, 『韓國古代社會와 蔚珍地方』, 蔚珍郡·韓國古代史學會.
- 金在弘(1991), 「新羅 中古期の 村制와 지방사회 구조」, 『韓國史研究』 72.
- 김재홍(1996), 「신라[사로국]의 형성과 발전」, 『역사와 현실』 21.
- 金在弘(2000), 「新羅 中古期 村制의 成立과 地方社會構造」,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金在弘(2005), 「咸安 城山山城 出土 木簡과 촌락사회의 변화」, 『國史館論叢』 106.
- 金昌錫(2005), 「古代 領域 관념의 형성과 王土意識」, 『韓國史研究』 129.
- 김창석(2009), 「新羅 中古期の 奴人과 奴婢-城山山城 木簡과 『鳳坪碑』의 분석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54.
- 盧重國(1981), 「高句麗·百濟·新羅 사이의 力關係變化에 대한 一考察」, 『東方學志』 28.
- 盧重國(1999), 「고대 울진의 역사 개관」, 『韓國古代社會와 蔚珍地方』.
- 盧泰敦(1975), 「三國時代의 「部」에 關한 研究-成立과 構造를 中心으로」, 『韓國史論』 2.
- 朴宗基(2006), 「韓國 古代의 奴人과 部曲」, 『韓國古代史研究』 43.
- 선석열(2009), 「포항 중성리신라비의 금석학적 위치」, 『浦項 中城里新羅碑 발견기념 학술심포지엄 발표문』.
- 李明植(1989), 「蔚珍地方의 歷史·地理의 環境과 鳳坪新羅碑」, 『韓國古代史研究』 2.
- 李宇泰(1981), 「新羅의 村과 村主-三國時代를 中心으로」, 『韓國史論』 7.
- 李宇泰(1992), 「迎日冷水碑의 再檢討」, 『新羅文化』 9.
- 이우태(2009), 「포항 중성리신라비의 내용과 건립연대」, 『浦項 中城里新羅碑 발견기념 학술심포지엄 발표문』.

- 李鍾旭(1974), 「南山新城碑를 통하여 본 新羅의 地方統治體制」, 『歷史學報』 64.
- 李錫勳(1995), 「新羅 中古期 村落支配 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李宇泰(1991), 「新羅 中古期の 地方勢力 研究」,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한상(2000), 「4세기 전후 신라의 지방통제방식-분묘자료의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37.
- 李炯佑(1990), 「迎日地方의 歷史·地理的 考察」, 『韓國古代史研究』 3.
- 全德在(1990), 「新羅 州郡制의 成立背景研究」, 『韓國史論』 22.
- 전덕재(2001), 「신라 중고기 주(州)의 성격변화와 군주」, 『역사와 현실』 40.
- 전덕재(2007), 「신라 중고기 지방행정과 郡의 성격」, 『韓國古代史研究』 48.
- 全德在(2008),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연구현황과 쟁점」, 『新羅文化』 31.
- 차순철(2009), 「포항 흥해지방의 역사, 고고학적 고찰」, 『浦項 中城里新羅碑 발견기념 학술심포지엄 발표문』.

• 찾아보기

<ㄱ>

간접 지배 282, 284, 289

간지(干支) 289, 292

감문군주(甘文軍主) 294

감문주(甘文州) 294

감포(甘浦) 251

감포~정자치역 91

강사리고분군 91

거벌모라(居伐牟羅) 273

거점주 295

거점 지배 293, 295

거점 지배방식 16, 284

거칠산국(居柒山國) 254

격벽 106

경주 봉길리고분군 153

경주 봉길리 12호 181

경주산 토기 12

고구려 191, 192, 195, 198~200, 215,
216, 219~222, 225, 226, 235~238,
240, 241, 243, 244

관인 20

광개토왕릉비 276

괴시리고분군 89, 143, 169

괴시리 16호 152, 153

괴시리 16호분 69, 143

교통로 17

국읍(國邑) 283, 292

군(郡) 296

군사적 성격 220, 222, 225, 240

군주 279, 290, 291

금동관편 64

<ㄴ>

나무자루살포[木柄附鐵鏟] 147

남미지촌 273

냉수리고분 289

노인(奴人) 20, 274

노인법(奴人法) 273, 290

노인촌 273

농기구 14

<ㄷ>

다운동고분군 42

대보리고분군 65

덕신리고분군 74, 89, 172

덕신리 61호 141, 142

도사(道使) 273, 289, 290, 292
동래(東萊) 254
동예(東濊) 25, 138, 265, 275
동해(東海) 9
동해안 98
동해안 고분 축조 집단 191

〈口〉

말갈(靺鞨) 266
매장주체시설 89
목곽 91
목곽묘 13, 140, 141
목관묘 140
무기체계 15
물질자료 87
미실(彌實) 280
미질부 278

〈ㅂ〉

방어체제 51
本高句麗 郡縣 279
봉길리고분군 91, 167, 168, 169
봉길리 12호 목곽묘 167
북명 265
비리성군주(碑利城軍主) 294
비자벌군주 294

〈ㅅ〉

사로국 87
사벌주(沙伐州) 294
사인(使人) 290, 292
삼광리고분군 93
삼척(三陟) 256, 271
상주(上州) 291, 294
상주(尙州) 294
석우로 271
성산산성 목간 291, 296
성(城) 287
성주 287
성·촌 296
세장방형 95
쇠자루살포[鐵柄附鐵鏟] 147
쇠자루철서 150
수혈식석곽 91
수혈식석곽묘 13, 140, 141, 150, 152, 154
신라 87
신라양식 토기 77
신라의 무기체계 191, 192, 214, 215, 220, 244
신라토내당주(新羅土內幢主) 278
신현동고분 48
실지군주(悉支軍主) 273, 290
실지도사 273
실직(悉直) 296
실직곡국(悉直谷國) 255

실직국(悉直國) 271, 282
 실직주 279, 295
 <ㅇ>
 안강(安康) 256
 양동리고분군 93
 열세 99
 영남 동해안 지역 87
 영덕 괴시리 16호 적석목곽묘 169
 영역주 295, 296
 영역지배 16, 284, 293, 295
 영일냉수리신라비(迎日冷水里新羅碑) 252, 257, 288, 292
 예(滅) 265
 예왕인(滅王印) 265
 옥성리고분군 51, 90, 270
 와질토기 35
 왜(倭) 275
 용흥동고분 64
 우산국(于山國) 281
 우시산국(于尸山國) 254
 우유국(優由國) 271
 우유촌(于柚村) 271
 우진야현(于珍也縣) 270
 우추(于抽) 296
 우추군(于抽郡) 271
 운화리고분군 45
 울릉도(鬱陵島) 9, 10
 울산(蔚山) 251, 254
 울산 다운동 바지구 15호 수혈식석곽묘 155
 울산 봉길리 12호 목곽묘 164
 울산 일산리고분군 153
 울진 270, 290
 울진 덕신리 61호 수혈식석곽묘 172
 울진봉평신라비(蔚珍鳳坪新羅碑) 252, 271, 290, 292
 울진지역 88, 281
 유사적석목곽 91
 유사적석목곽묘 13
 6부(部) 251, 289
 울령 286, 290, 293
 울령제 297
 음즙벌국(音汁伐國) 255, 282
 읍남리고분군 172
 읍락(邑落) 283, 292
 의성토기 73
 이하(泥河) 278
 <ㅈ>
 자연촌 291, 292
 장방형 95
 적석목곽묘 13, 88, 141, 169
 제의의식(祭儀儀式) 74
 제해권(制海權) 18

주(州) 287, 293, 296
 주(州)·군(郡)·현(縣) 279, 286, 297
 중도유형문화 25
 중산리고분군 37
 중앙집권적·영역적 고대국가 297
 지방 지배방식 16
 직접 지배 284, 289, 292
 진술선예백장(晉率善穢伯長) 265
 진한왕 270

 <ㄸ>
 창녕신라진흥왕탁경비(昌寧新羅眞興王拓境碑)
 271, 294
 철서(鐵鋤) 148
 촌(村) 287, 291, 292
 촌주(村主) 289
 추가 매장 112
 충진재 107

 <ㄹ>
 태수(太守) 297

 <ㅍ>
 포항(浦項) 251, 256, 270, 288
 포항 옥성리 15호 목곽묘 157
 포항 옥성리 90호 수혈식석곽묘 157, 164
 포항중성리신라비(浦項中城里新羅碑) 252,

259, 264
 포항지역 89, 278
 포항 학천리 20호 목곽묘 156
 피장자 106

 <ㅎ>
 하대고분군 36
 하서아군(何西阿郡) 296
 하서주(河西州) 296
 하슬라성주(何瑟羅城主) 278
 하슬라주 281, 295
 하주(下州) 294
 하천수계(河川水系) 28
 학천리고분군 90
 학천리 목곽묘 149
 한성군주(漢城軍主) 294
 함안 성산산성 목간 291
 해척(海尺) 15
 행사대등(行使大等) 291, 294
 행정촌 291, 292
 황구식석실 91
 황구식석실묘 152
 황혈식석실 91, 147
 황혈식석실묘 154, 155
 효문동 울동고분군 39
 후기 와질토기 55
 흥해 256, 270, 288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35

4~6세기 영남 동해안 지역의 문화와 사회

초판 1쇄 인쇄 2009년 12월 11일

초판 1쇄 발행 2009년 12월 18일

지은이 이한상·홍보식·김재홍·우병철·홍승우

펴낸이 정재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77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7

e-mail book@historyfoundation.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09

ISBN 978-89-6187-167-9-93380

-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